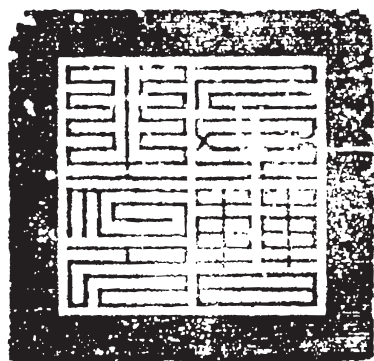


軍事文獻集 24

紀效新書(下)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軍事文獻集 24

紀效新書(下)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이 양 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금번 전통 병서 및 군사문헌에 대한 역간 사업의 일환으로 『기효신서』(하)를 번역·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방대한 분량의 『기효신서』를 상·하로 분책하여 발간하는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전통 군사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현대적 가치를 발견하여 오늘의 군사발전과 국가안보를 다지는 온고지신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미 지난 『기효신서』(상, 2011)에 소개한 바 있지만 『기효신서』는 임진왜란(1592~1598) 중에는 말할 것 없고 전후 250년간 조선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병서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와 군사교육 훈련이 바로 『기효신서』에 기초한 『병학지남』을 기본교재로 하여 개항 직전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효신서』는 조선 사회에서 비판도 많아 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소위 ‘척법논의(戚法論議)’의 결과는 영·정조대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 그야말로 조선적 병서의 완결판을 출현시켰던 것입니다. 조선의 통일적인 병법을 모색한 『병학통』과 조선의 무예를 24기로 집성한 『무예도보통지』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기효신서』는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의 군사발전과 조선적 병법의 형성을 견인한 시발이요 기폭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병법이 나오고 그것을 위하여 기울였던 제반 노력들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면 『기효신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이해의 작업은 현대 우리 군의 군사교리와 연구개발에도 동일한 교훈과 가치를 지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했듯이 모든 것이 예로부터 있어 왔고, 다시 그로부터 새로운 창신(創新)을 도모하는 것이 문명사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전통 병서와 군사적 지혜로부터 배우고 익혀서 오늘의 발전을 기약하는 자양분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소중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고전 병서 연구의 평생 적공(積工)으로 심혈을 기울여 『기효신서』(하)를 번역하신 해동경사연구소의 유재성(柳在城)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의 발간이 ‘민족군사’의 맥을 이어가는 전통병서의 역간 사업으로서 한국 군사사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 일러두기

- 국역의 범례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1998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영인본 『기효신서(紀效新書)』(下)이다. 위 영인본의 대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도서번호 奎中2207)으로 1664년(현종 5)에 처음으로 간행된 조선본(朝鮮本)이다.
2. 『기효신서(紀效新書)』(下)의 범위는 제11권 담기편(膽氣編)에서 제18권 별집 등단구수[別集 登壇口授]까지이며, 장·절의 편차는 원전의 구분에 따랐다.
3. 각 항목별 소항목의 표시방식으로 원전에는 없더라도 ‘■·◆·○’의 부호를 첨가하거나 원문자를 사용하여 독해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4. 가능한 한 원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접속사 및 최소한의 문장을 사용하여 독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① 대화체의 문장으로 구성된 부분에서는 “ ”를 생략하고 대화 형식을 취하는 문장구조로 대치하여 번역하였다.
 - ② 원저작자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서술했는데 조선본에서는 ‘그렇다’라는 의미로 둔갑된 경우, 또는 원저작자가 ‘그렇다’라는 의미로 서술했는데 조선본에서는 ‘아니다’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원본에는 그 뜻이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으나 조선본에서 난해하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서술된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원본 또는 조선본을 막론하고 한 단락의 문장이 너무 길면서 한 문장 안에 동일한 의미의 서술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문장을 과감하게 축약 정리하여 서술을 단순화하였다.
 - ④ 읽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그대로 번역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문장은, i) 원문을 일일이 축자(逐字) 번역하지 않고 대의만을 간략히 요약해서 번역하였으며, ii) 원문 번역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보충 설명문을 첨가해서 편역에 가깝게 번역하였다.

목 차

■ 발간사	
■ 일러두기	
■ 권11 담기편[膽氣篇]	27
■ 권12 주사편[舟師篇]	75
■ 권13 수초편[守哨篇]	201
■ 권14 연장편[練將篇]	257
■ 권15 별집 진도편[別集 陣圖篇]	341
■ 권16 별집 거영편[別集 車營篇]	409
■ 권17 별집 기영편[別集 騎營篇]	419
■ 권18 별집 등단구수[別集 登壇口授]	433

■ 『紀效新書』 목록(目錄)

◆ 제1권 속오편[束伍篇]

- 교습차례[敎習次第 : 교습하는 차례]
- 편오법[編伍法 : 대오를 편성하는 방법]
- 편오해[編伍解 : 대오 편성에 대한 해설]
- 명활법[明活法 :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
- 실복험[實復驗 : 시험과 평가를 충실히 함]
- 구모정[究冒頂 : 거짓으로 속여서 대리 입대하는 것을 밝힘]
- 편병패[編兵牌 : 병사들의 대오를 편성하는 패]
- 서사려[誓師旅 : 부대별로 맹세하는 글]
- 별칭호[別稱呼 : 칭호를 구별함]
- 분영해[分營解 : 진영 분리에 대한 해설]
- 한잡류[限雜流 : 잡류의 수에 대한 한도를 둠]
- 원선병[原選兵 : 병사 선발의 근본을 추구함]
- 조책적[造冊籍 : 책자와 문서를 만듦]
- 한보결[限補缺 : 결원 보충에 관한 한계를 정함]

◆ 제2권 이목편[耳目篇]

- 연호포[練號砲 : 호포에 대한 훈련]
- 기고해[旗鼓解 : 깃발과 북에 대한 해설]
- 연호적[練號笛 : 호적에 대한 훈련]
- 연나팔[練喇叭 : 나팔에 대한 훈련]
- 연발라[練唢囉 : 발라에 대한 훈련]
- 연라[練鑼 : 징에 대한 훈련]
- 연고[練鼓 : 북에 대한 훈련]

10 『紀效新書』(下)

- 연발[練鉞：술발에 대한 훈련]
- 연정[練鉦：징에 대한 훈련]
- 연기[練旗：깃발에 대한 훈련]
- 수발방[首發放：발방을 먼저 함]
- 발방도[發放圖：발방하는 도형]
- 연전령[練傳令：전령에 대한 훈련]
- 변기치[辨旗幟：기치를 분별함]
- 조개도[罩蓋圖：등불가리개 그림]
- 야영등제[夜營燈製：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의 제작]
- 야영등해[夜營燈解：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에 대한 해설]
- 대장기고해[大將旗鼓解：대장의 기고에 대한 해설]
- 당보기제[塘報旗製：당보기의 제원]
- 청도기제[淸道旗製：청도기의 제원]
- 금고기제[金鼓旗製：금고기의 제원]
- 문기제[門旗製：문기의 제원]
- 대오방기[大五方旗：대오방기의 해설]
- 중오방기[中五方旗：중오방기의 해설]
- 고조기제[高照旗製：고조기의 제원]
- 좌독제[左纛製：좌독기의 제원]
- 각기제[角旗製：각기의 제원]
- 대장청도[大將淸道：대장청도기의 해설]
- 금환화[禁喧嘩：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지함]

◆ 제3권 수족편[手足篇]

- 장기단용[長器短用：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함]
- 신기해[神器解：신기에 대한 해설]
- 수기해[授器解：병기 지급에 대한 해설]

- 조총제[鳥銃製 : 조총의 전체 제원]
- 조총해[鳥銃解 : 조총에 대한 해설]
- 화약제[火藥製 :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
- 호준포제[虎蹲砲製 : 호준포의 제원]
- 호준포해[虎蹲砲解 : 호준포에 대한 해설]
- 자총과 모총의 제원[子母銃製]
- 자모총해[子母銃解 : 자총과 모총에 대한 해설]
- 화전제[火箭製 : 불화살의 제원]
- 화전해[火箭解 : 불화살에 대한 해설]
- 궁시제[弓矢製 : 궁시의 제원]
- 실악사도[實握射圖 : 실제로 활을 쥐고 쏘는 도형]
- 궁시에 대한 해설[弓矢解]
- 지기해[指機解 : 활각지의 제원]
- 지기해[指機解 : 활각지에 대한 해설]
- 궁노제[弓弩製 : 궁노의 제원]
- 궁노해[弩解 : 쇠뇌에 대한 해설]
- 경과해[耕戈解 : 매복용 쇠뇌에 대한 해설]

◆ 제4권 수족편[手足篇]

- 단기장용해[短器長用解 : 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
- 등패제[籐牌製 : 등패의 제원]
- 등패에 대한 해설[籐牌解]
- 등패습법[籐牌習法 : 등패 연습 방법]
- 요도제[腰刀製 : 요도의 제원]
- 요도해[腰刀解 : 요도에 대한 해설]
- 표창제[鏢鎗製 : 표창의 제원]

12 『紀效新書』(下)

- 장도제[長刀製 : 장도의 제원]
- 장도해[長刀解 : 장도에 대한 해설]
- 왜서습법[倭書習法 : 왜구의 책에 있는 연습방법]
- 당과제[鎗鈚製 : 당과의 제원]
- 당과해[鎗鈚解 : 당과에 대한 해설]
- 당과습법[鎗鈚習法 : 당과의 연습 방법]
- 과법[鈚法 : 당과를 쓰는 법]
- 습과보법[習鈚步法 : 당과의 걸음걸이 연습방법]
- 낭선제[狼筈製 : 낭선의 제원]
- 낭선습법[狼筈習法 : 낭선의 연습 방법]
- 장창제[長槍製 : 장창의 제원]
- 장창해[長鎗解 : 장창에 대한 해설]
- 장창습법[長鎗習法 : 장창을 연습하는 방법]

◆ 제5권 수족편[手足篇]

- 대봉제[大棒製 : 대봉의 제원]
- 대봉해[大棒解 : 대봉에 대한 해설]
- 총결가[總訣歌 : 비결을 총괄한 노래]
- 총보목[總步目 : 보법의 총목록]
- 곤봉습법[棍棒習法 : 곤봉을 연습하는 방법]
- 권법해[拳法解 : 권법에 대한 해설]
- 권법도[拳法圖 : 권법에 대한 도형]
- 서기계[書器械 : 병장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 존교사[尊教師 : 교사를 존중하도록 함]
- 기화법[忌花法 : 화법을 꺼려함]
- 논향병[論鄉兵 : 지방 사람들로 편성된 병정에 대하여 논의함]
- 양전마[養戰馬 : 전투용 군마를 기름]

◆ 제6권 비교편[比較篇]

- 비무예해[比武藝解 : 무예 비교에 대한 해설]
- 권화병[勸火兵 : 화병을 권면함]
- 대비교[大比較 : 대규모로 무예를 비교함]
- 교화기[校火器 : 화기를 비교함]
- 수화기[收火器 : 화기의 수납 관리]
- 찰유실[察遺失 : 총기유실에 대한 감독]
- 계손폐[稽損廢 : 손실품과 폐품의 조사]
- 교원패[校圓牌 : 원패를 비교함]
- 교표창[校鏢槍 : 표창을 비교함]
- 교장도당과[校長刀鎗把 : 장도와 당과를 비교함]
- 교장창[校長槍 : 장창을 비교함]
- 교대봉[校大棒 : 대봉을 비교함]
- 교눌함[校吶喊 : 고함 소리를 비교함]
- 교마기[校磨旗 : 깃발 휘두르는 것을 비교함]
- 교타고[校打鼓 : 북 치는 것을 비교함]
- 비분구칙[比分九則 : 비교하고 구분하는 아홉 가지 법칙]
- 비잡류[比雜流 : 비정규 군속을 비교함]
- 비연좌[比連坐 : 연좌하여 비교함]
- 상벌책식[賞罰冊式 : 상벌에 관한 문서 양식]
- 분사습[分私習 : 부대를 나누어 무예를 스스로 익히게 함]
- 금화법[禁花法 : 화법을 금지함]
- 습예기[習藝期 : 무예를 익힐 수 있는 시기]
- 유차역[有差役 : 현지 주민에 대한 차역으로서 무예를 조련시킴]

◆ 제7권 영진편[營陣篇]

- 영진해[營陣解 : 영과 진에 대한 해설]

14 『紀效新書』(下)

- 영루해[營壘解 : 영루에 대한 해설]
- 원기해[圓機解 : 접적시 기밀 유지에 대한 해설]
- 근경마[謹驚馬 : 말이 놀라지 않도록 삼감]
- 치후기[治後期 : 집합 시기에 늦은 책임을 다스림]
- 계차피[稽差避 : 규정을 어기고 숨기는 것을 조사함]
- 정등위[正等威 : 부대의 등급과 위의를 바르게 함]
- 근영벽[謹營壁 : 영벽의 관리를 삼감]
- 엄영문[嚴營門 : 영문의 관리를 엄중히 함]
- 신계방[愼啓放 : 인원출입을 엄중히 관리함]
- 계출영[稽出營 :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살핌]
- 사군기[查軍器 : 병기 검사]
- 혁추차[革抽差 : 병력을 함부로 빼내는 것을 단속함]
- 노협일자행도극처우경거호포일성입정도[路狹一字行到極處遇警舉號砲一聲立定圖 : 길이 좁으면 일자로 나아가 막바지에 이르러 경계할 상황에 닥쳤을 때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부대를 정지시킨 도형]
- 방기초선출입표도[五方旗招先出立表圖 : 오방기와 초기가 먼저 나아가 표를 세우는 도형]
- 입표해[立表解 : 표기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해설]
- 부표해[附表解 : 부표에 대한 해설]
- 행영도[行營圖 : 진영설치도형]
- 일초삼기일기삼대평행도[一哨三旗一旗三隊平行圖 : 1개 초를 3개 기로 하고 1개 기를 3개 대로 편성하여 나란히 행군하는 도형]
- 일사오초행도[一司五哨行圖 : 1사를 5초로 편성하여 행군하는 도형]
- 열진도[列陣圖 : 진영을 배열하는 도형]
- 방영도[方營圖 : 방영의 도형]
- 복병해[伏兵解 : 복병에 대한 해설]

- 출전수변취어본진내설복도[出戰隨變就於本陣內設伏圖 : 출전하여 변화에 따라 본진 안에 복병을 설치하는 도형]
- 복병기출노영병급응원각병즉회신향전도[伏兵既出老營兵急應原却兵卽回身向前圖 : 복병이 이미 출전하고 주장이 위치한 본진의 병력이 급히 우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형세에 호응하면, 최초에 퇴각했던 병력이 즉시 몸을 돌이켜 전방을 향하여 공격하는 도형]
- 조복해[操伏解 : 복병대비훈련에 대한 해설]
- 칙복병[飭伏兵 : 복병에 대한 경계]
- 연설복도[練設伏圖 : 복병 배치 훈련에 대한 도형]
- 분련해[分練解 : 부대를 나누어 조련하는 데에 대한 해설]
- 원앙진도[鴛鴦陣圖 : 원앙진의 도형]
- 양의진변삼재진도[兩儀陣變三才陣圖 : 양의진을 삼재진으로 변형시키는 도형]
- 원앙진해[鴛鴦陣解 : 원앙진에 대한 해설]
- 영액해[營額解 : 진영의 인원수에 대한 해설]
- 야영해[夜營解 : 야간 숙영 훈련에 대한 해설]
- 조후해[操後解 : 조련이 끝난 뒤의 행동요령에 대한 해설]
- 야호해[夜號解 : 야간 암호에 대한 해설]
- 등화해[燈火解 : 등화에 대한 해설]
- 암영해[暗營解 : 암영에 대한 해설]
- 변보사[辨報事 : 보고할 사안을 분변함]
- 전야전[傳夜箭 : 야간의 신호로서 화살을 전달함]
- 하야영[下夜營 : 야간 진영을 설치함]
- 명암해[明暗解 : 명영과 암영에 대한 해설]
- 출야기[出夜奇 : 야간에 기병을 출격시킴]
- 경주해[更籌解 : 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
- 신갑도[身甲圖 : 몸에 입는 갑옷의 도형]

16 『紀效新書』(下)

- 신갑해[身甲解 : 갑옷에 대한 해설]
- 정대[鞓帶 : 허리띠]
- 두모도[兜牟圖 : 투구와 팔 보호대의 도형]
- 두모해[兜牟解 : 투구에 대한 해설]
- 비수해[臂手解 : 팔 보호대에 대한 해설]
- 안영거마제[安營拒馬製 : 진영 배치 후에 적 기병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 제조 방법]
- 거마해[拒馬解 : 거마에 대한 해설]
- 질려제[蒺藜製 : 마름쇠 제조 방법]
- 질려해[蒺藜解 : 마름쇠에 대한 해설]
- 귀전도[鬼箭圖 : 귀전의 도형]

◆ 제8권 행영편[行營篇]

- 연계행해[練啓行解 : 출정길에 오르는 과정을 훈련하는데 대한 해설]
- 결장식[結狀式 : 문서 작성의 격식]
- 상계행[詳啓行 : 출정길에 오르는 과정을 상세히 함]
- 일로변이로행영도[一路變二路行營圖 : 일로를 이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이로변삼로행영도[二路變三路行營圖 : 이로를 삼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삼로변사로행영도[三路變四路行營圖 : 삼로를 사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행암영해[暗營解 : 암영 설치에 대한 해설]
- 선봉해[選鋒解 : 정예병 선발에 대한 해설]
- 청화기[請火器 : 화기 지급 요청]

- 정보사[定報事 : 사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정함]
- 전호령[傳號令 : 명령과 지시의 전달]
- 청행오[淸行伍 : 행군 대열의 정리정돈]
- 금장령[禁將領 : 장수가 어겨서는 안될 금지사항]
- 방해수[防解手 : 대열에서의 이탈을 방지함]
- 수병핍[收病乏 : 병들어서 지친 자를 거둠]
- 근도유[謹途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룸]
- 도수조[渡水阻 : 물길이 막힌 곳을 건너감]
- 변분병[辨分兵 : 분산해서 나가는 부대를 분별함]
- 우산림[遇山林 : 행군중에 산림을 만났을 경우의 조치 방법]
- 우졸경[遇卒警 : 갑작스런 경계상황에 닥쳤을 경우의 대처 방법]
- 봉괴이[逢怪異 : 괴이한 상황에 부딪침]
- 엄초법[嚴哨法 : 초계근무 방법을 엄중히 관리함]
- 밀군기[密軍機 : 군사기밀을 엄밀히 유지함]
- 연부중[練負重 : 휴대품의 중량에 대한 훈련]
- 비건초[備乾炒 : 말리고 볶은 식량의 준비]
- 임숙해[任宿解 : 유숙할 장소를 마련하는 절차에 대한 해설]
- 발순시[撥巡視 : 순시기를 다스림]
- 변간세[辨奸細 : 간첩과 세작을 분별함]
- 방무역[防貿易 : 무역을 방지함]
- 신군령[申軍令 : 군령을 명백히 밝힘]
- 발야순[撥夜巡 : 야간 순찰 관리 운용]
- 육병주행해[陸兵舟行解 : 육군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를 해설함]
- 연계행[練啓行 : 출발시점의 연습]
- 분영종[分營踪 : 선박으로 구성된 진영을 나눔]
- 명경고[明更鼓 : 밤 시각을 알리는 북의 신호를 분명히 함]
- 발방호[撥防護 : 방호체계를 운용함]

◆ 제9권 야영편[野營篇]

- 차야영해[筭野營解 : 야영 설치에 대한 해설]
- 한소수[限蔬水 : 채소를 사들여오고 물을 길어오는 시간을 제한함]
- 정초채[定樵採 : 땔나무를 채취하는 규정을 둠]
- 발복로[撥伏路 : (복병)을 운용함]
- 금환동[禁喧動 : 시끄럽게 떠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함]
- 알인축[遏人畜 : 사람과 가축의 접근을 막음]
- 방축소[放廁所 : 축간을 이용하는 요령]
- 변순전[辨巡箭 : 순찰용 화살을 분별함]
- 중야령[重夜令 : 야간 군령을 엄중히 함]
- 하암영[下暗營 : 암영을 설치함]
- 명재발[두번째의 명령하달을 명백히 함]

◆ 제10권 실전편[實戰篇]

- 계총수[戒銃手 : 총수에 대한 경계]
- 징허총[懲虛銃 : 공포 발사에 대한 징계]
- 신연좌[申連坐 : 연좌제도를 명백히 함]
- 신전구[申戰穀 : 전투의 원칙을 분명히 함]
- 책구응[責救應 : 호응하여 구원하는 책임을 추궁함]
- 홀진망[恤陣亡 : 싸움터에서 죽은이를 보살핌]
- 기배상[棄背傷 : 등 뒤에 부상을 입은 자는 버림]
- 제사심[齊士心 : 군사들의 마음을 정제시킴]
- 공적자[公賊貲 : 적의 재물을 공유함]
- 원군법[原軍法 : 군법을 명확히 함]
- 벌고피[罰故避 : 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처벌함]
- 금사수[禁私讐 : 사사로이 원수갚는 것을 금지함]

- 처수함[處水陷 : 깊은 하천과 마주쳤을 경우]
- 경산곡[經山谷 : 산골짜기를 지나감]
- 사기고[死旗鼓 : 기고와 함께 죽음]
- 실전마[失戰馬 : 전마를 상실함]
- 정추병[整追兵 : 추격 병력을 정비함]
- 분영공[分零功 : 영세한 공로를 구분함]
- 보진항[保陣降 : 전진에서 항복하는 자를 보호함]
- 형부간[刑俘姦 : 포로를 간음한 자를 처벌함]
- 신망살[愼妄殺 : 함부로 죽이는 것을 삼감]
- 전후육책[戰後六冊 : 전후에 이루어져야 할 여섯 가지 보상계획]
- 보전상[報戰傷 : 전상자에 대한 보상]
- 보진망[報陣亡 : 전사자에 대한 보상]
- 보공급[報功級 : 적의 수급을 획득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인구[報人口 : 적의 포로를 포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군기[報軍器 : 적의 군기를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마필[報馬匹 : 적의 마필을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제11권 담기편[膽氣篇]

- 담기해[膽氣解 : 담기에 대한 해설]
- 원감소[原感召 : 원한과 소원을 분명히 가림]
- 원입신[原立信 : 신의를 분명히 세움]
- 사환양[思參養 : 기르고 관리할 것을 생각함]
- 준절제[遵節制 : 절제를 따름]
- 신구이[信口耳 : 입과 귀를 믿음]
- 신약속[申約束 : 약속을 분명히 함]
- 습정구[習正穀 : 전술의 원칙을 익힘]
- 상책성[詳責成 :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힘]

- 수군례[守軍禮 : 군례를 지킴]
- 정명법[正名法 : 명분과 법규를 바로잡음]
- 금맥월[禁驀越 : 뛰어넘음을 금지함]
- 계공과[稽功過 : 공로와 과실을 살핌]
- 금이령[禁二令 : 두 가지 명령을 금함]
- 원군예[原羣藝 : 집단 전기를 분명히 함]
- 신군기[申軍紀 : 군기를 분명히 함]
- 공상벌[公賞罰 : 상벌을 공정히 함]
- 달사정[達士情 : 사졸들의 사정을 숙지함]
- 순사욕[循士慾 : 사졸들이 바라는 바에 따름]
- 집일차[戢溢差 : 교만하고 넘침을 단속함]
- 체초범[體初犯 : 초범을 참작함]
- 홀병상[恤病傷 : 병상자를 구휼함]
- 분군향[分軍餉 : 군향을 고루 분배함]
- 입도약[立逃約 : 도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움]
- 보군한[補軍限 : 군비의 한도를 보충함]
- 의포국[擬捕鞠 : 체포와 심문을 헤아림]
- 명구섭[明句攝 : 공무 처리를 명백히 함]
- 엄도령[嚴途令 : 행군도상의 군령을 엄히 함]
- 권함인[勸涵忍 : 관용과 인내를 권면함]
- 금절도[禁竊盜 : 절도를 금함]
- 금박혁[禁博奕 : 장기 바둑을 금함]
- 금괴의[禁乖議 : 비정상적인 논의를 금함]
- 계거상[戒居常 : 평상시의 행동거지를 경계함]
- 원분수[原分數 : 분수를 명백히 함]

◆ 제12권 주사편[舟師篇]

- 속오해[束伍解 : 속오에 대한 해설]
- 기색해[旗色解 : 기색에 대한 해설]
- 호대색[號帶色 : 호대의 색]
- 대장기식[隊長旗式 : 대장기의 격식]
- 책성해[責成解 : 책임추궁에 대한 해설]
- 편병해[編兵解 : 부대 편성에 대한 해설]
- 대기식[大旗式 : 대기의 격식]
- 강열시도[缸閱視圖 : 전함 사열의 도형]
- 수기총해[授器總解 : 병기 지급에 대한 총괄적 해설]
- 수기해[授器解 : 병기 지급에 대한 해설]
- 강정제[缸艇製 : 강정의 제원]
- 화기총해[火器總解 : 화기에 대한 총괄적 해설]
- 신비포제[神飛砲製 : 신비포의 제원]
- 신비포해[神飛砲解 : 신비포에 대한 해설]
- 육합총제[六合銃製 : 육합총의 제원]
- 육합총해[六合銃解 : 육합총에 대한 해설]
- 불랑기제[佛狼機製 : 불랑기의 제원]
- 불랑기해[佛狼機解 : 불랑기에 대한 해설]
- 삼비제[三飛製 : 삼비의 제원]
- 삼비해[三飛解 : 삼비에 대한 해설]
- 분통제[噴筒製 : 분통의 제원]
- 분통해[噴筒解 : 분통에 대한 해설]
- 화통제[火桶製 : 화통의 제원]
- 화통해[火桶解 : 화통에 대한 해설]
- 구겸제[鉤鎌製 : 구겸의 제원]
- 구겸해[鉤鎌解 : 구겸에 대한 해설]

- 요구제[撓鉤製 : 요구의 제원]
- 요구해[撓鉤解 : 요구]
- 이두표해[犁頭鏢解 : 이두표창에 대한 해설]
- 소표제[小鏢製 : 소형표창의 제원]
- 소표해[小鏢解 : 소형표창에 대한 해설]
- 고망제[罟網製 : 고망의 제원]
- 고망해[罟網解 : 고망에 대한 해설]
- 주사호령[舟師號令 : 수군선단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열영도[閱營圖 : 진영사열의 도형]
- 수조해[水操解 : 수군 조련에 대한 해설]
- 발강호령[發缸號令 : 선박 출발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행박호령[行泊號令 : 출동 정박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야행호령[夜行號令 : 야간출동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수전호령[水戰號令 : 수전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조석가[潮汐歌 : 조석의 노래]
- 태양가[太陽歌 : 태양의 노래]
- 인시가[時歌 : 인시의 노래]
- 조신가[潮信歌 : 조신의 노래]
- 풍도가[風濤歌 : 풍도의 노래]
- 수병육조[水陸操水 : 수군을 육제에서 조련함]
- 장내열도[場內列圖 : 장내의 대열편성 도형]

◆ 제13권 수초편[守哨篇]

- 성제[城製 : 성곽의 제원]
- 성해[城解 : 성곽에 대한 해설]
- 치제[雉製 : 치의 제원]

- 치해[雉解 : 치에 대한 해설]
- 현안제[懸眼製 : 현안의 제원]
- 현안해[懸眼解 : 현안에 대한 해설]
- 타구전제[垛口塼製 : 타구전의 제원]
- 타구전해[垛口塼解 : 타구전에 대한 해설]
- 중문루제[重門樓製 : 중문루의 제원]
- 중문루해[重門樓解 : 중문루에 대한 해설]
- 웅성문제[甕城門製 : 웅성문의 제원]
- 웅성문해[甕城門解 : 웅성문에 대한 해설]
- 기성포제[騎城舖製 : 기성포의 제원]
- 기성포해[騎城舖解 : 기성포에 대한 해설]
- 와포제[窩舖製 : 와포의 제원]
- 와포해[窩舖解 : 와포에 대한 해설]
- 우마장제[牛馬牆製 : 우마장의 제원]
- 우마장해[牛馬牆解 : 우마장에 대한 해설]
- 성하해[城河解 : 성하에 대한 해설]
- 성기해[城忌解 : 성기에 대한 해설]
- 군화기[軍火器 : 군용 화기]
- 쾌창제[快槍製 : 쾌창의 제원]
- 쾌창해[快槍解 : 쾌창에 대한 해설]
- 성면초창[城面草廠 : 성면의 움집]
- 현등제[懸燈製 : 현등의 제원]
- 현등해[懸燈解 : 현등에 대한 해설]
- 표석제[飄石製 : 표석의 제원]
- 표석해[飄石解 : 표석에 대한 해설]
- 입중군해[立中軍解 : 중군을 세우는 데에 대한 해설]
- 복로해[伏路解 : 복로군에 대한 해설]
- 파수해[派守解 : 파수에 대한 해설]

- 수성호령[守城號令 : 수성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연수성[練守城 : 수성 훈련]
- 수야해[守夜解 : 야간 수비에 대한 해설]
- 수성군법[守城軍法 : 수성에 관한 군법]
- 초료법[哨瞭法 : 초계하고 적정을 살피는 방법]
- 둔후제[墩堠製 : 둔후의 제원]
- 봉후해[烽堠解 : 봉후에 대한 해설]
- 설관집[設官什 : 관용 집물의 설치]
- 칙둔관[飭墩官 : 둔관을 단속함]
- 보경호령[報警號令 : 경계경보상황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주보군법[走報軍法 : 정보 보고에 관한 군법]
- 사점법식[查點法式 : 사열과 점검의 법식]

◆ 제14권 연장편[鍊將篇]

- 정심술[正心術 : 심술을 바르게 함]
- 입지향[立志向 : 지향하는 바를 세움]
- 명사생[明死生 : 죽음과 삶을 명백히 함]
- 변이해[辨利害 : 이해를 분변함]
- 주호인[做好人 : 호인이 됨]
- 견조수[堅操守 : 조행을 굳게 지킴]
- 관도량[寬度量 : 도량을 넓힘]
- 상겸허[尙謙虛 : 겸허를 숭상함]
- 석관잠[惜官箴 : 관의 법규를 엄수함]
- 근직업[勤職業 : 직무에 충실함]
- 변효법[辨效法 : 효과가 뛰어난 법을 분변함]
- 정병법[精兵法 : 병법에 정통함]

- 습무예[習武藝 : 무예를 익힘]
- 정명분[正名分 : 명분을 바르게 함]
- 애사졸[愛士卒 : 사졸을 사랑함]
- 교사졸[敎士卒 : 사졸을 가르침]
- 칙은위[飭恩威 : 은혜와 위엄으로 단속함]
- 엄절제[嚴節制 : 절제를 엄격히 함]
- 변직수[辨職守 : 직무 수행을 분변함]
- 징성색[懲聲色 : 성색을 경계함]
- 경화리[輕貨利 : 재물의 이익을 가볍게 여김]
- 기강팍[忌剛愎 : 강팍함을 꺼림]
- 오승인[惡勝人 : 남을 이기기를 싫어함]
- 계봉영[戒逢迎 : 아침과 영합을 경계함]
- 기위미[忌委靡 : 직무의 유기를 꺼림]
- 박공명[薄功名 : 공명을 하찮게 여김]
- 연장혹문[練將或問 : 장수의 자질 연마에 대한 어떤 이의 물음]

◆ 제15권 별집 진도편[別集 陣圖篇]

- 팔진총도[八陣總圖]
- 천복진[天覆陣]
- 지재진[地載陣]
- 풍양진[風陽陣]
- 운수진[雲垂陣]
- 용비진[龍飛陣]
- 호익진[虎翼陣]
- 조상진[鳥翔陣]
- 사반진[蛇蟠陣]

- 변진전도[變陣全圖]
- 낭아진[狼牙陣]
- 뇌굉진[雷轟陣]
- 변진도해[變陣圖解 : 변진도해]
- 낭아진해[狼牙陣解 : 낭아진에 대한 해설]
- 뇌굉진해[雷轟陣解 : 뇌굉진에 대한 해설]
- 유병론[遊兵論 : 유병에 대해서 논함]
- 연금기도[演禽旗圖]
- 육정기도[六丁旗圖]
- 육갑기도[六甲旗圖]

◆ 제16권 별집 거영편[別集 車營篇]

- 거영도[車營圖 : 거영의 도형]
- 거영해[車營解 : 거영에 대한 해설]

◆ 제17권 별집 기영편[別集 騎營篇]

- 마병대도[馬兵隊圖 : 마병대의 도형]
- 기영도[騎營圖 : 기병진영의 도형]
- 기영해[騎營解 : 기병진영에 대한 해설]
- 치중거도[輜重車圖 : 치중거의 도형]
- 치중영도[輜重營圖 : 치중진영의 도형]
- 치중영해[輜重營解 : 치중진영에 대한 해설]

◆ 제18권 별집 등단구수[別集 登壇口授]

[紀效新書(下)]

권11 담기편[膽氣篇]

■ 권11 담기편[膽氣篇]

인생은 비록 처지가 서로 다르고 병법(兵法)은 비록 그 안에 여러 가지 술수(術數)가 있으나, 담기(膽氣)는 몸 속에 갖추어져 있어, 이치는 마음을 갖추고 마음은 기(氣)를 통어(統御)하니, 기는 쓰기에 따라서 다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만인(萬人)을 합하여 한마음으로 만드는 것은 장수(將帥)의 도리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이(倭夷)와 호로(胡虜)는 험이(險易)함과 강대(強大) 각각 다르니, 그 누가 이를 하나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협박(脅迫)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이익이 있으면 스스로 싸울 뿐이다. 시험 삼아서 여러 늙은이와 어린아이들 수백 수십 명을 앞에 두고 금전(金錢)을 땅에 던져두고서 그것을 스스로 취하게 내버려두면 그 누가 앞을 다투지 않겠는가? 만약 모두가 우리 손아귀로 돌아온다면 물려서겠는가? 대저 아군은 국가를 위하여 일함에 있어서 몸을 버리면서 방어의 임무를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보기를 마치 진(秦)나라 사람이 월(越)나라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남의 일같이 여기니, 의지할 바는 조정의 길러줌과 국가의 법령(法令)과 기강(紀綱)뿐이다.

법령과 기강으로 그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길러줌으로 그 무리를 휘모아칠 수 있으나, 이치와 형세가 똑같기가 어렵고 작용함이 스스로 다르니, 담기(膽氣)를 단련하는 것이 바로 조련(操練)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일체의 호령(號令:지휘명령)은 가장 간단 명료하여야 한다. 지금 마땅히 이 책을 간행 지급하여 긴 밤과 맑은 낮에 매 대(隊)가 한곳에 모여서 문자를 아는 자가 읽고, 문자를 모르는 자는 문자를 아는 자를 따라서 외우고 말하여 순전(純全)하게 익힘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련에 임했을 때와 적과 맞닥뜨렸을 적에 이를 실행에 옮겨 운용해야 한다.

명확히 읽어서 이를 기억하지 않고 뒤에 조사하고 검열할 때를 당하여 한 조항을 기억하지 못하면 일단 책임을 묻는다. 만약 각 병사가 작은 실수를 범하면 마땅히 그 책임을 징계한다. 능히 다섯 조를 기억하면 한번 면제해 주어 이로써 차등을 삼아 점차 이를 유도하여 끌어들이면 그 많음을 실증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차례하여 담기편(膽氣篇)을 두었다.

■ 담기해[膽氣解 : 담기에 대한 해설]

대저 사람이 이 몸이 있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기(氣)를 발(發)할 적에는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진기(眞氣)가 되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일어나는 것은 객기(客氣)가 되며, 마음을 수련하면 기가 저절로 굳세어진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¹⁾ 하였으니, 이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또 말씀하기를, “의지가 한결같으면 기(氣)가 움직이고, 기가 한결같으면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니, 지금 넘어지는 자와 달리는 자, 이것은 기(氣)이나, 도리어 그 마음을 동요하게 된다.”²⁾고 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그 마음을 발하면 이 마음은 내기(內氣)이며, 이 기는 외심(外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진기(眞氣)가 되면 기운에서 나온 것이 진용(眞勇)이 된다. 이 때문에 교장(敎場)에서 진영(陣營)을 운용하고, 군사의 대열에서 무예(武藝)를 연습하되 금고(金鼓)로써 이목(耳目)을 인도하고, 형명(形名)으로써 용감하고 겁이 많음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1) 나는 ... 잘 기른다 : 《맹자(孟子)》〈공손추장구 상(公孫丑章句上)〉

2) 의지가 ... 동요하게 된다 : 《맹자(孟子)》〈공손추장구 상(公孫丑章句上)〉

이는 모두 병법(兵法) 가운데의 한 가지 일로서, 마치 사람의 오관(五官)³⁾과 열 손가락, 팔다리와 온 뼈마디, 살가죽과 털, 그리고 수염과 눈썹, 이빨과 손·발톱 등속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한치 한가닥을 살펴보아도 조금치나마 손상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한 대머리와 소경과 앓은뱅이와 병어리와 손가락이 짧은 자와 절름발이와 창병(瘡病)환자 따위와 같은 것이 있으니, 이는 진실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또한 이 병들은 그 사람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으니, 어째서인가? 이는 모두가 죽을 지경에 이를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삼군(三軍)의 정령(政令)과 행오(行伍)의 호령(號令)과 기고(旗鼓)와 기예(技藝)의 분수(分數)와 같은 것이다. 사소한 한 가지 일이 진실로 만전의 대책을 갖춘 군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소한 한 가지 일이 진실로 아주 완전무결한 군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소한 한 가지 일이 또한 한 싸움에서의 승리를 하게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대세(大勢)에 관계되는 것은 기(氣)에 달려 있어서 안으로 마음에 속해 있으니, 마음이 관계하는 바는 바로神明(神明)이 감응(感應)하는 바이며, 자연이 상응(相應)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처벌하여 천만인을 따르게 함은 바로 마음을 처벌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표창하여 천만인을 분발하게 함은 바로 마음을 표창하는 것이다. 성내지 않으면서 위엄(威嚴)을 보이니, 어찌 도끼와 칼의 힘이라 하겠는가? 말하지 않으면서 신의(信義)를 보이니, 어찌 황금과 비단의 은혜라 하겠는가?

죽음을 보기를 마치 제 집으로 돌아가듯이 여기니, 이는 그 마음을 얻은 것이다. 적을 보기를 원수보듯이 여기니, 이는 그 마음을 함께한 것이다. 진실로 마음에서 구하지 않고 기(氣)에서 구하려고 힘써야 한다.

3) 오관(五官) : 오감(五感)을 맡는 기관(器官). 눈, 코, 귀, 혀, 살갓. 오감의 작용(作用), 귀, 눈, 코, 입, 마음을 말함

진실로 북방(北方)의 군사는 날쌔고 사나우며 굳세고 용맹하니, 그 기를 누가 이기겠는가? 옛날에 강남(江南)의 오(吳) 땅에서 인민(人民)들을 불러 공공(公共)의 일을 시킴에 한 번 실패하여 다시 떨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개 그 발휘하여 용기를 삼은 것이 바로 밖에 있는 허황된 기(氣)였고, 마음을 근본으로 한 진기(眞氣)가 아니었기 때문에서였다.

기가 마음을 근본으로 하면 백번 실패하여도 좌절하지 않아서 천하가 당해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장군과 사병들이 안위를 함께 하고, 하나로 뭉쳐 분산되지 않아 현재 처한 상황에서도 천하(天下)에 대적할 자 없는 ‘부자지병(父子之兵)’⁴⁾이라는 것이다.

나는 동남지방에서 군대를 총독(總督)할 때를 당하여 여러 영(營)과 오(伍) 가운데에 있으면서 분하고 원통하게 여긴지 오래였으나 아직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그 쌓인 기운이 지나치게 넘치게 해서는 안된다. 그 쌓인 기운이 넘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뒤엎어 그 호령을 가볍게 보아 적의 계략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오직 병사가 용감하지 않음이 근심거리임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용감함이 지나치게 넘쳐도 쓸 수가 없음을 아는 이는 드문 것이다.

군사를 잘 거느리는 자는 어떻게 그 심신(心身)을 연마시키는가? 이는 다름 아닌 몸소 거느리는 방법일 뿐인 것이다. 충의(忠義)의 도리를 부르짖고 늘 술선하여 성심(誠心)으로써 성의에 감동되게 하고, 마치 갓난아이와 병어리를 음식으로 위해주고 질병을 낫게 해서 보살피주며, 환난(患難)을 구휼(救恤)해서 위해주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해서 위해주면 저들과 함께 정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부자지병(父子之兵): 이에 대해서는 《오자(吳子)》〈치병편(治兵篇)〉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군사들과 함께 편안하고 군사들과 함께 위태로울 수가 있어 병력을 모을 수는 있으나 분리시킬 수는 없고 운용할 수는 있으나 지치게 할 수가 없어서 병력을 투입하여 쳐들어가는 곳에 천하가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부자지병(父子之兵)’이라 하는 것이다.[與之安 與之危 其衆 可合而不可離 可用而不可疲 投之所在 天下莫當 名曰父子之兵]”

병사들은 마치 갓난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소통시키지 못하고 병어리가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군사를 잘 거느리는 자는 그 마음이 발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를 위해 주며, 그 입이 말을 꺼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이를 위해 도모해 주어야 한다. 지성스럽게 군부(君父)를 위해 지켜야 할 의리(義理)와 화복(禍福)을 분별하여 수명의 길고 짧음의 분수와 죽음과 삶의 이치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로 하여금 충의에 익숙해져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그것을 영광과 이로움으로 삼게 해 주어야 한다.

어찌하여 세상의 사정은 죽음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인가? 반드시 일정한 시기가 없는 상(賞)으로 이를 권면하고 부월(斧鉞)의 위엄으로 이를 행하여야 하니, 나의 인의(仁義)는 그 가운데에서 이를 근본으로 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항상 훈련하는 습관일 뿐이니, 과연 적과 맞서서 이것을 운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진짜 상벌(賞罰)로 단련시키는 정미(精微)한 부분에 또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군사를 잘 조련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氣)와 성(性)으로 생기 있고 힘이 넘치며, 시원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기도 하고, 혹은 조용히 여유롭게 움직이도록 하기도 한다. 혹은 수고롭게 움직이도록 하기도 하고 쉬게 하기도 하여 모두 일정한 격식이 없다. 혹은 서로 그 마음의 상태를 같게 하기도 하고, 그 동정(動靜)을 살펴서 절제(節制)하여 알맞게 쓰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족(手足)과 호령(號令)을 훈련하는 것은 쉽고, 심담(心膽)을 훈련하는 것은 어렵다. 형체가 있는 훈련은 쉽고 형체가 없는 훈련은 묘하니, 능히 훈련하여 그 기성(氣性)으로 하여금 생기있고 힘차며 시원스럽게 움직여 반드시 그 마음을 거두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다투어 싸우게 될 것이다.

또 훈련된 듯한 자가 가장 훈련에 해로움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온 별판에 흠어져 시끄럽게 떠들어대어 마치 성기(性氣)가 생기있고 힘차며 시원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괴롭게 여기며 떨치지 아니하면서도, 마음에 다투어 싸우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장수된 자는 이에 대한 분별을 엄격히 하여야 하니, 이것을 알면 가히 병법(兵法)과 도략(韜略)의 비결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냥꾼이 매와 양을 기르는 것은 진실로 하찮은 재주이다. 그러나 거느림에 있어서는 용병(用兵)과 비슷함이 있지 않은가?

또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인정(人情)이다. 군사를 거느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기를 즐거워하고 살기를 싫어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인정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그 중에 살 길이 있으니,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여 그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요행히 그 삶을 얻으니, 진실로 삶을 싫어하고 반드시 죽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은상(恩賞)이라는 것은 오직 금백(金帛)으로 은혜(恩惠)를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또한 가히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위엄(威嚴)으로 벌을 주는 것은 형장(刑杖)으로 위엄을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비록 한마디의 말, 한 번의 침묵이라도 또한 가히 위엄이 될 수 있고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장(敎場)에서 부대를 배열하거나, 출정명령을 내리거나, 다수 인원을 늘어세우는 것을 조련(操練)이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알고 있는 일이다. 특별히 교장에서의 조련(操練)을 모른다 할지라도 금고(金鼓)를 울려 신호를 전달하고 사격 연습과 타격(打擊), 척수(刺手) 등 기예(技藝)의 능력만을 훈련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인가(人家)의 방문이나 내원(內院)의 장내(牆內)에서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교장을 설치하여 조련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병사가 각 가정에서 쉴 적에 기꺼이 반드시 적을 죽이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기(銳氣)를 길러 쌓으며, 군장(軍裝)을 수습하여 다스리고, 법령(法令)을 강명(講明)하여 정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맺는다면, 비록 조용한 여염(閭閻)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를 조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은미(隱微)하도다. 은미하도다. 묘하여 측량할 수 없도다. 신기하도다. 신기하도다. 아득하고 또 아득하구나.”

사람들은 이것을 핑계대어 말하기를 ‘궁마(弓馬)의 기예(技藝)는 조잡한 채주로 무부(武夫)가 혈기(血氣)로써 하는 기예이니, 아!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가 하면, 또 말하기를 ‘그대의 용병(用兵)은 너무나 절제를 좋아하니 절제에만 힘쓰면 무엇을 따라 손을 쓰겠는가?’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속오(束伍)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지휘명령 신호인 호령(號令)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병기의 사용법을 가르치는데, 은미하고 권한이 무거우니, 어찌 전할 수 없겠는가? 경적(經籍) 가운데에서 그 정화(精華)를 채택하여 그 뜻을 스승으로 삼아 집착하지 않으니, 실질을 중시하면서도 그 지식을 배양하여 자신을 가늠하는 저울대로 삼고 변화와 추이에 통달하여 참된 무예(武藝)의 경지로 나아가 곧바로 상승(上昇)의 경지를 취해야 한다.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싸우는 것은 바로 나를 이기는 것이다.’⁵⁾라고 하였으니, 행오(行伍)를 ‘어리석은 병졸이므로 감동시켜 소통하게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재능 없는 필부(匹夫)의 작은 용기에 의지하여 요행히 기회를 엿보아 술수(術數)를 써서 요행히 하나를 적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5) 내가 것이다 : 이 말은 《논어(論語)》〈안연편(顏淵篇)〉의 “나를 이겨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니, 하룻동안이라도 나를 이겨 예(禮)로 돌아가면 천하(天下)가 인(仁)으로 돌아간다.[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는 말을 전거로 한 것이다.

■ 원감소[原感召 : 원한과 소원을 분명히 가림]

대저 법령(法令) 없는 다스림과 벌(罰)하지 않는 위엄(威嚴)으로 땅을 구획하여 지키고, 상(賞)을 주지 않고서 권면(勸勉)하는 것이 바로 신무(神武)이다. 그러나 귀천(貴賤)으로 기쁨을 달리하고 존비(尊卑)로 지위를 달리하니, 어찌 이 지혜의 힘과 위엄있는 기세를 다하여 능히 이를 몰아부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고금(古今)에 있어서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로움에 구별 없이 왕후(王侯)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매한가지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민심(民心)은 어리석으나, 신은 오직 나와 맺어진 행오(行伍)와 같이하여 오(伍)와 행(行)으로 함께 감응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입장을 확실히 하여 안정되게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고통스러움을 보면서도 그 위태로움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야 하니, 그 방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평소애 정성을 다하여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여 진정하게 부자(父子)와 일가(一家)가 지성으로 충의를 깨우쳐서 감응하게 하는 것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조련에 들어갈 때 허심탄회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하여 죄를 범하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운 혈족도 사사로이 대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과감함이 있어야 한다. 출정(出征)하는 날에는 사졸(士卒)보다 앞장을 서야 하며, 재물을 앞에 두고서는 고르게 나누어 의롭게 양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욕심이 없는 것이요, 욕심이 없으면 강명(剛明)하고 정직(正直)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졸(下卒)이 비록 어리석다고는 하나 조석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쌓이고 물들음이 오래됨에 이르러서 의리에 감동하면 차마 임금을 뒤로 하지 못하고, 장수를 뒤로 하지 못한다. 화복(禍福)의 분별에 그 사사로운 감정을 앞에 두지 않으면 환난이 두렵지 아니

하여 위사람을 가까이하는 뜻이 굳어진다. 수명의 길고 짧음과 죽음과 삶의 분수에 감응하면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고통스러움과 살고 죽음의 고비에 닥쳐서도 죽히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사랑과 은혜를 쌓으면 쓸 때를 당하여 분기(憤氣)가 발휘되니, 마음은 믿음에서 위엄을 발휘하고 형벌은 법령에서 위엄을 발휘한다. 명령은 위엄보다 가벼우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태연한 모양이 되어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인이 한마음이 되고, 마음이 하나로 되면 기(氣)가 가지런해지며, 기가 가지런해지면 만인(萬人)이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대저 이는 내가 한마음이 된 만인의 힘으로 각각 마음을 달리하는 만인을 대적하는 것이니, 죽음을 무릅쓴 한 사나이로 하여금 저 만 명의 생명과 겨루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선인(善人)이 백성을 7년 동안 가르치면, 가히 전쟁에라도 나아가게 할 수 있다.⁶⁾”라고 하였고, 맹자(孟子)가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⁷⁾”고 하였다.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 기를 하나로 하는 것을 어떻게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감응하여 소통된 신명(神明) 앞에서는 맹분(孟賁)과 같은 용사가 그 용맹을 잃고⁸⁾, 장량

6) 선인(善人) 있다: 이 말은 《논어(論語)》〈자로편(子路)〉의 “善人教民七年 亦可以即戎矣”를 전거로 하고 있다.

7) 어진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은 《맹자(孟子)》〈양혜왕상(梁惠王上)〉 “仁者無敵”을 전거로 하고 있다.

8) 맹분(孟賁) 용맹을 잃고: 《순자》의 〈의병(議兵)〉편에 “뒤에 출발하여 먼저 도달하는 것이 용병의 중요한 술책이다(後之發, 先之至, 此用兵之要術也)”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전투에 임하여서는 적이 전열을 정비하여 그 기세가 날카로울 때는 정면으로 상대하지 말고 한걸음 뒤로 물러나 기다렸다가, 적의 전열과 기세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공격하여 적을 제압하는 용병술을 말하는 것이다. 《전국책(戰國策)》의 〈제책(齊策)〉편에 “천리마라도 오래 달려 피로해진 뒤에는 평범한 말도 그보다 빨리 달릴 수 있고, 맹분(孟賁)과 같은 뛰어난 용사라도 피곤해져 힘이 빠지고 난 뒤에는 평범한 여자라도 그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평범한 말이 천리마를 이길 수 있고, 평범한 여자가 맹분 같은 용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후발제인,

(張良)⁹⁾·진평(陳平)¹⁰⁾과 같은 모사(謀士)가 그 지혜를 잃게 된다.

이와 같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신속히 움직일 수 있으며, 가지 않으면서도 도달할 수 있으니, 백성을 끓는 물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해도 인(仁)을 쫓아가기를 물과 같이하여 빠른 속도로 흘러갈 것이니, 이것이 감동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 원입신[原立信 : 신의를 분명히 세움]

대저 사람이 신의(信義)가 없으면 설 수 없으니, 군중(軍中)의 신의는 마치 겨울철의 갖옷 같은 것이요, 여름철의 배옷 같은 것으로서 한때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상대방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제압하는 전략을 활용하면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국방 전략은 ‘남이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침범하지 않으며, 남이 나를 침범하면 반드시 나도 남을 침범한다(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는 것이데, 이 역시 후발제인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공격하여 적을 제압하는 전략인 선발제인(先發制人)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 9) 장량(張良, ?~BC 186] 장량(張良, ?~BC 186] :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났을 때 유방의 진영에 속하였으며, 후일 항우와 유방이 만난 ‘홍문의 회’에서는 유방의 위기를 구하였다. 선견지명이 있는 책사로서 한나라의 서을을 진나라의 고지인 관중으로 정하고자 한 유경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자 방(子房). 시호 문성공(文成公). 한나라 명문 출신으로, BC 218년 박랑사(博浪沙 : 河南省 博浪縣)에서 시황제(始皇帝)를 습격했으나 실패, 하비(下邳 : 江蘇省 下邳縣)에 은신하고 있을 때 황석공(黃石公)으로부터 《태공병법서(太公兵法書)》를 물려받았다고 한다. 진승(陳勝)·오광(吳廣)의 난이 일어났을 때 유방의 진영에 속하였으며, 후일 항우(項羽)와 유방이 만난 ‘홍문의 회(會)’에서는 유방의 위기를 구하였다. 선견지명이 있는 책사(策士)로서 한나라의 서을을 진(秦)나라의 고지(故地)인 관중(關中)으로 정하고자 한 유경(劉敬)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소하(蕭何)와 함께 책략에 뛰어나 한나라 창업에 힘썼다. 그 공으로 유후(留侯)에 책봉되었다.
- 10) 진평[陳平, ?~BC 178] : 중국 한대의 정치가. 처음에는 항우를 따랐으나 후에 유방을 섬겨 한나라 통일에 공을 세웠다. 좌승상이 되어, 여씨의 난 때에 주발(周勃)과 함께 이를 평정한 후 문제를 옹립하였다. 허난성[河南省] 란카오현[蘭考縣] 출생.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따랐으나 후에 유방(劉邦)을 섬겨 한(漢)나라 통일에 공을 세우고, 고향의 호유후(戶牖侯)에 임명되었다. 그후 곡역후(曲逆侯)로 승진하였고, 상국(相國) 조참(曹參)이 죽은 후에는 좌승상(左丞相)이 되어, 여씨(呂氏)의 난 때에 주발(周勃)과 함께 이를 평정한 후 문제(文帝)를 옹립하였다.

“먹을 것을 버리고 군대를 버려도, 믿음은 버릴 수 없다. 옛날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백성은 있었으나,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¹¹⁾

지금의 때를 당하여 천하의 정사가 여러 조례(條例)에 기록되고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린 건의서가 반포(頒布)되어 서고에 가득차고, 문서가 책장에 가득가득 쌓여 있으니, 이 모두가 변통(變通)하여 백성들을 다스림에 적합한 말들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시행하다가 저녁에 그만두어 일찍이 다스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모두가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만약 지금의 관부(官府)가 법령을 고시하여 큰 거리에 큰 글씨로 걸어서 명백히 게시하면 법령을 믿을 것이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한번 보는 자가 누구인가? 이는 참으로 관부가 독찰하는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층 백성이 옛일에 습관됨이 이와 같으니 비록 날마다 한 번씩 법령을 고시하여도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진실로 착실히 거행하여 이를 실행하면, 하나의 주관하는 관원이 다스리고 어루만져 여유롭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부대 내의 호령(號令)은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으니, 진실로 또한 오합지졸(烏合之卒)의 병사들을 모아 놓고 행오(行伍)를 갖추어 먼저 체통을 세우고 군례(軍禮)를 바로잡음에, 군례가 엄숙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罰)이 따른다면 군례가 바로잡힐 것이다.

남방(南方)에서 각 부대마다 《기효신서(紀效新書)》 1본씩을 차례대로 지급하여 익히게 하였다. 교장(敎場)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매대(隊) 가운데서 글을 아는 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듣도록 하였다. 기한을 정하여 약간 명의 병사를 뽑아서 등지고 서서 대략만을 외우게 하는 배강(背講)을 시키되, 꼭 모든 글의 단어와 구절을 일일이 세밀하게 새길 필요는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교장 밖으로 새어 나오는 말로는> 병사들이 이를 괴롭게 여기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진사시(進士試)를 보지,

11) 먹을 것을 없는 것이다 : 《논어(論語)》〈안연(顔淵)〉

여기에 와서 군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짓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이미 괴로워하고 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해명하고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익혀 습득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사람 사람이 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다시 기한을 약속하여 차례로 그 시행 여부를 조사하여 일에게 이른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세월의 여가를 틈타 오랫동안 익히면 믿음이 서서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를 일러 ‘절제(節制)된 군대(軍隊)’라 하고, 이를 일러 ‘사람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 병사(兵事)를 논하는 자가 문득 이 절제를 쓰지 않고 야전(野戰)에 적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스스로 싸운다’고 여기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행하여 반드시 살피고 또 살피어 반드시 조련을 행하여 번잡한 격식을 제어함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묘당(廟堂)에서 계책으로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손자(孫子)¹²⁾가 믿음(信)을 두 번째에 두고, 오자(吳子)¹³⁾가 과감

12) 손자 [孫子, ?~?] :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 오왕 합려를 섬겨 절제·규율 있는 육군을 조직했다고 하며 합려가 패자가 되게 했다고 한다. 그가 저술했다는 병서《손자》는 단순한 작전서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요지, 승패의 기미, 인사의 성패 등의 내용을 다룬 책이다. 본명 손무(孫武). 자는 장경(長卿). 리안[樂安: 山東省] 출생. 제(齊)나라 사람. BC 6세기경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를 섬겨 절제·규율 있는 육군을 조직하게 하였다고 하며, 초(楚)·제(齊)·진(晉) 등의 나라를 굴복시켜 합려로 하여금 패자(覇者)가 되게 하였다고 한다. 그가 저술했었다는 병서(兵書)《손자(孫子)》는 단순한 국지적인 전투의 작전서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요지(要旨), 승패의 기미(機微), 인사의 성패(成敗) 등에 이르는 내용을 다룬 책이다. 그는 “싸우지 아니하고도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은 착한 자의 으뜸이니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13) 오자(吳子)⇒오기[吳起, BC 440~BC 381] :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가. 손무와 병칭되는 병법가로《오자》라는 병법서를 남겼다. 오자(吳子)로 통칭된다. 위(衛)나라 사람이며, 증자(曾子)에게 배우고 노군(魯君)을 섬겼다. 제(齊)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였을 때 노나라는 그를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는 제나라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으므로 의심을 받는다고 아내를 죽여 충성을 나타낸 뒤, 노나라

(果)을 중간에 두었으니, 진실로 능히 착실히 이 믿음(信)·과감(果) 두 글자에 힘을 쓰면 거의 절제(節制)된 군사에 가깝게 될 것이다.

■ 사환양[思參養 : 기르고 관리할 것을 생각함]

무릇 너희는 본래 공명(功名)을 세워서 은혜를 갚는 데에 힘을 다하기 위하여 모은 군대이며, 바로 적을 죽이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적은 백성을 죽이는 존재이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찌 너희들이 적을 죽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며, 관부(官府)가 이를 실천함을 소홀히 하기를 바라겠는가?

너희들이 설사 과감하게 적을 죽인다 할지라도, 평일에 군법(軍法)을 지키지 않고 지방의 백성을 동요시키고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하여 관부의 명령을 받들어 지키지 않으며, 어찌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므로 지방의 백성은 적의 약탈과 노략질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백성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백성은 적이 불태우고 파괴함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도 파괴하고 훼손하니, 백성들은 적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다. 너희가 공(功)을 구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죽이니, 그들이 어찌 문을 닫아걸고 너희를 원망하지 않겠느냐?

장군으로서 제나라 군대를 격파하였다. 그러나 노나라 사람들이 오기를 모질고 박정한 사람이라고 왕에 고하여, 노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위(魏)나라에 가 문후(文侯)를 섬겨 장군이 되고, 진(秦)나라를 쳐서 5성(城)을 빼앗았다. 병사들을 사랑하여 생활을 같이 하였고, 문후의 아들 무후(武侯)가 위나라 산천이 험한 것을 자랑하자 나라의 자랑은 군왕의 덕에 있다고 설파하여 문후를 감격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나라 공주가 그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다시 위나라를 떠나 초(楚)나라에 가서 도왕(悼王)의 재상이 되어, 법치적 개혁으로 초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초나라 귀족들의 질시를 받아, 도왕이 죽은 뒤 대신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피살되었다. 손무(孫武:孫子)와 병칭되는 병법가로서, 《오자》라는 병법에 관한 책을 남겼다.

무릇 너희들은 싸움에 임하여 비록 모진 바람과 빗속에서라도 팔장을 끼고 높이 앉아서 조금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달에 이량(二糧: 은자와 미곡)을 지급하니, 이 은자(銀子)와 미곡(米穀)은 모두 지방 백성이 판납(辦納)¹⁴한 것이지, 너희가 집에 있을 적에 맡기고 재배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집에 있으면서 밭에 씨를 뿌릴 적에 금전(金錢)이나 물품(物品)을 이리저리 변통(變通)하여서 나라에 바치던 그 고초와 간난을 생각해 보라. 오늘의 병량(兵糧)이 이렇게 용이하게 얻어지고, 너희를 씨뿌리고 밭가는 데에 부리지 않고 먹여서 기르는 것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1, 2시진(時辰) 동안에 1, 2진(陣)으로 적을 무찔러서 이기기를 바라서인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적을 죽여서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를 길러서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는 바로 군법(軍法)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하늘이 사람의 손을 빌어 관량(官糧)을 훔쳐먹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관부(官府)는 너희의 양향(糧餉: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천 가지 백 가지로 사려 하고 동서남북 여러 방면으로 주선하여 날마다 양식 운반과 마초(馬草) 운반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적이 이르렀을 적에 너희는 다만 적이 관부를 종횡하도록 내맡겨두고 한사람도 힘을 내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어이하여 적을 짓밟지 않고, 어이하여 적을 미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지금 반드시 심오(深奧)한 글 뜻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병사들이 어리석어서 설명을 해도 깨우치기가 어려워서이다.

다만 비유컨대, 너희들 사람의 집에서 밤에 쥐들이 음식을 소모하고 축내며 의복을 망가뜨린다면 그 누가 좋은 음식을 먹여서 고양이를 기르지 않겠는가? 침상과 이부자리에 드러누워서 늙은 쥐를 많이 잡아 의복과 재물을 망가뜨리고 축내는 것을 면하려고

14) 판납(辦納): 백성들이 금전(金錢)이나 물품(物品)을 이리저리 변통(變通)하여서 공공기관에 바치는 것을 말함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양이가 대낮에는 편안히 잠만 자고 밤에는 쥐를 잡지 않으며, 심할 경우에는 도리어 주인의 닭을 잡아먹고 몰래 음식을 망가뜨리고 의복을 더럽히기도 한다면, 너희들 심중은 어떻겠는가? 이런데도 고양이를 쳐서 내버리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바로 너희가 수년 동안 군량 조달을 받으면서 유사시에 임하여 적을 죽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법(法)과 기강(紀綱)을 어지럽혀 군령(軍令)을 어기고 평민(平民)을 함부로 죽이면서, 적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면 먼지를 바라보며 허둥지둥 달아나니, 여기에 어찌 조정(朝廷)의 부월(斧鉞)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일군(一軍)의 수요(需要)와 당장의 군량이 부족할 경우, 홍무(洪武) 연간¹⁵⁾에는 작전의 시기에 이르러 조부(祖父)와 자손(子孫)이 당일에 소비되는 약간의 전량(錢糧)을 산출하고 민병(民兵)을 소모(召募)하여 날마다 군사 3~4명을 먹일 수 있는 군량을 공급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무슨 노고가 겹쳤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천리(天理)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편안히 여기고만 있으니, 차마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부터의 법령(法令)은 평시에 반드시 소요(騷擾)를 경계하고, 적을 죽이지 않을 적에는 또한 군대와 민간인이 서로 함께 편안할 것을 도모하고, 유사시에 임해서는 군법으로 시행하여 단연 우물쭈물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천리(天理)와 인심(人心)으로 몸을 띄워 일으켜서 각기 분발을 더하여 북소리 한번에 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니 여기에 무슨 군령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너희의 형세가 서로 마음에 알력(軋轢)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니, 강한 자가 곧바로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약한 자가 뒤에 있으면 반드시 살 것이니, 누가 앞을

15) 홍무(洪武) 연간 :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10.21~1398.6.24]의 치세(1368~1398)를 가리킴.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군령(軍令)으로 이를 다스리고 군법(軍法)으로 이를 거느려서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하여금 서로 함께 분발하게 하면, 만인이 한마음으로 굳센 것을 공격하고 강한 것을 꺾어서 어디에 가나 이기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군법을 마땅히 명심하여 오직 법이 엄중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너희가 바야흐로 마음을 한 가지로 가르런히 하면 너희가 비로소 적을 이겨서 바야흐로 삶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땅히 정성껏 군법을 준수하여 원망하지 않고 나의 말을 믿는다면 한사람이 일만인을 당적할 수 있을 것이고, 일만인의 적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를 상주고 공으로 너희의 관직을 더해서 올려주면 상사에서도 기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바야흐로 좋은 처지를 누릴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전진(戰陣)에 임해서 몸이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물러나 피해서 돌아오면 법으로부터 면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관부(官府)에서는 금전과 양곡을 지급하면서 이맛살을 찌푸려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며, 지방에서도 너희를 원망하여 편안히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니, 참으로 이는 전곡과 양식을 도둑질해 먹는 도적이요, 쥐를 잡지 않는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이다.

천지가 비록 크다고 하나, 몸을 용납할 곳이 없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경계할지이다.

▣ 준절제[遵節制 : 절제를 따름]

군중(軍中)에는 오직 지휘 신호 체계인 호령(號令)이 있을 뿐이다. 송(宋)나라 때에 악비(岳飛)¹⁶⁾의 충무군(忠武軍)을 일컫기를 ‘산을

16) 악비(岳飛, 1103~1141) : 중국 남송(南宋) 초기의 농민출신 무장(武將). 북송(北

흔들고 뒤바꾸는 약가군(岳家軍)’이라 하였다. 그런데, 군사 한사람이 100~200근(斤: 60~120kg)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그 힘을 산을 흔들고 뒤바꾸는 데에 견줄 수가 있겠는가?

대개 산은 토석(土石)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구멍을 파 뚫을 수 있고, 다른 곳의 토석이 와서 서로 모이지 않는다 하나, 만인이나 백만인의 힘을 서로 모으고 합하여 당기고 돕는다 해서 어떻게 흔들어서 움직이게 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사람사람이 각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각각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한 사람의 적이 곧바로 부딪쳐서 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옛날의 의롭고 용감했던 무안왕(武安王)¹⁷⁾은 지금의 사당 안에 모셔진 관왕(關王: 관우)이다. 그는 생전에 일찍이 단기(單騎) 필마(匹馬)로 만군(萬軍)의 진중(陣中)에 들어가 원소(袁紹)의 대장 안량(顔良)¹⁸⁾을 목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나왔다. 바로 이 당시에 이 안량의 군사들은 사람마다 각기 한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문이다.

宋)이 멸망할 무렵 의용군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았으며, 남송 때 湖北 일대를 영유하는 대군벌이 되어 휘하의 약가군(岳家軍)이라는 정병(精兵)을 이끌고, 금(金)나라 군대의 남하를 회하(淮河), 진령(秦嶺) 일대에서 저지하여 금군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러나 금나라와의 화평론(和平論)을 주장하던 재상 진회(秦檜)의 모함으로 군대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투옥되어 살해당하였다.

- 17) 무안왕(武安王):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무장(武將) 관우(關羽, ?~219)를 가리킴.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충신의 전형으로 등장하고 있고, 송대 이후로 중국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삼국지연의》에 따르면 관우는 후한말(後漢末)의 동관기에 탁현(涿縣, 하북성 소재)에서 유비(劉備)를 만나, 장비(張飛)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200년 유비가 조조(曹操)에게 패하였을 때, 관우는 조조의 포로가 되어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귀순을 종용받았다. 그러나 관우는 조조가 원소(袁紹)와의 대전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 단기로 백만 적중으로 돌입하여 원소군의 명장 안량(顔良)을 목베어 전세를 역전시킨 다음 유비에게로 돌아갔다.

- 18) 안량(顔良, ?~200)은 중국 후한 말의 무장으로, 서주(徐州) 낭야국(琅邪國) 임기현(臨沂縣) 사람이다. 건안(建安) 5년(200년) 2월, 원소군과 조조(曹操)가 대치하고 있을 때 안량은 백마진(白馬津)에서 조조군을 수세에 몰아넣고 있었으나, 이때 단기로 군중에 돌입한 관우(關羽)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였다.

혹자는 또 말하기를 “만인이 각각 한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다. 그러나, 일만 개의 몸이 합하여 한몸이 되고, 합하여 백만근(600톤)의 힘과 기운이 되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했다.

“보라. 거대한 돌을 들어 올림에 만만근(萬萬斤 : 1억근 : 60,000톤)의 무게를 움직일 큰 나무 지렛대를 가지고 천여인을 동원하면 곧 능히 들어 올릴 수 있다. 대개 수천인에게는 비록 그 힘이 각 사람의 신상에 따로따로 있으나, 새끼줄과 멜빵이 고르게 여러 사람의 몸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1만근(6톤)의 물체를 들어 올리자면 백사람을 동원해야 하는데, 마약 99명을 가지고 들어 올리려면 또한 들어 올릴 수가 없으나, 단 한사람만 더 보태면 곧 들어 올릴 수 있으니, 어찌 99명의 힘이 한사람의 힘만 못해서이겠는가? 분량이 이미 정해짐에 99인으로는 부족하나 1인을 보태어서 그 힘이 충분해지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정해진 힘의 분량 한도 내에서는 힘을 써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저 한사람을 더해서 감당해야 할 백근의 힘을 어찌 능히 99인에게 각각 1근씩을 고르게 나누어서 더해서 99인으로 하여금 들어 올리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모두가 새끼줄과 멜빵이 균등하게 각 사람의 몸 위에 한근 한량도 차이와 착오 내지는 편중됨이 없이 안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이기는 군대는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야리고, 지는 군대는 가벼운 것을 무겁게 해야린다.¹⁹⁾” 하였다.

지금 조련(操練)하는 상벌(賞罰)·호령(號令)·절제(節制)·규구(規矩)·연좌(連坐)의 법(法)은 모두 돌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의

19) 이기는 해야린다 : 이 말은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이기는 군대는 1일(一鎰 : 24냥 : 900g)의 무게를 그 576분지 1 밖에 안 되는 1수(一銖 : 24분지 1냥 : 1.5625g)의 무게로 해야리고, 지는 군대는 1수(銖)의 하찮은 무게를 그보다 576배나 더 무거운 1일(鎰)의 무게로 해야린다.”

새끼줄이나 멜빵과 마찬가지로이다. 사람마다 호령을 준수하고 중히 여기기를 생명과 같이 여겨서 죽어야 할 경우에 곧바로 죽음으로써 감히 명령을 어기지 않게 한다면, 적에게 죽더라도 오히려 국가에서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구휼(救恤)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할 것이다.

그러나 군법을 범하면 목베어 죽임을 당하여 헛되이 생명을 잃고, 또 앞 조항의 허다한 은전(恩典)이 없을 것이니, 사람마다 다만 좋은 처지를 선택하여 적과 더불어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적과 맞닥뜨리면 진실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적을 겁내어 적을 패주시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적의 추격을 받아 죽음에 물 속으로 달아나 빠져죽음을 면치 못하고 산상에서 뛰어내려 넘어져 죽는다. 이것은 다만 어리석은 무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니, 단지 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서인 것이다.

만약 달아나면 죽는다는 것을 엄두에 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 적과 공방전을 벌이다가 그 적 하나를 죽이면 용감한 사람으로서 죽는 것이며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이니, 자연히 만인이 한마음이 되고 만인이 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심상하게 남과 다툼에 있어서도 한구절 한마디마다 모두 보복(報復)을 내세우거늘, 적이 물려움을 당하여 상대하여 손을 쓰려하지 않고 내가 만약 적을 죽이면 적이 또한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공을 세우고 살아서 돌아가면 조정(朝廷)이 공을 기록하고, 상사(上司)가 공을 상주어 일시에 부귀해지니, 이 얼마나 좋은 연고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이를 어긴다.

이른바 “천당(天堂)에는 길이 있으니, 문 없는 지옥(地獄)으로 스스로 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생각할지어다. 이것을 생각할지어다.

지금 악가군(岳家軍)에 건주어, 다시 한 그루의 큰 나무와 한

덩어리의 큰 돌과 새끼줄과 뿔뿔으로 천명 만명에 구애됨이 없이 함께 들어 올려야 할 것이니, 이를 전진(戰陣)에 임해서의 연좌법(連坐法)에 비교하여 단연코 용서치 않으리라.

너희들이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면 이는 지난날의 어린아이 장난과 같게 될 것이다.

■ 신구이[信口耳 : 입과 귀를 믿음]

명령을 발하여 군령(軍令)을 시행하는 일은 미리 먼저 결정하되, 결전할 시기에 이르러 번복하여 삼군(三軍)이 의혹에 빠지게 하고 그 담력(膽力)과 사기(士氣)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장수는 명령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하였다.

무릇 군무(軍務)에 관한 사항으로써 긴급하지 않은 일은 통행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만약 긴급을 요하는 군기(軍機)로써 문자(文字)로 적어서 보여줄 수 없는 사항은 대장(大將)이나 각 장수가 영문에서 호적(號笛)을 울리면 대장 직속의 각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이 하급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전달하는데, 백총(百總) 이상으로부터는 직접 가서 대면하여 지시를 받는다.

만약 지시를 받는 지휘관들의 직위가 서로 같으면 그 가운데 노성(老成)한 연장자 한사람을 높여서 동료들을 주관하게 한다. 중군(中軍)·천총(千總)·백총(百總)·기총(旗總) 이상은 다 와서 함께 모여서 해야리고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대장(大將)은 한사람뿐인데 관병(官兵)은 혹은 수만, 혹은 십 수 만이니, 말 한마디를 어떻게 전해서 두루 알게 할 것인가?

무릇 명령의 발동은 편장(偏將)과 비장(裨將)에게만 전해지고, 편장과 비장은 중군(中軍)이나 좌총(把總)에게만 전한다. 이어서 중군이나 좌총은 초관(哨官)에게만 명령을 전하고, 초관은 기총(旗總)에게만 전한다. 기총은 대장(隊長)에게만 명령을 전하고, 대장은

구두로 병사들에게 명령을 전하고 만다.

전달하는 명령은 반드시 명백하고 틀림이 없어 익숙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일시적으로 들어서 기억이 완전치 못하면 순서를 바꾸어 다시 전한 사람에게 묻는다. 만약 모두가 분명치 않으면 다시 주장에게 물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전달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거나, 전달하는 말이 분명치 않거나, 잊어버리고서도 다시 물으러 오지 않아서 일을 그르친 경우에는 군법(軍法)으로 엄중히 다스린다.

편장(偏將)과 비장(裨將)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안이 사소한 경우에는 그 중군관(中軍官)을 다스리고, 고시하는 문자의 등속도 또한 차례대로 초록(抄錄)하여 전달하되, 서로 면대하여 글자 하나 하나를 자세히 설명한다. 다만 초록하여 전달하는 일은 그 일에 관련되는 사람에게만 하고, 관련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으니, 번거롭게 공력을 낭비할까를 염려해서이다. 초록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단 한 자라도 보태고 빼거나 미신(迷信)에 관한 화복지설(禍福之說)을 따로이 붙이는 것을 불허한다.

전달이 끝날 때마다 가로에 순시기(巡視旗)를 파견하여 간혹 집에서 휴식하고 있는 2~3명의 병사를 불러서 그 내용을 물어보아 알고 있으면 상을 준다. 모르고 있으면 ‘전달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부지(不知)의 조항’을 참조하여 그 사유를 조사한 다음에 다스린다.

■ 신약속[申約束 : 약속을 분명히 함]

모든 병사(兵士)가 집에 있을 적에 낳아 준 부모(父母)가 있고 가르쳐 준 스승이 있으며, 호(戶)에는 호장(戶長)이 있고 이(里)에는 이장(里長)과 노인(老人)이 있으니, 너희가 여기기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백성은 이 한 가지에서 얻는 것이 있으니, 너희가 지금 이미 와서 병사(兵事)를 감당하고 있음에, 오장(伍長)은 바로 너의

호장이고, 대장(隊長)은 바로 너의 이장이며, 기총(旗總)은 바로 너의 노인이요, 초관(哨官)과 파총(把總)은 바로 너의 부모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호령(號令)과 무예(武藝)를 가르치는 자는 모두가 바로 너희의 사부(師傅)이니, 너희는 다시 생각해 보라. 세상에 이장이나 노인에게 불복하는 백성이 있는가? 군중(軍中)에 대(隊)가 있고 기총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손도 있는가? 군중에 초관과 파총이 없는 군대도 있는가?

세간에 스승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낭으면서부터 글자를 알고 글을 외우는 사람도 있는가? 군중에서 교사(教師)나 장령(將領)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 무예(武藝)를 아는 사람도 있는가? 이 모두 너희가 마음만으로는 조금도 깨달아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 초관이나 대장의 명령을 어기면, 이를 백성이 이장이나 노인의 법도를 어긴 경우와 다르게 처리하여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나 장령의 무예 교습과 조련에 관한 명령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어릴 때 스승의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것과 평일에 목민(牧民)하는 법도와는 다르니, 묶어놓고서 곤장을 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소한 일이다. 중할 경우에는 곧 귀를 자르고 목을 베기도 하니 다시 더 길게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정성껏 타이르고 진정으로 깨우치니 너희가 만약 듣지 않을 경우, 군법(軍法)은 무정할 것이다. 이를 삼가라. 이를 삼가라.

■ 습정구[習正穀 : 전술의 원칙을 익힘]

평상시 교장(教場)에서 조련을 함에 있어서 이를 겉으로만 보면, 지휘명령과 징, 북 등의 신호체계, 행군과 주둔, 군영(軍營)의 이동 등이 한결같이 걸치레에만 치중되고 있다. 기법과 기량, 무도(舞跳)나 타격 등에 있어서도 면전에서 보기에만 좋은 멋있고 화려한 모양새인 화법(花法)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전진(戰陣)에 이르러서는 전연 평상시와 같지를 않아서 전정으로 뭉쳐서 치고 받아야 할 터인데, 지근거리 안에서 교봉(交鋒)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법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또 평상시에는 다만 짧고 작은 대나무 화살을 쓰다가 전시에 임해서 큰 화살을 쏘면 고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니,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는가?

평일에는 대포(大砲)를 연습하지 않다가 전시에 임하여 원근(遠近)을 어떻게 조준하여 맞추기를 바란단 말인가? 화전(火箭)을 평일에 연습하지 않고서 방치해 두었다가 전시에 임하여 발사하니, 혹은 너무 높게 혹은 너무 가깝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실용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다가 주야로 교장(敎場)에서 쉬지 않고 연습을 해도 한결같이 격식에 맞지를 않으니, 헛되이 노력만 낭비하는 것이다. 이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평상시에 교장에서 조련하는 바의 금고(金鼓)·호령(號令)·행오(行伍)·영진(營陣)·기기(器技)·수예(手藝) 등 하나하나를 모두 전시에 임해서와 같이하고, 조목조목 대부대의 적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실용의 전술 원칙을 학습하여 하루에 한 가지씩을 배우고 한 조목을 배우게 한다면 담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기예(技藝)가 높은 사람은 담대(膽大)하다.’는 것이다.

배우면 곧 익숙해지고 배우지 않으면 서투른 것이니, 배우면 곧 적을 죽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공을 세울 수 있다. 배우지 않으면 곧 적이 너희를 죽일 것이니 이러한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어늘, 어찌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 교장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명령, 흔들어지는 하나의 지휘 신호, 세워지는 하나의 기(旗), 배열되는 하나의 진영(陣營), 연마하는 하나의 전기(戰技), 배우는 하나의 무예(武藝), 이 모두를 전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만으로 조련하고, 전진에서 실용할 수 없는 것들은 조련하지 말아야 한다. 전진에 임하여

실용할 수 없는 기계(器械)를 만들지 않고, 전진에 임하여 실용할 수 없는 무예(武藝)를 병사들로 하여금 배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측이 상대함에 있어서는 오직 법식을 갖춘 자가 이기고, 법식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는 오직 담력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원앙진(鴛鴦陣)은 장단점이 서로 차이가 나고 각각 유리한 점을 겸하고 있다. 유사시에 이르러 실행할 경우에 실용할 수 있음을 너희 관군(官軍)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 상책성[詳責成 :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힘]

책임(責任)을 지고 분담(分擔)시키는 일의 예는 평시와 전시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작계는 지휘명령을 어기거나 간악한 도둑질을 하는 등의 행위, 크게는 전투에서 움츠리고 물러나 군기(軍機)를 그르치는 행위를 할 경우이다.

5명 이상을 관장하는 지휘자에게는 범법자 1명이 생기면 반드시 연좌해서 처벌한다.

20명 이상을 관장하는 지휘자에게는 범법자 2명이 생기면 반드시 연좌해서 처벌한다.

60명 이상을 관장하는 지휘자에게는 범법자 6명이 생기면 반드시 연좌해서 처벌한다.

100명 이상을 관장하는 지휘자에게는 범법자 10명이 생기면 반드시 연좌해서 처벌한다.

500명 이상을 관장하는 지휘자에게는 범법자 50명이 생기면 반드시 연좌해서 처벌한다.

3파(把) 이상을 관장하는 지휘자에게는 범법자 150명이 생기면 반드시 연좌해서 처벌한다.

1만명 이상을 관장하는 지휘자에게는 범법자 500명이 생기면 반드시 연좌해서 처벌한다.

만약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용감하게 행동한 자는 연좌 처벌을 면제하고 상을 줌에도 또한 이와 같이한다.

또 한 가지 법은 이러하다.

1오(伍) 안에 범법자 2명이 생기면 오장(伍長)을 연좌해서 처벌하고, 범법자 3명이 생기면 오장을 같은 죄로 처벌한다.

1대(隊) 안의 2오(伍)에서 각각 범법자가 생기면 대장을 연좌해서 처벌하고, 범법자 6명이 생기면 대장을 같은 죄로 처벌한다.

1기(旗) 안의 3대(隊)에서 각각 범법자 1명이 생기면 기총(旗總)을 연좌해서 처벌하고, 범법자 18명이 생기면 기총을 같은 죄로 처벌한다.

1초(哨) 안의 3기총(旗總) 휘하에서 각각 범법자 1명이 생기면 초관(哨官)을 연좌해서 처벌하고, 범법자 50명이 생기면 초관을 같은 죄로 처벌한다.

1사(司) 안의 5초관(哨官) 휘하와 각 기총(旗總) 휘하의 각 대(隊)에서 각각 범법자 1명이 생기면 파총관(把總官)을 연좌해서 처벌하고, 범법자 250명이 생기면 파총관을 같은 죄로 처벌한다.

나머지는 이에 의거하여 준례를 삼는다.

도주하거나 간악한 도둑질을 했을 경우의 사항은 지휘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질병(疾病)과 환난(患難)이 있음에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히 대총(隊總)과 해당 대(隊)를 가중 처벌한다.

갑병(甲兵)과 기계(器械)를 손괴하고서도 보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히 기총(旗總)을 가중 처벌한다.

병사들의 무예(武藝)가 정예롭게 익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히 백총(百總)을 가중 처벌한다.

호령(號令 : 지휘명령과 신호체계)이 명확하게 통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히 파총(把總)을 가중 처벌한다.

이른바 ‘전(專)’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들 지휘관을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들 인원만을 처벌하고 잘못을 범한 자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 수군례[守軍禮 : 군례를 지킴]

중군(中軍)과 파총(把總)이 본영(本營)의 주장(主將)을 만나면 두 손을 마주 잡고 머리를 조아려 두 번 무릎 꿇고 읍한다. 합영(合營)의 주장에게도 이와 같다. 맞이하고 전송할 적에는 길에 꿇어 엎드린다.

다른 군영의 주장격의 직위에 있는 상관에 대해서는 문정(門庭)에 배첩(拜帖 : 명함)을 드린 다음에 두 번 무릎 꿇고 한 번 읍한 다음에 당(堂) 곁에 앉아서 차(茶)를 기다린다.

무릇 각급의 파총(把總)이 본영(本營)의 중군(中軍)을 만나면, 평시에는 읍하고 꿇어 엎드리지 않은채 진영으로 들어가 대(臺) 위로 받들어 모시고, 명령 하달의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서 받는다.

사사로운 깨우침은 곁에 서서 가르침을 받는다. 길에서 만나면 말에서 내려 두 손을 맞잡고 선다.

합영(合營)의 중군일 경우에는 본영 중군에 대한 예와 같이 대우하고 우대를 더하여 길에서 맞이하되, 편의에 따른다.

별영(別營)의 중군을 만나면 길을 양보하고 말을 세워서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대총이 기총에 대해서 행하는 예와 기총이 초관에 대해서 행하는 예는 평시에 교장에서와 같이 모두 병사가 대총에 대해서 행하는 예와 같다.

길에서 소속 부대의 지휘관을 만나면 모두 말에서 내려 뵈되, 말에서 내리는 것이 늦어 약간 잘못이 있더라도 죄를 주지 않는다. 다만 끝내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소속 지휘관이 아니더라도 길에서 채찍으로 재촉하여 항례(抗禮)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방에 오래 거주한 초관 이상의 지휘관과 관대 기총(冠帶旗總) · 의사 청일산 대장(義士靑一撒隊長) · 청포삼계조 파총(靑布衫繫條把總)²⁰⁾ 등의 초관에 대한 군례와 초관의 초대장에 대한 군례와

20) 관대 기총(冠帶旗總) 청포삼계조 파총(靑布衫繫條把總) : 이들 명칭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기총(旗總) · 대장(隊長) · 파총(把總)

초대장의 병사에 대한 군례는 ‘지방의 실정’[鄉情]에 따라 편의대로 한다. 다만 반드시 곁에 앉고 어깨를 가지런히 나란히 줄을 같이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비록 아래로 대장과 병사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러하다.

무릇 조련에 나아가거나 징집되어 밖에 있을 적에 지휘 신호가 울리고 명령이 하달되면 파총과 초관은 출진(出陣)의 몸차림으로 수놓은 비단 관복을 입는다.

기총과 대장은 각각 짧은 간편한 적삼을 입는데, 동·서·남·북·중 다섯 방위에 따른 파랑·하양·빨강·검정·노랑 등 다섯 가지의 색깔에 따라 전투복을 입고 깃발을 잡아 모구 군용(軍容)을 갖춘 다음에 정해진 요령과 준수할 지시사항을 수령한다.

속담에 이르기를 ‘군중에 풀을 세워 표(標)를 만드니 한 자 한마디가 입에서 나온다.’ 하였는데, 이는 바로 ‘군령(軍令)은 다시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비록 지위가 낮은 대장(隊長)이라도 그가 지휘하는 몇 사람이 있으니, 이 몇 사람이 그 아래에 속해 있음을 싫어하여 항거하고 어기면 일을 시행할 수 없고, 또 그 아래에 소속된 사람이 다시 위에 있는 지휘관에게 항거하는 것을 본받게 된다.

대저 군기(軍機)는 국가의 중대한 사무이니 실정으로 보아서 법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감히 친하게 알며 지내고 서로 허여한다 하여 고의로 명백한 법령과 규칙을 어기고 항거하는 자와 범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린다.

▣ 정명법[正名法 : 명분과 법규를 바로잡음]

행렬(行列)과 대오(隊伍)가 이미 결정되면 군사들과 기총(旗總)

이러한 군직(軍職)에 덧붙여진 지방에서의 명예로운 호칭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서 그들의 체통을 존중하는 이른바 ‘지방의 실정’[鄉情]에 의해 편의대로 이러한 군례(軍禮)가 허용되었던 것 같다.

대총(隊總)은 한방에서 함께 잠자고 휴식하며, 일어서면 곁에 서고, 앉으면 곁에 앉는다. 같은 걸상을 쓰면서도 또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으나, 잠자는 침상과 온돌은 방향에 구애받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병사가 기총과 대총을 기다려 그 다음 차례를 지키기에 힘써서 읍하고 양보하는 기풍을 이룩한다.

무릇 일의 대체를 시행함에 있어서 병사들은 기총과 대총의 말을 열심히 들어서 항거하거나 어기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기총이나 대총에게 과실이 있으면 해당 기(旗)에 모여서 한 기의 병사들이 다함께 의견을 모아 중지하도록 말리고, 듣지 않으면 재차 말리고, 세 번 말려서 듣지 않으면 백총(百總)에게 보고하여 알린다.

만약 잘못을 중지하도록 말렸는데도 기총이나 대총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병사를 해칠 계략을 꾸미고 보복할 것을 도모할 경우에는 병사는 이를 피하여 더불어 다투지 말고 백총의 처소로 가서 사실을 보고하여 알린다.

백총은 또한 기총이나 대총을 타일러 잘못을 알게 한다. 그럼에도 잘못을 알지 못하고 병사들과 원한을 품을 경우에는 파총(把總)의 처소로 보내어 처치하도록 한다.

만약 병사가 작은 과실이 있으면 기총이나 대총은 즉시 구두로 과실을 문책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듣지 않으면, 먼저 서면 명령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탁자가 없으면 벽에 걸거나 혹은 대나무에 걸어놓고 잘못을 범한 병사로 하여금 기총이나 대총이 서 있는 곁에 꿇어앉게 하고서 이렇게 말한다.

“네가 지금 지휘 명령 아무 한 조항에 대하여 범한 바는 서로 같은 것으로, 나는 너와 같은 처소에서 함께 잠자고 휴식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너의 잘못을 1차, 2차에 걸쳐서 용서하였음에도 너는 끝내 잘못을 고치지 않으니, 지금 서면 명령에 의거하여 처치한다.”

이때의 처벌은 많아야 곤장 다섯 대를 넘지 않는다. 이에 불복하는 자는 곧바로 해당 관할 상급부대의 장관(將官) 처소에 보내어 군법에 의하여 유영(遊營)에서 곤장을 친다.

모든 병사들과 관계가 없는 관할 상급부대의 기총이나 대총도 그 기총이나 대총과 마찬가지로 친히 관장하여, 함께 거처하지 않는 자라도 또한 항상 일의 기미를 파악하여 만약 그 실정을 알게 되면 또한 휴식하는 처소로 불러서 위 사항의 규정과 같이 시행한다.

■ 금맥월[禁驀越 : 뛰어넘음을 금지함]

기총(旗總)이나 대총(隊總)의 보고문서는 다만 파총(把總)과 초관(哨官)에게만 전달되고, 파총이나 초관의 보고 문서는 다만 영장(營將)에게만 전달된다. 영장은 먼저 대장(大將)의 처소에 이르러 <휘하의 지휘관들이 지휘계통을 건너뛰어> 제멋대로 자신과 가까운 자들을 추켜올리고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말하여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만약 지휘계통을 건너뛰어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각 상사(上司)는 차상급부대로 직접 간 자를 조사 추궁하여 공동으로 다스린다.

심한 경우에는 전부터 안팎으로 교분을 맺어 사사로이 공문서를 베끼거나 사람을 모함하고 해치는 경우도 있다. 군사를 징발하여 적과 대적할 경우를 당하여 공적(公的)과 죄과(罪科)를 전파하고 퍼뜨리는 자는 찾아내어 처벌을 행하고 바로잡아 엄중히 다스린다.

이승에 천도(天道)가 있고 저승에 귀신(鬼神)이 있으니, 결코 이와 같이 간사한 마음으로 험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 계공과[稽功過 공로와 과실을 살핌]

영장(營將)은 공적과 과실을 밝힘에 총괄 장부 1부를 비치하고, 매 사(司)에 각각 1부를 준다.

모든 기총(旗總)과 대총(隊總) 및 병사(兵士)의 경우, 대체로

평소에 심신을 수고롭게 하여 일에 힘씀이 많다.

비유컨대 타인이 몇 십리를 행군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나고, 타인이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공적의 조항에 1차로 기록된다. 타인과의 말다툼 등은 군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과실 조항에 1차로 기록된다. 병사의 공적과 과실은 대총과 기총이 백총에게 송부하고, 백총이 이를 다시 상부로 전송(轉送)하여 기록하게 한다.

모든 파총(把總)과 중군(中軍)과 가정(家丁)의 야불수(夜不收)²¹⁾와 잡류(雜流)의 공적과 과실은 영장(營將)이 함께 이를 기록하여 총괄 장부에 붙이되, 항상 3개월을 모아 한차례 조사한 결과를 살펴서 같은 유형으로 상벌(賞罰)을 시행한다.

■ 금이령[禁二令 : 두가지 명령을 금함]

중군(中軍)에는 대장(大將)이 있고 주장(主將)이 있다. [대장은 바로 한 진(鎭)의 가장 높고 중요한 둘도 없는 존재로서, 이른바 ‘사무(四無) 삼부제(三不制)’²²⁾가 그 사람이다. 주장은 함께 군중(軍中)에 거처하는 존장으로, 관위(官位)가 같으면서도 연치가 높고 노고를 오래 하여 동료가 일찍이 떠받들어 겸양하고 평시 공청에 이를 적에 앞에 있는 자이다.]

부장(副將) 이하[부총병(副總兵)이 아니니, 바로 일시적으로 같은

21) 야불수(夜不收) : 야불수(夜不收)는 哨戒와 偵探을 위해서 밖에서 밤을 새워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2) 사무(四無) 삼부제(三不制) : ‘사무(四無)’에 대해서는 《율료자(尉繚子)》〈병담편(兵談篇)〉에 “장수는 위로는 하늘에 제재를 받음이 없고, 아래로는 땅에 제재를 받음이 없고, 중간으로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음이 없으며, 격동시켜서 노하게 하거나 재물로 유혹할 수 없다.[將者 上不制於天 下不制於地 中不制於人 寬不可激而怒 清不可事以財]”라고 하였으며, ‘삼부제(三不制)’에 대해서는 같은 책 〈무의편(武議篇)〉에 “장수는 위로는 천시(天時)에 제재받지 않고, 아래로는 지리(地利)에 제재받지 않고, 가운데로는 사람에게 제재받지 않아야 한다.[夫將者 上不制於天 下不制於地 中不制於人]”라고 하였다.

일에 종사하되, 관위가 약간 낮은 자이다. 대장(大將)이 직무에 종사하면 부장(副將) 이하이고, 주장(主將)이 직무에 종사하면 요좌(僚佐 : 보좌관) 이하이다.]의 장수가 함부로 지휘 명령을 발동하거나 정기(旌旗)의 신호체계와 군중(軍中)에서 쓰는 암호(暗號)를 변경할 경우에는 중벌로 다스린다.

만약 지휘명령체계와 신호체계가 불편하여 반드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할 경우에는 먼저 주장에게 보고하여 그 변경 여부를 재가 받는다.

▣ 원군예[原羣藝 : 집단 전기를 분명히 함]

기고(旗鼓)와 영진(營陣) 등은 모두 이를 일러 군예(群藝 : 집단 전투기술)라 하니, 집단전투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마치 손과 발이 마비되고, 눈·코·귀·혀·살갓 등 오관(五官)이 질병으로 못쓰게 되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깃발과 북의 신호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로 낭비하는 전쟁이 되니, 작은 진(陣)이 정제되지 않으면 절제(節制)가 어디에 자리를 잡겠는가?

▣ 신군기[申軍紀 : 군기를 분명히 함]

무릇 장병(將兵)을 둔 것은 도적을 없애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이기 때문이다.

군인이 공을 세워서 죄를 면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여 백성을 보호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혹은 민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금전을 탐내거나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군량을 침탈하기까지 하고, 혹은 사물을 공급하고 폭리를 취하여 고혈을 착취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그 기운과 공력을 공역(工役)에 바치게 하여 오로지 제 몸을 살찌우고 제집을 윤택하게 할 계책을 삼기도 한다. 또 그 불의한 재물로 명사들과 교분을 맺어 교활한 토끼처럼 세 개의 굴²³⁾을 만들어 놓고서, 사줄들과 고락을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애호하여 양육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

또한 뛰어난 재능과 역량을 지니고 있지도 못하면서 매사에 머뭇거리면서 낡은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로 군무(軍務)를 폐기하고 태만히 하여 쇠퇴하고 기울어져가는 상태에서 헛되이 세월만 보내니 비록 큰 과실은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나라를 그르치는 것이다.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이 죄과를 범하면 대장(大將)이 군법으로 이를 다스리고 하급 장교인 재관(材官)이 죄과를 범하면 편장이나 비장이 군법으로 이를 다스려 법에 따라 끝까지 분변하여 은닉한 장물을 추적 회수하여야 한다. 민간으로부터 거두어들임이 지나치게 가혹함은 변방 해안지역에 분명한 사례들이 있다.

만약 대소 장령(將領)의 인원들 가운데에서 늙고 허약한 자들을 도태(淘汰)하고, 겁 많고 나약한 자들을 제거하여 군기(軍紀)를 숙정(肅整)하며, 절제(節制)를 엄히 하여 행오(行伍)를 충실히 하고, 은혜(恩惠)와 위엄(威嚴)을 펼쳐서 교련을 정예롭게 하고 적개심을 고취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명령에 따라 1만 명의 군사가 한마음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장(大將)은 반드시 격식을 뛰어넘어 예(禮)로써 장병들을 공경하여야 하니, 우대함을 더하여 칭찬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면 그들은 말채찍을 잡고 수레채를 밀면서 그를 따르기를 바랄 것이다.

23) 세 개의 굴 : 영리한 토끼는 숨을 수 있는 굴 세 개를 마련해 두어 위기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처세에 능한 무장(武將)들이 중앙의 관계(官界) 요로와 결탁하여 자신이 출세하려고 하는 명(明)나라 말기 부패한 군부(軍部)의 세태를 비유하는 말고 있음. 전국시대(戰國時代)에 풍훤(馮諼)이라는 모사가 “약삭빠른 토끼는 세 개의 굴이 있어서 가까스로 한번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자기의 주군인 맹상군(孟嘗君)에게 스스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둘 것을 건의했다는 《전국책(戰國策)》〈제책(齊策)〉에 나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대저 나라의 제도와 시대의 법규에는 병력의 정해진 수효가 있고 군량의 정해진 액수가 있어서 필요 없이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병사를 관장하는 관원은 하나의 병사, 하나의 장정이라도 반드시 군기(軍紀)에 합치하여야 한다.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고,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며, 요긴함과 덜 요긴함을 족히 의지할 수 있게 해야 하니, 이는 빈말이 아니다. 날마다 시행하면 그 효과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 공상벌[公賞罰 : 상벌을 공정히 함]

상벌(賞罰)은 군중의 중요한 지휘 수단이니, 표창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장령(將領)에게 수여하되, 묵은 원수와 새로운 원한이 있을지라도 또한 취하여 상주어야 하고, 환난을 당하면 또한 반드시 부축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군령(軍令)을 범한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친자식이나 조카라 할지라도 또한 법에 따라 시행하여 결단코 은혜와 원수를 갚아서 베푸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갚아서 베푸는 죄를 가지고 죄의 등급을 가중하여 연좌 처벌한다.

■ 달사정[達士情 : 사졸들의 사정을 숙지함]

병사가 만약 공사(公事)나 사사(私事)로 긴급하게 상급 지휘관에게 소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총(旗總)과 대총(隊總)에게 이를 보고하고, 곧바로 해당 파총(把總)이나 초관(哨官)의 처소 진문(陣門)에 가서 즉시 들어가게 한다.

[기총과 대총이] 이를 가로막고 붙잡으며 모욕하는 것을 불허하며,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고, 스스로 전단할 수 없거나 자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친히 영장(營將)의 처소로 들어가 보고하여 시행한다.

만약 지시대로 따라서 행하지 않았거나, 스스로를 높여 병사(兵士)가 들어가서 보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혹은 그 사정을 추궁하여 내보냈거나, 혹은 본인에게 물어서 사유를 알아냈을 경우, 해당 정장(定將)이나 담당 관원은 그 과실의 유형을 기록하여 주장(主將)에게 보고한다.

또한, 매일 새벽 일어날 적에 후당(後堂)에서 군무(軍務)를 처결하는 일이 끝나면 먼저 판자(板子)로 만든 영문 밖에서 취타(吹打)를 한번 울리고 나서 편의에 따라 관련 인원이 함께 대기하고 곧바로 영문을 연다.

우리의 모든 병사(兵士)가 기밀(機密)을 요하는 군무(軍務)를 보고할 일이 있거나, 본인이나 가정에 사정이 있으면 곧바로 후당으로 달려가서 직접 대면하여 사정을 다 보고할 수 있게 하되, 마치 한집안 식구나 부자간처럼 한다.

이때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를 가로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함부로 들여보내서 간사한 짓을 하는 못된 무리가 한데 섞여서 들어오거나, 청탁하는 무리, 점쟁이, 노래꾼 등의 무리들, 혹은 본진(本鎭)의 인원이 아닌 자들을 들어오게 하면 모두 중죄로 다스린다.

이상에 관련된 사항의 의사 교환은 반드시 당(堂) 위에 올라가서 문서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되, 오후에 후당에서 실시한다. 하루 전에 중군(中軍)이 비문(批文)²⁴⁾을 배포하면, 모든 파견 인원이나 보고자들은 이를 수령하고 나간다.

만약 긴급한 변방의 첩보(捷報)나 적정(敵情)에 관한 보고 사항 및 부대 내의 사정은 불시로 보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북을 치고 들어오게 한다.

24) 비문(批文) : 상급이나 혹은 유관 부문에서 회신한 답신 문건

■ 순사육[循士慾 : 사졸들이 바라는 바에 따름]

주장(主將)은 항상 사졸(士卒)들의 배고픔과 배부름, 수고로움과 편안함, 그리고 강함과 약함, 용감함과 겁 많음, 재능과 기량, 동정을 살피서 그들로 하여금 주장을 마치 부모처럼 의지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화평한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화평하면 마음이 가지런히 정제되어, 병사가 비록 백만명이라 할지라도 달리기를 마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여, 나의 엄중한 법에 일임하여 행동을 할 것이다.

■ 집람차[戢濫差 : 교만하고 넘침을 단속함]

군(軍)을 일러 ‘군사(軍士)’ ‘전사(戰士)’ ‘역사(力士)’ ‘용사(勇士)’ ‘의사(義士)’ ‘사졸(士卒)’이라고 한다.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일컫기를 ‘사(士)’라고 하는 것은 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다. 조정이 군(軍)을 명명(命名)함에 있어서 병사(兵士)를 귀하게 여기기를 이와 같이하여 그들이 전장(戰場)에서 힘을 다해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을 보호하기를 바라니, 군(軍)의 책무가 가볍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이들에게 교군꾼이나 하인의 구실을 시킨다. 하인 구실로 병사를 대우하면서 죽을힘을 다하여 목숨을 버리고 도적을 막기를 바라니, 이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지난날처럼 병사를 귀하게 여겨서 실제에 부합되는 책무를 강구하지는 못하고, 습관적인 병폐가 고질이 되어 사람들이 병사를 제멋대로 점용(占用)하게 내맡겨두어, 상사(上司)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전송함에 태연히 순종하여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만 아래로 원한을 맺을까를 두려워하여 은밀히 혈
뜯어서 해치고, 군마(軍馬)가 거둬 손실됨을 생각하지 않으며, 다시
병사들의 마음까지 잃으니, 만일 유사시에 싸움에서 적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이해(利害)가 어디에 있겠는가?

바로 평시에 해오던 관례를 버리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얻으니,
적군과 싸워서 지키지 못한 죄에 비하여 그 어느 것이 더 중한가?

하물며 주객(主客)과 장령(將領)이 이미 정해져 있고, 잡류(雜流)²⁵⁾가
있어서 차출해서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는데, 다시 무슨 명목으로
행오(行伍)의 군사들을 제멋대로 사역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만약
사사로운 사정이 있어서 마땅히 상사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전송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잡류 가운데에서 차출하여 보내라.
군사는 전투병력으로 편성하여 교육 훈련시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휴식시키는 데에 힘쓰라.

요긴하지 않은 일로 수고롭고 번거롭게 함은 자기 자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이를 금한다. 이후에 만약 종전처럼 제
멋대로 군사를 차출해서 상사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전송할 경우에는 각각 책임을 추궁하여 규정된 분수에 따라 죄를
다스린다.

부장(副將)·참장(參將)·유격(遊擊)·수장(守將)·파총(把總) 등의
관원은 정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마땅히 쓰도록 되어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돈대(墩臺)의 수비병, 망원초소(望遠哨所)의
수비병, 애구(隘口)의 수비병 및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행오
(行伍)에 속한 군병(軍兵) 가운데에서 단 한 명도 제멋대로 차출
하고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각처에서 공무로 파견되어 온 관원도 또한 제멋대로 위세를 부리
면서 병사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신변에 두고 부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5) 잡류(雜流) : 비정규직 출신의 잡직 관리, 또는 하급 관리로서 군의 장령들이 사적
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병집단을 말함.

반드시 차출 인원 명부 1부를 비치하여 그 차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차례에 해당되는 군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져서 평행으로 배열하여 장부책 안에 기록한다.

마군(馬軍)은 따로 하나의 장부를 비치하고 해당 군영에는 스스로 표판(票板) 한쪽을 비치한 다음, 차출증인 차표(差票)를 인쇄하여 각 중군과 파총에게 발송하여 대기하게 한다.

한 명의 군사를 차출함에 반드시 차표 1장에 ‘아무런 일로 아무 사람을 차출한다.’고 분명하게 써넣어서 차표를 해당 군사가 수취하게 하고 해당 장부 안에 차출 사실을 기록한다.

매 반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외에도 불시에 차표를 조사 대조하여 만약 표는 있으나 장부에는 없거나, 표는 없는데 장부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령(將領)이 사사로이 병력을 유용하거나 뇌물을 받고 놓아 먹이는 폐단에 연계시켜서 그 수효에 넣지 않는다. 해당 군사로서 차표를 샀을 경우에는 중한 규정을 따라 징벌한다.

차출 인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적인 차출의 경우와 같이한다. 그러나 사사로운 용도로 차출을 했을 경우에는 각 병사가 즉시 표를 가지고 가까운 사(司)나 도(道)에 가서 진정하는 것을 허락하고, 일면으로 해당 장관(將官)과 표를 발부한 관원을 중죄로 다스리고, 고발자에게는 반년의 차역(差役)을 면제해 준다.

■ 체초범[體初犯 : 초범을 참작함]

초범(初犯)인 관병(官兵)은 행영(行營)·야영(野營)·대진(對陣)·군기(軍機) 및 모역(謀逆)·살인(殺人)·간음(姦淫)·사기(詐欺)·절도(竊盜)·도박(賭博) 등의 사안이 중대한 정황을 제외하고는 논하지 않는다.

재범(再犯)은 반드시 군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그 나머지 일체의 작은 과실에 대해서는 새로이 발동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평상시 조련(操練)·교습(敎習)에 관계된 일을 위반한 초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죄의 추궁을 면제한다.

재범은 그 과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삼범(三犯)은 곤장을 치는 처벌을 한다.

■ 홀병상[恤病傷 : 병상자를 구휼함]

병사(兵士)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같은 숙소의 동료들은 즉시 해당 대장(隊長)에게 보고한다. 대장은 기총(旗總)에게 증상과 경과를 보고하며, 기총은 즉시 백총(百總 : 초관)에게 보고하여 곧바로 본영의 주장인 영장(營將)에게 보고하여 알리게 한다. 영장이 의관(醫官)을 보내어 질병의 상황과 경중을 진단하면, 의관은 영장에게 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영장은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람을 시켜 즉각 대장(大將)의 처소에 도달하게 한다.

그리고 백총은 일면으로 해당 파총(把總)에게 보고한다. 백총이 파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영의 주장에게 보고하는 이유는 대개 병자를 빨리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리고, 질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가 치료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서이기도 하다.

이때 만약 지휘계통을 따라 7~8곳의 아문을 일일이 차례대로 거쳐서 보고를 한다면 그 언제 보고가 두루 다 전달되겠는가? 무릇 병자에 대한 보고는 대소 아문의 개폐 여부나 번거롭고 한가함을 막론하고 즉시 투입한다. 만약 문을 지키는 사람이 막으면 일을 지체하여 그르친 경우의 죄로 시행하여 연좌 처벌한다.

병을 보고하기를 하루 늦게 한 자는 죄가 보고를 지연한 관원에게 연좌되고, 만약 보고를 지연하여 이로 말미암아 병사(病死)할 경우에는 그 일을 지체하여 그르친 사람을 군법으로 조사 추궁한다.

무릇 병이 든 병사에 대해서는, 대총(隊總)은 날마다 살펴보고,

기총(旗總)은 이틀마다 살펴본다. 백총(百總)은 사흘마다 살펴보고, 파총(把總)은 닷새마다 살펴본다. 영장(營將)은 매 열흘마다 살펴 보며, 대장(大將)은 오직 병이 중한 자만을 살펴보는데, 먼저 약을 써서 준비해 놓고 나서 직접 만나서 준다.

■ 분군향[分軍餉 : 군향을 고루 분배함]

군사에 대하여 월정 양식과 상사(賞賜)가 지급될 경우에는 먼저 수효를 파악하여 즉시 담당 관원인 위관(委官)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주장(主將)에게 청한다.

위관은 포장해서 봉인하는 것을 감독하여 기록하는데, 먼저 인판(印版) 한 벌을 새겨 그 위에 ‘아무 달 양액(糧額 : 양곡지급액수)에 해당되는 몇 사람에게 10분지 1을 손실 예상 분량으로 추가하여 위관 아무개가 새김’이라 쓴다.

정해진 기한이 완료되면 주장에게 보고하여 교장(敎場), 또는 아문(衙門)에 임석을 청하고 군사들에게 통지하여 집합하면 호명하여 급여한다. 먼저 1봉(封)을 가져다가 저울질하여 보아서 만일 1봉이 부족하면 포장된 여러 봉을 모두 다 일일이 달아서 모자라는 수량을 해야려 배상시키고 죄를 다스린다.

군사들이 이미 풀어보고 3일이 지난 뒤에 만약 다시 사정을 하소연 하여 사람을 보낼 경우, 이에 대해서는 따로이 부당하게 금품을 징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렴수색(科斂需索)’의 조항이 있으니, 강제로 침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풀어보지 않았는데 해당 관원이 사사로이 침탈하거나 인판을 새기고 포장하고 봉인하는 등의 절차를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풀었을 경우에는 모두 변해(邊海)의 전량(錢糧)을 침탈한 죄로 연좌하고, 해당 부대 소속 군사와 소속 관원이 다스려 줄 것을 하소연하는 것을 허락하고, 상관을 거스른 죄에 연좌하지 않는다.

만약 무예(武藝)를 시험하고 죄과(罪過)를 감독하여 다스릴 경우에, 이 일로 인하여 원한을 품고 그릇되게 판정하면 군법(軍法)으로 다스린다.

■ 입도약[立逃約 : 도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움]

만약 같은 대(隊)의 인원이 도주한 경우에는 대원을 각각 연좌하여 절반은 감옥에 보내고 절반은 잡아두고 감시하되, 월량(月糧)을 삭감한다.

1년 동안 잡지 못할 경우에는 원래의 보인(保人)²⁶⁾은 3년 동안 초병(哨兵)으로 징발하고, 해당 오(伍)의 군사를 여기에 충원하고 월량은 절반을 지급한다.

도망자를 붙잡는 날에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한다.

■ 보군한[補軍限 : 군비의 한도를 보충함]

무릇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결손된 인원의 보충은 매월 20일에 상정하고, 참고가 될만한 증거 자료는 편의에 따라 제출하고, 다음달 초 1일부터 월량(月糧)을 기산(起算)한다.

■ 의포국[擬捕鞠 : 체포와 심문을 헤아림]

각 영(營)의 관군 중에 남의 영문(營門)을 침범한 경우가 있으면 이를 마음대로 구류하거나 체포하여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6) 보인(保人) :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배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반드시 본영(本營) 장관(將官)에게 보고서를 올려 상대방의 영(營)에 회보하고서 데려다가 각 중군관(中軍官)으로 하여금 모여서 모든 상세한 사정을 심문한다.

그리고 나서 대장(大將)이 결정하며, 한 영에서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명구섭[明句攝 : 공무 처리를 명백히 함]

군위(軍衛)와 유사(有司)가 관군의 죄증(罪證)을 색취(索取)하여 다스릴 경우, 일면으로는 죄인을 데리고 온 차인(差人)을 대기시키고, 일면으로는 주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세의 완급과 사체의 경중을 참작하고 헤아려서 적발, 구류, 체포하여 문죄한다.

만약 죄상이 분명치 않으면 상부에 보고한다. 함부로 구속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해당 대(隊)와 해당 상급 관원과 파총(把總) 이하를 모두 죄로 다스린다.

만약 이미 서면으로 보고하였는데도 본초(本哨)의 총사(總司)가 죄인을 구류하지 않거나, 보고 문서를 상급 관청에 전달 보고하는 것을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문서를 회수하고 죄를 다스린다.

만약 차인(差人)이 사실의 진상을 해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제로 체포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규정으로 제기된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면으로 차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일면으로는 주장에게 보고하여 수감한 다음, 군령(軍令)을 문란시킨 행위로 규정하여 ‘연병(練兵)을 방해하고 은밀하게 파괴하려 한 죄’로 다스린다.

▣ 엄도령[嚴途令 : 행군도상의 군령을 엄히 함]

모든 병사가 길에서 문무(文武)의 대소 관원을 만나면 모두 말에서 내려서 길을 양보한다.

그러나, 진영(陣營) 안에서 조련(操練), 또는 행영(行營)을 하면서 금고(金鼓)와 호령(號令)을 받들 적에는 오직 한결같이 호령만을 따를 뿐, 반드시 회피할 필요가 없다.

■ 권함인[勸涵忍 : 관용과 인내를 권면함]

타인이 나에게 싸움을 걸면, 그것이 타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점잖게 참고 그를 피하여 직속상관에게 보고한다. 직속상관은 해당 상급기관에 전보(轉報)하여 공정한 처분을 받게 한다.

만약 함께 다투었는데, 이 병사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참지 못하고 먼저 때렸으면, 뒤에 따로 조사해서 처리한다.

만약 주둔지역의 주민과 다투었을 경우에는 잘잘못을 막론하고, 먼저 병사를 곤장 20대로 다스린 뒤에 담당부서에서 분변하여 처단한다.

■ 금절도[禁竊盜 : 절도를 금함]

병사들이 상호간에 절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다소를 헤아리지 않고 군중(軍中)에서는 군법(軍法)으로 다스린다.

출군(出軍)하여 전진(戰陣)에 이르렀을 경우가 아니면 통상의 법규로 다스린다.

■ 금박혁[禁博奕 : 장기 바둑을 금함]

모든 군중(軍中)에서 무예(武藝)를 연습하는 이외에도 유희(遊戱)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만약 규정에 의하여 풍속을 따라 이들

유희를 고쳐서 창곡(唱曲)을 만들어 배우고 연습하여 유희와 악곡(樂曲)에 대신하게 할 경우에는 상을 준다.

그러나, 이밖의 도박을 위한 장기와 바둑 등의 놀이는 모두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는 규정의 조항에 따라서 다스린다.

■ 금괴의[禁乖議 : 비정상적인 논의를 금함]

모든 장령(將領)들과 초관(哨官) 및 대장(隊長)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거나 시샘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쳤을 경우에는 군법으로 처단한다.

군사상 기밀사항을 상의(商議)할 적에는 공평하고 합당하게 되도록 함을 힘쓰되, 즉시 결정한다.

이를 어기고 끝까지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 자는 처단하여 다스린다.

■ 계거상[戒居常 : 평상시의 행동거지를 경계함]

같은 동아리에서 거처하는 병사들은 저녁이 되면 편안하고 조용하게 수면을 취하여 정신을 함양하되, 침상에서 소리내어 노래를 불러 정신을 산란하게 하거나, 음탕한 마음을 먹도록 유도하거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순번에 따라 교대하여 군마(軍馬)를 먹이되, 부지런히 일어나서 마초(馬草)를 더 준다.

날이 새면 일찍 일어나 머리를 빗고 세수를 마친 다음, 각각 한 곳에 끼리끼리 모여서 하달받은 지시사항을 문자를 아는 한사람으로 하여금 조목조목 한차례 설명하여 들려주게 한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각각 자신의 일을 시작하여 풀밭에 군마를 내놓거나 매매(賣買) 등의 일을 한다.

낮에는 휴식을 하는데, 혹은 앉고 혹은 잠을 자되, 되도록 편안하고 여유롭게 한다.

해가 서편으로 기울면 각각 편리한 곳에서 무예(武藝)를 연습하거나, 혹은 궁술(弓術)과 마술(馬術)을 배우다가, 어두어지면 그만둔다.

매 반개월마다 한차례 자기의 병기(兵器)를 가지고 닦아서 빛을 내야 할 것은 닦아서 빛을 내고, 수리할 것은 수리한다.

이상은 모두 해당 관할대장(隊長)과 기총(旗總)이 감독 지도하고 주관하며, 백총(百總)은 병기를 닦는 날에 한차례 검사를 한다.

▣ 원분수[原分數 : 분수를 명백히 함]

모든 군중(軍中)의 사무는 지금 경중(輕重)을 살펴서 20가지로 나눈다.

군례(軍禮)가 20분지 2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차례로 연좌(連坐)의 법이 20분지 2를 차지하며, 상(賞)이 20분지 3을 차지하고, 벌(罰)이 20분지 3을 차지한다.

양식(糧食)으로 상을 주어 실지로 혜택을 받는 것이 20분지 2를 차지하고, 지휘통신체계인 호령(號令)을 분명히 수행하는 것이 20분지 2를 차지한다.

군(軍)의 화기(火器)를 정예하게 관리하는 것이 20분지 1을 차지하고, 영진(營陣)의 법을 터득하는 것이 20분지 1을 차지하며, 장수와 용감하고 병사가 정예로운 것이 20분지 1을 차지하니, 이는 모두 병사를 훈련하는 절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머지 20분지 3은 장수가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근저(根底)에 해당된다. 이전의 20분지 17도 모두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근저임은 매한가지이다. 그러나, 이른바 3이라는 것은 실로 마음을 다해 직무를 맡으며, 지성으로 아랫사람을 통솔하여 그 괴로움을 함께하고, 그 사사로운 사정을 구휼하며, 감응(感應)으로써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평일에는 은혜(恩惠)와 위엄(威嚴)에 마음으로 감복하게 하면, 반드시 “죽여도 원망하지 않으며, 이롭게 해줘도 그것을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²⁷⁾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병법(兵法)》에 ‘백성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마음을 함께하게 한다.’²⁸⁾ 하였고, 《논어(論語)》에 ‘용맹하고 의리를 향할 줄을 안다.’²⁹⁾ 하였고, 《맹자(孟子)》에 ‘몽둥이를 가지고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하게 할 수 있다.’³⁰⁾ 하였으니, 거의 이에 가깝다 할 수 있겠다.

27) 죽여도 않는다 : 《맹자(孟子)》〈진심장구(盡心章句) 상〉에는 “패자(霸者)의 백성들은 매우 즐거워하고 왕자(王者)의 백성들은 스스로 만족하여 죽여도 원망하지 않으며, 이롭게 해줘도 그것을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霸者之民 驩虞如也 王者之民 皞皞如也 殺之而不怨 利之而不庸]”라고 하였다.

28) 백성으로 한다 : 《손자(孫子)》〈시계(始計) 제1〉

29) 용맹하고 안다 : 《논어(論語)》〈선진(先進) 제11〉

30) 몽둥이를 있다 : 《맹자(孟子)》〈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상〉

[紀效新書(下)]

권12 주사편[舟師篇]

■ 권12 주사편[舟師篇]

주사(舟師)에 관한 정령(政令)은 많다. 하물며 육조(陸操)와 아울러서 시행하는 조련(操練)에 관한 정령과 호령(號令)은 육병(陸兵)과 수병(水兵) 모두에게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하여 시행하면 10분지 2~4로 충분할 것이다. 이른바 이목(耳目)과 상벌(賞罰)은 또한 남(南)과 북(北)의 구별이 없으니, 고금에 어찌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을 구별해서 논했겠는가?

그러나, 속오(束伍)에 이르러서는 주사(舟師)가 육군과 다르고, 또 수군은 그 용도가 특별한 바가 있으므로 따로이 일설을 만들어 수군의 장비인 선박과 그에 따른 도구에 대하여 마땅히 고쳐서 미리 정돈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차례하여 주사편(舟師篇)을 두었다.

■ 속오해[束伍解 : 속오에 대한 해설]

모든 선박(船舶)의 기호(旗號)는 명칭과 형태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가장 꺼린다. 명칭과 형태가 한결같이 통일되지 않으면 호령(號令)이 번거롭고, 명칭과 형태가 복잡하면 병사들이 혼란함을 분별하기 어려워서 강령(綱領)이 없어지게 될 것이니, 어떻게 군막(軍幕)에 앉아서 적을 상대로 작전을 운용하여 승리를 취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1호로부터 시작하여 6호에 이르기까지 선박의 기호를 붙이고, 배의 이름을 부르지 말게 하여야 한다.

직례(直隸)·절강(浙江)·민중(閩中)·광둥(廣東) 등의 지방은 모두 소택(沼澤)이 많은 지방이라 일컬어져 그 지역의 중심부에는 모두 바다가 있고 강과 하천이 매우 많다. 따라서 지역 풍토에 따라 선척(船隻)을 만들어 명칭과 형태가 서로 다르니, 각 지방마다 타고 부리기를 서로 그 편의에 따라 각각 그 편리함을 고집한다. 그러므로 작은 배로 적의 거함(巨艦)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큰 배로

적의 작은 배를 앞잡아보는 경우도 있으며, 소수 선단으로 적의 다수 선단과 대적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 선단으로 적의 소수 선단에게 곤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편의 글은 동남(東南)지방의 강과 하천, 호수와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 변통하여 운용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지방의 선박 명칭만을 고집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정해둔 칭호 이외에 배의 이름 1자를 더하여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매 1수채(水寨)마다 한 사람의 장령(將領)을 배치하여 선박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말고 고르게 분파(分派)하여 다만 1수채의 지위를 인정하여, 그 지휘관이 참장(參將)이건 유격(遊擊)이건 도수(都守)이건 파총(把總)이건, 계급의 고하에 구애받지 말고 한결 같이 주장(主將)이라고 해야 한다.

주장은 각각 휘하의 선단(船團)을 재량으로 나누는데,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친선(親船)을 중앙에 두어 중사(中司)라 하고 중군(中軍)이 이를 관리하게 하되, 장수의 명령을 전달하기에 편리한 요충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선박의 수가 많으면 편의에 따라 전진(戰陣)을 독려한다. 만약 주장이 예하의 각 초(哨)나 좌우(左右)의 각 사(司)를 순찰하고 감독할 경우에는 다만 중군(中軍)만 거느리고 간다. 중군은 주장을 수행하여 왕래를 편리하게 하되, 해당 초에 도착하거나, 해당 초에 있을 적에는 서로 도우니, 이는 그 직무를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주장이 사(司)와 초(哨)의 선척(船隻)을 마음대로 징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주장이 판자 한 조각이라도 마음대로 징발하여 사와 초의 형세를 미약하게 만들어 일을 그르치게 하면 주장을 중죄로 처벌한다.

주장과 중군은 선박이 각 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평균치를 가지고 일사(一司)와 한곳에 합하여 형세를 이미 다른 초(哨)보다 배가하게 하고, 반드시 선박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큰 것을 골라서 중군사장(中軍司長)으로 삼는다.

형세가 이미 넉넉해지면, 여분의 선박으로 중사(中司)·좌사(左司)·우사(右司)를 삼고, 매 사를 2초(哨)로 나누어 모두 6초(哨)로 하고, 선척이 많으면 다시 전사(前司)·후사(後司)를 더하고 이를 또다시 각각 2초(哨)로 나누어 모두 10초(哨)로 한다.

이렇게 크고 작은 선척을 서로 통합시키니, 대략 10척 이하에서 5척 이상으로 1종(艖：선단)을 만들어 초관(哨官)이 이를 거느리게 한다. 2초(哨)를 1사(司)로 하여 분총(分總)이 이를 거느리게 한다.

3개의 사(司)나 2개의 사(司)로 1부(部)를 만들어 주장(主將)이 이를 거느리게 한다.

■ 기색해[旗色解：기색에 대한 해설]

각 선박의 위에 걸린 대기(大旗)는 모두 검은 색깔의 천을 사용하니, 한 가지 이유는 멀리서 바라보기에 편리해서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검은색이 물의 성질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흰색깔의 천을 사용하여 수寨(水寨)의 이름 한 자를 크게 써서 대기의 가운데에 붙인다.

그리고 각각의 방색(方色)³¹⁾에 따라 호대(號帶)³²⁾를 만든다.

각 대(隊)의 대장(隊長)이 지니는 소기(小旗)는 각각 소속 선박의 호대에 표시된 방색에 따른다.

■ 호대색[號帶色：호대의 색]

전사(前司) 붉은색 띠

좌사(左司) 남색 띠

우사(右司) 흰색 띠

후사(後司) 검은색 띠

31) 방색(方色)：동(東), 서(西), 남(南), 북(北), 중(中) 다섯 방위(方位)에 따른 파랑, 하양, 빨강, 검정, 노랑 등(等) 다섯 가지의 색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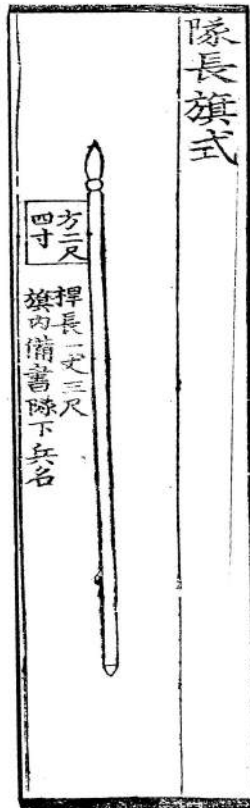
32) 호대(號帶)：깃대에 매달아 군졸(軍卒)을 부르는 신호로 삼는 긴 명주띠

중사(中司) 노란색 띠

중중사(中中司) 쌍(雙) 노란 띠

■ 대장기식[隊長旗式 : 대장기의 격식]

【그림 1】 대장기식(大將旗式)



모서리 길이 2척(尺) 4촌(寸)(72cm)

깃대 길이 1장(丈) 3척(3.9m)

깃발 안에는 대(隊)에 소속된 병사들의 이름을 갖추어 쓴다.
매 선박마다 오방기 1부(副)

전사(前司) 모두 붉은색 테두리
좌사(左司) 모두 남색 테두리
우사(右司) 모두 흰색 테두리
후사(後司) 모두 검은색 테두리
중사(中司) 모두 노란색 테두리
중중사(中中司) 노란색 테두리를 더함

▣ 책성해[責成解 : 책임 추궁에 대한 해설]

포도(捕盜)는 한 선박(船舶)의 업무를 전담 관리하되, 다스리지 않는 바가 없다. 배에 오른 각 병사(兵士)는 모두 그 관리와 제약을 받되, 당연히 그 일이 중대하여 권한을 더하여 힘을 오로지하게 하고, 간섭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타공(舵工)은 타(舵)를 전담 관리하고 겸하여 타문(舵門) 아래의 공수(攻守)를 겸하여 맡는다.

정수(舵手)는 정(舵)을 전담 관리하고 선두(船頭) 전면의 공수를 맡는다.

요수(繚手)는 범장(帆檣)과 색승(索繩)을 전담 관리하고, 갑판의 수량(水量) 조절 확보를 관장하되, 적과 맞닥뜨리면 갑판으로 올라가 이두표(犁頭鏢)를 써서 아래로 적의 선박을 쏜다.

신기수(神器手)는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를 전담 관리한다.

장호수(掌號手)는 사(司)와 초(哨)의 신호에 접응하는 일과 독선(獨船)으로 적과 맞서서 싸우면서 나아가고 멈추는 일을 전담 관리한다.

선문(艙門 : 선창문)을 지키는 자는 적과 맞닥뜨렸을 적에는 창문을 굳게 지키고, 평시에는 일체의 가화(家火), 공구(槓具 : 지렛대), 지소(支銷 : 소비 지출)와 주야로 관방(關防)을 출입하는 것을 관리한다.

대장(隊長)은 일대(一隊) 안의 공수(攻守)를 맡아 다스리고 병사(兵士)를 독려함에 명령을 쓰며, 적이 가까이 오면 화통(火筒)을 전달하여 발사한다. 평시에는 병사를 독려하여 무예(武藝)를 익히게 하고 군화기(軍火器)를 수리하는 일을 다스린다.

■ 편병해[編兵解 : 부대 편성에 대한 해설]

○ 1호 모자선(某字船) 1척(隻)

포도(捕盜) 1명
가정(家丁) 1명
타공(舵工) 2명
두수(斗手) 2명
요수(繚手) 2명
정수(楫手) 2명
수창문(守艙門) 2명
장호(掌號) 1명
신기(神器) 4명

이것은 수효가 일정하여 더하거나 줄일 수 없다.

병력(兵力)은 8대(隊)가 있는데, 매 대마다 대장(隊長) 1명, 병사 1명, 합계 88명이다.

혹은 7대, 6대, 5대로 하여 선박과 지역에 따라 줄이거나 더한다.
뒤 각 호(號)의 선박은 모두 이를 본뜬다.

【그림 2】



제1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계(器械)를 쓰며, 대장(隊長)은 화통(火筒)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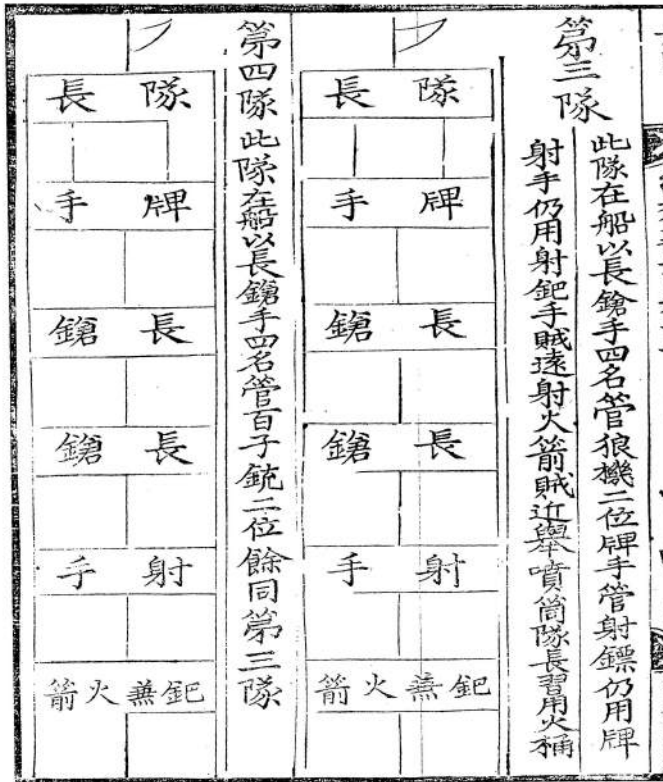
대장(隊長)-조총수(鳥銃手)-조총수-조총수-조총수-조총수

제2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계를 쓰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조총수(鳥銃手)-조총수-조총수-조총수-조총수

【그림 3】



제3대

이 대(隊)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長槍手) 4명으로 불랑기(佛狼機) 2위를 관리하게 하고, 패수(牌手)로 사표(射鏢)를 관리하도록 하여 그대로 패(牌)를 사용하게 한다.

사수(射手)는 그대로 사과수(射鈹手)를 쓰되, 적이 멀리에 있으면 화전(火箭)을 쏘고, 적이 가까이에 있으면 분통(噴筒)을 쏘며, 대장(隊長)은 화통(火筒)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槍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巴手) 겸 화전수(火箭手)

제4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長槍手) 4명으로 백자총(百子銃)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3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槍手)-장창수-사수(射手)-과수(巴手)
겸 화전수(火箭手)

【그림 4】

舟師	第 六 隊		此隊在船以長鎗手四名管百子銃二位餘同第三隊		第 五 隊		此隊在船以長鎗手四名管狼機在餘同第三隊	
	長	隊			長	隊		
	手	牌			手	牌		
	鎗	長			鎗	長		
	鎗	長			鎗	長		
	手	射			手	射		
	箭	火 兼 鉞			箭	火 兼 鉞		

제5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長槍手) 4명으로 불랑기(佛狼機)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3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鈹手)
검 화전수(火箭手)

제6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長槍手) 4명으로 백자총(百子銃)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3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鈹手)
검 화전수(火箭手)

【그림 5】



제7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長槍手) 4명으로 불랑기(佛狼機)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3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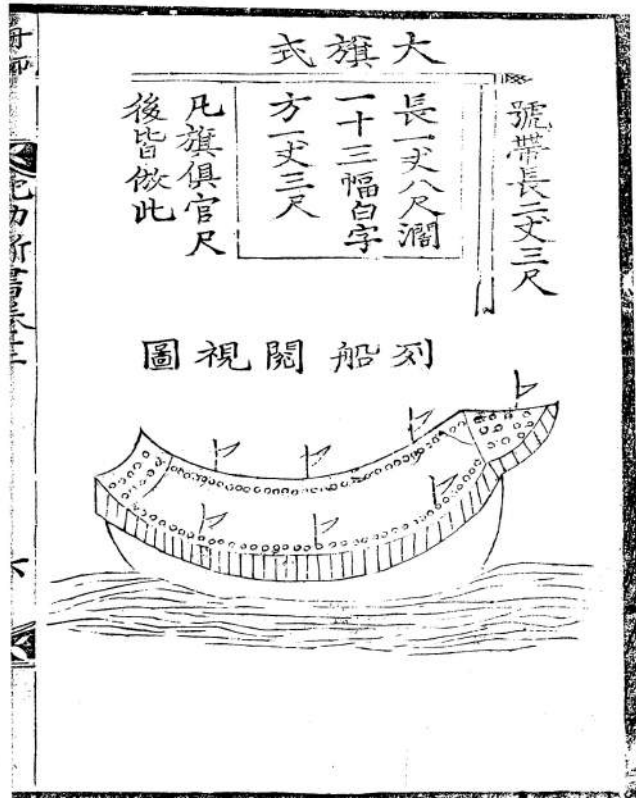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鈚手)
검 화전수(火箭手)

제8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長槍手) 4명으로 백자총(百子銃)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3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鈚手)
검 화전수(火箭手)

【그림 6】



■ 대기식[大旗式 : 대기의 격식]

호대(號帶) 길이 2장 3척(6.9m)

깃발 길이 1장 8척, 넓이 13폭, 흰글자, 모서리 1장 1척

모든 깃발은 다 관척(官尺)으로 하되, 뒤는 다 이를 본뜬다.

열선열시도(列船閱視圖)

○ 2호 모자선(母字船) 1척(隻)

포도(捕盜) 1명

가정(家丁) 1명

타공(舵工) 2명

두수(斗手) 2명

요수(繚手) 2명

정수(楫手)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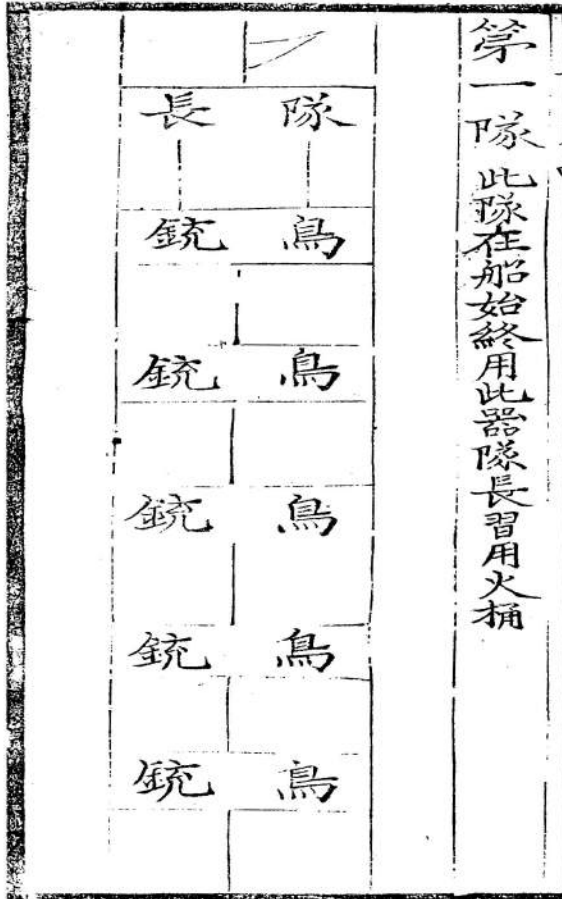
수창문(守艙門) 2명

장호(掌號) 1명

신기(神器) 2명.

대장(隊長)이 6명이고 병부(兵夫) 60명이며, 기치(旗幟)의 방색(方色)은 모두 본초(本哨)를 따른다.

【그림 7】



제1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계를 쓰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조총수(鳥銃手)-조총수-조총수-조총수-조총수

【그림 8】



제2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계를 쓰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조총수(鳥銃手)-조총수-조총수-조총수-조총수

제3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불랑기 2위를 관리하게 하고, 패수(牌手)로 사표(射鏢)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대로 패(牌)를 사용하게 한다.

사수(射手)는 그대로 사과수(射鈹手)를 쓰되, 적이 멀리에 있으면 화전(火箭)을 쏘고, 적이 가까이에 있으면 분통(噴桶)을 쏘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鈹手)
겸 화전수(火箭手)

【그림 9】



제4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백자총(百子銃)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3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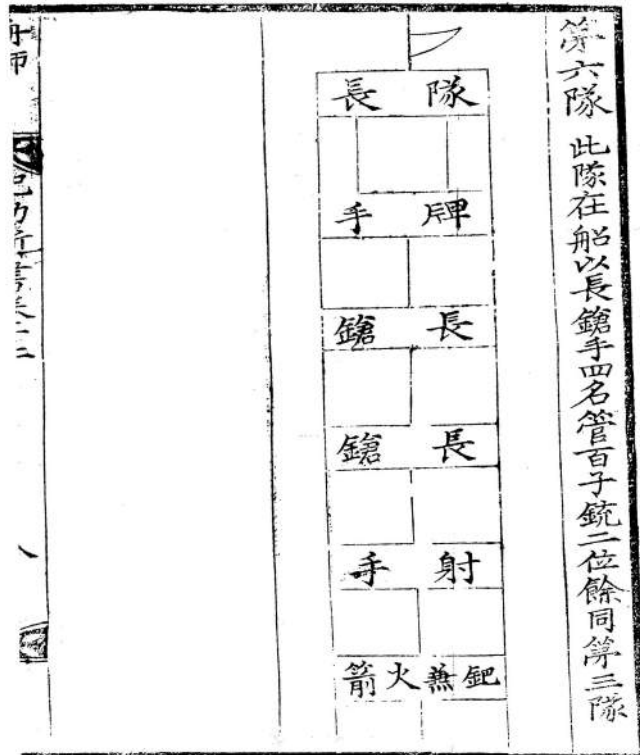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과수(鉞手)
검 화전수(火箭手)

제5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불랑기(佛狼機)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3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과수(鉞手)
검 화전수(火箭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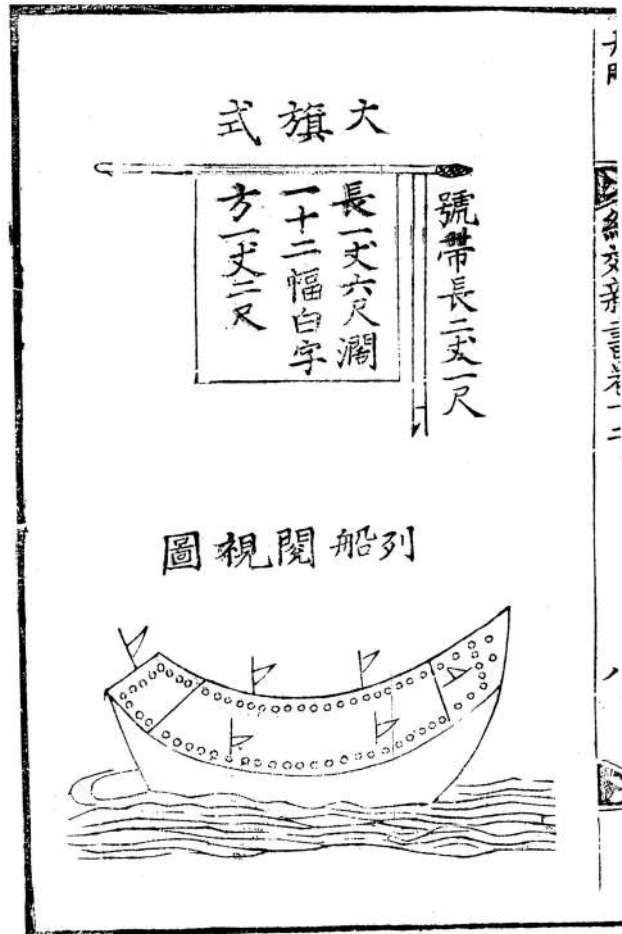
【그림 10】



제6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백자총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3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鈚手)
검 화전수(火箭手)



【그림 11】

대기식(大旗式)

호대(號帶) 길이 2장 1척(6.3m)

깃발 길이 1장 6척(4.8m), 넓이 12폭, 흰글자, 모서리 1장 2척(3.6m)

■ 강열시도[缸閱視圖 : 전함 사열의 도형]

열선열시도(列船閱視圖)

○ 3호 모자선(母字船) 1척(隻)

포도(捕盜) 1명

가정(家丁) 1명

타공(舵工) 2명

두수(斗手) 2명

요수(繚手) 2명

정수(掟手) 2명

수창문(守艙門) 2명

장호(掌號) 1명

신기(神器) 2명

대장(隊長)이 5명이고 병부(兵夫) 50명이며, 기치(旗幟)의 방색(方色)은 모두 본초(本哨)를 따른다.

제1대

이 대는 오로지 조총만 쏘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조총수(鳥銃手)-조총수-조총수-조총수-조총수

【그림 13】



제2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불랑기 2위를 관리하게 하고, 패수로 사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그대로 패를 사용하게 한다. 사수는 그대로 사과수를 쓰되, 적이 멀리 있으면 화전을 쏘고, 적이 가까이에 있으면 분통을 쏘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과수(鉞手) 겸 화전수(火箭手)

제3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백자총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2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과수(鉞手) 겸 화전수(火箭手)

【그림 14】

舟師 巴力斤言卷十二 ト	第五隊		第四隊	
	此隊在船以長鎗手四名管白子銃二位餘同第二隊		此隊在船以長鎗手四名管狼機二位餘同第二隊	
	長	隊	長	隊
	手	牌	手	牌
	鎗	長	鎗	長
	鎗	長	鎗	長
	手	射	手	射
	箭	火 燕 鉞	箭	火 燕 鉞

제4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불랑기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2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鈹手)
검 화전수(火箭手)

제5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백자총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2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鈹手)
검 화전수(火箭手)

【그림 15】



대기식(大旗式)

호대(號帶) 길이 1장 9척(5.7m)

깃발 길이 1장 4척, 넓이 11폭, 흰글자, 모서리 9척

열선열시도(列船閱視圖)

○ 4호 모자선(母字船) 1척(隻)

포도(捕盜) 1명

가정(家丁) 1명

타공(舵工) 2명

요수(繚手) 2명

두수(斗手) 2명

정수(掟手) 2명

신기(神器) 2명

장호(掌號) 1명

대장(隊長)이 4명이고 병부(兵夫) 40명이며, 기치(旗幟)의 망색(方色)은 모두 본초(本哨)를 따른다.

【그림 16】



제1대

이 대는 오로지 조총만 쏘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조총수(鳥銃手)-조총수-조총수-조총수-조총수

【그림 17】



제2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불랑기(佛狼機) 2위(位)를 관리하게 하고, 패수로 사표(射鏢)를 관리하도록 하여 그대로 패를 사용하게 한다.

사수(射手)는 그대로 쓰되, 사수와 파수는 적이 멀리에 있으면 화전을 쏘고, 적이 가까이에 있으면 분통을 쏘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鈚手)
겸 화전수(火箭手)

제3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백자총(白字銃) 2위(位)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2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鈚手)
겸 화전수(火箭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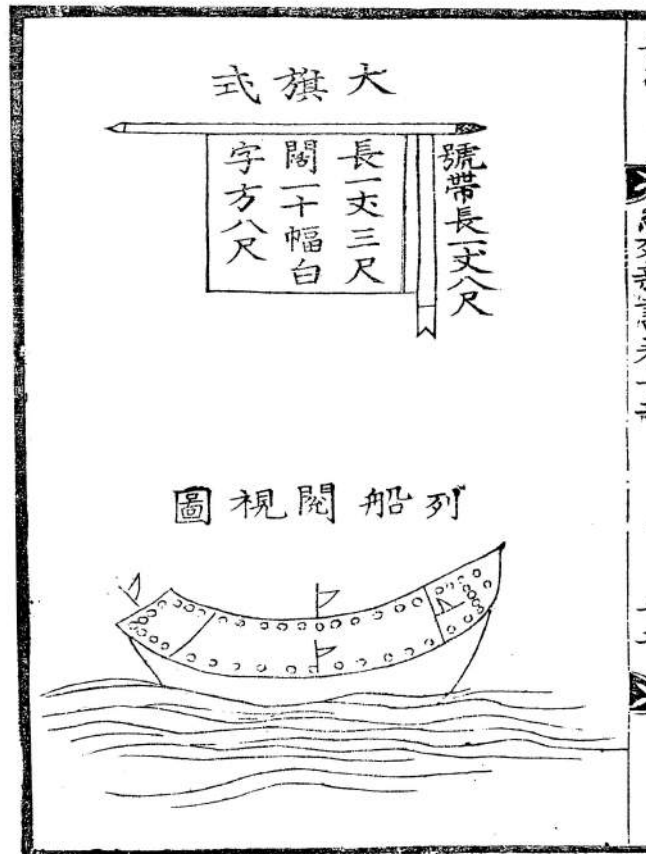
舟師 紀效新書卷十二	第四隊	
	此隊在船以長鎗手四名管狼機二位餘同第二隊	
	長	隊
	手	牌
	鎗	長
	鎗	長
	手	射
	箭火	兼鈚

【그림 18】

제4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불랑기(佛狼機)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2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과수(鈚手)
검 화전수(火箭手)



【그림 19】

대기식(大旗式)

호대 길이 1장 9척(5.4m)

깃발 길이 1장 3척, 넓이 10폭, 흰글자, 모서리 8척

열선열시도(列船閱視圖)

○ 5호 모자선(母字船) 1척(隻)

포도(捕盜) 1명

가정(家丁) 1명

타공(舵工) 2명

초수(招手)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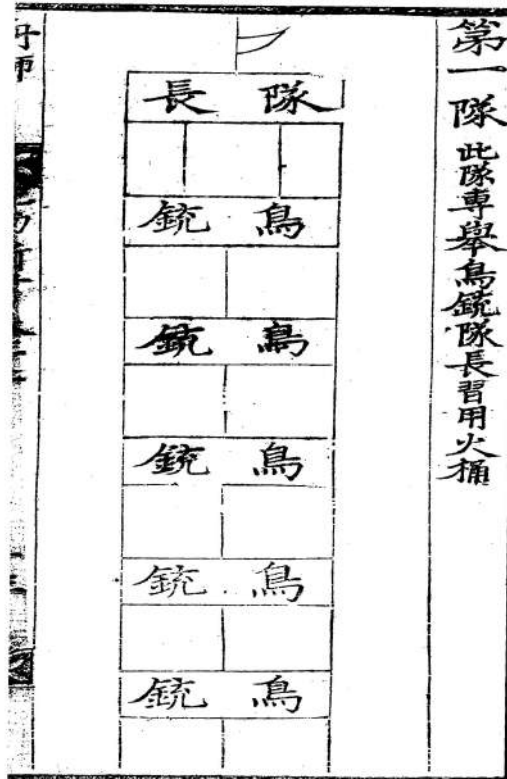
요수(繚手) 1명

정수(楫手) 1명

장호(掌號) 1명

대장(隊長)이 3명이고 병부(兵夫) 30명이다.

【그림 20】



제1대

이 대는 오로지 조총만 쏘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조총수(鳥銃手)-조총수-조총수-조총수-조총수

【그림 21】



제2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불랑기 2위를 관리하게 하고, 패수로 사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그대로 패를 사용하게 한다. 사수는 그대로 사파수를 쓰되, 적이 멀리에 있으면 화전을 쏘고, 적이 가까이에 있으면 분통을 쏘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鈚手) 겸 화전수(火箭手)

제3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백자총 2위를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2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鈚手) 겸 화전수(火箭手)



【그림 22】

대기식(大旗式)

호대 길이 1장 1척(3.3m)

깃발 길이 1장 1척 넓이 9폭 흰글자 모서리 7척

열선열시도(列船閱視圖)

○ 6호 모자선(母字船) 1척(隻)

포도(捕盜) 1명

가정(家丁) 1명

타공(舵工) 1명

초수(招手) 1명

요수(繚手) 1명

정수(楫手) 1명

장호(掌號) 1명

대장(隊長)이 2명

이고 병부(兵夫)

20명이다.



【그림 23】

제1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불랑기 1위와 백자총 2위를 겸하게 하고, 패수로 사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그대로 패를 사용하게 한다.

사수는 그대로 사과수를 쓰되, 적이 멀리 있으면 화전을 쏘고, 적이 가까이에 있으면 분통을 쏘며, 대장은 화통을 연습하여 사용한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파수(鉞手)
겸 화전수(火箭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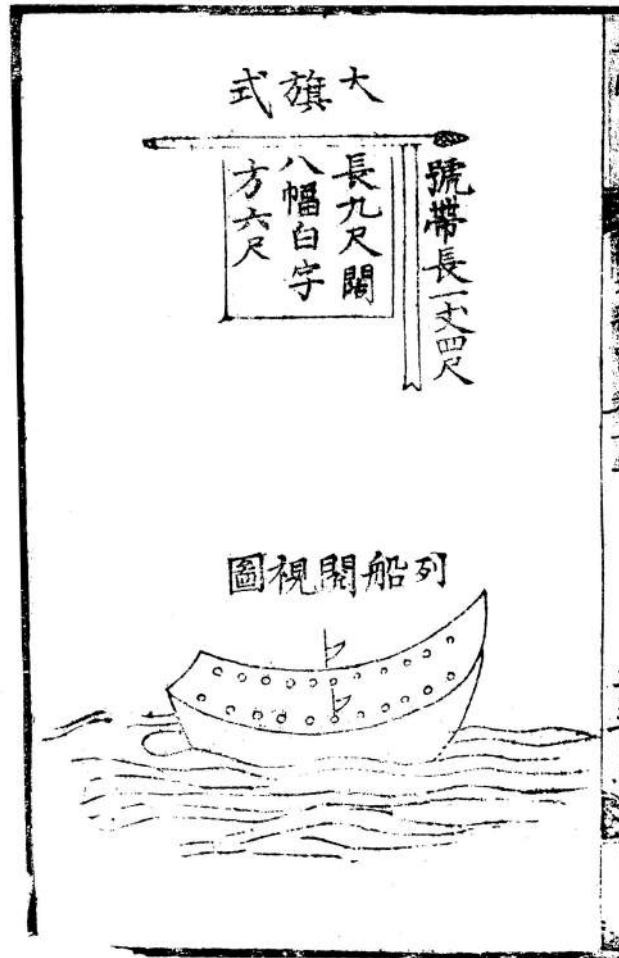


【그림 24】

제2대

이 대는 배에 있으면서 장창수 4명으로 오로지 조총만 쏘게 하며,
나머지는 제1대와 같다.

대장(隊長)-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과수(鈚手)
검 화전수(火箭手)



【그림 25】

대기식(大旗式)

호대 길이 1장 4척(4.2m)

깃발 길이 9척 넓이 8폭 흰글자 모서리 6척

열선열시도(列船閱視圖)

7·8호선은 마치 팔라호(叭喇唬)·팔장선(八槳船)·어선(漁船)·초마(哨馬) 따위와 같은 것으로 혹은 비초(飛哨)가 되기도 하고, 혹은 총기와 화살을 사용한다.

적의 대형 선박이 바람의 편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에워싸고 돌면서 공격하여 곤경에 빠뜨리고, 지역에 따라 순서대로 편성한다. 매 선박마다 타공(舵工) 1명이 있어 포도(捕盜)하는 임무를 맡고, 가정(家丁) 1명, 요수(繚手) 1명, 수선(守船) 1명이 있으며, 군사 1대(隊)가 있는데, 대략 20명을 넘지 않는다.

육조(陸操)를 할 경우에는 타공을 대장(隊長)으로 충원하고 군기(軍器)를 소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화기(火器)를 쓰지 않는다. 팔라호는 유사시에 대선(大船)에서 조발(調發)하여 거느린다.

【그림 26】

面正牌腰兵水		第一隊此隊照大船殺手惟長鎗四名無習鳥銃	
		工 舵	
		手 牌	
		鎗 長	
		鎗 長	
		手 射	
		箭 火 無 飽	
年 日	藝 陸	有 疤	長 尺 寸
藝 雲	處 力	百 斤 水	面 縣 都 身
日 給			寨 司 鯨 年

제1대

이 대는 대선의 살수를 기준으로 하여 오직 장창수 4명으로 조총을 겸하여 연습하게 한다.

타공(舵工)-패수(牌手)-장창수(長鎗手)-장창수-사수(射手)-과수(鈹手)
겸 화전수(火箭手)

수병요패정면[水兵腰牌正面 : 수병이 허리에 차는 패의 앞면]

채(寨) 사(司) 중(中) 년(年)

세(歲) 현(縣) 도인신(都人身)

장(長) 척(尺) 촌(寸) 면(面) 수(鬚) 상(上)

유과(有疤) 처력(處力) 백(百) 근수(斤水)

예륙(藝六) 예(藝)

연(年) 월(月) 일(日) 급(給)

▣ 수기총해[投器總解 : 병기 지급에 대한 총괄적 해설]

수병(水兵)은 선상전투(船上戰鬪)를 위주로 하니 각 군대(軍隊)를 편성(編成)한 대오(隊伍)의 기계는 마땅히 배에서 사용하기 좋은 것을 중요시하되, 적이 산으로 오르는 경우를 우려하여 육전(陸戰)도 겸하여 익힌다. 배 안의 기구는 육지로 옮겨서 쓸 수가 없으니, 다만 통용될 수 있는 것만을 옮겨다가 쓴다.

배에서만 전용하는 모종(某種)의 기구와 육지에서만 전용하는 모종의 기구를 둘러대어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익히게 한다. 이를 분석하여 각 대에 매우 분명하게 알리고, 그 선상(船上)에 있는 병사에게 분배한 기계(器械)는 다만 한 가지로 국한하여 그 대략을 익히도록 임무를 맡겨 시험하고 비교한다.

적과 선박 주변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을 경우, 누가 어떤 병기를 쏘는가에 불구하고, 다만 능히 용기를 분발하여 적의

칼날에 맞서서 화약(火藥)과 화기(火器)를 써서 공을 이루었거나, 창검을 써서 적을 죽여 공을 세웠거나, 각기 으뜸이 된 자는 모두 격식을 뛰어넘어 특별한 공으로 논한다.

▣ 수기해[授器解 : 병기지급에 대한 해설]

1호선(號船)은 마땅히 군화기계(軍火器械)를 갖추어 민월(閩越)·광주(廣州)지방 선척(船隻)의 이름이나 호(號)를 쓰지 않는다.

다만 제일 큰 것은 모두 다 절강(浙江)·직례(直隸)의 배이니 1호, 2호를 가릴 것 없이 민월과 광주지방에서 조성한 명색(名色)과 같이 한다.

민월과 광주는 곧 민월, 광주라고 명호(名號)를 삼아 명색이 같지 않더라도 선량(船梁)과 선두(船頭)가 같으니, 민(閩)·광(廣) 1호, 2호로 하고, 장자(長者)도 또한 그 호를 같게 하고, 그 병사를 같게 하고, 그 무기를 같게 한다.

○ 1호선에서 갖추어야 할 군화기계(軍火器械)

①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 2위(位)

매 위(位)마다 자포(子砲) 3문(門) 합계 6문

화약(火藥) 매 자포(子砲) 1문(門)마다 3발, 합계 18발. 매 발마다 6근(3.6kg), 합계 108근(斤 : 64.8kg)

화승(火繩) 6조(條), 매 조마다 길이 3장(9m), 무게 5냥(兩 : 187.5g), 매 근마다 자연감소량 1냥, 합계 2근(1.2kg)

총구에 맞는 큰 돌탄알(合口大石子) 매 발마다 1알(丸), 합계 18알
작은 쇠 탄알(小鐵子) 매 발마다 200알을 쓰며, 합계 3,600알 무게 1냥(37.5g), 합계 225근(135kg)

약선(藥線) 정(正)·부(副) 36조, 매 조마다 길이 1척

대목랑두(大木榔頭) 1개

총구에 맞는 목송(合口木送) 1개

세토(細土) 매 발마다 1승(升) 합계 1두(斗) 8승

② 대랑기(大狼機) 8위(位)

매 위(位)마다 자총(子銃) 9문, 합계 72문

화약 매 자총 1문마다 10발, 매 발마다 반근(300g), 합계 720발에
소요되는 화약 360근(216kg)

화승 매 불랑기 1위마다 3조(條), 합계 24조, 매 조마다 길이 3장
(9m), 무게 5냥(兩 : 187.5g), 자연감소량 합계 8근(4.8kg)

납탄알(鉛子) 720알, 무게 5냥, 합계 225근(135kg)

③ 백자총(百子銃) 6위(位)

화약 매 위(位)마다 24발, 매 발마다 반근(300g), 합계 72근(43.2kg)

화승 매 위마다 3조(條), 합계 18조, 매 조마다 길이 3장(9m), 무게
5냥(187.5g), 자연감소량 합계 6근(3.6kg)

큰 납탄알 24발, 매 발마다 1알, 매 알마다 무게 30냥(1,125g), 합계
144알, 총무게 270근(162kg)

작은 납탄알 24발, 매 발마다 50알, 매 알마다 무게 5전(錢 : 18.75g),
합계 7,200알, 총무게 225근(135kg)

④ 조총(鳥銃) 20문(門)

화약 매 문(門)마다 300발, 매 발마다 3전(11.25g), 합계 112근 8냥
(67.5kg)

화승 매 위마다 3조(條), 합계 60조, 매 조마다 길이 2장(6m), 무게
5냥(187.5g), 자연감소량 합계 20근(12kg)

납탄알 화약을 기준으로 해서 300발, 매 발마다 1알, 매 알마다 무게 3전(11.25g), 합계 6,000알, 총무게 112근 8냥(667.8kg)

⑤ 화통(火筒)·수신(水身)·죽잡(竹簍) 1두(斗)를 채울 수 있는 큰 것 20척(隻)

화약 매 통마다 5근(3kg), 합계 100근(60kg).

두껍고 큰 주발 매 통마다 1척, 합계 20척.

목탄(木炭) 매 주발마다 2냥(75g), 자연감소량 2냥 합계 5근(3kg)

⑥ 분통(噴筒) 30개

신기전(神機箭) 500지(枝)

비도(飛刀), 비검(飛劍) 모두 100지

장죽창(長竹槍) 40지

과선장창(過船長槍) 20지

구검도(鉤鎌刀) 10파(把)

요구(撩鉤) 10파

이두표(犁頭鏢) 30지

소철표(小鐵鏢) 1,500지

등패(籐牌) 30면과 요도 30파

각궁(角弓) 10장과 현 20조

우전(羽箭) 300지

철질러(鐵蒺藜) 2,000개

⑦ 공구집물(楨楸什物)

대소풍봉(大小風篷 : 크고 작은 바람막이 돛) 2선(扇)

선로(船櫓 : 배의 노) 6지(枝)

타(舵：키) 2문

정(掟：닷) 10지

변타(邊舵：옆 키) 2문

수궤(水櫃：물 방구리) 2개

대울(大緯：굵은 동아줄) 5조

두울(頭緯：뱃머리 동아줄) 4조

대소요수(大小繞手：굵고 가는 얹음줄) 2조

대소요사(大小繞絲：굵고 가는 얹음실) 2부(副)

대소○탑(大小○搭) 2부

통관전칭찰미(通關前秤札尾) 4조

감봉색(減篷索) 2조

대소장완(大小檣緩) 2조

순타색(順舵索) 1조

교타색(絞舵索) 2조

타아색(舵牙索) 2조

람(纜：닷줄) 8조

정타색(艇拖索：거룻배 당기는 밧줄) 1조

정로(艇槽) 6지

수통(水桶) 2개

거수색(車水索) 1조

대소망두(大小望斗) 2개

두심색(斗心索) 2조

두의(斗衣) 2부

대외기(大桅旗) 1면(面)

오방기(五方旗) 5면

라(鑼) 1면

고(鼓) 1면

나팔(喇叭) 2지

철사등롱(鐵絲燈籠) 30잔

매 등마다 촛불 10일 밤 소요분 준비, 매일 밤 10지 소요. 매 지마다 1냥. 겨울과 여름을 열흘 밤으로 환산하여 모두 100지로 계산하여 무게 6근 4냥이다. 30잔에 해당하는 3,000지의 합계 187근 반이다. 조련할 때를 당하거나 경보가 없는데도 1지를 점화하니, 중지하지 않으면 허다한 비용을 이루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⑧ 관급(官給)으로 준비해서 사용할 선박(船舶) 수리 물자

대소정(大小釘) 50근

황마(黃麻) 100근

황등(黃籐) 100근

동유(桐油) 100근

⑨ 포병(捕兵)이 스스로 준비할 물자

백회(白灰) 5석

도끼 4과

톱 4과

크고 작은 끌 10과

송곳 5과

크고 작은 낚비 3구

주발과 접시 200개

○ 2호선에서 갖추어야 할 군화기계(軍火器械)[이하의 해설은 모두 1호 안에 상세히 되어 있다.]

①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 1위(位)

자포(子砲) 3문(門)

화약(火藥) 54근(32.4kg)

118 『紀效新書』(下)

작은 쇠 탄알(小鐵子) 1,800발, 무게 112근 8냥(67.5kg)
총구에 맞는 큰 돌탄알(合口大石子) 99알
목랑두(木榔頭) 1과(把)
목송(木送) 1건
약선(藥線) 정(正)·부(副) 18조
세토(細土) 9승(升)

② 대랑기(大狼機) 6위(位)

자총(子銃) 9문, 합계 54문
화약 270근(162kg)
화승 18조
납탄알(鉛子) 68근 12냥(41.25kg)

③ 백자총(百子銃) 6위(位)

화약 72근(43.2kg)
화승 18조
큰 납탄알 144발, 총무게 270근(162kg)
작은 납탄알 7,200발, 총무게 225근(135kg)

④ 조총(鳥銃) 20문(門)

화약 112근 8냥(67.5kg)
화승 60조
납탄알 6,000발, 총무게 112근 8냥(667.8kg)

⑤ 화통(火筒) 15개

화약 75근(kg)

두껍고 큰 주발 15개
목탄(木炭) 3근 12냥(2.25kg)

⑥ 분통(噴筒) 30개

신기전(神機箭) 400지(枝)
비도(飛刀), 비검(飛劍) 모두 30지
장죽창(長竹槍) 30지
과선장창(過船長槍) 20지
구검도(鉤鎌刀) 8과(把)
요구(撩鉤) 4과
이두표(犁頭鏢) 20지
소철표(小鐵鏢) 1,000지
등패(籐牌) 24면과 요도(腰刀) 20과
각궁(角弓) 8장과 현(弦) 16조
우전(羽箭) 240지
철질러(鐵蒺藜) 1,500개

⑦ 공구잡물(槓棋什物)

대소풍봉(大小風篷 : 크고 작은 바람맞이 돛) 2선(扇)
선로(船櫓 : 배의 노) 6지(枝)
타(舵 : 키) 2문
정(楫 : 닢) 8지
변타(邊舵 : 옆 키) 2문
수궤(水櫃 : 물 방구리) 2개
대울(大辮 : 굵은 동아줄) 5조
두울(頭辮 : 뱃머리 동아줄) 4조
대소요수(大小繞手 : 굵고 가는 얹음줄) 2조

대소요사(大小繞絲 : 굵고 가는 얹음실) 2부(副)

대소○탑(大小○搭) 2부

통관전칭찰미(通關前秤札尾) 4조

감봉색(減篷索) 2조

대소장완(大小檣緩) 2조

순타색(順舵索) 1조

교타색(絞舵索) 1조

타아색(舵牙索) 1조

람(纜 : 닻줄) 8조

수통(水桶) 2개

거수색(車水索) 1조

대소망두(大小望斗) 2개

두심색(斗心索) 2조

두의(斗衣) 2부

대외기(大桅旗) 1면(面)

오방기(五方旗) 5면

라(鑼) 1면

고(鼓) 1면

나팔(喇叭) 2지

철사등롱(鐵絲燈籠) 20간, 매 잔등마다 초 100지(枝) 준비, 합계 2,000지,
총무게 125근(75kg)

정타색(艇舵索) 1조

정로(艇櫓) 4지(枝)

⑧ 관급(官給)으로 준비해서 사용할 선박(船舶) 수리 물자

대소정(大小釘) 40근(24kg)

황마(黃麻) 60근(36kg)

황등(黃籐) 60근

동유(桐油) 80근(48kg)

⑨ 포병(捕兵)이 스스로 준비할 물자

백회(白灰) 3석

도끼 2과

톱 2과

크고 작은 끌 8과

송곳 5과

크고 작은 남비 3구

주발과 접시 120개

○ 3호선에서 갖추어야 할 군화기계(軍火器械)

①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 1위(位)

자포(子砲) 3문(門)

화약(火藥) 54근(32.4kg)

작은 쇠 탄알(小鐵子) 1,800발, 무게 112근 8냥(67.5kg)

총구에 맞는 큰 돌탄알(合口大石子) 99알

목랑두(木榔頭) 1과(把)

목송(木送) 1건

약선(藥線) 정(正)·부(副) 18조

세토(細土) 9승(升)

② 대랑기(大狼機) 5위(位)

매 위마다 자총(子銃) 9문, 합계 45문

화약 225근(135kg)

화승 15조

납탄알(鉛子) 450발, 140근 10냥(84.38kg)

③ 백자총(百子銃) 4위(位)

화약 48근(28.8kg)

화승 12조

큰 납탄알 96발, 총무게 180근(108kg)

작은 납탄알 4,800발, 총무게 150근(90kg)

④ 조총(鳥銃) 12문(門)

화약 67근 8냥(40.5kg)

화승 36조

납탄알 3,600발, 총무게 67근 8냥(40.5kg)

⑤ 분통(噴筒) 20개

신기전(神機箭) 300지(枝)

장창(長鎗) 20지

과선장창(過船長鎗) 10지

구검도(鉤鎌刀) 6과(把)

요구(撩鉤) 4과

소철표(小鐵鏢) 600지

등패(籐牌) 12면과 요도(腰刀) 12과

각궁(角弓) 6장과 현(弦) 12조

우전(羽箭) 180지

철질러(鐵蒺藜) 800개

⑥ 공구집물(楨棋什物)

대소풍봉(大小風篷 : 크고 작은 바람맞이 돛) 2선(扇)

선로(船櫓 : 배의 노) 6지(枝)

타(舵 : 키) 2문

정(楫 : 닻) 6지

변타(邊舵 : 옆 키) 2문

수궤(水櫃 : 물 방구리) 2개

대율(大綵 : 굵은 동아줄) 5조

두율(頭綵 : 뱃머리 동아줄) 4조

대소요수(大小繞手 : 굵고 가는 얹음줄) 2조

대소요사(大小繞絲 : 굵고 가는 얹음실) 2조

대소○탑(大小○搭) 2부

통관전칭찰미(通關前秤札尾) 4조

감봉색(減篷索) 2조

대소장완(大小檣緩) 2조

순타색(順舵索) 1조

교타색(絞舵索) 1조

타아색(舵牙索) 1조

람(纜 : 닻줄) 7조

수통(水桶) 2개

거수색(車水索) 1조

대소망두(大小望斗) 2개

두심색(斗心索) 2조

두의(斗衣) 2부

대외기(大桅旗) 1면(面)

오방기(五方旗) 5면

라(鑼) 1면

고(鼓) 1면

나팔(喇叭) 1지

철사등룽(鐵絲燈籠) 12잔, 매 잔마다 초 100지(枝) 준비, 합계 1,200지,

총무게 75근(45kg)

정타색(艇舵索) 1조

정로(艇槽) 6지(枝)

⑦ 관급(官給)으로 준비해서 사용할 선박(船舶) 수리 물자

대소정(大小釘) 40근(24kg)

황마(黃麻) 60근(36kg)

황등(黃藤) 60근

동유(桐油) 80근(48kg)

⑧ 포병(捕兵)이 스스로 준비할 물자

백회(白灰) 3석

도끼 2과

톱 2과

크고 작은 끌 6과

송곳 3과

크고 작은 남비 2구

주발과 접시 120개

○ 4호선에서 갖추어야 할 군화기계(軍火器械)

①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 1위(位)

자포(子砲) 3문(門)

화약(火藥) 54근(32.4kg)

화승(火繩) 3조(條)

작은 쇠 탄알(小鐵子) 1,800발, 무게 112근 8냥(67.5kg)

총구에 맞는 큰 돌탄알(合口大石子) 99알

목랑두(木榔頭) 1파(把)
목송(木送) 1건
약선(藥線) 정(正) · 부(副) 18조
세토(細土) 9승(升)

② 대랑기(大狼機) 4위(位)

매 위마다 자총(子銃) 9문, 합계 36문
화약 180근(108kg)
화승 12조
납탄알(鉛子) 360발, 112근 8냥(67.5kg)

③ 백자총(百子銃) 4위(位)

화약 48근(28.8kg)
화승 12조
큰 납탄알 96발, 총무게 180근(108kg)
작은 납탄알 4,800발, 총무게 150근(90kg)

④ 조총(鳥銃) 10문(門)

화약 56근 4냥(33.8kg)
화승 30조
납탄알 3,000발, 총무게 56근 4냥(33.8kg)

⑤ 분통(噴筒) 10개

신기전(神機箭) 200지(枝)
장죽창(長竹鎗) 10지

과선장창(過船長鎗) 10지
구검도(鉤鎌刀) 2과(把)
요구(撩鉤) 4과
소철표(小鐵鏢) 500지
등패(籐牌) 10면과 요도(腰刀) 10과
각궁(角弓) 6장과 현(弦) 12조
우전(羽箭) 180지
철질러(鐵蒺藜) 500개

⑥ 공구집물(槓棋什物)

대소풍봉(大小風篷 : 크고 작은 바람맞이 돛) 2선(扇)
선로(船櫓 : 배의 노) 6지(枝)
타(舵 : 키) 2문
정(楫 : 닻) 5지
변타(邊舵 : 옆 키) 2문
수궤(水櫃 : 물 방구리) 2개
대율(大辮 : 굵은 동아줄) 4조
두율(頭辮 : 뱃머리 동아줄) 3조
대소요수(大小繞手 : 굵고 가는 엮음줄) 2조
대소요사(大小繞絲 : 굵고 가는 엮음실) 2조
대소○탑(大小○搭) 2부
통관전칭찰미(通關前秤札尾) 4조
감봉색(減篷索) 2조
대소장완(大小檣緩) 2조
순타색(順舵索) 1조
교타색(絞舵索) 1조
타아색(舵牙索) 1조
람(纜 : 닻줄) 7조

수통(水桶) 2개
거수색(車水索) 1조
대소망두(大小望斗) 2개
두심색(斗心索) 2조
두의(斗衣) 2부
대외기(大桅旗) 1면(面)
오방기(五方旗) 5면
라(鑼) 1면
고(鼓) 1면
나팔(喇叭) 1지
철사등룽(鐵絲燈籠) 10잔, 매 잔마다 초 100지(枝) 준비, 합계 1,000지,
총무게 62근(37.2kg)
정타색(艇舵索) 1조
정로(艇槽) 6지(枝)

⑦ 관급(官給)으로 준비해서 사용할 선박(船舶) 수리 물자

대소정(大小釘) 30근(18kg)
황마(黃麻) 50근(30kg)
황등(黃籐) 50근
동유(桐油) 50근

⑧ 포병(捕兵)이 스스로 준비할 물자

백회(白灰) 3석
도끼 2과
툼 2과
크고 작은 끌 4과
송곳 2과

크고 작은 남비 2구

주발과 접시 80개

○ 5호선에서 갖추어야 할 군화기계(軍火器械)

① 낭기(狼機) 3위(位)

매 위(位)마다 자총(子砲) 9문(門), 모두 27문

화약(火藥) 135근(81kg)

화승(火繩) 9조(條)

납탄알(鉛子) 279발, 84근 6냥(50.6kg)

② 백자총(百子銃) 2위(位)

화약 24근(14.4kg)

화승 6조

큰 납탄알(大鉛子) 48발, 90근(54kg)

작은 쇠 탄알(小鐵子) 2,400발, 무게 75근(45kg)

③ 조총(鳥銃) 8문(門)

화약 45근(27kg)

화승 24조

납탄알(鉛子) 2,400발, 45근

④ 분통(噴筒) 10개

신기전(神機箭) 100지(枝)

장죽창(長竹鎗) 10지

과선장창(過船長鎗) 10지

구겸도(鉤鎌刀) 2과(把)
 요구(撿鉤) 2과
 소철표(小鐵鏢) 400지
 등패(籐牌) 10면과 요도(腰刀) 10과
 철질러(鐵蒺藜) 500개
 고망(罟網) 120수(手)

⑤ 공구집물(槓根什物)

대소풍봉(大小風篷 : 크고 작은 바람맞이 돛) 2선(扇)
 선로(船櫓 : 배의 노) 6지(枝)
 타(舵 : 키) 2문
 정(楫 : 닻) 5지
 변타(邊舵 : 옆 키) 2문
 수궤(水櫃 : 물 방구리) 1개
 대울(大辮 : 굵은 동아줄) 4조
 두울(頭辮 : 뱃머리 동아줄) 3조
 대소요수(大小繞手 : 굵고 가는 엮음줄) 2조
 대소요사(大小繞絲 : 굵고 가는 엮음실) 2조
 대소○탑(大小○搭) 2부
 통관전칭찰미(通關前秤札尾) 4조
 감봉색(減篷索) 2조
 대소장완(大小檣緩) 2조
 순타색(順舵索) 1조
 교타색(絞舵索) 1조
 타아색(舵牙索) 1조
 람(纜 : 닻줄) 5조
 수통(水桶) 2개
 거수색(車水索) 1조

대소망두(大小望斗) 1개

두심색(斗心索) 1조

두의(斗衣) 1부

대외기(大桅旗) 1면(面)

본사방기(本司方旗) 1면

라(鑼) 1면

고(鼓) 1면

나팔(喇叭) 1지

철사등롱(鐵絲燈籠) 8간, 매 간마다 초 100지(枝) 준비, 합계 800지,

총무게 50근(30kg)

정타색(艇舵索) 1조

정로(艇槽) 2지(枝)

⑥ 관급(官給)으로 준비해서 사용할 선박(船舶) 수리 물자

대소정(大小釘) 30근(18kg)

황마(黃麻) 30근

황등(黃籐) 30근

동유(桐油) 30근

⑦ 포병(捕兵)이 스스로 준비할 물자

백회(白灰) 2석

도끼 2과

톱 2과

크고 작은 끌 4과

송곳 2과

크고 작은 남비 2구

주발과 접시 60개

○ 6호선에서 갖추어야 할 군화기계(軍火器械)

① 낭기(狼機) 3위(位)

매 위(位)마다 자총(子砲) 9문(門), 모두 27문

화약(火藥) 135근(81kg)

화승(火繩) 9조(條)

납탄알(鉛子) 279발, 84근 6냥(50.6kg)

② 백자총(百子銃) 1위(位)

화약 12근(7.2kg)

화승 3조

큰 납탄알(大鉛子) 24발, 45근(27kg)

작은 쇠 탄알(小鐵子) 1,200발, 무게 37근 8냥(22.5kg)

③ 조총(鳥銃) 6문(門)

화약 33근 12냥(20.25kg)

화승 18조

납탄알(鉛子) 18,00발

④ 분통(噴筒) 8개

신기전(神機箭) 100지(枝)

장죽창(長竹鎗) 10지

과선장창(過船長鎗) 10지

소철표(小鐵鏢) 200지

등패(籐牌) 10면과 요도(腰刀) 10과

구검도(鉤鎌刀) 2과(把)

요구(撩鉤) 2과

방피(綁被) 20수(手)

고망(罟網) 50수

⑤ 공구집물(槓棋什物)

대소풍봉(大小風篷 : 크고 작은 바람맞이 돛) 2선(扇)

선로(船櫓 : 배의 노) 4지(枝)

타(舵 : 키) 2문

최초로(催稍櫓) 2지(枝)

정(楫 : 닻) 4지

수궤(水櫃 : 물 방구리) 1개

대율(大絊 : 굵은 동아줄) 3조

두율(頭絊 : 뱃머리 동아줄) 3조

대소요수(大小繞手 : 굵고 가는 얹음줄) 2조

대소요사(大小繞絲 : 굵고 가는 얹음실) 2조

대소○탑(大小○搭) 2부

통관전칭찰미(通關前秤札尾) 3조

감봉색(減篷索) 2조

대소장완(大小檣緩) 2조

순타색(順舵索) 1조

교타색(絞舵索) 1조

타릉색(舵綾索) 1조

람(纜 : 닻줄) 4조

수통(水桶) 2개

망두(望斗) 1개

두심색(斗心索) 1조

두의(斗衣) 1부

대외기(大桅旗) 1면(面)

조방색기(照方色旗) 1면

라(鑼) 1면

고(鼓) 1면

나팔(喇叭) 1지

철사등롱(鐵絲燈籠) 6잔, 매 잔마다 초 100지(枝) 준비, 합계 600지,
총무게 37근 8냥(22.5kg)

정타색(艇舵索) 1조

정로(艇櫓) 2지(枝)

⑥ 관급(官給)으로 준비해서 사용할 선박(船舶) 수리 물자

대소정(大小釘) 20근(12kg)

황마(黃麻) 20근

황등(黃藤) 20근

동유(桐油) 20근

⑦ 포병(捕兵)이 스스로 준비할 물자

백회(白灰) 1석

도끼 2과

톱 2과

끌 2과

송곳 4과

크고 작은 납비 2구

주발과 접시 50개

○ 7·8호선에서 갖추어야 할 군화기계(軍火器械)

나팔호(叭喇唬)가 평시에 어가(御駕) 수행에 관계되었을 경우,
이 수에 준하여 유사시에는 반드시 대선(大船)을 사용하여 병사

(兵士) 40명을 뽑아, 매인이 상앗대 1개 썩을 잡고 매인이 조총(鳥銃)을 1문 썩을 잡아 어가를 보좌하여 대적하는 데에 쓴다.

① 낭기(狼機) 1위(位)

자총(子砲) 9문(門), 모두 27문

화약(火藥) 45근(kg)

화승(火繩) 3조(條)

납탄알(鉛子) 90발, 28근 2냥(kg)

② 조총(鳥銃) 6문(門)

화약 33근 12냥(20.25kg)

화승 18조

납탄알(鉛子) 18,00발 총무게 33근 12냥(20.25kg).

화전(火箭) 100지(枝)

③ 분통(噴筒) 4개

장죽창(長竹鎗) 4지

등패(籐牌) 8면과 요도(腰刀) 8파

크고 작은 돌 탄알(大小石子) 500개

④ 공구집물(楨棋什物)

대소풍봉(大小風篷 : 크고 작은 바람맞이 돛) 2선(扇)

선로(船櫓 : 배의 노) 2지(枝)

초장(稍槳) 1지(枝)

타(舵 : 키) 1문

정(梃 : 닻) 4지
 철묘(鐵錨) 1매
 소장(小槳) 10지
 대율(大絙 : 굵은 동아줄) 1조
 두율(頭絙 : 뱃머리 동아줄) 1조
 대소요수(大小繞手 : 굵고 가는 얹음줄) 2조
 대두승(帶頭繩) 2조
 대소요사(大小繞絲 : 굵고 가는 얹음실) 2조
 ○탑(○搭) 2부
 찰미(札尾) 1조
 장완(檣緩) 1조
 람(纜 : 닻줄) 2조
 소기(小旗) 1면
 라(鏢) 1면
 고(鼓) 1면
 나팔(喇叭) 1지
 철사등롱(鐵絲燈籠) 5잔, 매 잔마다 초 100지(枝) 준비, 합계 500지,
 총무게 31근 4냥(18.8kg)
 정타색(艇舵索) 1조
 정로(艇槽) 2지(枝)

⑤ 관급(官給)으로 준비해서 사용할 선박(船舶) 수리 물자

대소정(大小釘) 10근(6kg)
 황마(黃麻) 10근
 황등(黃籐) 5근(3kg)
 동유(桐油) 5근

⑥ 타병(舵兵)이 스스로 준비할 물자

백회(白灰) 5두(斗)

도끼 1과

툼 1과

끝 2과

송곳 1과

남비 1구

주발과 접시 30개

○ 각 선관(船官)과 포병(捕兵)의 임무를 맡은 자는 각각 도롱이와
삿갓 1부를 준비하고 비가 올 경우에 편리하도록 한다.

○ 선정(船艇：거룻배)

맹렬한 폭풍이 휘몰아칠 때 적을 추격함에 있어서, 거관(車關)의
인력을 동원할 적에 선박이 늦어서 일을 그르칠 경우에 이것을
준비하여 회수하기 편리하게 한다.

■ 강정제[缸艇製 : 강정의 제원]

【그림 27】



모호관선정(某號官船艇)

여기에는 오동나무를 쓰고, 검은 표면에 길이는 대략 1장이며, 말(斗)과 같다.

■ 화기총해[火器總解 : 화기에 대한 총괄적 해설]

수전(水戰)에서는 화기(火器)를 제일로 치니, 화기에 속하는 종목이 가장 많으나 응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양측 선박이 서로 근접하여 승부를 나눔에 있어서 혹은 그 사용에 있어서 제도가 번잡하고 교묘하여 일시에 당황망조(唐慌罔措)하여 법식대로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던지고 발사함이 혹은 정교하여 쓸만한 것도 있으나, 형세가 미미한 것은 혹 무겁고 짐만 되어 사용하기 어려우며, 잘 맞추지를 못한다. 화기를 보면 약선(藥線)이 총구(銃口)에 있어, 점화되어 총구로 들어가기 기다리다가 그것이 내 손에서 발화되어 곧바로 던져야 하는 위급한 경우도 있다. 약선이 너무 빨리 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약선이 느리게 타는 경우도 있다. 또 적이 이를 가로채서 도리어 우리에게 던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른바 회병(灰瓶)³³⁾이라는 병기는, 오직 선상에서 날카롭고 매끄러워 사람으로 하여금 설 수가 없게 한다. 일설에는 닭과 오리의 알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미끈미끈한 진흙을 던지기도 한다고 한다. 더욱이 유사시에 해중(海中)의 물을 취하여 던질 수 있으며 또한 묘하다. 지금 그대로 이 회병을 사용하니, 또한 적이 발을 붙이고 서서 우리를 당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에 화살 끝에 화약을 붙여 불을 당긴 뒤에 활을 써서 쏘아 보내는 따위의 방법을 쓴다면, 화전(火箭)과 같이 멀리 나가지는

33) 회병(灰瓶) : 석회(石灰)를 장전한 병(瓶)으로 전투시에 적에게 던져서 적이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사용한다.

않으나, 수륙(水陸)에서 통용할 수가 있다.

먼저 육병(陸兵)의 수족편(手足篇)에 붙었는데, 무릇 육전(陸戰)에는 쓰지 않고 있으나, 수전(水戰)에는 쓸 수도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갖추어 두었다.

【그림 28】



■ 무적신비포제[無敵神飛砲製 : 무적신비포의 제원]

지금 만약 배에서 쓰면 힘이 너무 강하여 선체(船體)를 손상시킬까 우려되니 주조(鑄造)할 때 포의 구경(口徑)을 한 치 줄이고, 포신(砲身)의 크기도 함께 줄이고, 그 두께만 더해야 한다. 반드시 감하지 않고 1호를 고쳐 2호라 부르니 묘하고 묘하다.

1호의 무게 합계는 1,050근(630kg)이다.

대산식(大門式)

이것은 3조(條)를 써서 화력이 더디고 굵으면 다시 1조(條)를 밀어 넣는다.

○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 1위(位)

매 위(位)마다 자포(子砲) 3문(門)

무쇠 탄알(生鐵子) 매 발마다 100알, 매 알마다 1냥(37.5g), 매 자포 1문마다 2발을 준비하되, 합계 6발 총계 1,800알

총구에 맞는 큰 돌탄알(合口大石子) 6알 가운데 2알을 준비하되, 합계 8알

목랑두(木榔頭) 1개. 단단한 나무로 몸체가 무거운 것

목마자(木馬子) 6개. 2개를 준비하되, 모두 8개 매 개마다 두께 3촌(寸 : 9cm)으로 둘레는 대모총(大母銃)의 총구와 같아서 힘을 쓰지 않아도 아래로 내려가 총구와 수평을 이루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목송(木送) 1근(根). 크기가 대략 자총의 총구와 같아야 한다.

철산(鐵門 : 쇠빋장) 3근. 높이 1촌, 가로 2촌, 길이는 총복(銃腹)의 높이를 넘지 않아야 하며, 주조에는 일정한 때가 없으나, 이 점을 기준으로 하여 눈여겨 본다.

철추(鐵錘) 1파(把). 무게 3근(1.8kg)

따로이 철리목(鐵梨木)이나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로 두껍고 넓게 껍질을 만들어 모포(母砲)를 그 안에 둔다.

그 발사 방법은 불랑기와 같다. 반드시 양두(梁頭)와 선두(船頭)의 사이에 빗장을 잠그고 대적(大賊)이나 대적선(大賊船)에 맞닥뜨렸을 경우가 아니거나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발사하지 말아야 하며, 거리가 멀어도 발사하지 않는다.

화약은 자총 3문을 헤아려 매 자총 1문마다 3발을 준비하되, 3알 합계 9발로 매 발 5근(3kg), 모두 45근(27kg)이다.

■ 신비포해[神飛砲解 : 신비포에 대한 해설]

이 화기(火器)는 큰 것을 공격하는 데에 쓰는 것이다. 적이 대함(大艦)을 더하여 바람을 타고 돛을 올려 곧바로 우리의 선박을 범하면 조총(鳥銃), 불랑기(佛狼機) 등의 화기와 한 개 소총(小銃)의 탄환(彈丸) 한 발이라는 작은 형세로는 막아내기가 어렵다. 백자총(白子銃)도 비록 탄환이 많다고 하나, 뱃전이 두터워서 관통하여 개별 인원을 손상시키지 못하니, 적의 배 전체를 뒤엎을 수가 없다.

이에 국가에서 대장군포(大將軍砲) 2호와 3호를 제작하여 시험 발사를 해보니, 폭발력이 강하고 살상효과가 컸다. 그러나 그 제조에 정밀함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또한 이를 발사함에 법칙이 없었다. 또 화약 소비가 너무 많아서 토석(土石)으로 채워서 다지고 화약으로 채워서 매듭을 지으면 안에서 굴러다니는 힘이 없어 마침내 자유자재로 공격할 수가 없었다.

지금 화약을 솜에 있어서, 화약을 겨우 포신의 허리부분 절반까지만 차게 하니, 3치 길이의 목마(木馬)가 들어가도 화약과 목마 사이에 2~3촌쯤의 틈이 비어 있어 화약이 돌고 구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 위예다가 와봉(窩蜂 : 벌집)을 사용하여 크고 작은 탄환 수백 개를 채우거나, 포구에 맞는 큰 돌탄환 한 개로 이를 누르거나,

밤알 만한 작은 돌탄환으로 채워서 발사를 하니, 탄환은 포구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땅에 떨어져서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그 이유는 오직 총복(銃腹)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기를 발사하여 공격해도 목표물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화기를 발사한 후에 반드시 이를 곧게 세워서 재차 장전(裝填)하는 것도 불편하다. 다만 수성(守城)에 집단으로 공격해 오는 적을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격하고 발사하는 데에는 번거롭다.

이들 화기는 번이(蕃夷 : 서양 오랑캐, 네덜란드인을 일컬음)로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몸통무게가 1,000여근(600kg)이나 되므로, 선박 내부가 협착할 경우에는 포신이 너무 길어서 화약 장전이 어렵다. 또 화약을 미리 장전하여 시일이 오래되면 반드시 화약이 굳어버리고, 유사시에 장전하면 급박한 형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일단 발사한 뒤에는 다시 재빨리 화약을 넣지도 못하고 포신을 곧게 세우거나 돌리지도 못한다. 또 여러 사람의 힘이 아니면 들지도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배 안에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 오랑캐 해적들은 항상 파초임을 소금에 담가서 배의 돛을 사용하고 배 위에는 모래를 덮어 화전(火箭)이 불붙지를 못하게 하고 화기(火器)가 태우지를 못하게 한다.

지금 만든 앞의 도형은 이름을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라고 하는 것이니, 몸통은 불랑기(佛狼機)와 같고, 또한 자총(子銃) 3문(門)을 사용해서 중량을 가볍게 하여 이동이 용이하다. 또 장전을 미리 하여 유사시에는 다만 대모체(大母體)를 가지고 높고 낮음을 조준하고 다시 포신을 세울 수 있으며, 다만 자총(子銃)을 집어넣어 이를 발사하고, 발사가 끝나면 한사람의 힘만으로 이를 끄집어낼 수 있다.

또 매 1 자총마다 1발에 100~200알의 탄환으로 20장(丈)의 넓이를 칠 수 있고, 큰 탄환은 담장을 뚫고 몽둥(鑕)배와 같은 거함(巨艦)을 쳐서 가루로 만들 수도 있다.

■ 연습방법(習法)

먼저 자총(子銃)을 깨끗이 털고 씻은 다음, 약선(藥線) 1조(條)를 써서 밖으로부터 비벼 넣고 베로 이를 감싼다. 이는 목마자(木馬子)를 내리면서 부러지거나 움직일 것을 우려해서이다.

화약을 내려보낼 적에는 총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가득 채우는 것을 한도로 하여 종이를 덮는다. 이는 목마자를 내릴 때에 화약이 타격을 입어서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두 철잡(鐵箍 : 쇠바구니)을 아래에 두고 나서, 목마자를 써서 힘을 주어 다져서 두 철잡에 이르러, 화약 높이가 평평해지면 멈춘다.

자총의 총구가 적고 총복이 큰 것과 총구가 크고 총복이 적은 것을 쓸 수 없으며, 그 목마자 위에 진흙을 바르는 것은 목마와 총복(銃腹)의 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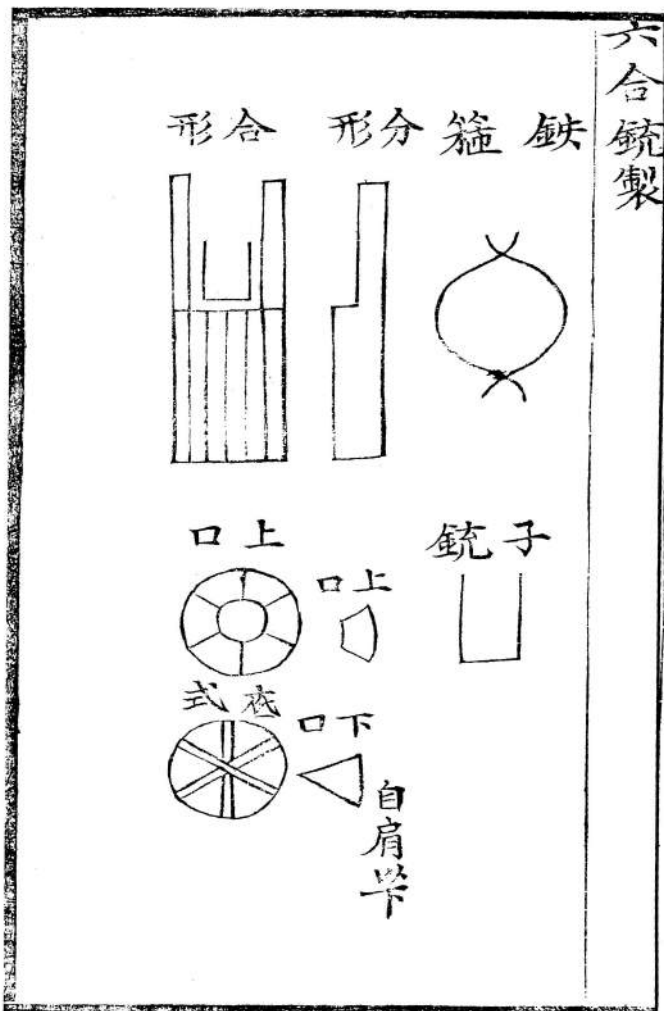
쇠 탄알 한 겹을 내리고 흙 한 겹을 내린 다음에 촌촌이 다지기를 더하여 모두 흙으로 채우고, 다시 목송을 내려보내 다진 다음에 쇠탄환을 다섯 번 내려보내는데, 탄알의 수는 일정치 않다. 다만 가득 채우는 것을 한도로 하되 큰 돌탄환을 쓸 경우에는 작은 탄환은 수효를 줄이고, 큰 돌탄환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 탄환은 수효를 늘리는데, 평평하게 올려 제5층의 철잡(鐵箍)에서 멈춘다.

이 층에서는 생토(生土)를 쓰지 않고 축축한 진흙을 더하여 높이가 총구를 지나게 채우고 다지되, 돌탄환을 덮어서 들락거리지 않게 하며, 총복의 빗장이 풀어지지 않게 한다.

배의 목조 구조물의 힘은 유한하고 화기의 큰 힘은 무겁다. 이 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적의 배를 격파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적의 개별 인원만을 살상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은 탄알을 쓰지 말고 다만 총구에 맞는 큰 돌 탄환 1개를 쓰면 진동하는 힘이 경미하여 아군의 배를 흔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 육합총제[六合銃製 : 육합총의 제원]

【그림 29】



철잡(鐵箍) 분형(分形) 합형(合形)

자총(子銃)

상구(上口) 하구(下口) 어깨로부터 그 아래

상구(上口) 저식(底式)

철잡(鐵箍 : 쇠상자) 5도(道)

예목(銳木 : 날카로운 나무) 6조(條)[마르거나 축축함을 불구하고
이르는 곳에 따라 취해서 쓴다.]

박철(薄鐵 : 얇은 쇠)로 된 자총(子銃) 1문(門)

대추(大錘) 1과(把)

석자(石子 : 돌탄알) 2개

목랑두(木榔頭) 1건(件)

대목송자(大木送子) 1조

약선(藥線) 3조[각각 길이 1척]

대추(大鎚) 1과[화약 및 짐물(什物)은 수시로 군화기(軍火器) 내에서
취해서 쓰되, 여기에서 쓰지 않으면 따로 비축한다.]

▣ 육합총해[六合銃解 : 육합총에 대한 해설]

단단한 나무 여섯 가닥으로 만들되, 안은 뽀족하고 밖은 넓으니,
도면을 참조하여 여섯 개의 총구(銃口)가 둥글게 합쳐지게 한다.
몸길이 5척 이내, 상부의 총구로부터 총복(銃腹)에 이르기까지 깊이
2척을 내려가 나무를 댄 곳에 어깨가 있으니, 길이가 1척이다.

자총 1문은 두께 5푼, 지름 5촌, 높이 5촌이니, 여기에 겨우 화약을
가득 채울 뿐이다. 지나치게 사용하면 그 폭팔력으로 나무가 손상된다.
총구의 안 지름은 6촌으로 다시 더 커져야 하니 임의로 하되, 반드시
철잡(鐵箍)으로 코고 작기를 기운다.

총구 위의 바깥에 댄 나무는 두께 3촌으로 바닥에 나무를 채우고 밖으로부터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두께 6치의 돌탄알과 총구에 맞는 단단한 돌맹이로 채운다.

군중(軍中)에 장인(匠人)이 있으면 수시로 채용하여 혹은 미리 만들어 선박 안에 비치해 둔다.

■ 육합총명(六合銃銘)

새로이 하나의 총을 만드니	新製一銃
그 이름은 육합이시다	六合其諱
다만 쇠바구니에 실으니	但載金籠
곳에 따라 예비할 수 있도다	隨處可備
육도(六道) ³⁴⁾ 가 고르게 이르니	六道均臨
뭇 신선이 모이며	群眞聚會
지름이 한 길인 담장을	徑丈之堵
일격에 쳐부술 수 있다네	一擊可碎
공격함이 굳으면 만들어지고	攻堅則製
행함이 험하면 폐해지니	行險則廢
반드시 입으로 전해서 써야 하며	須用口傳
글로써 알기는 어렵도다	難以文會

■ 연습방법(習法)

만약 육지(陸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나무를 가지고 육합

34) 육도(六道) : 일체(一切) 중생(衆生)이 선악(善惡)의 업인(業因)에 의(依)해, 필연적(必然的)으로 이르는 여섯 가지의 미계(迷界). 곧,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수라, 인간(人間), 천상(天上), 육계(六界)

(六合)모양을 만들고 철잡(鐵箍)을 쓴다. 도형(圖形)을 참조하여 철잡(鐵箍)을 팽팽하게 엮어맨 다음, 따로 자총을 가지고 먼저 약선을 안치(安置)하여 화약(火藥)을 채워서 다진다. 그런 다음에 밖으로 선안(線眼)이 있는 곳을 합하여 화약 1냥을 써서 약선을 쏜다.

목마(木馬)를 충구 안에 넣어두고 약간 큰 2푼의 약선을 타들어 가게 하되, 반드시 자총을 통하지 않고 다만 포약[包藥 : 화포(火砲)에 쓰이는 발사용 화약(火藥)]을 싸서 묶은 곳을 대하여 외선을 타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하면 포약이 저절로 연소되고 또 빨라서 감히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포구에 맞는 돌탄환 1알을 넣어서 분쇄할 수 있으니, 육용(陸用)에서는 반드시 견고한 진영이나 성채를 공격할 때 쓴다.

설치하여 발사할 때에는 나무로 소선(小船)을 만들어 총을 그 위에 묶거나, 따로이 삼판선(三板船)이나 혹은 팔장선(八槳船), 초마선(哨馬船) 따위의 소형 선박을 이용한다. 새끼줄 1장으로 총과 배의 1면을 묶어서 미리 굵은 화승을 사용하여 긴 장대에 묶어 그 끝을 연소시켜 방향 조준을 일정하게 하고 동일 목표를 향해 사격함으로써 적의 선박에 일격을 가하여 가루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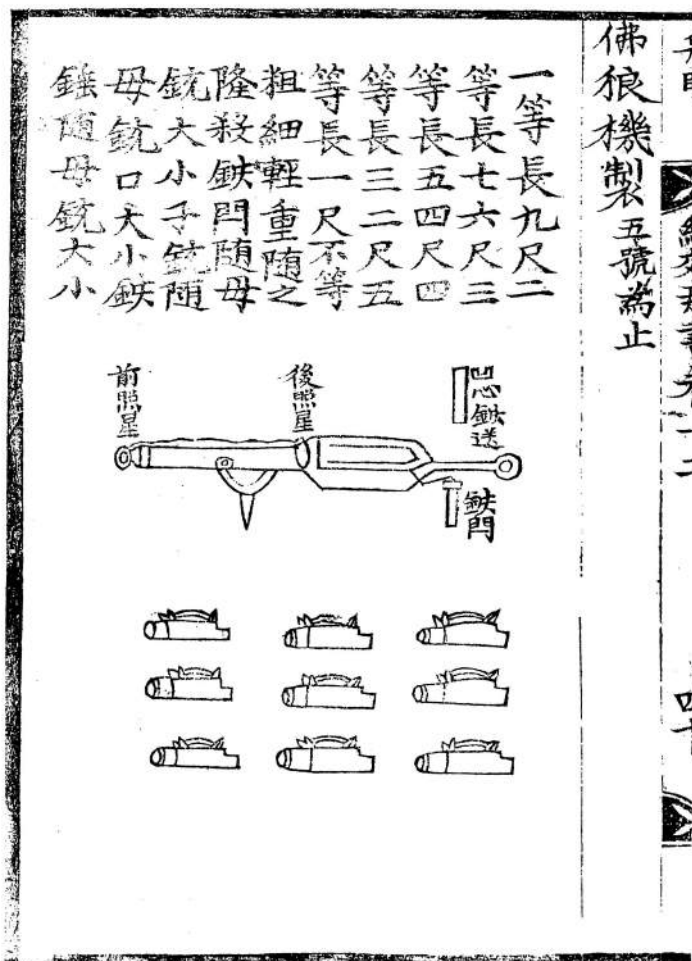
이 화기는 그것이 물에 잠기는 대로 맡겨서 마침내 버려지게 되나, 그 효과에 비하면 그리 심한 낭비는 아니다. 이 화기로 적의 거함(巨艦) 하나를 분쇄했는데 무엇이 아깝겠는가? 발사할 때의 거리는 반드시 멀어야 20보(步)에 불과하고 가까우면 5보 이내이니 더욱 묘하다.

이 화기는 수중(水中)에서 사용하는 관계로 배가 바람에 흔들려 돛의 방향이 돌아버려 다시 목표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거나, 발사후에 배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단 1척의 차이만 나도 명중하기를 바랄 수 없으니, 이 경우에는 한낱 헛수고가 될 뿐이며, 또 기계로 하여금 어긋게 함이 지나친 것이다.

■ 불랑기제[佛狼機製 : 불랑기의 제원]

[5호로 끝난다.]

【그림 30】



1등 길이 9척(2.7m), 2등 길이 7~6척(2.1~1.8m), 3등 길이 5~4척(1.5~1.2m), 4등 길이 3~2척(0.9~0.6m), 5등 길이 1척(0.3m)으로 같지 않다. 굵기와 가늘기 및 가볍고 무거움은 가감에 따르고, 철산(鐵門)은 모총(母銃)의 대소에 따르고, 자총(子銃)은 모총 총구의 대소에 따르며, 철추(鐵錘)는 모총의 대소에 따른다.

요심철송(凹心鐵送) 후조성(後照星) 전조성(前照星) 철산(鐵門)

○ 불랑기(佛狼機) 1위(位)

자총(子銃) 9문(門)

철산(鐵門) 2조

철수(鐵錘) 1과

합구요심철송(合口凹心鐵送 : 총구에 맞는 꼬질대) 1근

철전(鐵剪 : 쇠가위) 1과

철약시(鐵藥匙 : 쇠 약수저) 1과

화약 매 자총 1문마다 10발에 9알 합계 90발

1호는 길이 9척(2.7m)으로, 총구는 반드시 납탄알 매 알마다 1근(600g) 화약 용량 1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호는 길이 7~6척(2.1~1.8m)으로, 총구는 반드시 납탄알 매 알마다 90냥(3.375g) 화약 용량 11냥(412.5g)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호는 길이 5~4척(1.5~1.2m)으로, 총구는 반드시 납탄알 매 알마다 5냥(187.5g) 화약 용량 6냥(225g)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호는 길이 3~2척(0.9~0.6m)으로, 총구는 반드시 납탄알 매 알마다 3냥(112.5g) 화약 용량 3.5냥(131.25g)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5호는 길이 1척(0.3m)으로, 총구는 반드시 납탄알 매 알마다 3전(g) 화약 용량 5전(g)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총은 크고 작음이 다르고 화약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으니, 기계의 대소와 자총(子銃)의 구경을 참조하여 화약의 분(分)과 양(兩)을 가감해야 한다.

총구에 맞는 납탄알 90발이 나가는데, 매 1개의 탄환마다의 분(分)과 양(兩)은 총(銃)의 호수(號數)가 크고 작음을 참조하여 그 수량을 정한다.

화승(火繩) 3조(條)

매 조마다 길이 5장 5척(16.5m), 대략 손가락 굵기로 하되, 얇은 베를 이용하여 만든다. 무게는 합계 1근(0.6kg)이다.

■ 불랑기해[佛狼機解 : 불랑기에 대한 해설]³⁵⁾

이 화기는 가장 정예로우며 또한 편리하고 빠르기가 비할 바 없다. 다만 그 몸통이 무거워서 행군할 때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드는 방법은 모총(母銃)은 구리와 철을 가리지 않으나, 자총(子銃)은 반드시 숙철(熟鐵)³⁶⁾을 써야 하며, 오직 견고하고 두꺼움을 위주로 한다. 1호, 2호, 3호는 선박(船舶)·성곽(城郭)·영루(營壘)에서 쓸 수 있으며, 4호는 행영(行營 : 야전의 진영)에서 쓸 수 있는데, 5호는 모양이 아기자기하다.

35) 불랑기(佛狼機) : 왜란 당시 명군(明軍)을 통하여 도입된 대포. ‘불랑기(佛狼機)’라는 용어는 중국에 왕래하던 아랍인들이 서양인을 파랑기(Farangi : 중세의 Frank에서 유래)라고 부른 데에서 비롯되었다. 왜란 이후 조선에서도 이를 대량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1628년(인조 6) 제주도에 표착(漂着)한 네덜란드인 J. 벨테브레이, D. 히아베르츠, J. 피에테르즈 등이 불랑기 제작과 사격술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36) 숙철(熟鐵) : 무쇠를 불려서 만든 쇠. 단련(鍛鍊)하는 방법(方法)에 따라서 유철(柔鐵)과 강철(鋼鐵)의 두 가지로 구분(區分)됨

총복(銃腹)이 환히 뚫려 있어 자총의 총구와 규격이 같아야 탄알이 나감에 힘이 있다. 만약 자총(子銃)의 총구가 크고 모총(母銃)의 총복이 작으면 반드시 손상이 생길 것이며, 자총의 총구가 작고 모총의 총복이 크면 탄알이 나갈 때에 힘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총과 모총의 총구는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정밀한 기계가 되어야 한다. 자총의 앞 총구가 깊이 모총의 총복 안으로 1촌을 들어가서 맞닿아 결합됨이 엄밀해야 화약의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아 발사되는 탄알이 힘이 있게 된다. 자총의 후미에는 반드시 빗장 앞뒤를 바짝 조여서 빈틈이 없도록 한다. 이는 바로 발사시에 빗장이 손상되어 포신이 세차게 튀어 오르는 반동을 줄 염려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 습법(習法 : 불랑기 연습 방법)

이 총은 옛날에는 목마(木馬)와 납 탄알을 사용하였는데, 가벼운 목마로 무거운 탄알을 눌러 늘 총을 손상시키고 또 지체함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의 사용법은 화약(火藥)을 넣음에 반드시 다지지 않고 목마를 쓰지 않으며, 오직 납 탄알을 총구의 절반만 차게 넣는다.

옛날에는 평정목(平丁木)을 송자(送子)로 만들어 납 탄알을 편편하게 때리면 납 탄알의 원형(圓形)이 변경되어 탄알이 나가도 그 형세가 예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쇠로 된 요심 송자(凹心送子)를 만들어 송자를 총구 안에 넣으므로, 탄알의 몸통은 그대로 원형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탄알이 나가는 형세가 예리하여 1리 남짓 거리의 인마를 때려서 꿰뚫고 지나갈 수 있다.

땃전에 구멍을 뚫으면 철신(鐵信)을 수용할 수 있어서 높고 낮게 좌우로 움직임에 편리하다. 먼저 자총(子銃)을 가지고 약선(藥線)

안치를 끝낸 후에 화약을 미리 장전하는데, 매 번에 한 포대씩을 꺼내어 쏜다.

화약을 장전하여 집어넣을 적에는 목송(木送)을 사용하여 가볍게 채우고 종이를 써서 이를 덮는다. 그 다음, 총자(銃子 : 금속으로 만든 구멍 뚫는 기구) 1매를 총구에 넣고 표면에 철요심(鐵凹心)을 써서 탄알을 내려보내고서 철추로 힘을 주어 평평히 다져넣는다. 이때 납탄알을 편편하게 때려도 탄알의 둥근모양이 변형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철요심의 묘함이다.

아홉 개의 탄알을 모두 완전히 장전하고 이를 발사할 적에 자총(子銃) 1문(門)을 가지고 총복(銃腹)에 넣어 빗장을 잠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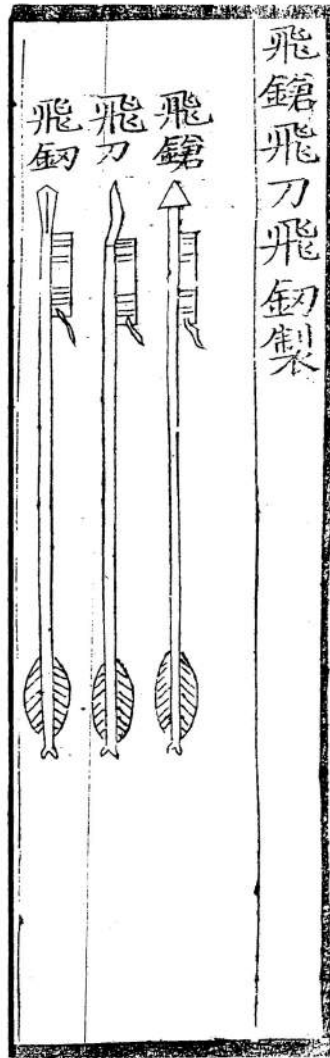
그런 다음, 손으로 총신의 후미(後尾)를 잡고 눈으로 보면서 가늌쇠를 조준하여 앞부분의 가늌자와 일치시킨 후 앞 가늌쇠를 적의 인원이나 선척(船隻)에 맞추고서 불을 붙여 발사한다.

높고 낮음과 좌우를 조준함에 있어서는 다만 모총(母銃)을 가지고 돌리고 움직여서 서로 맞추어야 하며, 총을 잡은 자는 약선(藥線)이 타들어갈 때를 당하여 얼굴은 적을 또바로 보며 조준하되, 머리를 돌려서는 안된다.

■ 삼비제[三飛製 : 삼비의 제원]

비창(飛鎗) 비도(飛刀) 비검제(飛劒製)

【그림 31】



비창(飛鎗) 비도(飛刀) 비검(飛劔)

■ 삼비해[三飛解 : 삼비에 대한 해설]

세 가지의 비기(飛器)는 한 가지 방법에 지나지 않으나, 바로 하나의 큰 화전(火箭)이다. 오직 각각 만드는 법이 달라서 서로 다른 이름을 얻은 것이다.

지름 6~7분(1.8~2.1cm)의 형목(荊木 : 가시나무)을 써서 자루를 만들고 길이는 6~7척(1.8~2.1m)으로 한다. 뒷부분 끝에 큰 새 깃을 써서 삼릉(三稜)과 자루를 대칭시켜 이를 약두(藥頭)라 한다. 지통(紙筒)을 만들어 화약(火藥)을 채우고 화전의 머리 부분과 길이를 같게 하는데, 길이가 7촌(21cm) 가량이고 굵기는 2촌(6cm) 가량이다. 다시 활촉의 길이를 더 크게 하니 길이가 5촌(15cm), 넓이가 8분(2.4cm)인데, 혹은 검(劍)모양, 혹은 도(刀)모양, 혹은 삼릉(三稜), 혹은 화전두(火箭頭) 같아서 빛이 눈부시고 칼날이 예리하며, 모양이 아기자기하다.

무게의 총계는 몸 전체 무게 2근(1.2kg) 남짓이다. 타인이 이를 만들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나, 오직 근일에 만든 것은 그 소리가 우레같아서 그 위력이 두려울만 하고, 불을 당겨 발사함에 300보를 갈 수 있으며, 이에 맞은 자는 인마가 모두 쓰러진다.

그러나 명중시킬 수가 없으니, 오직 밀집부대나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 다수의 인원을 치거나 대선(大船)을 쳐서 적선의 누각을 불태우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

■ 연습방법[習法]

몇 개의 가지를 뽑아 가지고 걸가지가 있는 것을 가선(架船)이나 현목(舷木) 위에서 손으로 그 꼬리를 밀어 적선의 누각이나 지붕을 조준하되, 원근과 고하를 참작해서 불을 당겨 발사한다.

미리 한두 차례 연습하면 유사시에 임하여 겁을 먹지 않고 머리를 돌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분통제[噴筒製 : 분통의 제원]

분병송(噴餅送) 분병송 분병송 분병송 분병송
 송분병(送噴餅) 송분병 송분병 송분병 송분병
 약자(藥子)

떡을 조합하는 방법(合餅子方)

초황(炒黃) 장뇌(樟腦) 송지(松脂) 옹황(雄黃) 비상(砒霜)을 량(兩)의
 단위로 나누어 규정대로 폭발용 떡을 만들어, 분통(噴筒) 구경(口徑)에
 맞도록 다듬거린 다음, 홈(渠) 하나를 만들고 약선을 묶는다.

분통의 제원[噴筒製]



【그림 32】

병식(餅式)

이 홈(渠)의 깊이는 1분(分 : 0.3cm)이다.

○묘(妙) ○묘(妙) ○묘(妙) ○묘(妙) ○묘(妙)

■ 분통해[噴筒解 : 분통에 대한 해설]

굵기 지름 2촌(6cm), 두께 길이 1척 5촌(45cm)인 대나무를 삼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아래에 쓰는 대나무는 자루길이 5척(1.5m)이다.

먼저 석회(石灰)를 내려보내되, 염초(焰硝)를 많이 넣어 느슨히 다진다. 화약 1층(層)을 넣은 다음에 분약(噴藥 : 분사용 화약) 1층을 내리고 구슬 1매를 내리되, 도면의 제법을 참조하여 분통의 구경에 맞도록 하여 힘주어 다지는데, 힘이 지나치면 폭발용 떡이 부숴져서 쓸모가 없게 된다. 이 부분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섯 차례를 하여 내려보내기를 마치는데, 송약(送藥 : 폭발용 떡 덩어리를 밀어내는 화약)이 많으면 그 중심부를 폭파시키고, 송약이 적으면 그 병자(餅子 : 폭발용 떡 덩어리)를 멀리 내어 보내지를 못한다.

여기에는 정해진 방법이 있으니, 대나무 통의 굵고 가늌와 병자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송약의 양을 가감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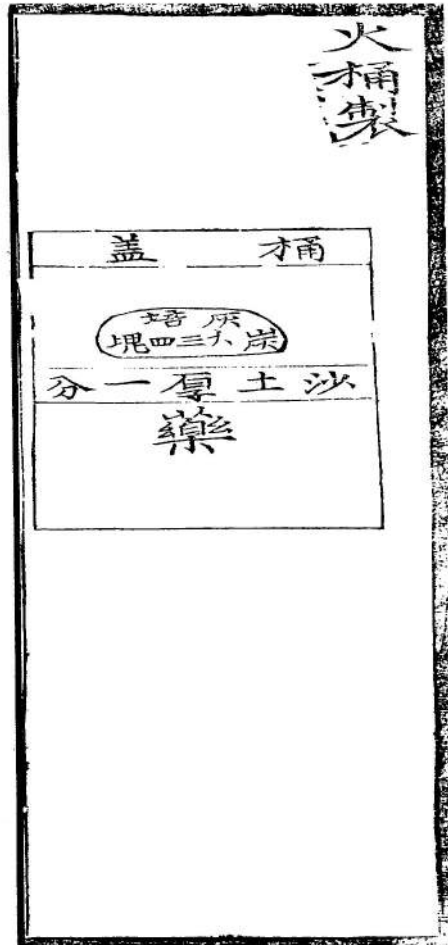
병자가 발사되면 수십 장(丈)의 먼 거리까지 나아가서 곧바로 적선(賊船)의 돛에 달라붙어 즉시 연소된다.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분약을 조절하고, 빠를 경우에는 송약을 조절한다.

■ 연습방법[習法]

분통(噴筒)을 관리하는 병사를 파견하여 먼저 1~2지(枝)를 발사하는 연습을 시켜서 그 용법을 알게 하면 된다.

■ 화통제[火桶製 : 화통의 제원]

【그림 33】



통개(桶蓋 : 통 덮개)

회배(灰培 : 재로 둘러 막은 두둑)

탄(炭 : 숯) 큰 것으로 3~4덩어리

모래흙 두께 1분(0.3cm)

화약(火藥)

나무통 1척(隻), 거칠고 부드러운 것이 혼합된 화약 5근(3kg),
굵고 두꺼운 질그릇 주발 1척, 목탄(木炭) 실제로 쓸 것 2냥(75g),
오래 태울 경우의 소모에 대비해서 2냥을 준비

■ 화통해[火桶解 : 화통에 대한 해설]

옛날에 화약(火藥)을 적의 선박에 내려 퍼붓는 방법은 진실로 좋은 계책이었으나, 이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화기(火器)를 사용하거나 혹은 숯불을 다시 기울여 이를 던져야 한다. 그러므로 잠깐 사이에 적선이 움직여서 화약을 연소시키기 위해 나중에 발사한 화기나 숯불이 번번이 물 속으로 떨어진다. 혹은 적이 불붙지 않은 화약에 물을 끼얹어 젖게 하여 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그 방법이 합당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직 이 화통(火桶)은 화약을 동시에 내려서 선후를 달리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발사해서 한번 씩에 한번 적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연습방법[習法]

1두(斗)를 수용할 수 있는 목통(木桶)을 사용하되 부드러운 화약을 사용하면 지금 각 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

화약은 통마다 먼저 5근(3kg)을 넣고 평평하게 깔아서 고른 다음, 그 위에 얇은 모래흙 1분(分 : 0.3g)을 덮는다.

사용할 때에 이르러 불길 없는 숯불 1분(盆)을 놓고 기다리되, 화통(火筒) 1척(隻)에 숯불 2~3덩어리를 얇은 재로 덮어서 평평하게 하여 통 안의 모래 위에 가볍게 놓는다. 그런 다음, 화통에 덮개를 덮고 빗장을 지르는데 빗장 구멍은 크고 빗장은 가늘어야 하며, 그 빗장이 들어갈 때 화통에 부딪혀서 움직이게 해서는 안된다.

장치가 끝난 후, 두 손으로 화통을 수평이 되게 들어서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적선에 떨어뜨리면 적의 배를 쳐서 불길이 격발(激發)하여 화약이 발화되어 온 배가 다 불에 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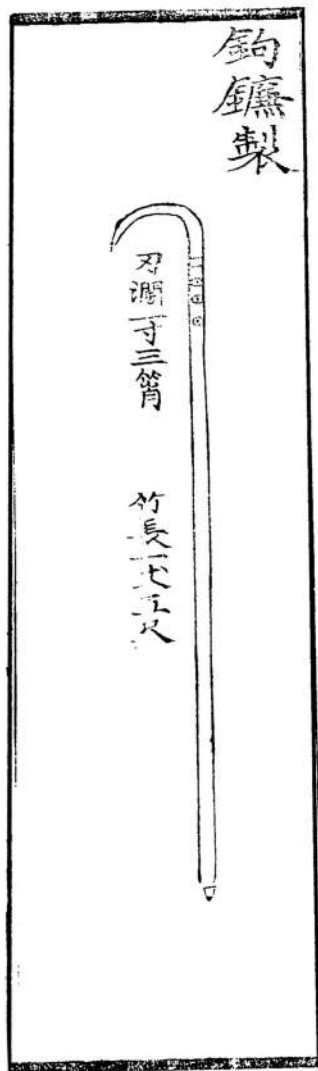
이 화기는 약선이 길거나 짧아서 생기는 허점이 없어서 격발되면 곧바로 연소되니, 적이 이를 되받아서 던질 수가 없다.

우리의 선박에서는 반드시 화통을 사용할 때에 이르러서 숯불이 담긴 주발을 화통 안에 장착하여 집어넣고서 곧바로 던지되, 그것이 우리의 배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주발이 과열되어 화약에 불이 붙는 것을 주의하고, 황망한 가운데 이를 잊거나, 혹은 물건이나 손발에 닿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대장(隊長)에게 맡겨서 평시에 익숙히 연습하고,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야 전진(戰陣)에 임해서 바야흐로 침착을 유지하여 잘못을 저질러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 구검제[鉤鑱製 : 구검의 제원]

【그림 34】



칼날 넓이 1촌(3.3mm)

세 개의 소(三筲 : 장대 끝부분에 있는 세 개의 홈)

대나무 길이 1장 5척(4.5m)

■ 구겸해[鉤鎌解 : 구겸에 대한 해설]

구겸(鉤鎌)을 가지고 배 안에서 혹은 밧줄을 자르기도 하고, 혹은 그 배를 걸어 당기기도 하며, 혹은 그 시렁과 시렁 사이의 밧줄을 자르기도 하니, 반드시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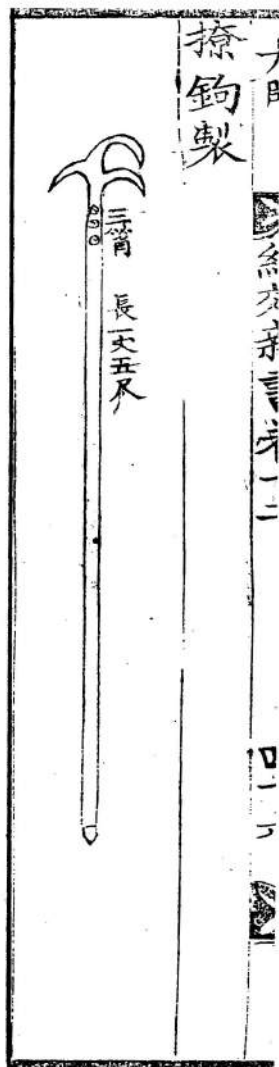
반드시 대나무 자루는 길고 가벼워야 하며, 칼날은 굽어서 날카로워야 실용에 적합하다.

■ 연습방법[習法]

이 기구는 긴 대나무를 쓰므로 머리가 무거워서 육지에서는 쓸모도 없고 연습방법도 없으니, 오직 담력 있는 사람이 붙잡아 이를 사용한다.

■ 요구제[撓鉤製 : 요구의 제원]

【그림 35】



세 개의 소(三筩 : 장대 끝부분에 있는 세 개의 홈)
길이 1장 5척(4.5m)

■ 요구해[撓鉤解 : 요구창에 대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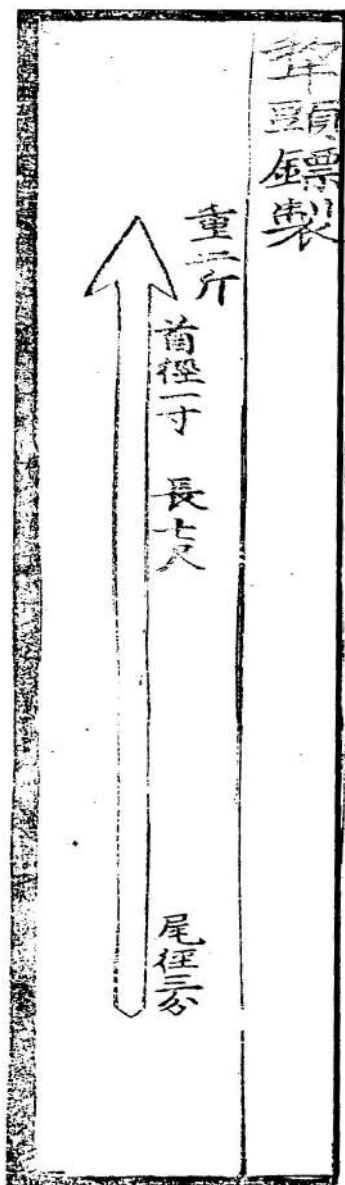
두 척의 배가 적의 선박을 뒤집어엎었을 때 이 요구(撓鉤)를 써서 건져내거나 혹은 적선(賊船)을 걸어 찍어 당겨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밧줄을 걸어 그 시렁을 끌어당기니, 배에서는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갈구리가 굵고 소(筩)가 단단하여 십수 명이 만균(萬鈞 : 180ton)의 무게를 끌고 잡아당겨도 굽어지지 않아야 걸어서 당길 수 있으며, 자루가 길어서 손으로 잡고 가늠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세 개의 갈구리를 써서 한번 치면 착 달라붙어 걸린다.

■ 연습방법[習法]

이 기구는 긴 대나무를 쓰므로 머리가 무거워서 연습방법이 없고 타른 곳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림 36】



무게 2근(1.2kg)
 머리 지름 1촌(3cm)
 길이 7척(2.1m)
 꼬리 지름 3분(0.9cm)

■ 이두표해[犁頭鏢解 : 이두표창에 대한 해설]

이 기구는 1·2·3·4호선의 머리와 1·2호선의 꼬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적의 배 안에 던져 내리면 배가 반드시 뚫리고 사람을 맞추어 반드시 분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두(船頭)에는 불과 1~2명 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또한 이 기구를 가지고 가기가 어렵다. 그것을 던질 수 있는 회수도 3~5차례에 불과하니, 이 모두가 쇠의 중량이 무겁고 자루가 굵으며 꼬리가 가늘기 때문에서이다.

너무 길면 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렵고 너무 짧으면 곧바로 칼날을 내리 쏘기가 어렵다. 그러나 다만 날카로우면 되므로 구태어 가공을 할 필요는 없다.

대개 그 몸통이 무겁고 날카롭게 내리 쏘히는 형세를 이용하는 것이다.

■ 연습방법[習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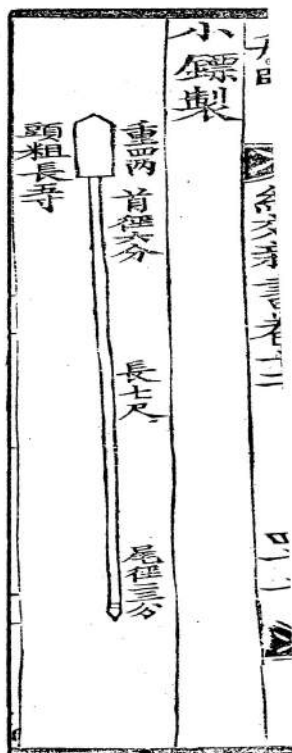
평시에 소표(小鏢)의 연습방법을 참고하여 던지는 것을 손에 익혀야 한다. 거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던져서 표창이 곧두박질쳐서 거꾸로 내리박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바야흐로 모든 선박을 명중시킬 수 있다.

뚫대에 잘 올라가는 사람을 택하여 연습을 시키는데, 먼저 높은 언덕의 산상(山上)을 뚫대에 견주고, 이보다 더 높은 곳의 산 아래에 둥근모양으로 사람 하나 크기만 한 작은 원패(圓牌)를 세운다.

그리고 나서 산상으로부터 이두표(犁頭鏢)를 던져 매 발마다 반드시 명중시키면, 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밀하게 이를 익힌다.

▣ 소표제[小鏢製 : 소형표창의 제원]

【그림 37】



무게 4냥(150g)
 머리 지름 6분(1.8cm)
 전체 길이 7척(2.1m)
 꼬리 지름 23분(6.9cm)
 머리 길이 5촌(15cm)

■ 소표해[小鏢解 : 소형표창에 대한 해설]

배 안에서는 별다른 좋은 계책이 없다. 피아 서로가 10~20장(丈 : 30~60m)의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 만약 적의 배가 낮고 작으며 아군의 배가 높고 크면 이 기구를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것을 비 퍼붓듯이 던지면 적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익숙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혹은 곤두박질치고 혹은 맞추었으나 힘이 없으니 모두 헛수고가 된다. 칼날은 반드시 강철을 써야 하니, 정교하고 날카로우며, 머리가 무겁고 꼬리가 가볍다.

자루는 대나무를 쓰니 더욱 묘하다. 대개 대나무의 몸통은 부드럽게 휘청거리며, 머리는 굵고 꼬리는 가늘어서 서로 적합하다. 만약 대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무 장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머리가 굵고 꼬리가 가늘어야 하며, 그 부드럽게 휘청거림을 이용하여 던지니 힘이 있고 정확하여 곤두박질치지 않는다.

■ 연습방법[習法]

모든 배 안의 모든 병사(兵士)들이 다 연습하되, 한 손을 써서 앞부분 근처를 잡는다. 그러나 앞부분의 무거움을 경계로 하여 손가락을 곳곳이 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뒤를 향해 따라가다가 거의

날려보낼 때 기교와 활력이 있어야 하니,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지 않으면 숙달될 수 없다.

은전(銀錢)을 10보 앞에 걸어놓고 연습하면 화살로도 할 수 있으며, 화살이 명중하면 또 5보를 더 멀리 하여 15보 밖에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기를 20~30보에 이르러서 멈추면 힘이 다한다.

힘이 있는 병사는 다시 거리를 더 멀리 하고 날려서 명중시킬 수 있는 자도 있으니, 마땅히 절묘한 기능을 인정하여 후하게 대우한다.

■ 고망제[罟網製 : 고망의 제원]



【그림 38】

어망(魚網)을 망가뜨린 것이다. 끊어지고 거친 것을 소중히 여긴다.

■ 고망해[罟網解 : 고망에 대한 해설]

이 기구는 누선(樓船)³⁷⁾의 여장(女牆 : 성가퀴)이 있는 곳에서는 쓰지 않으나, 여장이 없는 판목선(板木船 : 판자로 만든 배)에서는 이것을 사용한다. 선박 외부의 좌·우 두 면에 달아매는데 적이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십수 겹으로 두겹다면 또한 창과 화살을 막을 수도 있지만, 오직 총알만은 피할 수 없다.

선박의 가장자리에는 판자를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 기구를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 만약 다만 2~3겹이라면 그 형세가 성글고 얇아서 가려막아 덮기가 어려워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각 전선(戰船)이 모두 이것을 핑계로 하여 설치하지 않는 명목을 삼고 있으며, 여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몇 개를 걸어놓고 여장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다만 몇 개를 걸어놓아 한갓 겹만 꾸미는 쓸데없는 형식만 취하기도 하니 족히 의지할 수가 없다.

■ 연습방법[習法]

먼저 각 어망(魚網)을 펼쳐 놓는데, 여장(女牆)이 없는 배 위에 사용한다.

화살을 써서 쏘고, 창을 써서 찌르고, 총을 써서 치니, 한 겹이 효과가 없으면 두 겹을 더하고, 더하기를 열 겹을 더하면 반드시 막을 수 있으니, 창과 화살이 뚫지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37) 누선(樓船) : 다락이 있는 배. 안에 이층으로 집을 지은 배.

■ 백자총제(百子銃製 : 백자총의 제원]

백자총(百子銃)은 바로 호준포(虎蹲砲)이다.[육병(陸兵)의 수족편(手足篇)에 갖추어 있다.] 미리 선박 상부 여장(女牆) 아래에다가 두꺼운 나무 도리 위에 앞뒤 발을 거치할 구멍 두 개를 파되, 발의 넓고 좁음을 참고하여 아랫발 밑부분을 그 안에 넣어서 총이 수평과 높낮이를 마음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화기는 몸이 가볍고 힘이 커서 움직이기 어려움이 불랑기(佛狼機)의 무거움과 같지 아니하여 기계를 안치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 장창(長槍) · 등패(籐牌) · 궁시(弓矢)

위 기구들의 해설과 연습 방법은 모두 육병(陸兵)의 수족편(手足篇) 안에 있다.

■ 질러(疾藜)

위 기구의 해설과 연습 방법은 모두 육병(陸兵)의 영진편(營陣篇) 안에 있다.

▣ 주사호령[舟師號令 : 수군선단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38)

38) 주사호령(舟師號令) :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조선 수군은 이 수군선단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를 다음과 같이 응용하고 있다.

1개월 전에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장계하여 품지(稟旨)하고, 1일 전에 조련 패를 계양한다. 기일(期日) 날이 썰 무렵에 손바닥으로 한 번 쳐서 신호하면 초선(哨船)을 발송하여 멀리 보내어 4면에서 적을 탐색하는 시늉을 한다. 손바닥을 두 번 쳐서 신호하면 기를 올리고 중군이 여러 배를 거느리고 두 길로 나누어서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 첨자찰(尖字札)을 만들면, 모든 배들은 명령을 듣고 대기한다. 손바닥을 세 번 쳐서 신호하면 주장이 배에 올라 닻을 들고 배를 돌리어 진두(陣頭)에 나선다. 중군 이하의 장령(將領)이 각 배 위(船上)에서 무릎 꿇고 맞이한다. 주장의 배가 통과하면 곧 각선(脚船)을 타고 따라간다. 주장이 바다에 들어가서 닻을 내리면 각 장령들은 좌선(座船) 아래서 대기한다. 황문기수(黃門旗手)가 뱃머리에서 깃대를 차(叉)자형으로 묶어 문을 만든다. 주장이 선청(船廳)에 오르면, 중군·기고(旗鼓)·기패(旗牌) 등의 군관[等官]이 먼저 배례하고, 군뢰(軍牢)·순시수(巡視手)·취고수(吹鼓手) 등이 반(班)을 나누어 머리를 조아린다. 주장이 장막에 오르면 각 장령은 뱃문으로 들어와 배례하고 곧 본선으로 돌아간다. 손바닥으로 신호하고, 피리를 불어 관기(官旗)를 집합시키고, 중군이 뱃머리에 서서 전령하기를, “관기(官旗)는 지나오라.” 하면, 각기 소리에 응하여 곧 충을 쏘며 이르기, “관기는 듣거라.” “예.” “귀로는 징과 북소리를 들으라.” “예.” “눈으로는 정기(旌旗)를 보라.” “예.” “배는 말처럼 몰아라.” “예.” “적을 보거든 앞을 다투어 나가라.” “예.” “같은 배에 탄 사람은 운명을 같이한다.” “예.” “배마다 각기 싸우라.” “예.” “도망치는 적의 배[舟]를 놓아주면 군법에 용서하지 않는다.” “예.”가 끝나면 순서대로 벌려 서서 머리를 조아린다. 포고관(布告官)이 충을 쏘며 이르기, “키잡이[舵工]는 듣거라.” “예.” “한 배의 공적은 너희들만 믿는다.” “예.” “키[舵]를 비스듬히 잡고, 바로 적을 사격하지 않는[不能直射] 자는 목을 베어 군중에게 보인다.” “예.” 하고 끝나면, 키잡이는 머리를 조아린다. 다음에, “요수(繚手)는 듣거라.” “예.” “적을 보고 돛을 줄이며, 바람을 이용하여 공간을 부려라[用奸].” “예.” “도망치는 적의 배를 놓아주면 머리를 베어 군중에게 보인다.” “예.” 하고 끝나면, 요수가 머리를 조아린다. 다음에, “정수(碇手)는 듣거라.” “예.” “적이 온다는 보고를 듣고, 닻[碇]을 올리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예.” “사태가 긴박한데 닻을 버리지 않았는가.” “예.” “일을 그르치게[悞] 만들면 군법에 용서치 않는다.” “예.” 하고 끝나면, 정수가 머리를 조아린다. 다음에, “대장은 듣거라.” “예.” “각 군병[各兵]은 여러 가지 기예를 가진 자로 나누어라.” “예.” “원근의 거리는 기회에 맞도록 힘쓰라.” “예.” “너희들이 도망아 독촉하라.” “예.” “먼저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라.” “예.” “원근(遠近)의 명령을 어기거나 회피하고 농간하면 너희들 모두 죄를 받는다.” “예.” 하고 끝나면 대장이 머리를 조아린다. 관기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조선이 멀리서[遠] 경보를 알린다. 행기(行旗)를 올리고, 한쪽에서 닻을 들고 돛을 올리며, 숙정패와 표미기(豹尾旗)를 세운다. 중군이 본선에 돌아와 첨자찰(尖字札)의 형으로 일제히 전진한다. 조선이 가까이 와서 경보를 알리면 각 배는 일자(一字)로 벌려 선다. 전사(前司)와 우사(右司)가 전충이 되어 안쪽에서 밖으로 향하여 벌려 서며, 좌

1. 항구에서는 날마다 맑은 첫새벽에 중군(中軍)의 선내에서 취타(吹打)를 세 번 울리고 호포(號砲) 세 발에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면서 또한 태평기(太平旗)를 올린다.

1. 중군선(中軍船)이 북을 울리고 황기(黃旗)를 세운 다음에 뭇나 무하는 일과 물 걷는 일을 하는 인원을 내보내면, 각 선박은 그에 따라 물가로 올라가 땀감과 양식을 구매한다.

사와 후사는 후층이 되어 밖에서 안쪽으로 향하여 벌려 서고, 중사는 후층 뒤[後]에 벌려 선다. 적선이 200보 안에 있으면 전층은 불랑기와 조총·화전·궁전(弓箭)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반을 나누어 사격한다. 다음에 후층이 전층 앞에 나와서 앞을 겨누고 사격한다. 다음에는 중사가 앞에 나와서[出前] 또한 앞을 겨누고 사격한다. 다음에는 전·후층 및 중사가 일제히 빨리 노를 저어서 진전(進戰)하여 적과 돌격전을 전개하는 시늉을 연출한다. 분통(噴筒)·화통(火桶)·와관(瓦罐)·크고 작은 돌멩이[石]들을 적의 배에 던진다. 적이 작은 배로 공격하여 들어오면 우리 편에서는 큰 배를 사용하여 가래로 떠넘기어 격침하는 태세를 취하며, 적이 큰 배를 사용하면 우리 편에서는 작은 배를 가지고 포위 공격하는 시늉을 짓는다. 적이 패하면 각 사에서 순서대로 종(艫)을 거두고 전과 같이 침자찰을 만들고 배를 돌려 안쪽으로 향하여 영을 개설하며, 처음 벌려 섰던 자리로 돌아가서 표를 세우고, 하방영(下方營)에서는 배를 돌려 앞으로 나가서 닻을 내리어 안정하게 꽂아 놓고 초급병(樵汲兵)을 보내어 중군선(中軍船)에 가서 주표(籌票)를 받아 가지고 해안에 올라가서 땀나무와 쌀 등을 사오고 곧 영문을 단는다[閉]. 중군은 각선(脚船)을 타고 좌선 아래에 가서 아뢰고 관기를 수합[聚]하며, 공과 죄를 사정하고, 본선으로 돌아와서 조련을 시행하는 중에서 잘잘못을 강평하고, 군중을 대하여 결말을 짓는다. 끝나면 관기가 지방에 내려가서 초급병을 철수하고 영문을 단으며[閉], 모두 불을 켜고 동라(銅鑼)를 울리면 밥을 지어 먹고, 초선을 발송하여 4방으로 멀리 보낸다[四遠]. 해질 무렵에 영문을 닫고 기를 내리며 등을 단다. 총을 쏘고 야간 요망(瞭望)을 세운다. 관군이 포를 쏘고 천아성을 불며, 한 번씩 북을 칠 때마다 각 배에서는 조두(刁斗)를 돌아다니면서 친다. 1경이 끝날 때마다 포를 쏘고 천아성을 분다. 경이 바뀌어[轉] 2경이 될 때를 기하여 어느 쪽의 초선이 멀리서 경보를 알리면 곧 등불을 가리어 숨기며, 각 배에서도 일제히 등불을 숨기고 영을 어둡게 한다. 초선이 가까이 경보를 알리면 등불을 열어 밝히고, 각 배들도 일제히 등불을 열어 밝힌다. 적이 30보 이내에 들어오면 모두 주간에 조련하는 예에 의하여 방어한다. 적이 패하면, 초선을 발송하여 사방으로 멀리 보내어 전과 같이 경(更)을 지킨다. 중군이 각선(脚船)을 타고 좌선 아래 와서 아뢰어 관기를 수합하고, 공과 죄를 사정하고, 본선으로 돌아와서 야간 조련의 잘잘못을 강평하고, 군중을 대하여 결말을 짓는다. 먼동이 트면 영문을 열고 등불을 끄며, 닻을 들고 돛을 올린다. 손바닥을 두 번 쳐서 신호하면 각 배가 전과같이 침자찰(尖字札)을 만들고, 손바닥을 세 번 쳐서 신호하면 초중나팔(招艫喇叭)을 불며, 각 배는 순서대로 종(艫)을 따라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한다.

신주(神州：中原地區)와 복주(福州：복건성)의 선박을 갖춘 자는 중군선으로 가서 시일과 기한을 작성한 주표(籌票)를 받고 일이 끝난 뒤에는 반납하되, 감히 보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떠나거나 해당 관할대장이 감싸고 숨기거나 알고도 문제삼지 않은 자는 한 가지로 연좌하여 군법(軍法)으로 이를 다스린다.

육병(陸兵)의 초급(樵汲) 호령(號令) 방법을 본받아 행하면 대동 소이하니, 고쳐서 혼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1. 각 선박의 군사 지휘는 좌·우협(左右協)의 파총(把摠)이나 초관(哨官)이 한다.

포병(捕兵)이나 타병(舵兵)은 바람이 빠른 계절에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사고를 핑계대어 물으로 올라가 잠자고 쉬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쓸데 없이 돈과 양식을 축내어 일의 기미(機微)를 그르친 자는 한 가지로 군법(軍法)에 따라 무겁게 다스린다.

만약 경계 상황이 있을 경우에 신호가 이미 거행되었는데, 도착하지 않고 선박이 이미 닻을 올렸는데 그제서야 오면 모두 두려워서 회피한 경우에 관련시키되, 즉시 처치할 것을 보류하였다가 공이 없을 경우에는 군법(軍法)에 따라 처벌한다.

1. 각 선박(船舶)과 타(舵)의 대장(隊長)과 병사(兵士)는 각각 명분(名分)과 장유(長幼)·존비(尊卑)에 따라 안배되어 같은 배에서 운명을 함께할 것을 마음먹고 부자(父子) 형제(兄弟)와 같이 서로 거처를 함께한다.

술을 즐기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서로 싸우거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군법으로 연좌(連坐)하여 처벌하되, 연후에 따로이 관원을 보내어 그 곡직(曲直)을 심리한다.

1. 병사(兵士)와 대장(隊長)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밀어주고 양보하되, 오직 대장은 이를 들어준다.

대장은 평시에 포도군관(捕盜軍官)을 보면 한번 무릎꿇고 두 번 읍하며, 군중의 지휘명령이 하달되면 무릎꿇고 호령(號令)을 듣는다.

1. 포도군관(捕盜軍官)이 초관(哨官)을 만나면 평시에는 한번 무릎 꿇고 두 번 읍하며, 군중(軍中)에서 만나거나 적전(敵前)에서 만나면 군법(軍法)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초관(哨官)이 좌·우협(左右協)의 파총(把總)을 만나면 한번 무릎 꿇고 두 번 읍하며, 적전이나 조련(操練)할 경우에 만나면 군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추승(推陞)된 파총을 만나면 군복 차림을 한 상태에서 머리를 조아린다.

1. 좌·우협(左右協)의 파총(把總)으로서 지휘(指揮) 이하의 명색(名色)에 관계된 자가 추승된 파총을 만나면 두 번 무릎꿇고 한번 읍하며, 평시에는 관대(冠帶)를 허락하고 조련 때와 전진에 임했을 때에는 모두 군례(軍禮)로써 한다. 보고서는 좌·우협에 모두 올린다.

원임(原任) 도지휘(都指揮)는 일찍이 수파(守把)의 임무를 맡았던 자로서 흠차파총(欽差把總)을 만나면 대문(大門) 밖에서 하마(下馬)하여 중문(中門)을 거쳐서 빈례(賓禮)로 약속하고 문서를 보내되 수본(手本)을 써서 첨명(僉名)한다.

흠차 파총도 또한 수본을 쓰되, 첨명은 아니한다.

■ 열영도[閱營圖 : 진영사열의 도형]

【그림 39】



우초(右哨) 전사(前司) 좌초(左哨)

우초(右哨) 중사(中司) 좌초(左哨)

중군(中軍)

우초(右哨) 후사(後司) 좌초(左哨)

1. 전선(戰船) 배열에 대한 설명의 중점은 바다의 파도가 거세거나, 항구(港口)에 만곡(灣曲)이 있어 넓고 좁거나, 바람에 맞닥뜨렸을 때나, 바람이 잠잠해졌을 때가 같지 않을 경우나, 항구의 모양이 깊고 얕음에 따라 일정한 형세로 구애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도형은 넓게 도는 물길이 좋은 곳을 말하고 그 상례를 말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 얇고 항구가 굴곡이 심하면 또 단척(單隻)이 일자로 순하게 내려가 규칙에 얽매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이 뜻밖의 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1. 매일 해 떨어질 무렵에 중군선(中軍船)에서 울리는 대취타(大吹打) 1통(通)과 신호포(信號砲) 3성(聲)을 듣고서 각 선박은 다같이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며 기(旗)를 내린다.

밤이 어두어지면 중군이 너고(擲鼓) 3통을 울리고, 명령을 하달하니, 육병행영편(陸兵行營篇)에 있는 내용과 같다.

명령 하달이 끝나고 신호포 1성에 나팔(喇叭)이 천아성(天鵝聲)을 울리면 각 선박은 일제히 쇠나 나무 등을 한 차례 친다.

매 경(更)마다 병사(兵士) 2명을 써서 1명은 선두(船頭)에서 멀리를 바라보고, 1명은 선미(船尾)에서 높이 바라보며 살피되, 배가 지나가는 것을 만나면 바라를 울린다.

각 선박은 통행하면서 경계 상황에 대비하되, 검은 덩어리가 떠 내려오면 적의 인원이 물을 헤치고 와서 닻을 훔쳐가는 것이 염려되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밤시각을 관장하는 병부(兵夫)가 돌로 이를 치면서 일면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포도관(捕盜官)과 함께 살피본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다른 물건이 떠내려가는 것이

라면 그만이지마는, 적이 오는 것이라면 즉시 바라를 올리고 총을 쏘아 각 선박이 일체로 방비하게 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밤시각을 관장하는 병부를 중벌로 다스린다. 이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게 되면 참수(斬首)하되, 반드시 중군(中軍)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사태가 급박하여 한밤중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권도(權道)인 것이다.

▣ 수조해[水操解 : 수군 조련에 대한 해설]

이 모든 것은 양자강(揚子江)과 황하(黃河)에서는 조련(操練)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직 바다에서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선박의 대열을 이루기가 어려워 뜻과 같이 능숙하게 다루거나 부리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조(滿潮)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 연후에 각 선박이 수채(水寨)로 돌아가는 것을 통제할 때 그 조련이 가능하다.

수채가 모두 바람이 평온하고 물결이 고요하여 선박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넓고 크면 조련하기 하루 전날에 수채의 장관(將官)이 조패(操牌)를 걸어 이튿날의 조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여 각각 장비를 수습하여 준비를 하게 한다.

다음날 해뜰 무렵에 하늘의 빛깔을 살펴서 맑고 화창하여 풍량이 일어나지 않으면 첫 번째 신호를 올려 아침 식사를 마친다. 그런 다음, 돛대와 돛줄을 수습하고 일면으로는 징 가장자리를 올려 초탐선(哨探船)을 멀리 내보내어 사면의 적 상황을 탐색하는 형세를 취하게 한다.

두 번째 신호가 올리면 각 선박은 대열을 짓고 대기한다.

세 번째 신호가 올리면 주장(主將)이 선청(船廳)에 올라가고 호적

(號笛)이 울리면 수병은 명령 하달을 받고, 좌·우협(左右協)의 분총(分摠)과 과총(把摠)·초관(哨官)·포도관(捕盜官)·타병(舵兵)·정수(梃手 : 닻잡이)·요수(繚手 : 돛줄잡이)·대장(隊長) 등의 인원은 모두 각선(脚船 : 작은 배)을 타고 좌선(座船 : 지휘선) 아래로 간다.

포고관(布告官)이 장관(將官)의 분부와 관기(官旗)의 신호를 기다리되, 육조(陸操)의 예에 따라 각선을 가지고 좌선의 양 둘레에 차례로 대열을 지어서며, 선협(先協)의 초관과 포도관은 선문(船門) 위에 자리하여 적발사항을 보고하고 각각 좌선 위로 올라가며, 타공 이하로 대장에 이르기까지 각각 삼판선(三板船)이나 소선(小船)에 쏴어 엎드린다.

포고관이 다음과 같이 발방(發放 : 명령하달)한다.

“각 관기(官旗 : 장관이나 기총 대장을 가리킴)는 들으라. 귀로는 징소리와 북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깃발을 보면서 배를 물기를 말 타듯이 하며, 적을 보면 앞을 다투어 달려가고 한 배를 타면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의지로 선척이 각각 싸움터에 종횡하되 적의 선박을 놓쳐서 달아나게 하면 군법으로 다스려 용서치 않는다.”

명령 하달과 수령이 끝난 뒤에는 관초(官哨 : 초관과 포도관)는 차례로 머리를 조아리고 일어나 물러간다.

타공(舵工)에게는 이렇게 발방한다.

“타공은 들으라. 한 배의 성공 여부는 모두가 너희에게 달려 있으니, 키를 가지고 비스듬히 세워서 곧바로 적선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목을 베어 여러 사람에게 조리를 돌리겠다.”

그러면 타공은 머리를 조아리며 분부를 받고 일어나서 제자리로 물러간다.

다시 요수(繚手)에게 이렇게 발방한다.

“요수는 들으라. 적을 보고 돛을 줄이며 바람을 따라 농간하여 적선을 달아나게 할 경우에는 목을 베어 여러 사람에게 조리를 돌리겠다.”

그러면 요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분부를 받고 일어나서 제자리로 물러간다.

다시 정수(梃手)에게 이렇게 발방한다.

“정수는 들으라. 적이 침범해 온다는 보고를 듣고 닳을 신속히 들어 올리지 않거나, 상황이 급박함에도 닳줄을 끊지 않아서 일을 그르칠 경우에는 군법으로 다스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분부를 받고 일어나서 제자리로 물러간다.

다시 대장(隊長)에게 이렇게 발방한다.

“대장은 들으라. 각 병사들은 병기(兵器)의 운용과 무예(武藝)를 겸하여 익혀야 하니, 원근의 거리를 되도록 기미(機微)에 맞추어 대응하도록 하라. 너희는 오로지 병사들을 감독하고 격려할 책임을 맡았으니, 먼저 스스로 혼란해서는 안된다. 원근의 거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연좌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간사한 자를 숨겨줄 경우에는 너는 그와 동일하게 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대장은 머리를 조아리며 분부를 받고 일어나서 제자리로 물러간다.

중군이 관기가 지방으로 내려감을 아뢰니 다음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관기에게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분부한 다음 징을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하면 각 관과 포대(捕隊)가 모두 흠어져서 각 선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징과 취타(吹打)를 멈춘다. 각 사(司)와 초(哨)는 포도(捕盜)를 불러서 발방하고 각 포도는 대장(隊長)을 불러서 발방하며, 발방이 끝나면 일면으로 닳과 돛을 들어 올린다.

중군(中軍)은 ‘적선(賊船)이 이미 나타나 바다에서 명령을 행한다’고 보고한 다음, 총을 쏘고 행기(行旗 : 흑대기)를 올려 조련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곧바로 신호포를 한번 쏘고 빠르게 북을 친 후, 행기를 올린다. 숙정포(肅靜砲)를 세 번 쏘면 다시 호포를 쏘고 북을 치면 각 선박은 첨자찰(尖字札 : 끝이 뾰족한 갑옷 미늘]의 형태로 정렬하여 일제히 앞을 향한다.

적후선으로 가장한 적적의 장당선(粧塘船)이 200보 이내에 있을 때에 포를 쏘고 천아성(天鵝聲) 나팔(喇叭)을 불면 먼저 불랑기(佛狼機)와 조총(鳥銃)·화전(火箭)을 가지고 반열(班列)을 나누어 발사한다. 이때에 불랑기와 조총은 모두 탄환을 사용하지 않고 화전은 별도로 소기화(小起火 : 소형 신호화살)를 만들어 대용한다. 반(班)을 나누어 치고 쏘되 적이 다시 30보 이내로 접근했을 때에 신호포를 쏘고 나팔을 불며 나(鑼)를 울리고 북을 치면 분통(噴筒)을 발사하며, 표창(鏢槍)과 독화살과 총과 화살을 일제히 발사한다.

분통은 단지 빈 분통만 발사하고 표창은 마른 나뭇가지의 아주 흔한 것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며 수량은 10여 가지로 한다. 활은 빈 활을 당기고 총은 탄환이 없이 쏘는 시늉만 한다.

적이 다시 선박의 가장자리로 접근해오면 배 위에서는 화통과 분통 화전 및 매끄럽고 습한 물건을 던지며, 두(斗) 위와 배의 꼬리에 있는 자들은 이두표(犁頭鏢)를 사용하여 적선에 던진다. 표창은 가느다란 대나무를 쓰며 종이와 솜으로 윗부분을 싸서 대신하면 거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화통은 빈 나무통을 쓰며, 한 가닥 길고 가느다란 새끼줄로 매달아 선박 여장에 묶어서 아래로 던진다. 싸움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여 표류하지 않게 할 수 있다. 화전은 앞과 같이 기화전을 사용하고, 소표(小鏢)는 작고 가느다란 대나무를 써서 종으로 머리부분을 싸서 대신 던진다.

아측의 배가 크고 적측의 배가 적을 경우, 대뜸(篷)과 키[舵]를 바로 잡고 이침세(犁沈勢 : 갈아 엎는 형세)를 취하며, 장당선 역시 큰 배 2척을 사용하여 노를 느리게 저으며, 작은 배는 상앗대[槳]와 노를 매우 빨리 젓는다. 4~5척의 배를 가지고 적선을 포위 공격하는 모양을 취하며, 적선 1척이 우리 배로 다가오면 두 배가 힘써 싸우는 모양을 하되, 두(斗) 위와 배 꼬리에서 모두 표창을 던지고 신비포를 쏘아 적선을 부순다.

일상적인 조련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따로이 부판(浮板)을 띄워놓고 육합총(六合銃)을 올려놓아 따로 각선이나 팔장선을 이용하여 끈으로 끌고 가다가 적선을 가까이 만나면 불을 붙여 발사한다. 판자가 부서지면 총이 침몰하는데, 이것은 돌아볼 것이 없다. 버리는 것은 불과 6조(條)의 연목(椽木)과 5도(道)의 철잡(鐵箍)일 뿐이다.

이 화포는 신비포와 함께 조련하고 연습할 때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것이니, 조련이 끝나기를 기다려 따로이 가져다가 각각 1위씩 시험하여 전진에 임하거나 대조(大操)가 끝난 뒤에 바야흐로 나누어서 연습하니 어째서인가?

한 배는 일가처럼 구성되어 있으니, 장령(將領)이 유수(有數)하다. 대조를 할 적에 각 선박이 일제히 출동하니 관목(官目)이 선박 한 척 한 척 사람 하나하나를 일일이 조도(調度)할 수 없다.

만약 여러 선박이 아우성 소리와 화염 속에서 혼란에 빠지면 곧 원칙에 합치되지 않아서 혹은 너무 더디고 혹은 너무 빨라서 살펴서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고서도 바로잡지 못하거나, 혹은 대면하고서도 날려서 던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선박을 부리기에 앞서 선박은 이 지휘신호를 살펴서 장령과 파총과 초관은 친히 선박에 있으면서 한 척의 선박이 조련에 익숙해지면 다시 또 한 척의 선박을 조련하고 각 선박이 조련을 완결하면 그때에 가서 여러 배를 통합하여 총체적인 연습을 한다.

그 대강은 바로 육병 1대(隊)의 조련을 익힘과 같으니, 1기(旗)를 합하여 1기를 조련하고, 1기가 조련에 익숙해지면 그때에 가서 1초(哨)를 통합하여 연습을 하는 유형과 같다.

그러나, 조련 방법은 같지 않아서, 단독 선박이 연습할 때에는 장당적선(粧塘賊船)을 사용하지 않으니, 하나하나가 적과 맞닥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신비백자총(神飛白子銃)은 모두 납탄환을 사용하고 화통(火筒)은 모두 실제로 수면(水面)에 던져서 쏘되, 그대로 진짜 화살은 사용하지 않는다. 표창(鏢槍)은 진짜 표창을 사용하지 않고, 진짜 기구는 단 한번만 쓰니, 비용을 아껴서이다.

1. 중군(中軍)이 비교(比較: 훈련상태를 점검)할 것을 보고하고 먼저 불랑기(佛狼機) 4좌(座)를 배열하되, 100보의 거리에 홍기를 세우면 각 선박의 불랑기수(佛狼機手)는 모두 대하에 나아가 창명(唱名)을 듣고 화포를 발사하되, 매 사람마다 3발에 1발이 명중한 자는 양상(量賞)하고, 2발이 명중한 자는 평상(平賞)하고, 3발이 명중한 자는 격식을 뛰어넘어 중상(重賞)하고, 명중시키지 못한 자는 문책하여 벌을 준다.

그 비교(比較)와 장전(裝填) 방법과 발사방법은 모두 육병(陸兵)의 조목에 설명되었다.

모든 비교에 관한 기예(器藝)는 마찬가지로이니, 80보의 거리에 홍고초기(紅高招旗)를 세우면 각 선박의 조총수(鳥銃手)는 모두 대하(臺下)에 모여 불랑기(佛狼機)의 예에 따라 시험하고 상벌을 시행한다.

다음에는 60보의 거리에 황기(黃旗)를 세우면 각 노수(弩手)와 사수(射手)와 화전수(火箭手)는 모두 대하에 나아가 매 사람마다 또한 3발을 쏘되, 조총수의 예에 따라 시험하고 상벌을 시행한다.

다음에는 20보의 거리에 남기(藍旗)를 세우면 각 선박의 표창수(鏢槍手)와 타석수(打石手)는 모두 대하에 나아가 매 사람마다 또한 3발을 쏘되, 또한 조총수의 예에 따라 시험하고 상벌을 시행한다.

다음에는 백기(白旗)를 세우면 각 선박의 구겸창수(鉤鎌槍手)와 요구창수(橈鉤槍手)는 모두 대하에 나아가 먼저 매 사람의 명단을 보고 춤추어 보게 하여 수법과 신법과 보법을 보며, 다음으로 참마도(斬馬刀)와 대도(大刀)와 창(槍)은 그 가로막고 맞섬이 어떠한가를 비교해 본다.

이때 다만 창을 마음대로 다루아 띄이고 소리질러도 꼭 붙잡 으면서 눈을 움직이지 않고 육분창(肉分鎗)을 보면, 가(架)를 가로 막지 못하더라도 또한 제1등으로 한다.

만약 한번 보아서 창이 오는 거리가 멀고, 가두(架頭)를 맞음에 몸을 흔들고 손이 기울어지며 발을 움직임이 어지러움고 생소하며 또 그 사람이 담력이 없으면 혹은 문책하고 혹은 갈아치워서 오직 공도(公道)로써 이를 행해야 하니, 이를 하등으로 한다.

모든 연습과 발사가 끝남에 있어서는 신호포를 발사하며, 기를 내려 부대를 해산하면 각 삼판선(三板船)은 모두 언덕 아래로 와서 병사들이 배에 오르기를 기다려 귀항(歸港)한다.

매 연습 때마다 한차례씩 하는 이 비교[시험]는 육조(陸操)에서 한차례씩 하는 것과 같으니, 두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만 조련을 한차례 하면 하루를 쉰다.

수조(水操)는 매월 1일과 5일에 하며, 한 달에 모두 6차에 걸쳐서 조련(操練)을 하는데, 육조는 매월 3일과 7일에 하며, 한 달에 모두 6차에 걸쳐서 조련을 한다.

■ 발강호령[發艙號令 : 선박 출발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1. 하루 간격으로 먼저 패[行牌]를 걸어 각 포도관(捕盜官)에게 장차 어느 날 바다에 나갈 것인가를 알려 건어물(乾魚物)과 쌀과 식수(食水) 등을 준비하게 하고, 그 수량과 한도를 수시로 점검 조사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묶어놓고 곤장을 치고 배상시키는 벌을 준다.

당일에는 첫 번째 신호를 울려 징 가장자리를 치면 각 초선(哨船)은 바다로 나간다. 두 번째 신호가 오르면 모두 수채(水寨)의 일상적인 조련(操練)의 예에 따라 행한다. 세 번째 신호가 오르고 주장(主將)이 선청(船廳)에 오르면 신호포(信號砲) 소리 세 차례에

대취타(大吹打)를 마치고 일면으로 닻을 올리고 돛을 올린다. 일면으로는 호적을 불되 다만 관포(官捕)와 기대(旗隊)가 모두 삼판선(三板船)에 자리하여 중군선(中軍船) 아래 두 가장자리로 나아가 진영 배열의 예에 따라 정렬하고 반드시 좌선(座船)에 들어갈 것은 없다.

포고관(布告官)이 관기(官旗)가 모두 도착했음을 보고하고 주장의 뜻에 따라 발방(發放)하여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고, 일이 끝나면 각 관포는 배로 돌아간다.

일체로 발방을 마치고 나면, 중군선(中軍船)은 빠르게 북을 치고 행기(行旗)를 올리면서 호포(號砲)를 세 번 울림에 세 차례 합성을 지르고 차례로 선박(船舶) 문을 열되, 바다로 나아감에 있어서 선두와 후미가 서로 연결하여 기러기의 행렬 같이 나아가며, 멀리 종초(艏哨)에서 떨어짐을 불허한다.

한 척의 배가 명령을 위반하면 이는 포도관(捕盜官)의 죄요, 두 척의 배가 명령을 위반하면 이는 초관(哨官)의 죄요, 네 척의 배가 명령을 위반하면 이는 분총(分總)의 죄요, 중군(中軍)이 두려워하고 움츠러듦은 파총(把總)의 죄이다. 그 타공(舵工)과 요수(繚手)를 모두 가중하여 죄를 다스린다.

바람과 비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썰 경우를 당해서는 과연 뜻하지 않은 바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니,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면한다. 만약 마음을 먹고 이런 짓을 하여 고의로 싸우기를 회피하는 자는 군법(軍法)으로 처벌한다.

■ 행박호령[行泊號令 : 출동 정박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모든 병선(兵船)의 수寨(水寨)를 설치해야 할 지역에서는 미리 각 해양(海洋)을 순시 초계(哨戒)한다. 선박이 이르는 곳의 높은

산 언덕은 그것이 몇 곳인지를 불문하고, 각각 미리 건조(乾草)를 채취하여 덮어둔다. 그러다가 급박한 경계 상황을 만나면 조선(哨船)에 있던 병사(兵士)가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 불을 올리면 근처에 있는 선박들이 화광과 연기를 바라보고 곧 돛을 올려 불길을 바라보며 전진하면서 초계한다.

연접한 인근 산머리와 봉화대(烽火臺) 및 둔대(墩臺)는 즉시 이에 접응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보고하여 수채의 초계와 선박의 출발 및 책응에 편리하게 한다. 조선은 이내 그대로 적이 간 종적을 탐색해서 영병총협(領兵總協)에게 직접 보고하여 나아가고 멈춤에 편리하도록 한다.

만약 불빛 신호가 분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단(船團)으로 하여금 공을 이룩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10급을 추상(抽賞)하고, 조선(哨船)이 멈칫거리서 일을 그르쳤을 경우에는 죄가 해당 관령(管領) 초관 등의 관원에게까지 미친다.

만약 조선이 신지(信地)를 다 수색하지 않고 한곳에만 멈추어서 탐망을 하거나, 혹은 어조선(魚樵船)에 머물러 있으면서 통신을 한 경우에는 조선(哨船)의 타공(舵工)과 대장(隊長)을 모두 군법으로 처벌한다. 산에 이르러 불을 질렀는데 원래 쌓아놓은 시초가 부족하고 불길이 약해서 멀리서 바라볼 수 없게 하여 일을 그르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타공과 대장을 모두 군법으로 처벌한다.

1. 아군의 선박이 바다로 나가 초계(哨戒)하면서 적선(賊船)을 뒤쫓는데, 날이 어두어지려 하고 조수(潮水)의 때가 장차 다하려 하는데도 길을 다투어 앞으로 나아가면 안된다.

반드시 오늘 밤에 바람이 일어나서 배를 대고 정박할 곳이 없을 근심을 막아야 한다.

용담(龍潭)이나 신묘(神廟)를 만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총을 쏘고 나팔을 불거나, 징과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거나, 놀라서 허둥지둥하여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아침 저녁으로 해와 달, 별과 구름, 그리고 나는 새의 기색을 살펴 풍우가 올 것을 미리 알아서 밤이 캄캄해지기 전에 곧 배를 델만한 곳을 차지하고, 높은 산에서 사방을 바라보아 산을 사이하여 정박하고 있는 적선을 우리가 모를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선박의 포도관(捕盜官)과 타수(舵手) 등의 병부(兵夫)가 선박을 정박시킨 산기슭에서 까닭없이 산 위로 올라가 한가로이 노는 것을 불허한다. 경계 상황에 닥쳐서 일시에 하선하기에 불편하여 일을 그칠까 염려해서이다.

만약 물을 길어와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운번제로 근무하는 당직 병부가 중군선(中軍船)에 가서 보고하여 분명히 대조하고 패(牌)를 지급받은 다음에야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가하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묶어놓고 곤장을 친다.

1. 경계 상황의 보고가 매우 급박하면 곧바로 전례에 따라 닻줄을 끊어서 닻을 버리되, 이를 지체하여 그르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정수(舵手)의 귀를 자르고 여러 사람 앞에 조리를 돌린다.

1. 적선과 더불어 상대하여 정박했을 적에 배의 닻 덮개 위에 헛대나무를 쪼개서 싸매어 적이 밤중에 이것을 훔쳐갈 염려가 없게 하되, 명령을 어기면 정수를 묶어놓고 곤장을 친다.

▣ 야행호령[夜行號令 : 야간출동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1. 각 선박은 등화(燈火)로써 신호를 하되, 중군선(中軍船)은 기화전(起火箭) 3지(枝)를 쏘아 올리면서 호포(號砲) 3발을 쏘아 올리고, 위아래 한 줄로 등잔(燈盞) 5개를 내건다.

이 밖의 각 선박은 적이 없는 곳에서는 등잔 2개를 내걸되, 앞에 적이 있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등롱(燈籠)을 선박의 사면에 모두 매단다. 그 막대 위에 등을 높이 매달아 오로지 사(司)와 초(哨)를 분별(分辨)하는데, 모두 막대기 끝에 매단다.

전초(前哨)는 1개를 달고 좌초(左哨)는 2개를 달되 좌·우로 나란히 진열하며, 우초(右哨)는 1개를 달고 후초(後哨)는 2개를 달되 역시 좌·우로 나란히 진열하며, 중초(中哨)는 3개를 달되 위아래로 진열한다. 불이 꺼지면 따라서 보충하되, 실수하거나 그르쳐서 착오를 일으켜 혼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장(隊長)의 죄를 다스린다.

1. 밤에 선박을 정박하고자 할 때에는 중군선의 신호포가 세 번 울리면서 초종나팔(招鯨喇叭)을 부는 소리를 듣고 각 선박은 순서에 의하여 선단을 따라 닻을 내리되, 사사로이 편안함을 구하여 멀리서 정박하는 것을 하라하지 않는다.

그로 말미암아 허점이 생기는 잘못이 있으면 초관을 연좌하여 처벌한다.

1. 야간 수비를 할 때의 호령(號令)은 모두 항구에 소재할 때의 호령(號令) 요령과 같다.

그러나 매일 밤 대선(大船)은 조총수(鳥銃手) 2명과 불랑기(佛狼機) 1가(架)와 백자총(百字銃) 1가를 비치하며, 소선(小船)은 다만 조총수를 시켜서 점화(點火)를 한 상태에서 총을 잡고 있다가 의심스러운 경우를 만나면 곧바로 거기에 대하여 발사하도록 한다.

1. 각 선박이 야간에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중군선이 신호포 3발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보고 전체의 등화(燈火)를 걸어 올리는데, 매 선박마다 다 등화를 걸어 올려서 아군의 형세가 성대하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준다.

■ 수전호령[水戰號令 : 수전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1. 물러나 움추려서 뒤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포도관(捕盜官)을 처벌하고, 선박의 행로를 지연시키고 우회하여 뒤늦게 도착한 경우

에는 포도관과 타공(舵工)을 함께 처벌한다.

물길이 얇은 곳으로 갔을 경우에는 판초수(板招手)를 처벌하고, 적을 바라보고 돛의 속도를 줄인 경우에는 그 요수(繚手)의 목을 벤다.

선박이 비록 먼저 도착했으나, 곧바로 적선(賊船)을 쏘지 않고 겹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와 바람을 바르게 받지 않은 경우에는 타공(舵工)과 요수(繚手)를 처벌한다.

만약 이미 적의 배를 뺨박하여 서로 어울려 교전하였으나, 공(功)을 이루지 못하고 달아나게 했을 경우에는 포도관을 처벌한다. 각 대장은 어떤 병사가 힘써 싸우지 않는가를 조사해서 즉시 귀를 자르고 배에 묶어두어야 포도관이 죄를 면한다.

이상에서 이른 처벌 조항은 전진(戰陣)에 임해서는 모두 군율(軍律)의 예에 따라 목을 베어야 하는 죄에 해당한다.

1. 도망을 금지함에 있어서 육병(陸兵)은 다스리기가 쉽고 수병(水兵)은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어째서인가?

관부(官府)와 가까이 지내는 날은 적고 바다에서 활동하는 날은 많으니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조사하고 살피기 어려워서이다. 그런데 헛되이 국고만 낭비하면서 이를 보기를 심상하게 여겨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이미 쥐를 잡지 않는 고양이 되어 버리니 다른 관원이 독려하고 추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 방조함이 습관이 되어서 군법을 알지 못하니 이것을 어디에다가 쓴단 말인가?

무릇 우리가 기구를 수리하고 군령(軍令)을 갖추어 정돈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어 위로하고 도와주면, 그들은 모두 이것을 보기를 거짓 꾸밈으로 여긴다. 그리고 전에는 반드시 이를 써서 무예(武藝) 연마를 하지 않고, 멀리서 총을 들어 가짜 싸움놀이나 하고 가까이서 각각 미리 큰 나무 판자를 찾아 오직 물 밑에 몸을 숨겨 판자를 띄우고 도망갈 것을 궁리하거나 하였다.

지금 이 폐단을 제거하여 매 선박마다 반드시 병사 2~3개 부류의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니, 비록 잡다하기는 하나 한 배에 타고 있으니 운명을 함께하지 않을 염려가 없을 것이다.

무릇 적이 보고 <물의 성질을 잘 아는 병사가 달아나기 위해서> 문득 물로 뛰어들어갈 경우에는 순식간에 아군의 원래 타고 있던 배에서 멀어진다. 그 배가 인근의 배와 함께 나란히 있으면 포도관과 대장은 곧바로 다른 부류의 병사를 거느리고서 혹은 표창(鏢槍)을 던지고 혹은 총과 화살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쏘되, 적을 쏘는 것과 같이한다. 이때 쏘아서 죽은 자가 있을 경우, 적의 수급(首級)을 벤 것과 마찬가지로 공을 논하여 상을 준다.

대저 이러한 무리들은 전진에 임했을 때에도 또한 군율(軍律)로 참수할 죄에 해당하니, 이 또한 죽을 자의 수효에 해당한다. 이 <물의 성질을 잘 아는 병사> 몇 사람이 물로 뛰어들어 달아나 버림으로써 한 배 안에서 물의 성질을 알지 못하여 물로 뛰어들지 못한 자는 모두 배 안에서 한줌의 재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즉시 이러한 사람을 쏘아 죽이면 나머지는 감히 도망가지 못하여 한 배의 운명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니, 맹세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맹세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적이 우리 관병(官兵)의 추격전을 염려하여 선박 안의 기물을 수중에 버리면 감히 이것을 건져 올리고 수습하느라고 적을 추격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포도관이나 대장이 귀를 자르고 여러 사람에게 조리돌리는 것을 허락하고, 고의로 내버려둘 경우에는 상황이 끝난 뒤에 조사하여 다스린다.

1. 이미 적의 선박 1척을 격파하고 나서, 나머지 배로 나누어서 다른 적을 추격해서 치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들어 다투어 적의 수급(首級)을 건져내려 하다가 적이 달아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각 선박이 수급을 얻고서 작전을 멈추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적을 쳐서 한 배를 격파한 공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배의 포도는 모두 목을 벤다.

비록 이미 적의 선박에 바짝 다가갔으나 아직 쳐서 격파하지 못했을 때, 다른 배가 접응하여 일찍이 함께 힘을 쓴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각 선박이 총을 발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화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장하여 불뚱이 튀어들어 재난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되, 조심스레 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일을 그르친 경우에는 총수(銃手)와 화약을 관리하는 병사를 한꺼번에 목낸다.

1. 각 선박이 왜구(倭寇)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노획한 재물은 포장하여 해당 선박의 포도를 거쳐 공유로 삼았다가 나누어주되, 절반은 전투(戰鬪)에서 적장의 목을 자른 공로(功勞)를 세운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고르게 취하게 한다.

감히 포도관(鋪道官)이나 두목(頭目)이 강제로 나누어 갖거나, 심지어는 끼어들어서 치고 쫓아가서 침탈하거나 공공연히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할 경우에는 각 병사가 돌아오는 날 곧바로 주장의 관부(官府)에 나아가 고발하는 것을 허용한다.

주장은 이를 결행하여 무겁게 다스리되, 추가로 배상시켜 각 병사에게 준다. 두목은 법에 의하여 죄를 주고, 그 군기(軍器)는 관부에 보고하여 조사 점검하되, 각 병사가 숨겨서 간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 각 선박이 적과 만났을 경우, 무릇 한 선박이 천아성(天鵝聲)나팔을 불면 각 선박은 모두 금고(金鼓)를 치고 불면서 일제히 크게 고함을 쳐서 군의 위엄을 떨친다.

1. 각 선박이 경계 상황을 당했을 경우, 포도관(捕盜官)과 타공(舵工)과 병부(兵夫) 등은 옷을 벗고 드러눕는 것을 불허하며,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조사해 내어 군법으로 다스린다.

1. 적의 상황을 살핌에 있어서 적이 북을 치며 고함을 쳐 떠들어대도 화살과 돌이 날아오지 않으면, 이는 적측의 병기(兵器)가 적기 때문인 것이다.

정박하고 있으나 돛을 펴려고 있으면 갑자기 뜻밖에 뛰쳐나 오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추격을 하는데 빨리 달아나지 않는 것은 도모하려고 하는 계략이 있어서이다.

등화를 밝히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우리가 저들을 습격함을 두려워해서이다. 닻줄을 던지고 곧바로 움직이는 것은 그 이로움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등불 여러 개가 밝혀져 있으나 소리가 없음은 준비가 있어서인 것이다.

밤에 정박하다가 물가로 옮겨가는 것은 향도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닻줄을 바짝 당기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음은 빨리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다. 닻줄을 바짝 당긴 다음에 그대로 등불을 길목에 남겨두는 것은 밤중에 몰래 달아나기 위해서이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은 허수아비이다. 북을 치는데도 여운이 없음은 그것이 가짜 음향이기 때문이다.

연안 가까이에 마을이 연접해 있는데 올라가서 약탈하지 않음은 겁을 내어서이기 때문이다. 곤경에 빠진지 얼마 안되어 화친과 투항을 청함은 속임수가 있기 때문이다.

■ 조석가[潮汐歌 : 조석의 노래]

아침에 밀물이 물려들고	朝生爲潮
저녁에 썰물이 빠져나가니	夕生爲汐
그믐과 초하루 초생달과 보름달에	晦朔弦望
조수와 석수가 응하네	潮汐應焉
조수가 인시(寅時 : 오전 3시~5시)에 생기면	潮生於寅
석수는 해시(亥時 : 오후 9시~11시)에 생기네	則汐於亥
음과 양이 사라지고 자라남에	陰陽消長
그때를 잃지 아니한다	不失其時
그러므로 조석이라 이른다	故曰潮汐

■ 태양가[太陽歌 : 태양의 노래]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을 정하여 조수(潮水)에 응함으로써 시각의 길고 짧음을 믿게 한다.

정구(正九)에 을방(乙方 : 동동북)에서 나와 경방(庚方 : 서서북)으로 들어가고	正九出乙入庚方
이팔(二八)에 토방(兎方 : 동동북)에서 나와 계장(鷄腸 : 서서북)으로 들어간다	二八出兎入鷄腸
삼칠(三七)에 신방(申方 : 서남서)을 떠나 신지(辛地 : 서서북)로 들어가고	三七發申入辛地
사륙(四六)에 인방(寅方 : 동동북)에서 나와 견장(犬藏 : 서서북)으로 들어간다	四六出寅入犬藏
오월에 간방(艮方 : 북북동)에서 낡아 건상(乾上 : 북북서)으로 돌아가니	五月生艮歸乾上
중동(仲冬 : 11월)에 손방(巽方 : 남남동)에서 나와 곤방(坤方 : 남남서)으로 들어간다	仲冬出巽入坤方
오직 시월과 십이월이 있음에	惟有十月與十二
진방(辰方 : 동동남)에서 나와 신방(申方 : 서남서)으로 들어가니 자세하고 소상하다	出辰入申仔細詳

■ 인시가[寅時歌 : 인시의 노래]

정구(正九)에 오경(五更 : 새벽 4시 전후)의 사점(四點)이 밝아오고	正九五更四點微
이팔(二八)에 오경의 이점(二點)이 다하네	二八五更二點歇
삼칠(三七)에 평광(平光)하여 인시(寅時 : 오전 3시~5시)가 시작되고	三七平光起寅時

사륙(四六)에 일출하여 인시에 구별이 없네	四六日出寅無別
오월에 해가 높아지기를 세 길이나 되니	五月日高三丈地
시월과 12월은 사경이 두 배라	十月十二四更二
중동(仲冬 : 11월)에는 겨우 사경(四更) 초에 이르니	仲冬纔到四更初
이 바로 인시를 반드시 간절히 기억하라	此是寅時須切記

■ 조신가[潮信歌 : 조신의 노래]

초하루와 초이틀과 십삼일과 십사일인 인시(寅時 : 오전 3시~5시)와
 신시(申時 : 오후 3시~5시)가 길고 사시(巳時 : 오전 9시~11시)와
 해시(亥時 : 오후 9시~10시)가 평평하다

初一初二三十四寅申長巳亥平

초나흘과 십오일과 십륙일은 묘시(卯時 : 오전 5시~7시)와 유시
 (酉時 : 오후 5시~7시)가 길고 자시(子時 : 오후 11시~오전 1시)와
 오시(午時 : 오전 11시~오후 1시)가 평평하다

初三初四十五十六卯酉長子午平

초닷새와 초엿새와 십칠일과 십팔일은 진시(辰時 : 오전 7시~9시)와
 술시(戌時 : 오후 7시~9시)가 길고 축시(寅丑 : 오전 1시~3시)와
 미시(未時 : 오후 1시~3시)가 평평하다

初五初六十七十八辰戌長軸未平

초이레와 초여드레와 십구일과 이십일은 사시(巳時 : 오전 9~11시)와
 해시(亥時 : 오후 9시~11시)가 길고 인시(寅時 : 오전 3시~5시)
 와 신시(寅時 : 오후 3시~5시)가 평평하다

初七初八十九二十巳亥長寅申平

초아흐레와 초열흘과 이십일일과 이십이일은 자시(子時 : 오후 11시~
 오전 1시)와 오시(午時 : 오전 11시~오후 1시)가 길고 묘시(卯時 :
 오전 5시~7시)와 유시(酉時 : 오후 5시~7시)가 평평하다

初九初十二十一二十二子午長卯酉平

십일일과 십이일과 이십삼일과 이십사일은 축시(寅丑 : 오전 1시~3시)와 미시(未時 : 오후 1시~3시) 길고 진시(辰時 : 오전 7시~9시)와 술시(戌時 : 오후 7시~9시)가 평평하다

十一十二二十三二十四丑未長辰戌平

이십오일과 이십륙일은 인시(寅時 : 오전 3시~5시)와 신시(申時 : 오후 3시~5시)가 길고 사시(巳時 : 오전 9시~11시)와 해시(亥時 : 오후 9시~10시)가 평평하다

二十五二十六寅申長巳亥平

이십칠일과 이십팔일은 묘시(卯時 : 오전 5시~7시)와 유시(酉時 : 오후 5시~7시)가 길고 자시(子時 : 오후 11시~오전 1시)와 오시(午時 : 오전 11시~오후 1시)가 평평하다

二十七二十八卯酉長子午平

이십구일과 삼십일은 진시(辰時 : 오전 7시~9시)와 술시(戌時 : 오후 7시~9시)가 길고 축시(寅丑 : 오전 1시~3시)와 미시(未時 : 오후 1시~3시) 평평하다

二十九三十辰戌長丑未平

■ 풍도가[風濤歌 : 풍도의 노래]

햇무리가 지면 비가 오고	日暉則雨
달무리가 지면 바람이 분다	月暉則風
어느 쪽에 빠짐이 있고	何方有闕
어느 쪽에 바람이 있는가	何方有風
해 질 때 하늘이 연지빛으로 붉으면	日沒脂紅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몰아친다	無雨風驟
해 질 때 하늘이 연지빛으로 반사하고	返照沒前臙脂
해 진 뒤에 별빛이 번쩍거리면	沒後星光閃爍
반드시 바람이 일어난다	必定風作

바다 모래가 바람에 흩날리고 구름이 일어나니	海沙雲起
이를 일러 풍조라 하고	謂之風潮
이름을 구풍(颶風 : 태풍)이라 한다	名曰颶風
큰 비가 서로 교차하니	大雨相交
1·3·5·7·9의 단일에 일어나면 단일에 그치고	單起單止
2·4·6·8·10의 쌍일에 일어나면 쌍일에 그친다	雙起雙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화창하면	早晚風和
내일은 다시 폭풍이 거셀 것이다	明日更多暴風
해 저물고 밤이 되면	日暮夜起
반드시 매운 바람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며	必毒風急
구름이 일어나면 바람이 더욱 빨라지고 반드시 비가 올 것이며	雲起愈急必雨
비가 오면 개이기가 어려우리라	雨最難晴
이내 폭풍을 막아 봄으로 바꾸고	仍防暴生春易
일찍 생성하여 늦게 소멸됨을 전해 알린다	傳報早生晚暮
하루를 남풍이 불면	一日南風
하루는 북풍이 불어온다	一日北到
남풍은 꼬리를 막고	南風防尾
북풍은 머리를 막는다	北風防頭
남풍이 불기를 더욱 빠르게 하면	南吹愈急
북풍은 오로지하지를 못한다	北則不專
구름이 만약 포차 모양과 같으면	雲若車形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大主風聲
구름이 동 서 남 북 네 들에 내리니	雲下四野
안개같기도 하고 아지랑이 같기도 하다	如霧如煙
이름하여 바람꽃이라 하니	名曰風花
바람이 크게 불 것이다	主有風天
구름이 마치 고기 비늘과 같으면 비가 오지 않으며	雲若鱗次不雨

바람이 동서 남북을 뒤엎으니	風顛兩陣西北
구름이 먹물을 뿌린 것 같다	雲如潑墨
미량(眉梁)에 풍우가 일어나니	起作眉梁
비바람이 먼저 날린다	風雨先颺
빠르게 비가 오다가 활짝 개어서	雨急易霽
하늘이 맑아지니 막힘이 없다	天晴無防
물가에 파란 이끼가 생기면	水生靛青
바람이 불며	主有風行
바다 제비가 떼지어 날아다니면	海燕成群
곧 비바람이 몰려온다	風雨便臨
배가 하얀 제비들이 날아다니면 바람이 불고	白肚風作
배가 검은 제비들이 날아다니면 장마비가 내린다	烏肚雨淋
바다 돼지가 어지러이 돌아다니면	海豬亂起
바람이 그치지 아니한다	風不可已
물돼지가 어슬렁거리면서 밤에 소리를 지르면	逍遙夜叫
곧 바람과 비가 닥쳐온다	風雨卽到
한 번 소리를 지르면 바람이 불고	一聲風
두 번 소리를 지르면 비가 오고	二聲雨
세 번 네 번 소리를 지르면 바람이 불고	三聲四聲斷風雨
새우 그물을 쳐서 위어(鱗魚)를 잡으면	鰕籠得鱗
반드시 비바람이 분다	必主風水
뱀이 갈대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蛇蟠蘆上
큰 물이 지는데	水高若干
머리를 아래로 드리우고 있으면 곧바로 비가 오고	頭垂立至
머리를 위로 치켜들고 있으면 조금 있다 비가 온다	頭高稍延
한 달이 다 가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月盡無雨
다음달 초순에 반드시 비바람이 일어난다	來朔風雨
이달 이십오륙일 사이에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二十五六若無雨

다음달 초삼사일에는 큰 비바람이 있을 것이니 배를 운행하지 말라
初三四莫行船

24절기 중 소한에서 곡우까지 부는 바람으로	春有二十四番
매화꽃이 필 무렵에 부는 바람이 있으니	花信風梅
꽃바람이 머리를 치고	花風打頭棟
꽃바람이 꼬리를 친다	花風打尾
정월에는 칠팔일을 꺼리니	正月忌七八
반드시 북풍이 일어나며	北風必定發
이월에는 초 이일을 꺼리며	二月忌初二
삼월에는 청명을 꺼리고	三月忌清明
오월에는 하지를 꺼린다	五月忌虛至
정월 낙허(落虛)에 기산하여	正月落虛起算
백이십일에 이르러서	至百二十日
이 기간 중에는 반드시 어려워니	期內必難已
팽조풍(彭祖風)을 알기 위해서이다	欲知彭祖
유월에는 십이일을 꺼리니	忌六月十二日
그 앞뒤 삼사일은	前後三四霄
반드시 맑게 개이지 아니한다	必不爽此朝
칠팔월에는 삼일 동안	七八三日
남풍이 불면 반드시 북풍이 뒤따른다	南必有北風
구월 구일로 돌아가면	還九九
그 앞뒤로 삼사일 안이 어려워며	當前後三四日內難
시월에는 초 삼사일의 뒤를 조심하고	十月忌初三四之後
동지 전에는 바람이 상쾌하지 않으며	前冬至風不爽
섣달에는 이십사일을 조심한다	臘月二十四間
달이 기성(箕星)·필성(畢星)·익성(翼星)·진성(軫星)의 네 별자리에	月臨箕畢翼軫四宿
접근하면	
바람이 가장 정확하게 일어난다	風起最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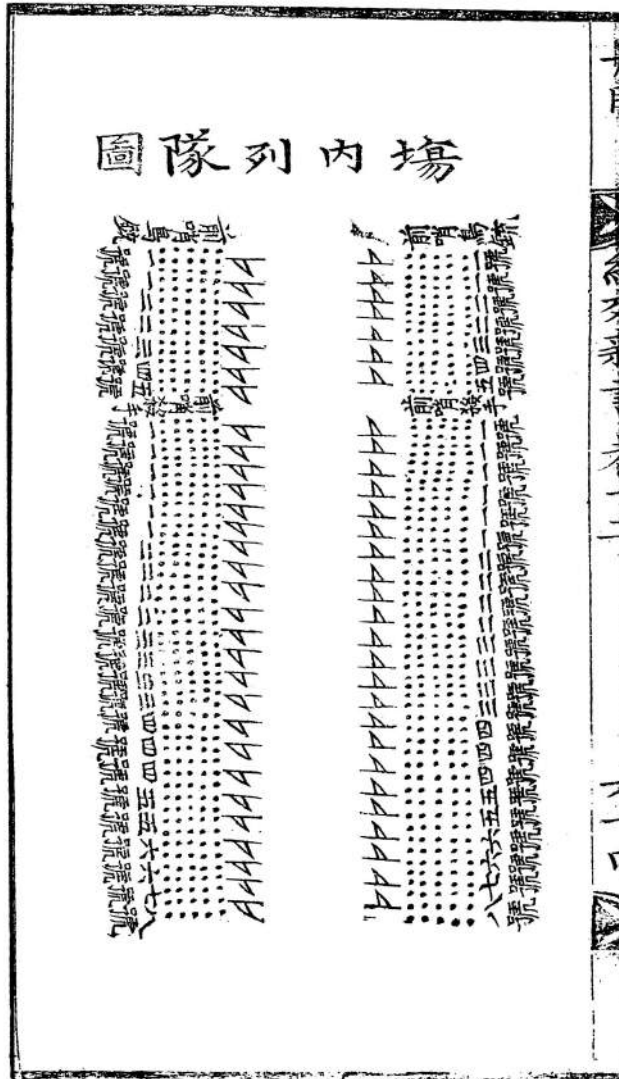
■ 수병육조호령[水兵陸操號令 : 수군을 육지에서 조련할 때의 지휘명령체계]

수병(水兵)은 배에서 조련(操練)을 하고 다시 육지에서 조련을 해야 하니 또한 수고롭지 않겠는가? 대저 수륙(水陸)의 분별은 가히 여기에 한스러움이 있다. 적을 뿔박하여 적이 산으로 올라갔을 경우가 생기면 배를 버리지 않고 보전(步戰)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수병(水兵)이 육지에서 조련을 할 경우에는 매 하룻밤 간격으로 먼저 조패(操牌)를 내어 이튿날 육조(陸操)를 한다는 것을 알린다. 다음날 일찍이 포고관(布告官)이 먼저 선상(船上)에서 5경(更)에 첫 번째 신호를 올린다. 각 병사는 일어나서 병기(兵器)를 수습하고 밥을 지은 후 중군선(中軍船)과 약속하고 취사(炊事)를 완료한다.

두 번째 신호를 올리면 각 병사는 밥을 먹고 각 포도관(捕盜官)은 병사를 거느리고 먼저 강 기슭으로 올라가 교장(教場)으로 나아가 장내열대도[場內列隊圖]의 도형과 같이 늘어선다.

■ 장내열대도(場內列隊圖)

【그림 40】



1. 통합된 수채(水寨)의 부대 안에 매 1사(司)를 소속시킨다. 단, 조총수(鳥銃手)는 몇 대(隊)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1초(哨)로 하고 소선(小船)에는 4~5명을 1대(隊)로 한다.

대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두 살수대(殺手隊)를 따라 살수의 군기(軍器)를 사용하고 화기(火器)를 사용하지 않는다. 함께 살수에 편입한 뒤에 호수(號數)의 차례에 따라 내보내되, 3대(隊)가 차면 이를 1기(旗)로 하고, 9대(隊)가 차면 이를 1초(哨)로 한다.

여기에서도 수가 다 차면 다시 1초를 나누고, 매 1초가 다 차면 1초관(哨官)으로 하여금 그 관령(管領)이 되어 도맡아서 다스리도록 한다.

매 1기(旗)가 다 차면 포도관(捕盜官)으로 하여금 맡아서 다스리도록 하고, 포도관이 부족하면 별도로 군중에서 담력과 용기가 있는 자에게 맡겨서 잠시 초관(哨官)의 임무를 대리하게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군중의 청용관(聽用官)이 잠시 임무를 대리하게 하고, 조총수(鳥銃手) 1초(哨)와 살수(殺手) 4초(哨)를 모두 1사(司)로 하여 분총(分總)으로 하여금 도맡아서 다스리도록 한다. 분총은 그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병력이 다할 때까지를 한도로 하여 수채의 장관(將官)이 총괄하여 통솔한다.

또 조총은 반드시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않고 1초가 다 차면 바로 1초로 하되, 1초가 차지 않아도 또한 1초라 일컫으며, 병력이 많아서 1초를 넘어도 또한 1초라 일컫는데, 이 안에서 채장(寨將)이나 주장(主將)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추승(推陞)된 파총(把總)과 참장(參將)이다.

1. 세 번째 신호가 울리면 본채(本寨)의 주장은 청도기(淸道旗)를 배열하고 오방(五方)의 기고(旗鼓)를 세운 다음, 교장(敎場)에 나아가 좌정한다.

이에 따라 중군(中軍)은 승장포(升帳砲)를 발사할 것을 주장에게 보고하고, 이후에 육조(陸操)의 예에 따라 방영(方營)을 거둬들여서 멈춘다.

[紀效新書(下)]

권13 수초편[守哨篇]

■ 권13 수초편[守哨篇]

병법(兵法)에 공격(攻擊)은 바로 수비(守備)의 기틀이고, 수비는 바로 공격의 채찍(策)이라 하였으니, 자고로 도적의 침입을 막는 데에 오로지 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전투만을 말하면서 수비를 말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수비만을 말하면서 전투를 말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은 편중되게 시행하기 어려우니, 평화가 오래 계속되는 시대를 만나 외적(外敵)이 침략을 일삼아도 이를 힘써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라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인 복리(腹裏)에서 전쟁에 대한 강론을 자주 하되, 더욱 절실하게 수비를 말하지 않으니, 갑자기 변란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성지(城池)에는 다 구비된 제도가 있는데, 가까이로는 국조(國朝 : 명나라)로부터 멀리로는 한(漢)·당(唐)·송(宋)·원(元) 시대에 걸쳐서 논의된 바를 다 바꾸어서 재정이 부실해지면 또한 지킬 수 없을 것이니 어찌할 것인가?

내가 말하였다.

이 법은 그 옛것을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대저 힘이 다하여 힘에 넘치는 것을 든다면 어찌 살피지 않겠는가? 바로 창업(創業)할 적에는 또한 조치하지 못하고, 다만 무너지면 수리하고, 약해지면 고치니, 그 제도와 같이할 수가 없어서였기 때문었던가?

옛 성은 몸체가 견고하여 타구(壕口)를 바꾸기가 어렵고,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적었는데, 그 제도와 같이할 수가 없어서였기 때문었던가? 평소에는 거둬서 백성의 노여움을 범하기가 어려워서, 만일에 적이 이르러면 인정이 바라는 바를 따라 상황을 참작해서 고쳤으니, 이것은 그 제도와

같이할 수가 없어서였기 때문인가?

예컨대 나의 척촌(尺寸)에 대한 규칙과, 예컨대 나의 활시위 당기는 규칙을 1척(尺)을 고쳐서 1척의 이익이 되고, 1장(丈)을 고쳐서 1장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곧바로 고칠 수 없으니, 또한 시기(時期)에 맞아야 할 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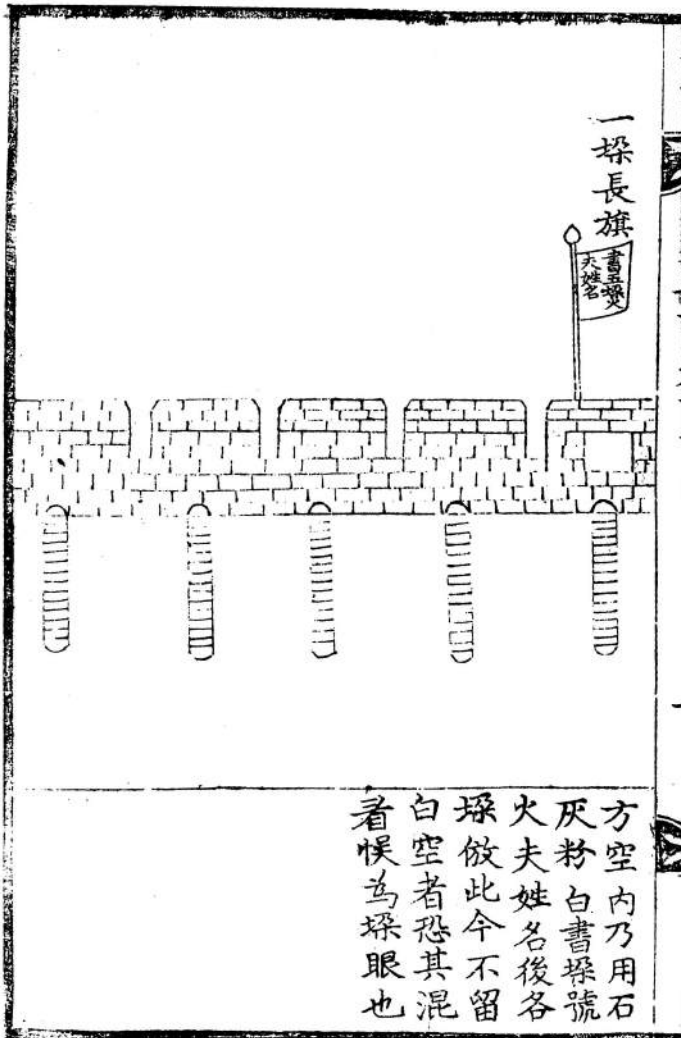
이는 임시변통으로 미리 논하기는 어려우나 군화기(軍火器)의 제조나 집물(什物)을 다스리는 데에 관민(官民)과 화부(火夫)의 파견은 유독 그 제도와 같이할 수가 없는가?

1~2년에 한번 조련(操練)하는 것은 시끄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 계진(薊鎮) 삼둔(三屯)의 영성(營城)과 준화(遵化)의 현성(縣城)과 고북(古北) 각 오(伍)의 새로 수축한 변장(邊牆)은 다 도식(圖式)에 의한 것이니, 쓸데없이 빈 공론(空論)만을 말하지 말고 일을 앞세워서 비상한 사람이 미리 생각하면 확립이 될 것이다. 더욱이 시행하는 사이에 요무(要務)가 될 것이므로, 이를 차례하여 수초편(守哨篇)을 두었다.

■ 성제[城製 : 성곽의 제원]

【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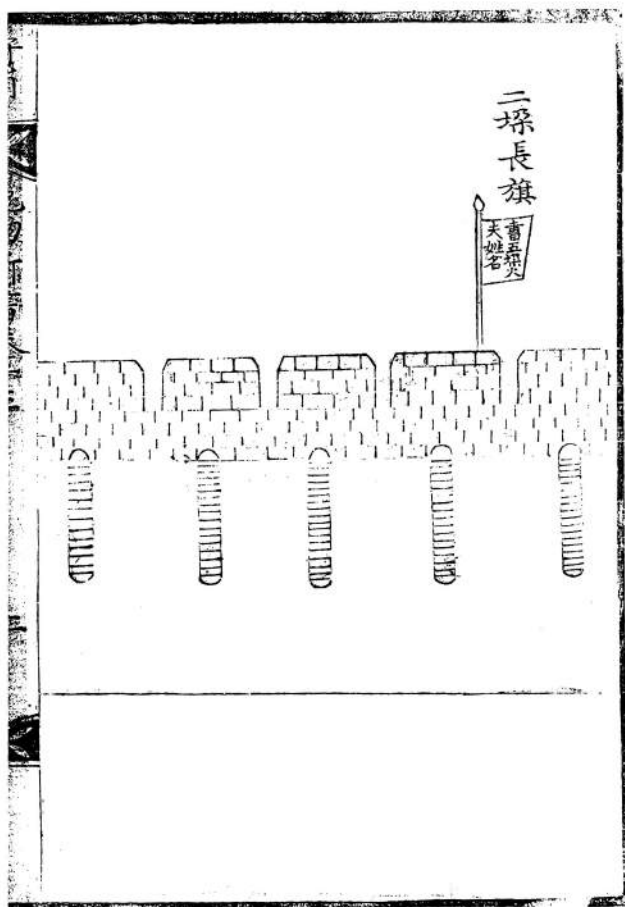


일타장기(一垛長旗)

5타(垛)의 화부(火夫) 성명을 기록한다.

네모지고 안은 비어 있는데, 석회(石灰)를 사용하고, 분백(粉白)으로 타(垛)의 호수(號數)와 화부(火夫)의 성명을 쓴다.

뒤의 각 타(垛)는 이를 본뜬다. 지금 흰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 것은 그것을 타안(垛眼)으로 혼동하여 잘못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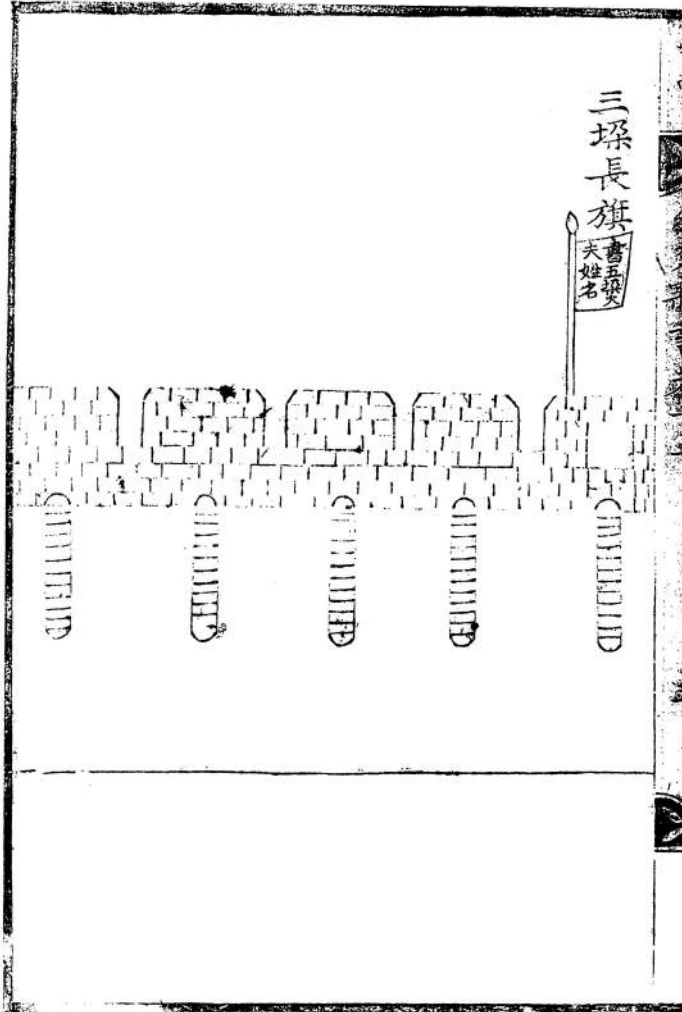


【그림 42】

이타장기(二垛長旗)

5타(垛)의 화부(火夫) 성명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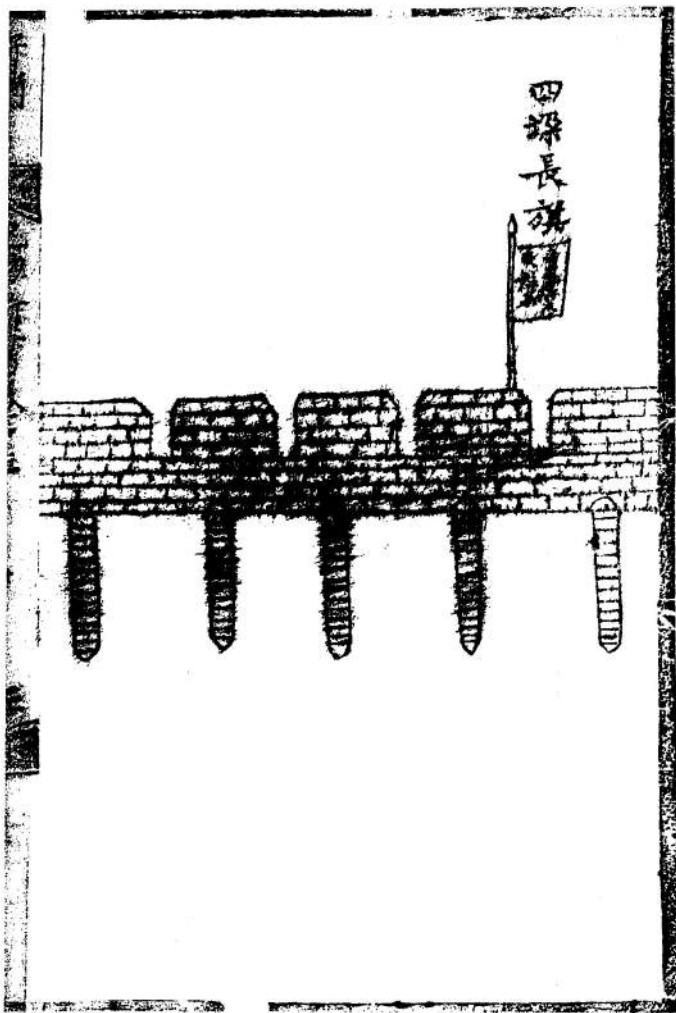
【그림 43】



삼타장기(三垛長旗)

5타(垛)의 화부(火夫) 성명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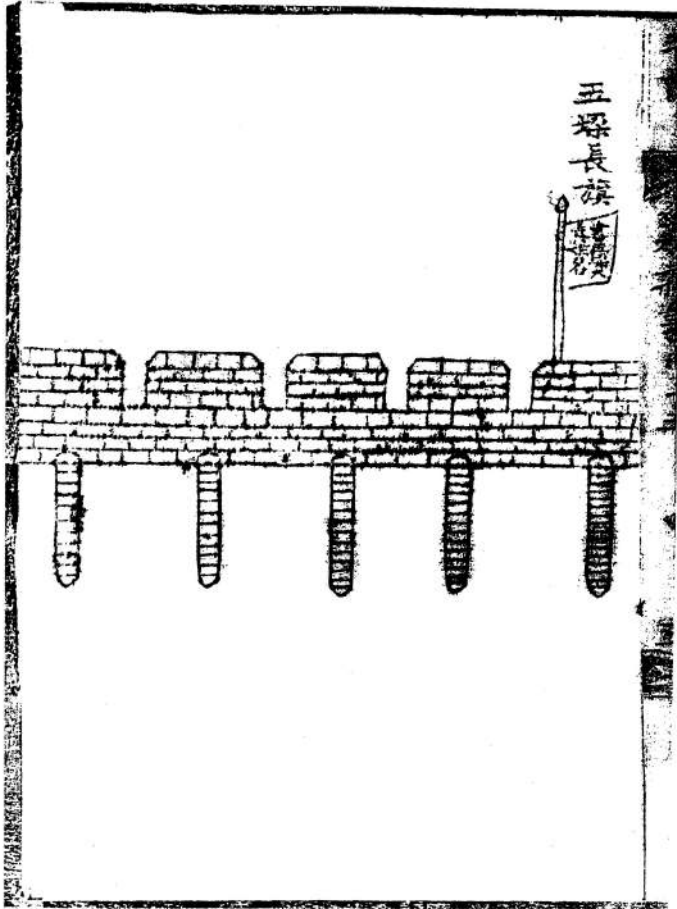
【그림 44】



사타장기(四垛長旗)

5타(垛)의 화부(火夫) 성명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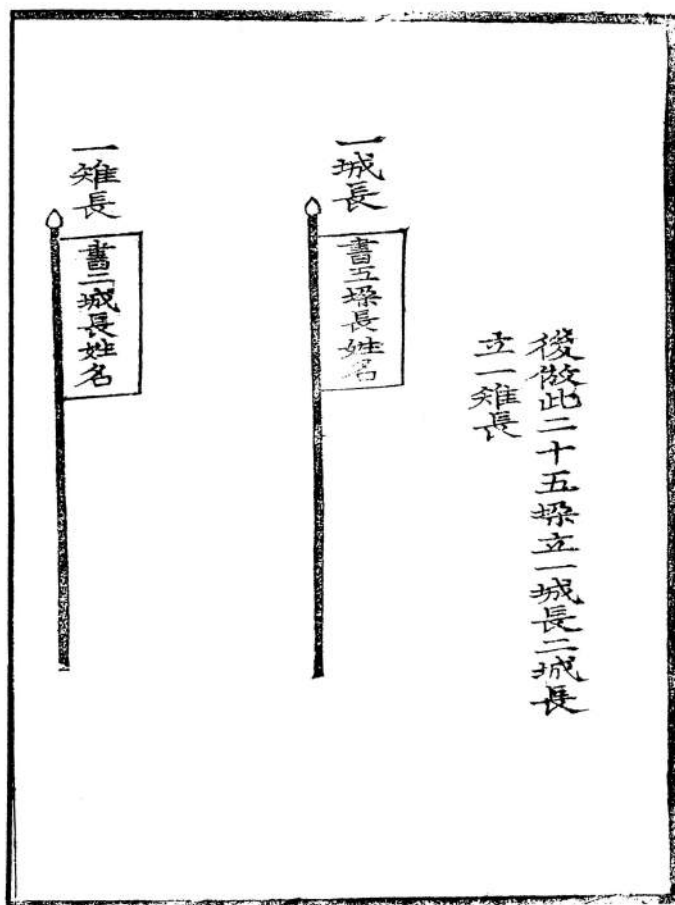
【그림 45】



오타장기(一垛長旗)

5타(垛)의 화부(火夫) 성명을 기록한다.

【그림 46】



뒤에 이를 본떠서 25타(垛)에 성장(城長) 1명을 세우고, 성장 2명에 치장(雉長) 1명을 세운다.

일성장(一城長)

5타장(垛長)의 성명을 기록한다.

일치장(一雉長)

2성장(城長)의 성명을 기록한다.

■ 성제해[城製解 : 성곽에 대한 해설]

규모가 크고 이름이 난 성(城)은 타(堞)를 제외하고 성벽(城壁)의 몸통 높이가 반드시 4장(丈 : 12m) 혹은 3장 5척(尺 : 10.5m)이다.

그보다 크기가 아래 등급이라 할지라도 3장(9m)이며, 성벽 표면 넓이가 2장 5척(7.5m), 성벽 바닥 넓이가 6장(18m)이다.

그 다음 가는 크기의 성은 타를 제외하고 성벽의 몸통 높이가 2장 5척(7.5m)이며, 성벽 표면 넓이가 2장(6m), 성벽 바닥 넓이가 5장(15m)이다.

작은 성은 타를 제외하고 성벽의 몸통 높이가 2장(6m)이며, 성벽 표면 넓이가 1장 5척(4.5m), 성벽 바닥 넓이가 4장(12m)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비교한 것이고, 다시 그 넓이를 더하면 더욱 좋으나, 형세가 그렇지 못하면 다시 줄인다. 그러나, 성벽 바닥을 더하고 성벽 표면을 더하지 않는 것은 괜찮되, 성벽 표면을 더하고 성벽 바닥을 더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 성벽 바닥을 더하지 않고 성벽 표면을 더하면 틀림없이 성벽이 기울어 무너지기 때문이다.

만약 성벽 안팎에 모두 벽돌을 사용하되 기초의 바닥을 다만 1장(3m)을 넓힌다면 또한 견고하기가 흙을 쌓은 것과 같아서, 반드시 앞의 수와 합치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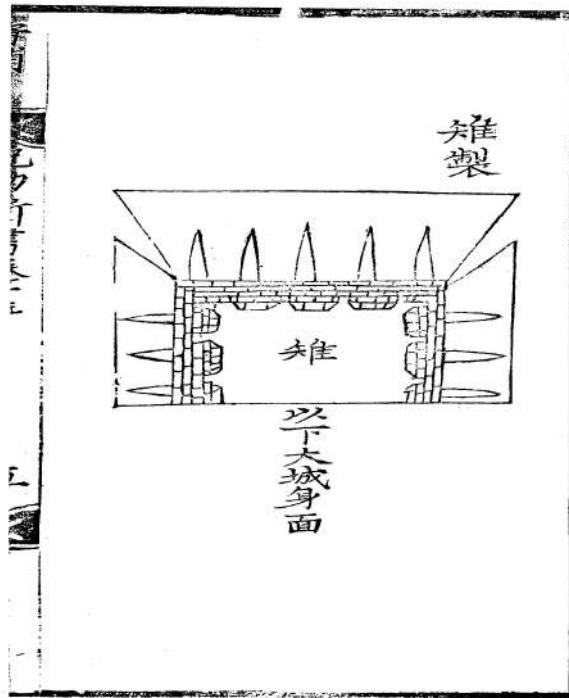
무릇 성벽의 몸통 재료로서 적합하기로는 첫 번째가 벽돌이요, 두 번째가 돌이요, 세 번째가 흙이다. 대개 돌은 본래 오래 건디나 지금 두 번째로 치는 것은 불로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堞)는 반드시 높이가 6척(1.8m)이어야 하고, 매 타구(堞口)는 패도(牌堵)와 서로 떨어져서 중간에 7척 5촌(2.25m)의 거리를 나누는데, 타구는 1척으로, 각각 5촌(15cm)으로 나누어 타공(堞孔)을 연결하니 도합 8척이다. 8장(丈)은 10타(堞)요, 80장(丈)은 100타(堞)이다. 이는 모두 관척(官尺)으로 계산한 것이다.

만약 타를 제외하고 성의 몸통이 다만 1장 5척(4.5m)인 경우에는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아궁이가 물에 잠기고 개구리가 나와도

끝까지 성을 지킨 경우가 있고, 삼판(三板)의 보잘 것 없는 위태로운 성³⁹⁾에 의지하여 끝까지 성을 지켜낸 경우도 있었으니, 진실로 그 말이 옳다. 나는 대개 그 통상적인 것만을 말했을 뿐이다.

■ 치제[雉製 : 치의 제원]



【그림 47】

치제(雉製 : 치의 제원)

치(雉)

이하는 큰 성곽의 벽면이다.

39) 삼판(三板)의 보잘것없는 위태로운 성 : 삼판(三板)은 세 번 판자를 묶어 쌓은 정도의 높이 밖에 안 되는 낮은 성이란 의미로, 방비와 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을 이른다.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지백(智伯)이 진양성(晉陽城)에서 조양자(趙襄子)를 포위하고 수공(水攻)을 가하자 성중의 인가가 오래 수중에 잠겨 아궁이에서 개구리가 나왔으나, 백성들은 이반할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고사가 있다. 《국어(國語)》 〈진어(晉語)〉

■ 치해[雉解 : 치에 대한 해설]

무릇 치(雉)란 성의 몸통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니, 큰 것은 3장(9m)이며, 그 다음 가는 것은 2장(6m)이며, 그 다음 가는 것은 1장 5척(4.5m)이다. 곧장 3장이 나온 것은 가로 길이가 5장(15m)이고, 곧장 2장(6m)이 나온 것은 가로 길이가 3장(9m)이며, 곧장 1장이 나온 것은 가로 길이가 1장 5척(4.5m)이다.

성의 원래 몸통 높이에 비례하는데, 원래 몸통 높이가 3장(9m)인 경우에는 높이 3척(90cm)을 더해 주고, 원래 몸통 높이가 2장인 경우에는 높이 2척(60cm)을 더해 주며, 매 50타(堞)마다에 1촌(寸 : 3cm) 간격을 둔다.

성이 넓으면 더하여 치가 몇 개인가에 불구하고, 좌우에 각(角)을 배합하거나 문(門)을 배합하여, 혹 많으면 몇 장(丈), 혹 적으면 몇 장(丈)으로 편의에 따라 고르게 안배한다. 매 면에는 누각(樓角)이 접한 바가 고르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 1리(里 : 400m)의 거리를 둔 누각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각각 2촌(6cm)을 두고, 2리(里 : 800m)의 거리를 둔 누각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각각 4촌(12cm)을 둔다.

이렇게 더하되, 장(丈)과 척(尺)이 부족한 경우에는 50타(堞) 이 외라 해도 또한 50타로 계산할 수 있고, 50타 이내라도 또한 50타로 계산할 수 있으니, 융통성과 변화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이것은 그 대강의 개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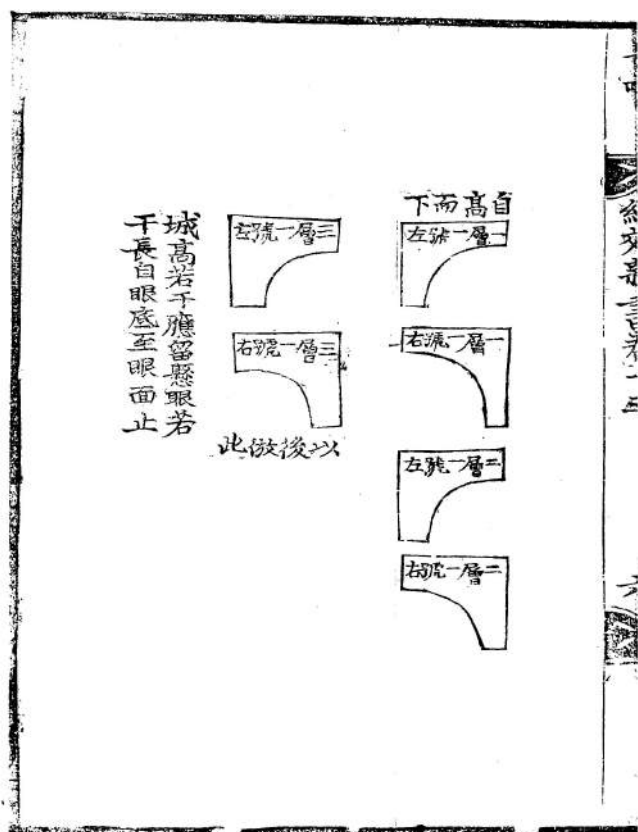
■ 현안제[懸眼製 : 현안의 제원]

매 타(堞)는 마땅히 성면(城面)으로부터 가운데에 자리하여, 약 9촌(寸 : 27cm) 높이에 평평하게 구멍을 만들고, 벽돌 3층을 쌓는다. 벽돌 두께는 2층(層)으로 하고 평면 이하 양 모서리의 벽돌은 두 개의 네모진 벽돌을 가운데가 마주보도록 둥글게 쌓아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진다.

매 벽돌 1뽀[模]으로 층수(層數)와 자호(字號)를 편성하여 벽돌 위에 써서 구워 사용할 적에 그 자호를 대조하여 타를 조성하되 보통의 벽돌 쌓은 것과 힘이 같아도 벽돌의 표면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오래갈 수 있으며, 벽돌의 굽은 곳을 뚫지 않으니 공력이 줄어들고 비용이 절약된다.

몇 장(丈) 척(尺)인가를 깊이 헤아려 약간의 층(層)으로 하는데, 지금의 도면(圖面) 내에는 다만 6층으로 하고 매 벽돌마다 3촌(9cm)으로 되어 있어 다만 1척 7촌(51cm)이 되니, 그 대략을 알려줄 뿐이다.

혹은 20층, 30층 등으로 한도를 삼기도 한다.



【그림 48】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로

1층 1호 좌

1층 1호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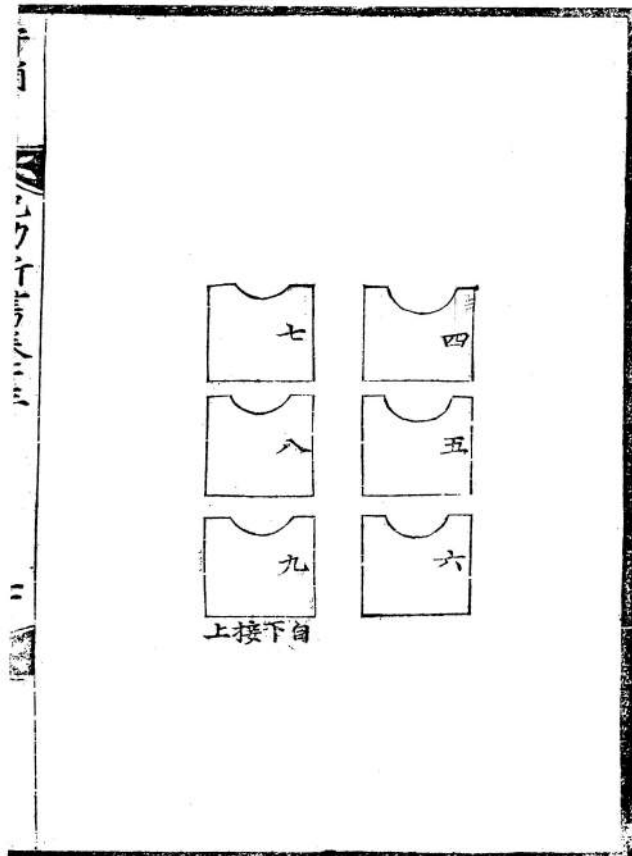
2층 1호 좌

2층 1호 우

3층 1호 좌

3층 1호 우

성 높이의 정도에 따라 자리잡고, 현안(懸眼)의 정도에 따라 눈 밑으로부터 눈 앞에 이르러 멈춘다.



【그림 49】

4

5

6

7

8

9

아래로부터 위로 붙인다.

■ 현안해[懸眼解 : 현안에 대한 해설]

왜구(倭寇)는 매 무리마다 총(銃)과 화살(矢)을 장비하고, 오랑캐는 매 무리마다 화살을 장비하고서, 성채(城砦)의 타(垛)가 몇 개인가를 헤아려서 아군의 동태를 엿보다가 성을 지키는 자가 머리를 들어 밖을 내다보면 무리가 이를 이를 쏘니 맞지 않는 경우가 없다.

아군의 몸으로 하여금 감히 타에서 눈으로 밖의 적을 볼 수 없게 한 다음, 갈고리 방패 등의 공성기구(攻城機具)를 가지고 곧바로 성 아래로 달려오면 아군은 머리를 들고 손을 써서 적을 내리치지 못하고, 그들이 구덩이를 파고 사다리를 걸쳐 곧바로 기어 올라오는 대로 맡겨두고 막지를 못한다.

반드시 여기에 현안(懸眼)이 있으니, 적이 멀리에 있으면 바라 보면서 타구(垛口)로 총과 화살을 쏘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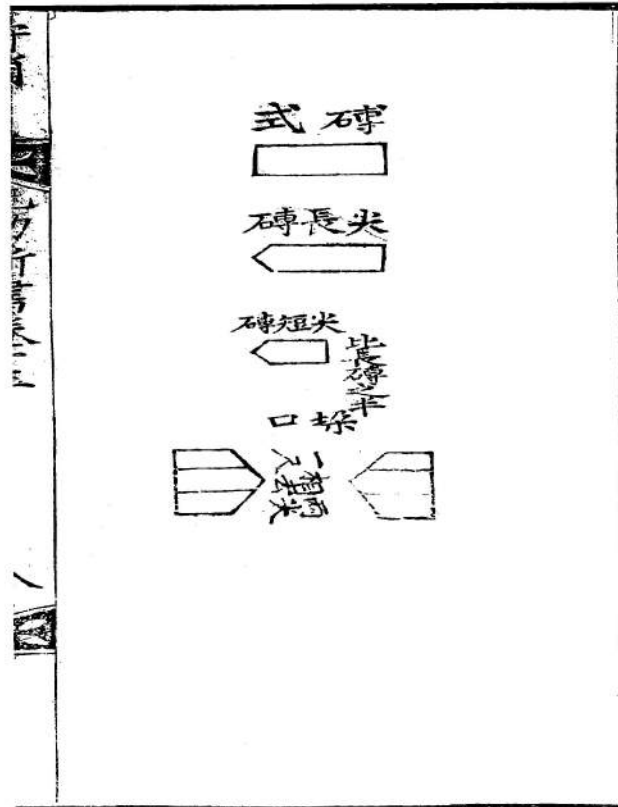
적이 가까이 왔는데도 아군이 머리를 밖으로 내놓지 않고 몸을 타의 아래에 숨기면서 현안 안에서 성을 공격하는 자를 내려다보니, 비록 총과 화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쓸 수가 없다.

적이 만약 성 아래에 이르러도 한번 보아 빠뜨림이 없으니, 시석과 총탄과 화통우로 던지고 쏘아서 안될 것이 없으니, 적이 어찌 능히 사다리를 세우고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만약 타를 향하여 기어 오르면 타 위에서 막을 수 있다.

매 현안마다 그 위에 나무 덮개 한 개씩을 덧붙여서 총알과 화살을 막으니 더욱 묘하다.

■ 타구전제[垛口塼製 : 타구전의 제원]

길이 약간(若干)에 가로는 길이의 절반이며, 가로 약간에 두께는 가로의 절반으로 하여 종횡(縱橫) 6면의 벽돌을 쌓음이 모두 네모 꼴을 이루니, 오래갈 수 있으며, 첨전(尖甄)은 뾰족한 부분으로부터 척촌(尺寸)의 길이를 유지한다.



【그림 50】

전식(磚式)

첨장전(尖長磚)

첨단전(尖短磚) 장전(長磚)에 비하여 절반이다.

타구(垛口)

두 끝은 서로 1척(尺)의 거리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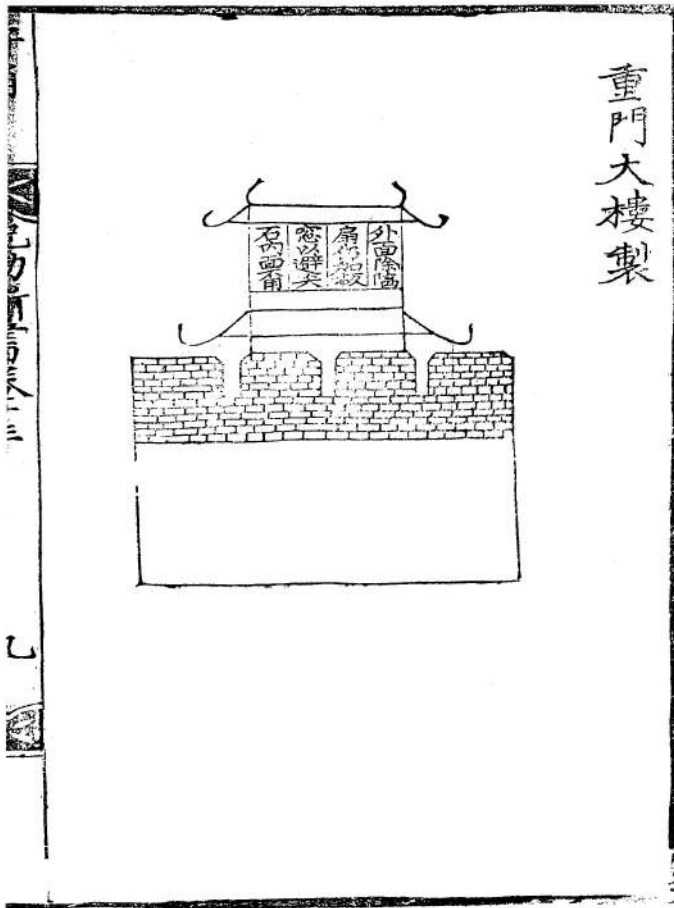
■ 타구전해[垛口塼解 : 타구전에 대한 해설]

통상적으로 성타(城垛)를 보면 타근(垛根)이 있으니, 타가 산(山)자를 이룬 것은 너무 넓다는 결함이 있어 적이 올라오면 몸을 지킬 수가 없고, 화살과 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적당하지 못하다.

만약 타구의 안과 밖이 평평하고 곧고 크면 사람의 몸이 들어올 수 있으며, 적으면 좌우 양측을 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지금의 법식을 참고하여 타구(垛口)의 벽돌을 깎아서 척(脊)을 만들되, 이 벽돌은 유사시에 뽕족하게 자르면 안된다. 그 이유의 하나는 쉽게 썩어버리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비용과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벽돌을 만들 때에 바로 끝이 뽕족하고 긴 첨장전(尖長磚)과 끝이 뽕족하고 짧은 첨단전(尖短磚) 두 가지의 뽕[模]을 만들어서 쌓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고, 그 타의 아래는 몸 높이를 3척(90cm)으로 하고, 타구의 위는 높이 3척으로 하여 모두 6척(1.8m)이 되게 한다.

【그림 51】



■ 중문대루제[重門大樓製 : 중문대루의 제원]

외면에는 격선(隔扇)을 제거하고 그대로 판자를 덮으며, 창문은 뾰족한 돌을 피하여 내면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중문루해[重門樓解 : 중문루에 대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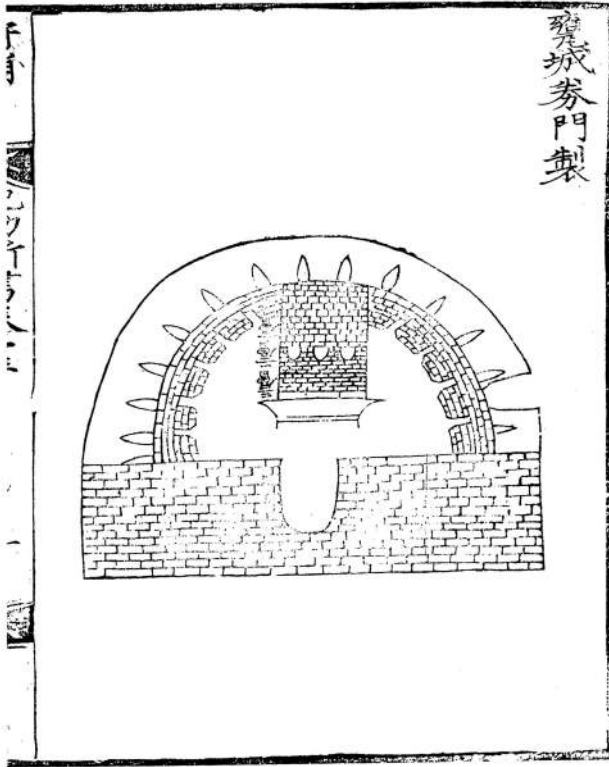
성곽 중문(重門 : 이중문) 위에는 반드시 누대(樓臺)가 있으니, 그 이유의 하나는 위엄으로써 외적의 침략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지키면서 바라보기에 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휘관이 여기에 위치한다.

큰 누대는 안에 여러 층의 문을 갖추어 대성(大城)의 위에 두어서 반드시 화려하고 웅장한 위용을 나타내게 하며, 또 반드시 튼튼하고 두터워서 화살과 포탄(砲彈)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평시에는 올라가서 지세나 풍경(風景)이 뛰어남을 관람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게 하기도 하니, 그 중히 여기는 바는 처마가 흰히 터져 드넓은 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다만 2층은 판자 한 겹으로 하여 또렷이 바라보고 화기(火器)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중문이 없는 경우에는 외문(外門)의 누대를 이와 같이 사용한다.

【그림 52】



■ 옹성권문제[甕城券門製 : 옹성권문의 제원]

3층 2층 1층

■ 옹성권문해[甕城券門解 : 옹성권문에 대한 해설]

옹성(甕城)은 대략 정성(正城)의 크고 작음과 넓고 좁음에 따라 문 위에는 적루(敵樓)를 사용하지 않고 정성에 가로 빗겨서 세워야 적을 막을 수 있다. 옹성의 높이는 반드시 정성의 높이에 비례해서 줄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옹성이 낮고 정성이 높으면 정성으로 오를 수 있으니, 이를 방어한다 해도 누가 오르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적루(敵樓)를 설치하는 것이다. 적루는 반드시 쌓아올린 성벽으로부터 똑바로 벽돌을 쌓아올리되 높이는 얼마라고 한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처마는 만들지 말 것이며, 창문은 넓게 만들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적루를 만드는 제도는 모나게 하거나 길게 하기도 하며, 또는 몇 층씩도 만든다. 층과 층의 거리는 반드시 9척(尺)이 되게 하여 화살이나 돌, 화기(火器)들을 비치해 두는데, 앞쪽의 창문아래 창대(窓臺)는 낮게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높으면 활이나 기타 화기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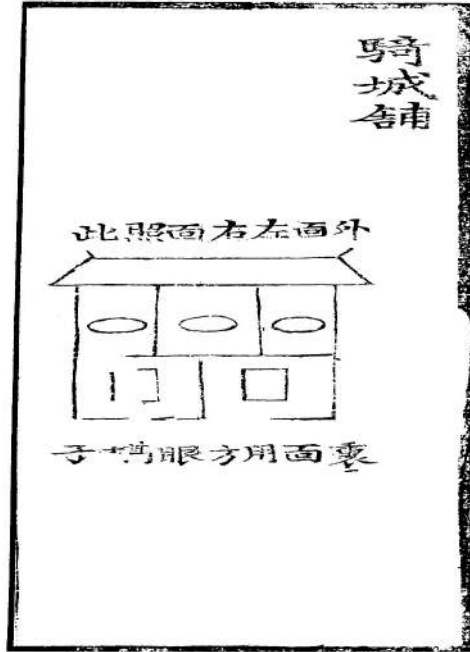
그러나, 성면(城面)의 옹성으로부터 정성의 입구로 들어오면 성벽의 문호를 폐쇄하고 목대(木臺)를 전봉(戰棚)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루의 아래 층에 네모진 현안(懸眼) 두 개를 두면 그 밑의 적을 끌어내릴 수 있다.

적루의 위에 현안(懸眼) 세 개를 둔 것은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벽돌 쪽을 채워 넣어서 쓰면 더욱 묘하다. 또 사이의 화하창(花下窓)은 화살과 돌이 위로부터 떨어져도 아래층을 방어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게 하는 구실을 한다.

■ 기성포제[騎城舖製 : 기성포의 제원]



【그림 53】

■ 기성포[騎城舖]

외면의 좌면과 우면은 이를 참고한다.

이면에는 방안(方眼)의 격자(格子)를 사용한다.

■ 와포해[窩舖解 : 와포에 대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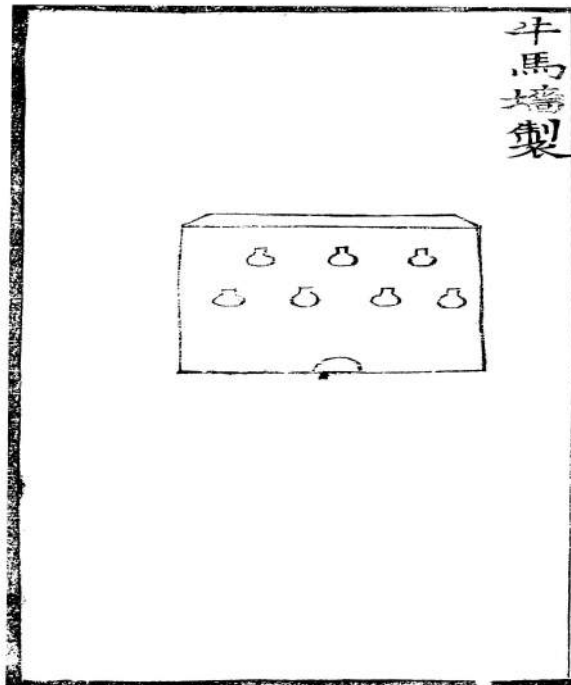
매양 치(雉) 하나에 포루(鋪樓) 하나씩을 만드는데, 치두(雉頭)가 밖으로 내밀어져서 성 위의 너비가 넓어지므로 포루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혹은 2촌(寸) 가운데 25타(垛)에 다시 하나의 소포(小舖)를 더하면 또한 가능하다. 성이 좁으면 성 안의 흙을 가지고 담을 쌓아 다시 뒤를 붙썩 튀어나오게 하고, 길이를 약간 더 길게 하여 와포를 수용할 자리를 만들되, 성면과 길을 막지 않아야 한다.

성면 길의 기준은 대성(大城)의 경우에 포는 반드시 세 기둥에 깊이 2장 6척(9.6m)이어야 하고, 소성(小城)의 경우에 한 기둥에 깊이 1장 2척(3.6m)이어야 한다.

만일 성이 좁아서 대(臺)를 만들기가 불편하면 기성(騎城)과 주마포(走馬鋪)를 만들기도 하는데, 바깥쪽은 적루를 만드는 법과 같이 벽돌을 사용하여 똑바로 쌓아올리되, 전안(箭眼, 활을 쏘거나 망을 보기 위한 구멍)을 만든다. 안쪽에는 기호(綺戶)를 만드는데, 성을 뚫어서 벽돌로 쌓아올려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며, 혹은 그 위에다 다락을 한층 더 올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더욱 묘하다. 모든 성포는 이 기성(騎城)과 같지 않으니, 더욱 묘하다.

▣ 우마장제[牛馬牆製 : 우마장의 제원]



【그림 54】

■ 우마장해[牛馬牆解 : 우마장에 대한 해설]

이 우마장(牛馬牆)은 성 밖 참호의 벼랑인 호안(濠岸)의 안쪽에 만드는데, 성으로부터 호안까지는 넓고 좁음에 구애되지 않고, 좁으면 1장(3m), 혹은 8척(2.4m)으로 해도 모두 괜찮으나, 2장(6m)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에 벽돌로 담장을 쌓는데, 돌이나 토축(土築), 또는 위의 세 가지를 혼합한 삼합토(三合土)도 괜찮다.

담장의 몸체는 치(雉)와 마주하게 하는데, 그 아래에 낮게 하나의 대장군포(大將軍砲)를 거치할 수 있는 총안(銃眼)을 개설하되, 사람의 몸을 관통하지 못할 정도의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무릇 이 담장은 높이가 3척이고 평면으로 5척마다 하나의 작은 총안을 만들어 불랑기(佛狼機)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안마다 그 위에 3촌(寸 : 9cm) 높이 2촌(6cm) 넓이 가량의 곧바른 구멍을 더 뚫어 적의 몸이 높고 낮음을 눈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기에 편하게 한다. 이 구멍보다 다시 2~3척 높여서 또 한 층의 총안을 만드는데, 넓고 좁음은 위와 같이한다.

그러나 이 총안에서는 다만 수총(手銃 : 소형화기)만을 사용할 수 있고, 대장군포(大將軍砲), 불랑기(佛狼機) 등의 대형 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총안이 겨우 1촌이니 총안 위에 장안(長眼)을 두어 규격을 3촌으로 하여 살펴보기에 편하도록 한다.

그리고, 담장 위에는 도끼날 모양의 벽돌을 사용하여 사람이 서 있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이하면 적군 백만 명이 와서 마주한 참호를 공격할 경우에도 총을 가지고 작은 구멍에서 공격하고, 적의 수가 많으면 대장군포(大將軍砲)가 성 밑에 있는 구멍인 지안(地眼)으로 이를 공격하며, 적이 이 담장에 기어오르면, 혹은 자루가 긴 대부(大斧)나 대곤(大棍)을 써서 일격에 떨어뜨리면 적이 다시 몰래 습격해 올 우려가 없을 것이다.

이는 왜적(倭賊)과 산적(山賊)의 공격을 겪으면서 누차에 걸쳐서 시험하고 누차에 걸쳐서 효과를 본 것으로, 복건성(福建省) 선유현(仙遊縣) 등에서는 마치 영험한 점괘처럼 본받을 만한 법이 되었다. 수비하는 방법은 뒤에 있다.

혹은 군민을 일시에 다 수습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두운 밤에 분별하기가 어려워 함부로 성문을 열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피난해 온 사람이나 우마(牛馬) 따위의 가축을 모두 이 우마장 안에 잠시 수용하여 피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우마장이 성을 의지하여 굳게 지키는 성이 되고, 성은 이 우마장을 호위로 삼는다.

위태롭고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면 성 위의 인원이 조력하여 위세를 떨칠 것이니, 만약 우마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 성상(城上)의 여러 사람의 눈이 보고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처서 죽이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우마장(牛馬牆)이 유용한 것인 까닭이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물이 깊고 하천(河川)이 넓은 성곽은 오히려 그 효과가 크지 않다. 피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호(塹壕)가 없거나 물이 없는 참호 안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이 우마장에 의뢰함이 있을 것이다.

■ 성하해[城河解 : 성하에 대한 해설]

<참호(塹壕)는> 넓이가 반드시 3장 5척(10.5m)이 되어야 하며, 그보다 더 넓으면 더욱 좋다. 깊이는 반드시 1장 5척(4.5m), 또는 2장(6m)이 되어야 하며, 그보다 더 깊으면 더욱 좋다.

물이 있으면 제일 좋고, 물이 없으면 그 다음이며, 물이 깊어서 진흙에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히다. 물이 얇고 진흙이 단단한 것은 그 다음으로 치는데, 경계 상황에 이르러 물 속에 찔릴 수 있는 쏘이나 대꼬챙이, 쇠꼬챙이 등이 있으면 모두 기가 막히다.

▣ 성기해[城忌解 : 성기에 대한 해설]

성곽(城郭) 바깥에 큰 나무가 있으면 마땅히 베어버려야 한다. <그 나무가> 성과 가까이에 있으면 방어(防禦)에 더욱 장애(障礙)가 된다. 성내(城內)에 말이 다닐 길이 없으면 안된다.

성 밖 3장(丈:9m) 이내에 가옥(家屋)이 있으면 적의 형세가 다수라 할지라도 이를 철거해야 한다. 미처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태워버려야 한다. 이를 불태울 때 나무벽일 경우에는 일단 태워버리면 당일로 바로 성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벽돌로 벽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적이 멀리에 있으면 거주하는 백성이 불복하기도 할 것이다. 적이 그 가까이에 있으면 태우고 헐어내는 작업이 빨리 되지 않을 것이다. 적 수백 명이 건물 잔해에 매복해 있다가 성을 지키는 인원에 대해 사격을 가하거나, 적의 무리가 옥개(屋蓋)를 관통시키고 사다리를 들어 올려 성 아래 이르러 곧바로 기어오르거나, 방 가운데서 흙을 운반하여 성곽을 막고 메꾸면서 기어오르기도 할 것이니, 이 모두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구조물들이 성곽 근처 1장(3m) 이내에 있는 것이거나, 성곽 몸통이 집보다 낮을 경우,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성이다.

▣ 군화기[軍火器 : 군용 화기]

1. 도(刀)·부(斧)·곤(棍)·궁시(弓矢) 따위는 수성(守城)하는 인원과 화부(火夫)가 스스로 준비하도록 맡기되, 미리 제한하지 않는다.

1. 조총(鳥銃)의 제원은 연습법에 해설되어 있다.[연육병편(練陸兵篇)에서 보라.]

1.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의 제원은 연습법에 해설되어 있다.[수병편(水兵篇)에서 보라.]

1. 불랑기(佛狼機)의 제원은 연습법에 해설되어 있다.[수병편(水兵篇)에서 보라.]

매 1타(垛)마다 불랑기 1위(位)를 두는데, 대개 불랑기는 정예로우면서도 정확하니, 1위를 바꾸어 반드시 아홉 자총(子銃)으로 하되, 적으면 10타에 1위를 배치한다.

매 성문 아래에는 대장군포(大將軍砲) 1위 또는 2위를 배치하되, 1위에 세 자총으로 한다.

유명한 성(城)은 매 문(門)마다 2위를 배치하는데, 적이 공격해 올만한 곳에 또한 반드시 1위를 배치한다.

우마장(牛馬牆) 아래에는 매 치(雉) 1위마다 대도(大刀)·대곤(大棍)·대부(大斧)로 장비하나 한결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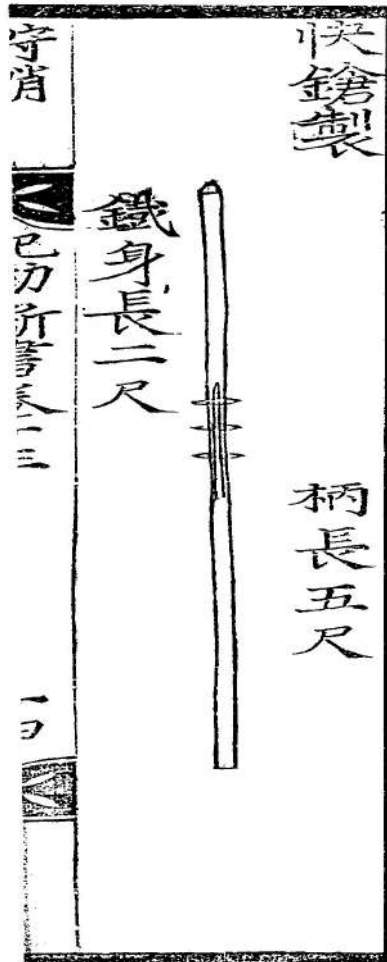
화부(火夫)도 무기(武器) 1건(件)을 소지한다.

매 10타(垛)마다 무게 200근(120kg)~150근(90kg)짜리 대석(大石) 세 덩어리를 준비하고, 한 덩어리를 먼저 거친 새끼줄로 묶어서 성타(城垛) 밖에 매달아 적과 맞닥뜨리며, 혹 단단하고 두터운 물건을 엮어기도 하여 적의 혁거(革車 : 兵車)가 성 아래에 이르면 칼로 잘라 떨어뜨려 적을 친다.

매 타마다 돌이 클 경우에는 쟁반만 하고, 작을 경우에는 주먹만 하니, 각각 100덩어리를 준비하면 충분하다.

▣ 쾌창제[快槍製 : 쾌창의 제원]

【그림 55】



자루 길이 5척(1.5m)

쇠로 된 몸통 길이 2척(60cm)

■ 쾌창해[快槍解 : 쾌창에 대한 해설]

이것은 바로 손으로 잡는 총(銃)이다. 길이 2척(60cm) 정도 되는 것이 좋다. 길이가 더 길면 더욱 묘하다.

총복(銃腹) 내부의 제법은 조총(鳥銃)과 같은 것이 좋으며, 화안(火眼)이 아래쪽 밖에 있고, 아래로부터 위로 안에서 통하는 것은 뒷부분에 걸리지 않고 탄알이 총구에 들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약과 탄알수는 조총과 같고 장전(裝填)하는 법도 또한 같다. 화약(火藥)은 꼭꼭 눌러서 채워야 하니, 총복이 짧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화기(火器)를 가지고 한 손을 총 꼬리부분에 의탁한 다음에 한 손으로 약선(藥線)에 점화하고, 약선이 타들어가면 다시 손을 돌려 총자루를 잡고 발사하는 자도 있고, 약선이 타들어가는데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발사하는 자도 있다.

연소하는 약선에 있는 손이 다시 돌아와서 총에 의탁할 적에 [목표물을] 미처 비춰보지 못하고 이미 발사하는 자도 있다. 그 나머지 폐단은 조총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총의 뒷부분을 잡아 겨드랑이 아래로 낮게 위치하니 눈과 얼굴이 목표물을 수평으로 볼 수가 없으며, 가늠쇠가 없으니 끝내 조총의 대목(對目)과 같지는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백발에 1~2발도 적을 못 맞추니, 다만 폐단과 고질에서 깨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북방 사람의 습관은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방 사람들은 반드시 조총을 빼앗아서 쓰려는 계산이 있으니, 여기에 해설을 붙인다.

■ 습법[習法 : 연습방법]

마땅히 사용법을 참조하고 총(銃)가(歌)에 의거하여 연습해야 한다.

1. 총 닦고
2. 약선(화약심지) 넣고
3. 화약 내리고 힘껏 다져 꼭꼭 채우고
4. 총구에 맞는 납 탄알 내려 힘껏 몰아 넣고
5. 송자(送子) 내리고
6. 개지(蓋紙 : 덮개종이) 내리고
7. 명령을 기다린다.

■ 성면초창해[城面草廠解 : 성면의 움집에 대한 해설]

타구(垛口) 5개에 성면초창(城面草廠) 1간을 세우는데, 아래에는 판자를 걸치고 흙을 깔아 습기가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한다.

위에는 이영을 덮은 다음, 사면을 모두 가리고 막아서 비바람을 견디게 하고, 매 창(廠)의 타장기(垛長旗)는 대나무가 아니더라도 길이 1장 5척(4.5m)의 나무로 한다. 그 위에 방색(方色)에 맞추어 베로 된 깃발 1면 2폭을 겹치게 하여 네모 위에 5타의 화부(火夫) 성명을 쓴다.

성내 인부들 모두를 매 타에 모아서 약간 명씩과 매 화부(火夫)를 배치한다. 소지하는 군기(軍器) 1건(件)은 각각 바닥이 있고 마디가 뚫린 굵은 대나무 통 1개를 전투에 쓰기 위해 준비해 둔 돌무더기 에다가 묻어 놓고서, 각자 소지하는 기계나 단창(短槍) 또는 참마도(斬馬刀) 혹은 조총(鳥銃)과 혹은 궁시(弓矢)를 이 대나무 통에다가 꽂아서 세워둔다.

대나무가 없으면 편의에 따라서 하되, 성면의 벽돌이 갈라지거나 움직이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침수되는 날이 오래 계속되어 성곽을 손상시킬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매 5마다 물 항아리 1개를 두어서 물을 가득 채운다.

고금의 친구 성곽에 모두 현안(懸眼)이 있는 경우에는 곧고 굽은 가룻장 나무를 써서 이 나무가 전안(箭眼)을 거쳐 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아래로 삼면을 나란히 하여 모두 널빤지로 현루(懸樓)를 만들어 방어에 편리하게 하니 더욱 좋다. 반드시 담력있는 사람을 써서 현루에 올라가게 해야 한다.

매 타마다 딱따기 한 벌을 갖추어 경계상황에 대비하며, 그 거리의 5타마다 큰 숯불 한 화로를 갖추어 둔다.



【그림 56】

■ 현등제[懸燈製 : 현등의 제원]

여기에는 대나무 한 줄기를 쓰는데, 성 밖 5척(1.5m)까지 뻗쳐 나간다. 이 새끼줄은 고리에 꿰어서 끌어올리고 내려뜨리는 데에 편리하게 한다.

이 새끼줄은 성 밖의 땅바닥으로부터 1장 5척(4.5m)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사람이 쓰는 두립(斗笠) 1개를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내려뜨리면 비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등을 끌어내리는 돌인데, 무게는 1근(600g)이다.

■ 현등해[懸燈解 : 현등에 대한 해설]

매 타(堞)의 여러 화부(火夫)는 다함께 등롱(燈籠) 1잔(盞)을 내놓는데, 크고 작음을 불구하고 환하게 밝아야 한다. 상부에 돛자리로 짠 샷갓을 덮개로 사용하여 비에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부에는 돌로 눌러 놓아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한다.

5척(1.5m) 길이의 대나무 장대를 써서 새끼줄로 묶어 성의 높이가 3장(9m)이면 새끼줄의 길이는 약 2장(6m)이 되게 하고, 성의 높이가 2장이면 새끼줄의 길이는 약 1장(3m)이 되게 하며, 성이 다시 더 작아지면 새끼줄의 길이도 다시 짧아지는데, 반드시 땅에서는 1장 이상의 여유를 두고 떨어져야 함을 표준으로 하여 적으로 하여금 손이 닿지 못하게 하니, 묘하다.

대나무 장대는 평평하게 타(堞) 밖으로 나가고 장대 끝에 쇠고리 하나를 써서 새끼줄을 소리 안에 집어넣어 그 아래에 등을 걸고

고리 안으로 새끼줄을 꿰어서, 높이고 낮출 수가 있다. 밤이면 등롱 안에 촛불을 밝혀 성의 윗쪽은 약간 어둡게 하고 성 밖은 환히 밝게 하여 적이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걱정을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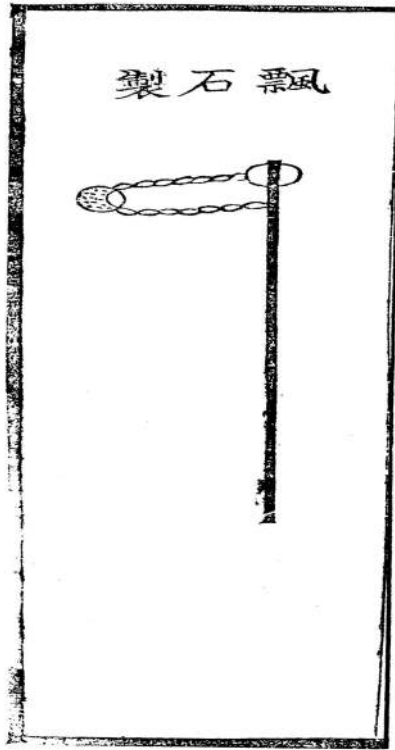
성 위의 타장기(垛長旗)마다 그 위에 등(燈) 1잔(盞)을 매다는 것인데, 내가 지난날 일찍이 유명한 성(城)의 수비를 보니, 밝혀 놓은 등불이 무수히 많아 매 타(垛)마다 타구(垛口) 한가운데에다가 한 개씩 등불을 놓아두고, 매 전안(箭眼) 매 타(垛)마다 전안(箭眼) 한가운데에다가 한 개씩 등불을 놓아두고 있었다.

이 등불은 원래 성 밖을 밝게 비추어서 적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두 다 성 위에 놓고 또 타구와 전안 안에 놓아서 안을 밝게 하고 밖을 어둡게 해놓았다. 적이 밝은 곳을 바라보며 쏘게 하고, 아군은 밖을 향하여 바라봄에 눈을 들면 어둡기가 칠흑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적이 성 아래에 이르러 화살로 아군의 얼굴을 맞추어도 오히려 알지 못하니 이것을 수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법의 만분지 일이라도 심상하게 보지 말고 화기가 있는 곳에 돛자리 조각 등의 물건을 2척 높이로 탑재하여 작은 시령을 만들면 비에 젖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발사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 표석제[飄石製 : 표석의 제원]

【그림 57】



■ 표석해[飄石解 : 표석에 대한 해설]

한 줌 굵기의 대나무를 길이 5척(1.5m)으로 하여 사람 키 정도 길이의 새끼줄 두 가닥으로 한 머리는 대나무 윗부분 끝 가까이 에 묶고 한 머리는 고리 한 개를 써서 새끼줄 가운데에 가죽 주 머니를 써서 지름 5촌(15cm)으로 하여 달아맨다.

사용방법은 한 손으로 장대를 잡고 형세를 가하여 한번 던져 발사하니 성을 지킴에 있어서 돌을 쓰기에 매우 편리하다. 또 표석

(飄石)을 만드는 도구는 구하기가 쉽다. 손으로 던지면 멀리 나가지는 못하나 표간(飄竿)을 사용하여 발사하면 멀리 날아가고 무겁다.

만드시 평시에 익숙하게 연습하되, 성(城)과 사(社)를 관리하는 자들은 적당한 시기에 가가호호에 소년들을 나오도록 명령하여 빈터에서 여러 날 동안 가르쳐서 익히게 하면 스스로 숙달됨이 많을 것이다.

■ 입중군해[立中軍解 : 중군을 세우는 데에 대한 해설]

먼저 중심이 되는 본성(本城) 안의 높은 곳 사면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돛대 모양의 긴 장대인 외간(桅杆) 하나를 세운다. 대략 지름이 아래는 1척(30cm) 이상, 길이는 3장(9m)이다. 이것이 없는 지방은 편의에 따르되, 높게 하면 더욱 묘하다. 상부에 새끼줄을 쓰는데 끈이 굵고 커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백색의 큰 베 12폭으로 만든 깃발 1면을 깃대 아래에 매달아 세운다.

아래에는 누각으로 된 군막인 누포(樓鋪)를 만들거나, 방옥(房屋) 한곳을 따로이 세우고서, 등룽(燈籠) 4잔(盞)과 밝고 좋은 기름과 초 120지(枝)를 예비한 다음에 신묘(神廟)의 대종(大鐘) 1구(具)를 차출하고, 대포(大砲) 1위(位)와 완구(碗口)와 향포(響砲) 4구(口)를 준비하여 장인관(掌印官 : 印符 담당관) 수하의 병사가 간수한다.

친수관(親隨官)은 그 소지하는 총과 그에 따르는 목마(木馬)·화약(火藥)·화승(火繩)·송자(送子) 등의 물건을 거두어 수효에 맞춰서 준비하고, 1인은 불씨[種火]를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수법친병(守法親兵) 20명을 파견하여 밤낮으로 반(班)을 나누어 매 경(更)마다 1반은 방위를 분담하여 성 밖 육로의 호포(號砲)와 화포(火砲)를 정찰하게 한다. 그리고, 취수(吹手)와 고수(鼓手) 1부(副 : 조) 8명을 차출하여 오로지 신호만을 전담 집행하도록 하고, 이곳의 호령(號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을 불허한다.

▣ 복로해[伏路解 : 복로군에 대한 해설]

성곽(城郭)에는 모두 사면(四面)이 있으니 여기에 복로인(伏路人)을 예비해 둔다. 인원은 매 면(面)마다 10명으로 모두 40명, 삼안포(三眼砲)는 매 면마다 3구(口)씩 모두 12구로 한다. 기화(起火)는 매 면마다 12지(枝)씩 모두 48지이다.

성이 크면 매 면마다 문로(門路)가 있는 곳에 첨가하여 10명을 더 주고 화기(火器)도 이에 비추어 더 준다.

매일 미시(未時 : 오후 1시~3시)에 본성(本城)의 사면에 복로인의 역할을 미리 정하여 성주(城主)가 있는 곳에 가서 삼안수포(三眼手砲) 3구와 기화 12지를 수령하여 네 문으로 출발하거나 혹은 한 문을 열고 출발하여 사면의 요로(要路)에 나누어 매복한다.

밤을 지내면서 매 복로(伏路)마다 1명은 1리의 거리가 떨어지게 한다. 적이 보이면 자세히 살펴서 틀림이 없을 경우에는 신호포(信號砲) 1발을 쏘아 올리고 기화 1지를 쏘아 올린 다음에 일면으로 달려와 보고한다. 성 아래에 이르러 적의 수가 많으면 두 발의 총성을 올리고 기화전(起火箭) 2지를 발사하되, 기화전 끝에 소포(小砲)를 쏘서 거의 반공중(半空中)쯤에서 음향이 일어나 성중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복로인은 매 복로(伏路)마다 밤을 지내면서 다음날 진시(辰時 : 오전 7시~9시)에 다시 교체하는데, 새로이 매복하는 자는 성에서 나오고, 앞서 매복했던 자는 성으로 들어간다.

▣ 파수해[派守解 : 파수에 대한 해설]

성문(城門)을 닫음과 동시에 성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거나 성에 들어와 난리를 피한 자는 인원의 대소나 사대부(士大夫), 거감

(舉監)⁴⁰, 생원(生員)⁴¹, 군인(軍人), 민간인(民間人) 등을 불구하고 파수(派守)에 동원된다.

성곽의 화살받이터인 성타(城垛)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매 타(垛)마다 몇 사람씩 나눌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타에다가 해당자들의 이름을 쓴다. 매 5타마다 타장(垛長) 1인을 정하고 기(旗)의 한면에 다섯 타부(垛夫)의 성명을 쓴다. 그런 다음, 25타에 성장(城長) 1인을 세우고 기의 한 면에 타장 <5명>의 성명을 쓴다.

50타에 치총(雉摠) 1인을 세워 하급 장교인 소관(小官)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고 기(旗)의 한면에 성장(城長)의 성명을 쓴다. 매 성 일면(一面)에는 성장(城將) 1인을 두고 유사시에 그 성 안의 현임관(現任官)을 참작하여 이를 담당하게 한다.

매 정포(正鋪 : 보초막) 내의 화부(火夫)는 5명으로 하고, 성 안의 사생(師生)과 이원(吏員)과 치사(致仕)한 소관(小官) 1원(員)으로 하여금 나(鑼), 고(鼓)와 탄화(炭火)를 전담 관리하게 하고, 성주(城主)는 중군(中軍)에 주차(駐箭)한다.

각 성문 가까운 길거리로 중소(中小) 성곽(城郭)과 통하는 경로에는 30명을 배치한다. 작은 성은 10~20명, 대성(大城)의 경우에는 50~60명을 배치한다.

혹은 주요 통로마다 1족(簇 : 무리), 또는 사는 곳이 서로 가까운 30~40명의 호한[好漢 : 의협심 많고 용감한 사람들]을 뽑아 이를 담당하게 하되, 각 처마다 두목(頭目)이나 무직(武職), 또는 유생(儒生)의 무리를 세워서 이를 다스리도록 한다.

혹시 성 위에 사태가 발생하여 인원이 모일 일이 있거나 적이 공격해 오면 성으로 올라가 응원을 하고 성내에 침투한 간세(奸細 : 세작)가 있으면 즉시 방어한다.

문루(門樓)의 모서리 위에 군사, 또는 민병(民兵)을 배치하는데,

40) 거감(舉監) : 회시(會試)에 낙방하고 국자감(國子監)에 들어가 공부하는 유생(儒生)

41) 생원(生員) :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급의 고시를 거쳐서 국학(國學)이나 주학(州學), 현학(縣學)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수재(秀才)라고 통칭함

성이 작을 경우에는 20~30명, 성이 크면 60명, 또는 100~200명에게 담당구역을 나누어주어 적이 무리를 지어 침입해 올 때 이를 치고 응원하는 것을 전담하여 대비하게 한다.

그리고 성 안의 매 인가(人家)마다 문 위에다가 밤에 등불 1개씩을 밝혀두고서 매 가(家)마다 대문을 모두 굳게 잠그게 하고,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서 지켜 세작(細作)의 침투를 막는다. 이는 반드시 적이 성 밖에 다가왔을 때에 행해야 하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비용의 소요와 수고로움이 너무 심하여 성 안 사람들이 괴롭게 여긴다.

성 안의 호한(好漢)과 관부(官府)에 있는 군민(軍民) 가운데 극히 날쌔고 용감한 자들을 미리 뽑아 예비해 둔다. 그 인원은 성이 적을 경우에는 100명, 성이 클 경우에는 400~500명, 혹은 1,000명으로 하여, 그 급양(工食)과 대우를 후하게 해준다. 이들에게 성 아래로 내려가 우마장(牛馬牆) 안에서 화기(火器)와 단창(短槍)과 대봉(大棒)을 전담 사용하여 방어할 것을 책임지우고 연습을 행하게 한다. 관부(官府)에서는 이들에게 주간에 세 끼, 야간 3경에 한 끼의 식사와 주육(酒肉)을 등급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게을러서 잠만 자고 명령을 여기거나 겁을 내고 물러나는 자의 경우에는 즉시 참수하여 용서치 않는다. 이를 급양하기를 특별히 후하게 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아주 좋은 방법이다.

■ 수성호령[守城號令 : 수성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1. 적이 20리 거리 이내에 접근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성주(城主)와 장인관(掌印官)은 중군(中軍)의 높은 곳에 가서 낮에는 화포(火砲) 3발을 발포하고, 성 안에 백기(白旗)를 세운다.

그런 다음, 현임(現任) 문무(文武) 대소 관원과 거감(擧監), 생원(生員) 치사(致仕)한 관원(官員), 군사(軍士), 민간인 등을 모두 타구[垛口 : 화살받이터의 총안(銃眼)]에 배치한다.

각 인원은 기계(器械)를 잡고 본 타(垛)의 대나무통에 타장기(塔長旗)를 세우고서 각자 편의에 따라 성 위에서 휴식하거나 누어서 자게 한다. 그런 다음에 곧 타장으로 하여금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 하도록 하되, 차인(差人)이 이를 조사 점검하면서, 정신을 뒤흔들고 피곤하게 하여 적이 이르렀을 때 고달프고 나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적이 10리 거리 이내에 접근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야간일 경우에 중군(中軍)은 화포(火砲) 3발을 발포하고 횃불 1총(叢)을 올린다. 아울러 쌍등롱(雙燈籠) 2잔을 걸고, 빠른 속도로 북을 치게 하는데, 각 누대(樓臺)와 포대(砲臺)도 일제히 북을 친다.

그리고 중군은 매 경(更)마다 북을 쳐서 곳곳에서 시각을 알리게 하되, 한곳에서라도 시각을 알리는 북소리가 단절되면 적이 성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전진(戰陣)에 임했을 때의 군법(軍法)에 의하여 처벌하고, 지휘관도 연좌(連坐)하여 처벌한다.

1. 갑자기 경계 상황이 발생하면 주야(晝夜)를 불구하고 성 밖에서 당보군(塘報軍)이 화포(火砲)를 쏘아서 경보를 알린다. 화포가 1발이면 적이 소수이고, 2발이면 적이 다수이다. 이에 따라 중군(中軍)은 대포(大砲)를 발사하고 사면(四面)의 면수(面數)와 같은 회수(回數)⁴²⁾로 종(鍾)을 쳐서 막사 안의 인원들이 다 나와서 타구(垛口)를 향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한다.

종을 치는 회수는 북쪽이 1회, 남쪽이 2회, 동쪽이 3회, 서쪽이 4회, 만약 4면 혹은 2, 3면에 동시에 적이 왔으면 계속 멈추지 않고 종을 친다.

42) 사면(四面)의 ... 회수(回數) : 북쪽은 한번, 남쪽은 두 번, 동쪽은 세 번, 서쪽은 네 번을 친다. 이는 1·6은 북방 수(水), 2·7은 남방 화(火), 3·8은 동방 목(木), 4·9는 서방 금(金), 5·10은 중앙 토(土)로 보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근거한 것임.

■ 연수성해[鍊守城解 : 수성 훈련에 대한 해설]

위의 조향과 같이 군기(軍器) 준비와 관병(官兵), 화부(火夫) 분배에 있어서는 수효를 분명히 해서 나누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련(操練)과 연습(演習)을 하지 않으면 끝내 숙달되지 않는다. 해마다 한 차례씩 조련을 하여 미리 10일 전에 조련 명령을 써서 내어 보이면 각 부대는 각기 준비를 갖추고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련할 시기가 되어, 천기(天氣)가 청명(淸明)한 오후에 장인관(掌印官)과 문무관(文武官)은 비단으로 만든 무관복(武官服)을 착용하고 중군(中軍)에 이르러 좌정한다.

그런 다음, 접근로상에 배치할 복로병(伏路兵)에게 무기를 지급하여 성 밖으로 내보낸다. 복로병으로부터 적이 20리 밖 지점까지 접근해 왔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해당 방위(方位)에서 처야 될 횃수만큼의 종을 치고 호적(號笛) 신호로 날나리를 세 번 불고 너고(擂敲) 신호로 세 차례 빠른 속도로 북을 두드린다. 각기 성곽을 수비할 인원을 배정하면 모든 인원은 병기를 휴대하고 성위로 올라가 편안히 앉되, 조용하게 엄숙을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함부로 어지러이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불허한다.

복로인이 성밖 정면 앞에서 기화전 1지와 화포 1성을 올리면 중군관은 주장에게 “적이 성의 동서 방면을 공격하여 이미 100보 이내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보고한다. 이때 해당 방면에서는 중군의 호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불랑기(佛狼機)와 조총(鳥銃)을 발사하여 일제히 적을 친다.

또 적이 50보(步) 이내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일제히 궁시(弓矢)를 발사하고, 중군은 포(砲)를 열어 북쪽 1회, 남쪽 2회, 동쪽 3회, 서쪽 4회를 방포(放砲)한다. 그러면 막사 안의 인원이 모두 나와서 타구(壕口)를 향해 위치하여 공격과 타격에 대비한다.

적이 우마장(牛馬牆)의 아래에 이르면 성상(城上)에서는 돌로 쳐서 적을 공격하고, 한편 우마장 안의 병사들의 형세가 급박해지면 해당 방면의 길거리로 통하는 주요 통로 입구에 모여있는 호한(好漢)의 무리가 성 위 올라와 이들을 응원한다.

적이 이미 패하여 10리 밖으로 물러났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해당 면에서는 포사격을 중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적이 이미 멀리 달아나서 소굴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중군이 바라와 북소리를 일제히 멈추게 한다.

일면(一面)을 조련하고, 다시 그 다음 일면을 조련하여, 사면의 조련이 완료되면 조련을 마쳤다는 보고를 하고, 중군은 징을 울려 각자 성면(城面)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때 성 밖의 복로군이 갑자기 사면에서 포화를 일제히 쏘면 이는 적이 다시 사면으로 와서 공격한다는 신호이다. 중군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듯한 형세로 계속 종을 치면서 앞서의 방식에 의해서 방어하게 한다.

중군이 대포를 세 번 쏘고 징을 울리고 대취타(大吹打)를 하며 나(鑼)를 울리면 5타(垛)마다 병사 한 명을 남겨두어 적을 관찰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성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한다.

밤이 되어 중군이 조련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첫 번째 신호 나팔을 불면 병사들은 성으로 올라간다. 두 번째 신호 나팔을 불면 각 장관(將官)이 일제히 도착하며, 세 번째 신호 나팔을 불어 성주(城主)가 중군에 이르면 대포를 세 번 쏘고, 수레로 쌍등(雙燈)을 올린다.

그러면 성에 있는 타장(垛長)과 화부(火夫)가 각각 법식대로 등을 매달며, 성안에 있는 민가에서는 문 위에 각각 등 하나씩을 달되 모두 대문을 잠그고 본가(本家)의 식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를 지키게 한다.

북을 급히 치고 종을 친 다음, 시각을 알리는 화살인 경전(更箭)을 전달하는데, 중군(中軍)이 시간을 알리는 북을 한 차례 울리고 딱다기를 치면 각 타도 그에 따라 일제히 딱다기를 친다.

2경(更 : 밤 10시 전후)이 되었을 무렵, 성 밖의 북로군이 포화(砲火)에 따라 경보를 알리면 모두 주간의 조련하는 준례와 같이 행동한다.

조련을 끝낸 다음에는 밤을 새워 지키고 각기 명령에 따라 성에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조련하지 않는다.

■ 수야해[守夜解 : 야간 수비에 대한 해설]

5타(垛)에 있는 병사(兵士)들은 그곳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에 구애받지 않고, 중군(中軍)의 높은 곳에서 올리는 신호포(信號砲)와 쌍등(雙燈)을 보고서, 한 창(廠) 안에 있는 병사 중에서 제일 먼저 제1타(垛)에 있는 자들을 내보내어 초경(初更 :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을 지키게 한다. 나머지는 모두 창 안으로 들어가 편안히 수면을 취한다. 그러다가 초경이 다하여 긴 소리로 나팔을 불고 경전(更箭)을 전달하면 제2타에 있는 자들이 차례로 나와 딱다기를 치고 경(更)을 지킨다. 이미 번(番)을 선 자들은 창(廠) 안으로 가서 또한 수면을 취하되 웃은 벗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경(五更 :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동안에 다섯 번을 번갈아 교대하되, 만약 야간에 갑자기 중군의 높은 대(臺)에서 포성(砲聲)이 울려퍼지고 북소리와 종소리가 급히 울리며 수레로 쌍등을 올리면 이는 적이 와서 성을 공격한다는 신호이니,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모든 타부(垛夫)로 하여금 타의 아래에 서서 밤을 새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인력을 휴식시킴으로써 심신에 여유를 주어 매번 사경(四更 :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깊은 새벽에 사람이 피로에 빠져 적의 엄습을 당하여 실수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기회를 틈타 사사로이 제집으로 가서 집안에서 편안히 잠자는 것은 불허하고, 이미 막사 안에서 교대로 잠자는 것을 허락했으되, 잠을 자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허한다.

■ 수성군법[守城軍法 : 수성에 관한 군법]

매 창(廠)에서 한사람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혹은 야간(夜間)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범법자 장본인은 곤장(棍杖) 40대를 치고, 같은 타 같은 창(廠)의 소속 인원은 연좌하여 처벌한다.

적이 성지(城池)를 공격하는 상황을 당하여 제때에 도착하지 않은 자는 범법자 장본인은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돌리고 타장(垛長)은 귀를 베며, 같은 타(垛) 같은 창(廠)의 소속 인원은 곤장을 친다.

기창(旗廠)·기예(器械)·기계(器械)·시석(矢石)·화총(火銃)·나고(鑼鼓) 중에 단 1건이라도 불완전함이 있을 경우에는 범법자 장본인이 스스로 감당한다. 두 사람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타장(垛長)을 연좌하여 처벌한다. 10타 이상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성장(城將)을 연좌하여 처벌하고, 20타 이상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치장(雉將)을 연좌하여 처벌한다. 50타 이상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성장(城將)을 연좌하여 처벌한다.

만약 적이 성지를 공격할 때 실수를 저지르거나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는 경우에는 범법자 장본인은 군법(軍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린다. 전례에 의하여 연좌되는 자는 엄중하게 다스린다.

1. 머리를 돌리는 자는 귀를 자른다.

1.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는 귀를 자른다.

1. 적을 보고 큰소리로 떠드는 자와 부상을 당하여 큰소리로 울부짖고 놀라 도망하는 자는 적진을 마주하여 후퇴하고 위축된 죄에 준하여 군법으로 다스린다.

1. 밤에 소란을 피워 진영을 놀라게 한 경우에는 소속한 같은 창(廠), 같은 타(垛)의 책임자를 연좌하여 처벌한다. 중군(中軍)의 높은

곳에서 접응하면서 밖에서 적이 성 아래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늦게 하여 일을 그르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은 엄중히 다스리고, 망대(望臺)를 감시하여 신호를 관리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린다.

1. 각 포 안의 불씨를 꺼뜨린 경우와 딱다기를 쳐서 시각을 알리는 일과 징과 북으로 신호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포장(鋪長)을 함께 처벌한다.

1. 북로군의 망을 보는 사람이 일을 그르쳐 적이 갑자기 닥쳐오게 한 경우에는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를 돌린다.

1. 북로군이 이미 화포 신호를 올렸으나 중군이 접응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신호포 소리를 크게 울리지 못하여 성문을 닫고 성을 지키는 창(廠)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들을 수 없게 하였을 경우, 등롱(燈籠)이 밝지 못하여 적이 돌연히 성 아래에 이르러 성을 공격하여 치(雉)에 오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신호를 관장하는 고수(鼓手)나 망대에서 정찰하는 인원을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리되, 결코 용서하여 살려주지 아니한다.

1. 북로군(伏路軍)이 매 북로(伏路)에 나갈 때 기한에 늦거나 몸에 지녀야 할 앞 항목의 화약(火藥)이 법과 같지 않게 관리되고 우장(雨裝)을 정비하지 않아서 약승(藥繩)과 약선(藥線)이 물기에 젖고 못쓰게 된 경우와,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성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경우에는 군법에 의하여 묶어놓고 곤장을 친 후에 귀를 자른다. 만약 일을 그르쳤을 경우에는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린다.

초병(哨兵)이나 북병(伏兵)이 성 밖에서 주요 접근로 어구를 차단하여 지키지 않고 몰래 인가의 방이나 창고, 또는 숲속으로 들어가 깊이 잠이 들어 일을 그르쳤을 경우, 적이 성 아래로 돌입하여 성을 공격하게 만든 북로군은 전진(戰陣)에 임하여 후퇴하고 위축한 죄에 준하여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를 돌린다.

【그림 58】



■ 봉후해[烽堠解 : 봉후에 대한 해설]

옛날부터 변경(邊境)을 지키에 있어서는 먼 곳까지 살살이 척후(斥候)하고 봉화(烽火)를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러서 돛이 바람을 받으면 순식간에 천리를 달리니 이 봉화는 더욱 긴요한 것이다. 그 옛 자취가 모두 남아 있고, 국법(國法)이 매우 엄중하니, 지금 경계하는 법규를 범한 자들을 귀양보내서 지키고 정찰하는 데에 쓰고 있을 따름이다.

모든 해변의 옛 돈대(墩臺)를 전부 조사해 내어 수리하고 복구해야 하는데, 해가 오래되어 물 속에 잠기거나 수목(樹木)과 인가(人家)에 가리우고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혹 옛날 그대로 의지할 만하거나 거기에 약간의 보충을 하거나 고쳐 옮겨서 정찰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수리해서 써야 할 것이다. 대략 10리 이내를 표준으로 하여 육안으로의 관망이 어려울 경우에는 3~5리도 괜찮고, 관망이 쉬울 경우에는 10리가 넘어도 또한 괜찮을 것이다. 매 돈대 1좌(座)마다 옛날의 높낮이를 참조하고 새로 첨가되는 돈대도 또한 옛 돈대를 참조하여 혹 높은 산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정찰하고 관망하는 장소로 쓰게 한다. 원래 돈대가 없었던 곳이라도 유용하면 새로 쌓고, 원래 돈대가 있었던 곳이라도 무용하면 창고로 쓰되, 이를 모두 돈(墩)이라 하고, 소식을 전달하고 보고하는 것을 봉(烽)이라고 한다.

매 돈(墩)마다 군사 5명을 배치하는데, 돈의 서로 떨어진 거리와 신규 돈대(墩臺)의 멀고 가까움은 오직 육안으로의 보임과 청각으로서의 들림으로 기준을 삼아서 꼭 거리에만 구애될 필요는 없다.

■ 설관집해[設官什解 : 관용 집물의 설치에 대한 해설]

매 위(衛)마다 좌우 2로(路)를 두어 위성(衛城)으로부터 시작하

여 왼쪽은 좌로(左路)로 하고 오른쪽은 우로(右路)로 하되, 각각 관리 1원(員)을 두어 좌로관둔(左路管墩)·우로관둔(右路管墩)이라 한다.

각각 모든 경내에 천호 내지 백호를 채우고 매 소(所)마다 2원(員)의 관리를 두어 각각 위(衛)의 예에 준하여 기사(旗舍)로 채운다. 매 위마다 모든 경계가 다른 위와 접촉되는 곳은 모두 돈대를 관리하는 지휘(指揮) 1원에게 고선(考選)을 위임하되, 원래부터 있던 곳은 군정(軍政)을 맡던 원래의 관원을 고선하여 임용한다. 고선을 거치지 않아 비어 있는 것은 지휘(指揮)가 해당하는 위에 상세히 보고하여 결정해서 위임한다. 이를 일견기를 제조돈초(提調墩哨)라 하니, 직례(直隸)에서 나눈 바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관할하는 위의 경계에 접한 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되, 다른 업무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

돈(墩) 일좌(一座)마다 다음의 집기(什器)를 갖춘다.

작은 방 1칸
상판(床板) 1벌
가마술 아궁이 1구멍
물항아리 1개
주발 5개
접시 5개
쌀 1섬
소금에 절인 채소
불씨가루 5짐
불씨 1쟁반

풀 시렁 3좌[매 시렁마다 높이기 2장 5척에, 너비는 4면 모두 1장으로 하되, 땅에서 5척 높이를 떼어서 나무를 가로질러 풀과 쉼이 땅에 닿아서 비에 젖거나 축축해지지 않게 하며 위에는 벧짚으로

이영을 해서 덮어 가옥모양처럼 만든다. 돈대를 관리하는 법에 ‘낭연(狼煙 : 이리 똥을 태운 연기)을 올린다.’고 했는데, 남방의 이리 똥은 연기와 불꽃이 적으니 제도에 결함이 있다. 한줌의 풀은 불길이 오래가지 않으니 십리 밖에서 어찌 능히 육안으로 보아서 식별할 수가 있겠으며, 또 음산하게 흠비가 오거나 대낮에도 흐리고 침침하면 어떻게 멀리 바라보아 정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이렇게 큰 초가집을 사용하여 풀과 싹을 쌓아 불길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고 오래 가게 하여 충분히 인근의 돈대끼리 바라볼 수 있게 하니, 그 초가집 아래에는 1층을 고르고 가지런하게 하여 풀을 가득히 채워둔다.]

이상은 모두 군인들이 채취하여 조달한다.

대충(大銃) 3구(口)[잔구(戡口)·직구(直口)·완구(碗口)·영자(纓子)라도 다 괜찮다.]

백기(白旗) 1면(面)

흑기(黑旗) 1면

등룽(燈籠) 3잔[백지를 펼칠해서 바르되 거칠어야 하며, 지름 1척 5촌, 길이 3척이다.]

큰 나무 딱다기 1가(架)[길이 5척, 내부 공간 6촌, 깊이 1척으로 소리가 잘나고 단단한 나무여야 한다.]

깃대 2근(根)[돈대 위의 좌우에 세운다.]

깃발 줄 2부(副)

불쏘시개용 마른 벼짚 300속[풀시렁 1좌마다 100속(束), 3좌 함께 300속(束)]

화승(火繩) 3조(條)

불갈퀴 낫(火鎌)과 부싯돌(火石)

이상은 모두 관부에서 지급한다.

■ 직돈관[飭墩官 : 돈관을 단속함]

돈대(墩臺)를 관리하는 관원을 ‘관돈자(管墩者)’라고 일컫기도 하고, ‘육로자(陸路者)’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각처가 한결같지 않으나, 모두 조정(朝廷)에서 5년에 한번 추천하여 선발하니 당연히 그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를 일이 없이 한가한 직책으로 여겨서 심지어는 직무를 지키는 것조차 폐기하거나, 혹은 돈대(墩臺)와 봉화(烽火臺)를 수리 정비하지 않고 혹은 기계를 정리 정돈하지도 않는다. 군사들로부터 재물을 받고 항상 눈앞의 안일(安逸)만을 도모(圖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잘못을 징계하고 추궁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도적이 지역을 침범하면 봉화의 신호가 전해지지 않고 선박이 바다에 있어도 그 동태에 관한 경보를 보고하지 않으면서 세월만 허송하여 대부분이 폐해지거나 느슨해지기가 이처럼 심할 수가 없다. 대개 내지의 안위(安危)를 방어함에 있어서 변방 해역에 거주하는 백성이 달아나고 피해버리니, 병마를 조발함에 있어서는 그 기미(機微)가 다 한 돈대(墩臺)의 적정보고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마땅히 돈대를 지키는 신호 요령을 따로이 간행하여 매 돈마다 군사들에게 한 권씩을 주어서 읽고 외워서 한달 이상 익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혹 돈대에 도착하면 살펴서 묻거나, 혹 가까운 거리에 순시를 하러 갔을 경우에도 그 조항 내의 일을 살펴서 묻는다.

평일에 돈대에 갖추어져야 할 여러 조건들을 완비하기에 힘써서 파손되거나 용도가 생김에 따라 수시로 보완하고 경계상황이 발생하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를 올려 경조를 전달한다. 감히 한 건이라도 불완전하게 하거나, 1군이 수채(査閘)에 도착하지 않으면 군법에 의하여 연좌시켜 처벌하여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다.

먼저 각 돈후(墩候)의 기군(旗軍)이 항목의 건수(件數) 대로 문서를 갖추어서 준비하면 해당 관원이 이를 가지고 가서 조사하고 상고(詳考)하여 증빙하며, 때로는 위관(委官) 혹은 주장(主將)이 친히 가서 조사 점검한다.

■ 보경호령[報警號令 : 경계정보상황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매 돈(墩)은 낮과 밤을 불구하고 3인으로 나누어 기화전(起火箭) 3지와 완구총(碗口銃) 1개와 수총(手銃) 2과와 백포소기(白布小旗) 1면을 휴대한다.

가장 먼 변방 바닷가에서는 순찰(巡察)하면서 지키고 초계(哨戒)하는데 있어서, 적선(賊船)이 나타나면 낮에는 깃발을 올리고 총을 쏘아 신호를 삼고, 밤에는 기화전(起火箭)을 쏘고 총을 쏘아 신호를 삼는다.

돈대(墩臺) 위에서는 곧바로 이에 접응하되, 만약 천기(天氣)가 맑으면 수레로 12폭 대백기(大白旗)를 올린다. 서로 이웃한 돈대에서도 수레로 대기(大旗)를 올려 신호가 곧바로 본 위소(本衛所)의 성지(城池)에 도달하면, 그대로 접수되어 장관(將官)의 처소에 전해지고, 장관은 각 상사에 이를 보고한다.

만약 천기가 음산하고 흠비가 와서 망대(望臺)에 걸어 놓은 기(旗)가 보이지 않으면, 야간의 규정에 준하여 원래부터 탑재해 놓은 초옥(草屋)을 가지고 불을 당겨 거기에 불을 붙인다. 1가(架)를 불태워서 인근의 돈대가 접응하여 불을 놓으면 되고, 만약 접응하여 불을 놓지 않으면 또다시 초옥 1가를 더 태운다.

야간에 경계상황이 있을 경우에 돈대(墩臺) 초군(哨軍)의 총소리를 듣고 초옥 1가를 불태우면 인근의 돈대도 곧바로 마찬가지로 초옥 1가를 불태운다.

만약 적이 해안으로 기어오르면 일면으로 사람을 차출하여 빠른 길로 곧장 본 위소(本衛所)와 육로관(陸路官)의 처소에 적의 많고 적음과 기어올라 침범한 시일과 상황을 보고한다.

■ 주보군법[走報軍法 : 정보 보고에 관한 군법]

1. 적이 해안으로 기어 올라 침범한 지역

해당 돈대(墩臺)가 불을 질러 신호하고 깃발을 수레로 들어올리는 것을 실수로 그르쳐서, 적이 인근의 돈대까지 흘러 들어가는 상황을 당했을 경우

인근의 돈대가 불을 질러 신호하고 깃발을 수레로 들어올린 다음에야 해당 돈대가 뒤늦게 접응한 경우

해당 돈대의 돈군(墩軍)을 군법(軍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린다.

1. 해변의 돈대 아래에 파견된 사람이 실수로 일을 그르친 경우
돈대 아래에 파견된 사람을 벌주고, 돈대 위에 있던 사람도 연좌하여 묶어놓고 곧장 100대를 친다.

1. 적이 근접하여 해당 돈대가 불을 질러 신호하고 깃발을 수레로 들어 올렸는데, 인근의 돈대가 접응에 실수하여 일을 그르쳤을 경우
인근 돈대의 돈군(墩軍)을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린다.

1. 불을 질러 신호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육로(陸路)로 달려가서 보고하는 것을 때맞춰서 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쳤을 경우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린다.

1. 돈군은 바람이 빠른 계절에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이 돈대에 있어야 한다.

감히 돈대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비록 집이 돈대에서 가

갑다 할지라도 돈대에 있지 않은 자는 적이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묶어놓고 곤장 100대를 치고 귀를 자른다.

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군법으로 처벌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리며, 해당 관리자는 연좌하여 묶어놓고 곤장을 친다.

아울러, 취하여야 할 식수와 쌀을 한달 남짓 동안 감량하되, 1명을 기준으로 한 분량의 땀감과 식수(食水)를 단독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매 명(名)을 1반(班)으로 해서 2반으로 나누어 만들어 반 달에 한번씩 교대하여 돈대에 나가게 한다.

1. 앞의 항목에 제시된 집물(什物)과 군기(軍器)를 준비하되, 1건 이라도 빠뜨린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돈군은 묶어서 곤장 100대를 치고, 귀를 자르며, 이어서 월량(月糧)을 변상하는 벌을 주되, 해당 관리자를 연좌하여 묶어서 곤장을 친다.

1. 앞의 항목에 제시된 집물과 군기를 준비하되, 비록 빠뜨린 것이 없을지라도 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돈군은 묶어서 곤장 40대를 치고, 월량을 감량하며, 해당 관리자를 논죄하여 군법으로 다스린다.

■ 사점법식[查點法式 : 사열과 점검의 법식]

1. 매월에 주장(主將)은 3차, 과총(把總)은 5차, 위소(衛所)는 7차씩 사열과 점검을 하되, 각 차인(差人)은 본처(本處) 남북에서 시작하여 인원을 분발(分發)해서 수문(水門)에서 점검(點閘)하는데, 만약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죄를 다스린다.

1. 차인(差人)은 봉화대(烽火臺)에서 점검함에 감히 은자(銀子)와 미곡(米穀)을 받을 경우에는 죄를 한 가지로 균등히 다스리되, 비록 평소에 친하고 믿었던 사이라 할지라도 모두 죄를 경감해주지 않는다.

1. 차출되어 검열을 맡은 인원이 돈대를 조사하지 않고 친히 돈대 앞면으로 가서 곧바로 총로(總路)에 나가 있으면 잡아서 조사한다. 혹은 만 사람에게 대신 조사하게 하거나, 돈대에 도착했어도 점검과 조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묶어놓고 곤장을 친 다음에 연안의 돈대의 여러 사람에게 조리 돌린다.

1. 조사에 차출된 인원이 돈대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한다. 군사(軍士)가 5명인가를 헤아리고 곧 불씨 있는 곳에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화기(火器)의 수습상태와 약선(藥線)의 상태를 보고 다음에는 대소(大小) 총기(銃器)의 보관 수습상태가 어떠한가를 본다.

12폭 대기(大旗)의 손괴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다음에는 대기의 깃대가 단단하고 곧바른지 여부를 본다.

돛대줄을 올리는 수레인 위승거(桅繩車)가 견고하고 튼튼한지 여부를 시험한다.

초옥(草屋) 2가(架)에 풀과 쉼이 있는지 없는지와 비에 젖었는지 너무 짧거나 양이 적지 않은지, 사용하고 나서 보충은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본다.

물항아리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쌀과 건어물(乾魚物)의 사용 숫자를 살펴보며, 주발과 접시를 보관한 장소의 상태를 본 다음, 돈대에서 유숙한다.

1. 총(銃)과 기(旗)와 거기(車旗)를 시험하되, 총을 발사하지는 않고, 총을 발사하되 수레로 기를 올리는 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접응(接應)을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연습이기 때문이다.

1. 처음 돈대를 세울 적에 신호 방법을 갖추어서 반드시 그에 따라 경보를 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미리 10일 전에 통행하는 인근 군민(軍民)의 집과 보고를 받을 상사(上司)에 알려 향촌(鄉村)의 전야(田野)와 성시(城市)와 근거리의 돈대(墩臺)와 원거리의 돈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 연유를 알게 한다. 그래야 연습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이목을 두렵고 놀라게 하여 이후에는 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경계상황을 당한 이후에 사용한 군기(軍器)와 초목(草木)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3일을 넘기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어길 경우에는 감량해서 포함을 낸 결소법(缺少法)으로 다스린다.

1. 관부(官府)에서 지나가고 멈춤을 알리는 데에는 딱다기나 바라를 쓸 수는 있으나, 함부로 대소 백기(白旗)와 등룽(燈籠)을 수레로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총포(銃砲)를 발사하는 등의 일로 인근 돈대를 헛갈리게 할 경우에는 경망스럽게 잘못된 동정을 경보한 죄인 망보성식(妄報聲息)의 규정을 적용하여 군법으로 무겁게 다스린다.

[紀效新書(下)]

권14 연장편[練將篇]

■ 권14 연장편[練將篇]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장수는 삼군(三軍)의 운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자이며 국가 안위(安危)의 주체이다.” 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장수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수레 가장자리에 대는 덧방나무[輔]와 같은 존재이니, 덧방나무가 주밀(周密)하면 반드시 나라가 강성하고, 덧방나무가 갈라져서 틈이 벌어지면 반드시 나라가 쇠약해진다.” 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장수가 병법(兵法)을 모르면 사졸(士卒)을 적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병(兵)·농(農)이 나누어지지 않고 문(文)·무(武)가 같은 길을 걸어서 그 설치하는 바와 일의 책임과 부담을 지움이 항상 이와 같아서 진실로 오늘의 현상과는 같지 않았다.

오늘의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해 보자.

만일 흉악한 도적이 일어나 성(城)이 혹시 지켜지지 않고 전야(田野)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경우, 군사를 잘 거느리는 자로 하여금 북을 한번 쳐서 이를 섬멸하여 생령(生靈)들을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구출하니, 그 관계되는 바가 어찌 하잘것없는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장수의 훈련[練將]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병사의 훈련[練兵]을 그 다음의 중요한 일로 삼아야 일정한 법식과 표준에 걸맞는 장수를 확보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그 수준에 도달한 병사를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의 훈련은 비유컨대 근본을 다스림과 같아서, 본체(本體)가 어지러운데 지체(肢體)가 다스려지는 경우가 없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가 말한대로라면 군사를 훈련시키는 요체는 장수의 훈련[練將]과 담기(膽氣)를 기르는 데에 있는 것인데, 그대는 어쩌서 담기편(膽氣篇)을 다른 여러 편보다 뒤에 놓고, 연장편(練將篇)을 이 책의 권말(卷末)에 붙였는가?”

내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효신서(紀效新書)》는 행오(行伍)의 교련(敎鍊)을 규율하여 이미

시험을 거쳐서 실제로 그 효과를 보았다.⁴³⁾ 그러므로 속오(束伍)로부터 시작하여 영진(營陣)·수륙(水陸)·수초(守哨)에 이르기까지는 일단 병사에게 책임이 있으면 곧 그 소행을 살펴서 교장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나 담기(膽氣)의 훈련을 교장에서 전일하게 하지 않음은, 또한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게 하여 한 가지 기능을 기르게 하는 따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사가 나에게 속하지 않았을 적에는 마땅히 자신이 스스로 수습하여 연구하고, 병사가 이미 나에게 속했을 적에는 병사를 가르침에 담기 훈련을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일단 전진(戰陣)에 닥친 뒤에 그 한 작용을 변화시켜 병사를 잘 운용하여 권도(權道)를 쓰고, 주어진 형세를 잘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면 오래지 않아서 깨닫게 될 것이다.

장수의 훈련[練將]은 그 지식을 연마하는 것을 일상음에 있지 않다. 장수는 이미 폭넓은 임무를 부여받았으므로 일정한 법식과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이미 도달한 자에게도 때때로 경계와 책망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연장편(練將篇)을 특별히 후편(後篇)에 붙여 강령(綱領)을 중하게 하여 전일하게 높인다는 뜻을 밝혀서 교장에서 익히는 다른 훈련과 뒤섞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내 이미 깊이 생각한 바이니, 나의 말을 이해하는 이는 이를 분변해 주기 바란다.

▣ 정심술[正心術 : 심술을 바르게 함]

모든 장수에게 본래의 내심(內心)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가

43) 기효신서(紀效新書)는 효과를 보았다 : 척계광(戚繼光)은 이 책의 서문에서 “책의 이름을 《기효신서(紀效新書)》라 하였는데, ‘기효(紀效)’는 ‘입과 귀로만 하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效)를 본다는 뜻’이요, ‘신서(新書)’는 ‘그것이 옛 병법에서 나왔으나 옛 병법에 구애되지 않고 때에 알맞게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는 바, 이 대목은 바로 이 서문에서 저자가 밝힌 책의 뜻과 합치된다.

이로는 사해(四海)에서 멀리로는 구이(九夷), 귀하기로는 왕후(王侯)에서 천하기로는 필부(匹夫)에 이르기까지, 다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이다.

삼군(三軍)의 무리가 말하지 않아도 믿고,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고, 성내지 않아도 두려워하니, 이는 고금에 있어서 한결같이 일치되는 행위이다. 만인이 하나로 합쳐지니, 이것은 마음이 같으면 감응(感應)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징험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믿음직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장수의 도리를 잘 배운 자는 언행이 떳떳하고 정당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일을 행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고, 염두에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것[忠君]과, 나라를 보위할 것[衛國]과, 군대를 강하게 할 것[強兵]과, 적을 미워할 것[惡賊]과, 행동을 진실에 맡길 것[任眞]과, 직무 수행의 어려움[任難]을 생각하여야 한다.

죽고 삶과 얹어지고 쓰러지는 환난으로 그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이 마음을 굳게 지녀서 오래되면 성대해진다. 이 마음이 성대해지면 통달해지며, 통달해지면 천지를 감동(感動)시키고 귀신을 전이(轉移)시킨다. 이렇게 하여 얻는 바는 모두 길하고 상서로우며 좋은 일들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선(善)한 일을 행하면 백 가지 상서(祥瑞)를 내리고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면 백 가지 재앙(災殃)을 내린다.”⁴⁴⁾ 하였으니, 이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모두 나의 마음 씩씩이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에 따라 상서와 재앙이 여기에서 연유하여 귀신도 또한 이에 따른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컬어 말하기를 ‘심신(心神)’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마음의神明(神明)을 속일 수 없다.”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이를 배척하는 사람이 쉽사리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44) 선(善)한 내린다 : 《상서(尙書)》 〈이훈(伊訓)〉

옛말에 이르기를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⁴⁵⁾ 하였으니, 이는 귀신(鬼神)이 사우(祠宇)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심신(心神)의 ‘신(神)’자는 바로 귀신(鬼神)의 ‘신(神)자’이다. 선보(善報)와 악보(惡報)와 지옥(地獄)과 윤회(輪廻)가 어찌 정말로 있겠는가? 윤회는 다만 나의 마음 속에 있고, 지옥도 나의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연히 일을 꾸미고 처리해 나가는데, 밤에 문득 꿈에서 엎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얼마 아니되어 그대로 되었다.”고 하니, 이는 꿈이 징험을 한다는 증좌이다.

비유컨대, 마음 씩씩이가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장수의 자리에 있으면 죽어야 옳을 때에 죽지 않고, 욕되게 살기를 탐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며, 어려운 일은 회피하고 알뜰한 재주나 부리면서 군대와 나라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 맑은 밤에 양심을 발현할 사려를 그르치면 다만 잘못된 일이나 숨겨둔 일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인다. 모든 사려가 이와 같아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밤중에 악몽이 이러한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이날, 밤이 깊어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으면, 그 정황이 꿈과 서로 같아서 윤회(輪廻)의 고뇌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기약이 없을 것이다. 만약 능히 언행이 떳떳하고 정당하여 전과 다름 없이 사려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맑고 깨끗하다면, 그 형체는 잠을 자며 꿈을 꾸는 속에서도 천상의 별천지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면 득의만만(得意滿滿)하여 눈썹을 치켜올리고 기염(氣焰)을 토할 것이니, 어찌 천당에서나 있을 쾌락의 경지일 뿐이겠는가? 이는 장수된 자의 근본으로 공업(功業)을 세워 선조를 빛내고 후인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약문건[左券]과도 같은 것이다.

45) 스스로 없다 : 《맹자(孟子)》〈공손추(公孫丑) 상〉

■ 입지향[立志向 : 지향하는 바를 세움]

뜻[志]은 바로 마음[心]이다. 마음의 본체(本體)는 신명(神明)이 되고, 마음의 작용(作用)은 지향(志向)이 되니, 비유컨대 화초(花草)와 수목(樹木)과 종자(種子)는 작을 경우에는 모래나 먼지와 같고, 클 경우에는 주먹이나 알과 같으니, 드넓고 아득함이 심하다 하겠다.

이 종자가 흙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 새싹이나 혹은 껍질이 갈라져 싹트는 씨앗을 개미가 다 먹어 치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성하면 하늘을 찌를 듯이 울창해져서, 아름답리 나무가 대들보 재목으로 취해져 눈서리도 이를 부러뜨리지 못한다.

장수가 되는 데에는 다만 뜻이 없음을 한할 뿐이요, 뜻이 정해지고 여기에 진실을 더해서 힘을 다하여 실행한다면, 공은 자연히 상하에 신임을 얻어 시행함에 이롭게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무신(武臣)이 되어서 환난을 이기고 공훈(功勳)을 세워 역사에 이름을 드리움을 모두 이 뜻처럼 일정하게 도리에 따라서 한다면 성공을 거두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뜻을 세우는 시초에는 그 뜻이 사람들에게 크게 통달하지 못하여 곤란하고 고통스러움과 분한 마음이 치밀어서 속이 답답함과 가로막고 방해하는 근심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나무의 새싹이나 혹은 껍질이 갈라져 싹트는 씨앗을 개미가 다 먹어 치울 수 있는 파위와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만약 이때 뜻을 세우는 것이 품행이 단정하고 선량한 인간이 되는 데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일을 행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여 곧바로 처음의 뜻을 바꿔버린다면, 그 사람은 끝내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칠 뿐이다.

이는 바로 종자가 처음 싹이 터서 나올 때에 소와 양이 짓밟고 해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생명력이 일거에 소진되어 다시는 싹이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잘 보호하면 세월이 얼마 아니되어 그 근본이 견고해져서 꽃을 피워 무성하게

성장하여 그 종자가 지니고 있는 힘을 다한 뒤에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슬프다! 뜻을 세워서 향상을 하였으면서도, 만나는 시운이 불우하여 현달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지향하는 바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공업(功業)을 이룩한 경우는 없다. 모든 고금의 충신(忠臣)과 의사(義士)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였다. 예컨대 “아무개는 순직한 마음으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여 백 번 죽음에도 충성을 굽히지 않았으며, 아무개는 맑고 깨끗한 지조를 스스로 지켜 한 톨의 부당한 금전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개는 병사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하였으며, 아무개는 병사를 훈련함에 있어서 법도가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귀와 눈으로 이 사실을 보고 들음에, 반드시 말하기를 “저들도 사람인데 능히 이와 같이하였거늘, 나도 또한 사람인데 이와 같이하지 못하랴?” 하고는, 마침내 서둘러 일어나 죽음과 삶, 이로움과 해로움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서의 사례와 똑같이 되기를 기약할 것이니, 어찌 이루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뜻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좋은 종자’라는 것이다.

■ 명사생[明死生 : 죽음과 삶을 명백히 함]

대저 사람은 아득하고 그윽한 대지(大地)에서 홀연히 태어난다. 이 몸이 죽고 사는 것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죽고 사는 일은 가히 중대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혈기(血氣)를 지니고 있는 무리들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죽음과 삶에는 정해진 운수가 있어서 오로지 물에 빠지고 불에 타서 죽는 재난과 창과 칼에 찔려서 죽는 전쟁(戰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금의 모든 부귀한 집안은 이미 공사에 얽매어 간섭받을 일이

없고, 또 힘든 공작이나 과중한 부역이 없고, 일찍이 오랑캐를 쫓거나 적과 맞닥뜨려 싸운 적이 없어서,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수만여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는 자도 있고, 다박머리 이빨 갈 무렵의 유년기에 죽는 자도 있고, 20~30세에 죽는 자도 있다. 그런데, 저들이 어찌 갑자기 어린아이가 고치기 어려운 나쁜 병에 걸렸을 때 의학적인 치료와 미신적인 기도에 이르기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끝내 구하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물에 빠지고 불에 타서 죽는 재난과 창과 칼에 찔려서 죽는 전쟁에 의해서만 오로지 그 수명이 단축된단 말인가?

가령 오랑캐를 쫓거나 적과 맞닥뜨려 싸우다가 처음부터 모두가 다 죽는다면, 천하에 장수와 병사들은 한 사람도 남아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장령(將領)들의 경우를 보건대, 그 누가 소년시절부터 낮은 관등으로 몸소 포로를 붙잡고 적의 목을 베지 않고서 대장(大將)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가?

또 용감한 병사(兵士)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싸움터를 거쳐서 칼과 화살의 상처를 몸에 입고서도 오히려 천수(天壽)를 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은 바로 고충(苦蟲)이다.” 하였으니, 나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어서 죽음에 그 자리를 얻으면 사당(祠堂)에 모셔져 백세(百世)에 걸쳐 제향(祭享)을 받을 것이니, 이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물며 여러 사람이 그 공적을 서로 입으로 전하여 옮겨서 그 수명이 살아 있는 것과 똑같다.

만약 세상에 알려지는 바가 없이 걸어가는 시체나 달리는 고깃덩어리처럼 되면 그것은 그저 죽음일 뿐이다. 만약 똑같이 전진에 임해서도 다만 움츠리고 뒤로 물러날 것만 생각한다면 그 어찌 싸움이 위태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살상되거나 혹은 약삭빠르게 피할 수는 있겠으나, 힘차고 씩씩하게 전진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발뒤꿈치를 이어서 달아나다가 죽는 것이다. 만약 한마음으

로 협력하면 거의 승리할 수 있는 즈음에 죽음을 면치 못하니, 또한 정해진 운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이란 반드시 다같은 것이 아니다. 또 어리석음이 심한 자들이 있어 죽어야 옳을 때에 죽지 않고 욕되게 살기를 탐하고 어떠한 수치스러움이라도 견뎌내면서 온갖 꾀로 살아남은 목숨을 부지하기에 연연한다. 한번 성현을 손꼽아보자. 부처와 노자가 어찌 아직도 세상에 살아 있는가?

장수된 자는 반드시 죽음과 삶을 헤아리지 않고 다만 충신 의사가 되기에 힘을 써서 괴로움과 번뇌를 감수하여 수십 년에 불과한 덧없는 몸을 버려서 만고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니, 어찌 남은 이로우미 없다고 하겠는가? 이 경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곧 진심으로 직무를 맡아 전진(戰陣)에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변이해[辨利害 : 이해를 분변함]

오늘날의 일반적인 폐단은 모두 눈앞에서 영합(迎合)하여 남의 마음에 들도록 힘쓰는 것을 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도리어 적과 맞닥뜨려서는 기미(機微)를 잃어 가장 중요한 방도는 놓아두고서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한때의 요행을 바라서 벼슬이 오르는 바탕으로 삼고자 하여 절대로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을 추구하지 않고 빈말을 일삼으며, 정도(正道)를 따르지 않고 평상시에는 오로지 남을 교묘하게 속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것만을 익혀서 군무(軍務)가 반드시 폐지되어 아주 없어지고 만다.

일단 적이 내습할 경우를 당하게 되면 싸우지도 못하고 또 지키지도 못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전에 영합(迎合)하여 아버지처럼 모시던 상관은 군무를 통할(統轄)함에 어찌 여론을 어기고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어 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인가? 가령 정도를 지키고 직분을 다하다가 요로(要路)에 있는 권력자의 노여움을 촉발하여

임기가 차도 그 벼슬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중하면 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비교컨대 일을 그르쳐서 사형에 처해지는 죄에 빠지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하물며 죄상이 군량(軍糧)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겨 공적 인원을 차출해서 점용하거나, 일을 그르쳤음에 불과한 것들도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 평일에도 관부의 문서로 명백히 진실을 밝혀서 행오(行伍)를 충실히 해야 하거늘, 어찌 공도(公道)가 모두 소실(消失)되어 싸워서 지킨 공이 있어도 기록하지 않고, 능히 다시 죄를 가할 수가 있겠는가?

불행히 나라에 보답하여 공을 세울 수 없었으며, 또한 모름지기 혈전(血戰)을 한 차례 하여 이기지 못하는 못하였다 하나, 적에게 죽은 부하가 어찌 수백 명이 못되겠는가? 적도 또한 크게 손상을 입었을 것이니, 어찌 전장(戰場)에서 유익함이 없었겠는가?

대저 몸이 이미 손상하여 소멸될 경우, 숙원(宿怨)이 있다 하여 구휼(救恤)하지 않고 다시 죄가 있다 하여 그 죄를 더할 수가 있겠는가? 사후에 죄를 더하는 것은 반드시 반역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세간에 작전중 희생된 자로서 반역자는 없다 하였으니, 장수된 자는 다만 마땅히 예의(禮義)로써 이해를 분별해야 한다.

한 질박한 사내가 부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비방과 칭찬으로 헤아리지 않고 착실히 일을 주관하며, 전곡(錢穀)과 군량(軍糧)에 간여하지 않고 행동거지에 착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때그때마다 사사건건에 있어서 거기에는 모두 내가 있으니, 진실로 나를 잃고 남을 따라서도 안되고, 나를 믿고 남을 능멸해도 안된다.

혹 남이 나를 도리 밖의 일로 책망해도 이를 들어야 한다. 혹 남이 의롭지 않은 일로 나를 거슬리면 몸은 욕되게 할 수 있으나, 뜻을 욕되게 하고 재앙을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론(公論)으로써 옳고 그름을 천하만세(天下萬世)에 붙이는 것은 죽음보다 가볍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⁴⁶⁾고 하였으니, 하물며 반드시 죽지 않음에 있어서라?
버린 것을 살피고 취하여 이를 분변하라.

■ 주호인[做好人 : 호인이 됨]

대저 장령(將領)이 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

공을 세웠으나 공훈록(功勳錄)에 기록되는 은전(恩典)을 입지 못했다. 좋은 일을 하였으나 남이 보아서 알아주지 않았다. 조행(操行)을 지킴이 있었으나 탐욕스럽다고 모함을 당하였다.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잠시 배척을 받아 쫓겨났다. 남의 원망을 받고 참소를 당하였다. 향상(向上)을 하였으나 현달(顯達)하지 못하여 마침내 우울하고 불쾌한 마음이 쌓였다. 그 지킴이 오던 바의 조행을 바꾸었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허물하여 마침내 방종하기에 이르렀다. 청렴하고 현명한 관원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행동이 방정하고 선량한 사람이 관원이 되기가 어려워, 험뜯고 비방하며 고치지를 못하였다. 다른 방면으로 다시 능히 갈고닦으면 청렴하고 현명한 관원으로 일컬어진다고 여겼다.

그러나, 행동이 방정하고 선량한 사람이 변절하여 일생의 지조를 무너뜨리면 비록 만년에 다시 덕을 세울 것을 도모하여도 사람마다 비방하고 이를 믿지 아니하여, 구차히 이해를 면하려 한다고만 여긴다.

이제 모름지기 의지(意志)와 취향(趣向), 그리고 덕량(德量)과 재능(才能)에 따라서 한바탕 행동이 방정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니, 어찌 하루 아침에 전부를 변환하여 문득 죽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죽기 쉬운 몸과 바꾸려 한단 말인가?

그대들은 마땅히 독실히 믿고 학문에 뜻을 세워야 하니, 하늘이

46) 아침에 좋다 : 《논어(論語)》의 〈이인편(里仁篇)〉

우리에게 준 것은 원래 선(善)이 있었고, 악(惡)은 없었는데, 이와 같음을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가?

사람이 본래의 마음씀을 무너뜨려 한때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는, 마음에 두지 않고 내버려두어 약삭빠르게 꾸며댄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당초에 등용될 적에 차라리 처음에 수고롭고 나중에 편안할지언정, 처음에 편안하고 나중에 수고롭지 말게 하여야 하는데, 끝내 형통하지 못함도 또한 운명이다.

대저 공론이 이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행동이 방정하고 선량한 사람과 사정(私情)으로 그 당여(黨與)를 비호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를 시험해보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 견조수[堅操守 : 조행을 굳게 지킴]

대저 선비의 청렴(廉)은 여자의 정결(貞潔)함과 같으니, 이는 본분(本分)을 지키고 몸을 닦아 자기를 세우는 일이다. 하물며 조정(朝廷)에서 녹봉(祿俸)으로 관리를 길러줌에 맡기지 않고 밥을 먹게 하며, 베짜지 않고 옷을 입게 하며, 너희에게 군용 물자나 군량 조달, 논공행상(論功行賞)에 필요한 비용을 거두지도 않는다. 장령(將領)은 병사가 명령을 따르고 공을 세우게 하여 이름을 날리고 지위를 보전하여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廉)’이라는 한 글자, 이 본분은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이다. 병사가 매월받는 군량 1석은 또한 이 병사가 의당받아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염출하거나 굶어들이지 말아야 반드시 이를 감사히 여겨 부모(父母)처럼 사랑하고 골육(骨肉)처럼 대하여 엄한 형벌과 가혹한 처벌을 받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대저 매월받는 군량은 의당받아야 할 재물로서 장령이 본분의 일로 이를 지켜주어야 병사들이 감복하는 마음과 죽음으로써 보답

하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인가?

내 이에 대해 문득 말할 것이 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 처자가 헐벗고 굶주리며, 자신은 의복과 음식도 얻지 못함을 면치 못하면서, 또 동료들이 가벼운 가죽옷과 살찐 말을 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다.

지켜야 할 또 그 지력(智力)에 의지해서도 문득 법에 걸리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로써 하고자 하는대로 내버려두어 지켜야 할 바를 무너뜨리거나, 특히 무인의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서 공과 사에 침해하고 간여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

비유컨대, 각 병사마다 군량에 부과금을 매겨서 약간씩을 거두어 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병사들이 사람은 여럿이고 입은 많아서 봉우나 부모와 친척 이웃에게 거둬하여 이 사실을 고하고, 또다시 이 사실이 서로 한 사람씩에게 전해지고, 다시 수십 인에게 전파될 것이니, 어찌 제 귀를 막고 방울을 흠치는 것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총계하여 1년에 취하는 바는 불과 백수십금에 지나지 않는다. 세력 있는 자가 말 한마디로 얻고 글자 한 자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심지를 굳게 다지고 굳게 참고 견디며 뜻을 수고롭게 하고 욕망을 억제하지 않는가? 거친 옷을 입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또한 죽히 배부르고 따뜻하지 아니한가? 시일이 지나서 이름이 드러나면 모두 다 내가 지조가 깨끗하고 힘써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삼군(三軍)도 모두 병사를 사랑하며 어질고 현명한 장수라고 일컬을 것이며, 공을 세워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히 용도가 풍족해질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한 마침내는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문득 뜻밖의 환난이 있으면 사람들이 또한 안타까이 여길 것이다. 하물며 일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면 행해지고 금하면 멈추어져서

명성이 이미 드러나니, 해당 상관이 눈을 씻고 자세히 볼 것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니, 아침 저녁으로 다시 무엇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겠는가?

탐욕스럽고 하는 짓이 더러운 무리들은 평소에 자기 심중에 맞는 뜻을 굽히고 중앙관서의 대(臺)와 성(省)에 이르고자 하여 원수진 사람의 집을 순행(巡幸)하여 허물을 들추어내고 혈뜬어 사실을 날조하여 고해 바친다. 이속한 밤에 문을 두드려 놀라게 해서 거조를 잃으며, 주연을 진설하고 뇌물을 바치면서 애걸하며 달라붙는 꼴이 못하는 바가 없다.

일이 어긋나거나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몸을 망치고 집안이 거덜나며 감옥에 갇히어 곤장을 맞아 생명이 끝나니, 지난날 재물을 거두어들였던 일이 마침내는 덧없는 꿈과 환상이 되고, 이제는 수치와 곤욕을 쉽사리 지나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일찍이 가르쳐도 되지 않고 말을 해도 알지 못하는 부재자(不才子)가 이르기를, “부재에는 이자가 있으나 필요할 적에 편리하다.” 하고, 일에 낭패를 당하고 죽음을 달갑게 여기면서 이르기를 “운명이다.” “운명이다.” 하니, 슬프다! 이는 과연 형세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부재자(不才子)는 진실로 죽히 애석할 것이 없지마는, 또한 지조가 얼음을 먹고 황벽나무를 먹는 것과 같고 지킴이 처녀 같음이 있는 자는 가히 완벽한 그릇이라 하겠다. 그러나, 항상 청렴함을 자처하여 순결하고 고상함을 자부하며 타인을 경시하고 그 결함을 살살이 들춰내며 업신여기고 거슬려서 뒤돌아보거나 꺼리는 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수년전에 변방의 유능한 장수가 이 병이 있어 마침내 명예와 지위를 이룩하지 못하고 끝내 유종(有終)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 하늘이 비록 높으나 청렴한 관리의 자손을 보고 들음이 매우 가까운데, 어찌 본연의 직분을 살피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고상함을 자부하며 타인을 경시한단 말인가?

■ 관도량[寬度量 : 도량을 넓힘]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도량(度量)을 위주로 해야 하니, 도량이 능히 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장(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가(一家)의 주인은 반드시 그 도량이 족히 일가의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자(父子), 형제(兄弟), 친척(親戚), 향당(鄉黨)이 어질다고 일컫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화평(和平)한 기운이 복(福)과 상서(祥瑞)를 이룩하면 움직임에 불길(不吉)함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삼군(三軍)의 주장(主將)이 되어 가지고 수십만의 혈기방장한 사나이들을 거느림에 있어서 도량과 인품을 갖추지 않고서 어찌 각기 그 적소(適所)를 얻게 하여 이들을 부릴 수 있으며, 원망하고 허물함이 없게 할 수가 있겠는가?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이 된 자에게는 상사(上司)인 주수(主帥)가 있으니, 그는 바로 나의 장상(長上)인 아버지나 스승으로서 내가 그를 따르기는 쉽고, 그가 나를 따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료는 형세와 지위가 서로 대등하며, 봉우가 밖에서 이르는 경우가 많으면 양자가 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삼군(三軍)의 우매한 자는 그 무지함이 매우 심하니, 나는 항상 나의 마음을 청정(淸淨)히 하여 털끝만한 사심(私心)이라도 먼저 가지면 안되며, 남이 나에게 사양하여 양보하고 회피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무릇 동료 관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여 처지를 바꾸어서 그 사정을 헤아려 어떻게 해야 옳을지를 판단한다.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여 통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할 경우에는 더불어서 겨루지 말고 늘 한걸음 물러나서 생각하여, 늘 다음으로 미루면서 여유를 두면 자연히 수용될 것이다.

부하 사졸이 공사간에 죄과(罪過)를 범했을 경우에도 또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여 처지를 바꾸어 그 사정을 헤아려 어떻게

해야 옳을지를 판단한다. 한 사람을 태형(笞刑)에 처할 경우에도 10대를 때리면서 6~7대에 이르러서 멈추고 다시 생각하여, 혹은 용서할 것인가 혹은 끝까지 그 수를 채울 것인가를 판단한다.

만약에 예의나 제도에 합당하지 않게 처리되면 반드시 보복(報復)이 있을 것이니, 더욱 당연히 이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 염려되고, 나는 사나움을 격발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 타인이 참으로 나의 타고난 재질이 편벽하다 할 것이니, 거듭 조사하고 거듭 살피면, 바로 이 처분이 반드시 합당하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마땅히 일단 먼저 남에게 양보하면 거의 후회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수의 도리는 위엄(威嚴)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마땅히 위엄을 지켜야 한다. 상관이 비록 존귀하나 일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고, 다투지 않으면 아래로 부하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다. 동료가 비록 친하다 할지라도 법으로는 반드시 다스려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에서 왜곡되고 변경될 것이다.

만약 일률적으로 관용을 베풀거나 마음속에 넣어 두고 참으면서 이를 처리하면, 이것을 이른바 ‘위미(委靡)’⁴⁷⁾ 또는 이른바 ‘피연(罷軟)’⁴⁸⁾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장이나 한 가정의 장도 또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어늘, 하물며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장수를 거느리는 대장(大將)에 있어서랴?

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마땅히 다툼에 역량을 다하여야 하니, 이것은 항거가 아니다. 법령(法令)은 과감히 시행해야 하는데, 어찌 동료를 헤아리겠는가? 이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법령을 과감히 시행하여 죄를 줌에 있어서 어찌 주륙(誅戮)을 마다 하겠는가? 이는 위엄(威嚴)을 행하는 것이지 태도나 행동이

47) 위미(委靡) : 군의 주장이 사기를 쇠퇴하게 하여 진작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함.

48) 피연(罷軟) : 군의 주장이 주견이 없이 나약하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말함.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다.

부하 가운데에 향상(向上)을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분변(分辨)하여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펴서 힘써 행하게 하며, 행동을 함에 도(道)에 부합되게 하여 공업(功業)이 성취되게 하면, 이미 도량이 크고 넓은 인재를 잃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또한 ‘위미(委靡)’와 ‘피연(罷軟)’이라고 지탄받을 근심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 상겸허[尙謙虛 : 겸허를 숭상함]

겸허(謙虛)는 미덕(美德)이다. 미덕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덕행(德行)이 높고 학문에 통달한 사군자(士君子)만 힘써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수된 자가 공훈(功勳)을 처리하는 사이에 처한다는 것은 시기와 의심을 받는 임무를 맡는 것이니,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이익을 얻음이 없고, 겸양(謙讓)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음이 없고, 명예(名譽)를 끝까지 누리고 몸을 보전하여 명절(名節)을 완전히 하기가 어려우니, 겸허(謙虛), 이것이 가장 훌륭한 계책이다.

지금 장수들의 병통은 차라리 위미(委靡)를 가지고 시세를 따르면서 겸허(謙虛)를 위미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겸허와 위미는 크게 다르다. 자기를 낮추어 스스로를 수양하고, 공이 있어도 능히 잊으며, 수고함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 ‘겸(謙)’이라고 하고, 남의 장점을 취하고, 인심을 거두어 승복시키니, 이를 일러 ‘허(虛)’라 하는 것이다.

남에게 덕(德)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이를 사모하고 이를 본받아서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의 장점이라도 나는 반드시 이를 구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무릇 상관(上官)과 동료(同僚)와 속관(屬官)을 만남에 있어서 직분을

다하고 예의를 극진히 하여야 한다. 자기 직분을 행함에 마땅히 부지런히 애쓰고 힘을 다하면, 위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아래에서는 나를 떠받들 것이다. 이른바 ‘말에 원망하고 허물함이 없고, 행동에 재난(災難)과 화환(禍患)이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전장(戰場)에서 누(累)가 생기더라도 사람들이 가없이 여길 것이니, 비록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이름이 남는다.

《주역(周易)》에 ‘오직 겸괘(謙卦)에는 흉사(凶辭)가 없다.’ 하였으니, 옛날의 대장(大將)이 오직 겸(謙)으로 유종(有終)의 미를 거두었다 함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 석관잠[惜官箴 : 관의 법규를 엄수함]

잠(箴)은 바르게 경계(警戒)하는 것이다. 그 관리로서의 직분을 지키는 도리와 때때로 경계해야 할 바를 밝히는 것이다. 세상의 무인(武人)들은 포대기에 싸인 갓난아기때부터 부모(父母)가 그를 매우 사랑하면서 말하기를 “글을 읽지 않게 내버려두어도 벼슬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부모의 잘못이 심하여 탄식함을 이길 길이 없다.

장성하여 지각이 있을 때에 이르러서도 또한 스스로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봉록(俸祿)이 있으니 가난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는 세습되는 관직이 있으니 지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여, 마침내 뒤를 돌아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바가 없기에 이르러, 가문의 영광을 넓히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아울러 결국에는 그것을 잃게 되고 말기까지 한다.

대저 조정(朝廷)으로부터 받은 일명지사(一命之士)⁴⁹⁾에게 맡긴

49) 일명지사(一命之士) : 중국 주(周)나라 때의 관계(官階)는 일명(一命)으로부터 구명(九命)까지 있었는데, 일명(一命)은 이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관계이다. 따라서, 여기에 말하는 일명(一命)은 군영(軍營)의 하급 장교나 군졸을 가리킨 것이다.

임무는 생각건대 사람에게 호령(號令)을 시행하는 것이니, 거기에는 또한 반드시 일정한 체제(體制)가 있다. 하물며 장수가 된 자는 삼군(三軍)의 사명(司命)이니, 삼군을 감독하여 거느리고 이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진력하게 하여, 내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관잠(官箴)을 소중히 여겨서 삼가고 정도를 지키면서 부하를 거느리고 상관을 모셔 몸소 여러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이되고 군사(軍事)가 뒤섞여 어지러워져서 처벌을 받게 되고 형벌(刑罰)이 눈앞에 다가옴을 알지 못하니, 어찌 그것이 바로 이 지위를 보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칠 뿐이겠는가?

우리가 관직에 있으면서는 높고 낮음을 묻지 않고 반드시 사리를 지켜서 서로 따라야 한다. 홀로 있을 적에는 신명(神明)에게 부끄럽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적에는 이 마음에 부끄럽지 않고, 우러러볼 적에는 상관에게 부끄럽지 않고, 굽어볼 적에는 동료와 못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관청에 출근할 적에는 공식 석상에서 부끄럽지 않으니, 그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 근직업[勤職業 : 직무에 충실함]

옛말에 이르기를 “오직 부지런히 일해야 공(功)이 있다.” 하였다. 직위(職位)의 높고 낮음과 기예(技藝)의 훌륭함과 하찮음을 막론하고, 장사꾼이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농부(農夫)가 부지런히 일하면 수확이 풍족해지며, 공장(工匠)이 끈이 부지런히 일하면 기물(器物)이 정밀해져서 각 가정에 공급된다. 선비가 부지런히 일하면 덕이 진취되고 학업이 닦아지며, 일명지사(一命之士)가 직분에 부지런히 힘쓰면 직무가 정돈되고 이름이 드러난다.

장수된 자의 도리는 국경의安危(安危)와 삼군(三軍)의 생사(生死)에 관계가 된다. 비유컨대 농부가 밭을 가꿈과 같아서, 봄에는

깊이 갈고 거름을 많이 주어 때맞추어 심고, 여름에는 김매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며, 가을에는 마침내 수확을 해야 하는데, 홍수와 가뭄과 병충해를 오히려 예측할 수가 없다.

가령 여기에 좋은 밭이 있는데, 봄에 겨우 씨만 뿌려 놓고서 갈지도 않고 김을 매지도 않으며, 거름을 주기에 힘쓰지도 않으면서 다른 농부와 똑같은 수확을 하려고 생각하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군중(軍中)의 일에 있어서는 먼저 부지런히 수고하여 교련(敎鍊)을 하고, 성과를 이루어 때를 기다려서 써야 하는 것이다. 대비를 걱정함[恐備]이 오래되면 손실이 생기고, 기(氣)가 오래되면 쇠퇴한다. 만약 한갓 지키기만 견고히 하면서 싸워서 이기고자 한다면, 이것은 바로 발갈지 않고 김매지 않으면서 수확을 바라는 자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장수된 자는 반드시 지키는 바의 강역(疆域)을 시시(時時)로 마음에 담아두고, 군사(軍士)가 질병(疾病)과 환난(患難)을 당하거나, 또는 잘못이 없이 고초를 당할 경우에는 때때로 방문하여 캐물어서 들은 바가 있으면 그 정상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군기(軍器)는 때때로 좋고 나쁨을 가려 조사하여 단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바로 수리하도록 한다. 행오(行伍)를 단속함에 있어서도 때때로 조사 점검하여 단 한 가지라도 문란하면 바로 이를 바로잡아 재편한다. 봉화(烽火), 초보(哨報), 성지(城池), 장원(牆垣)의 경우에도 약간의 여가가 있으면 일차 순행(巡行)을 하여 눈으로 본 바에 따라서 바로 수선하게 한다. 공문과 관부(官府) 문서는 수시로 검사하여 단 한 가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면 그 배고픔과 수고로움을 잊고 반드시 끝을 내게 하여야 한다.

군기(軍機)와 관련된 사무는 주야를 불구하고 반드시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하게 하되, 이와 같이 행함에 이미 숙달되면 자연히 그 수고로움을 잊어서 정밀하거나 거칠거나 크거나 작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일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갚출 수 있으니, 자연히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될 것이다.

만약 처자의 즐거움과 잔치 자리에서 술마시는 쾌락을 돌아보아 모든 것을 지연하고 폐기시켜서 태만히 하다가 갑자기 변란을 당하면 손을 묶고 죽음을 당하여 거리의 귀신이 될 것이니, 이는 스스로가 취한 결과인 것이다.

■ 변효법[辨效法 : 효과가 뛰어난 법을 분별함]

옛말에 이르기를 “법(法)을 상(上)위에서 취하면 가까스로 그 중(中)을 얻을 수 있고, 법을 중(中)에서 취하면 죽히 책략(策略)이라 할 것 없으니, 이것은 하(下)이다.”라고 하였다.

하물며 병사(兵事)는 반드시 실제의 사이에서 구하여야 하는 것이니, 본받아서 효과가 뛰어난 법을 분별함이 옳겠는가?

장수가 된 자는 무엇을 가지고 인재(人材)를 취할 것인가? 반드시 경전(經傳) 가운데에서 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옛 성현(聖賢)이 남겨 놓은 말과 행동, 그리고 역사책의 분량이 방대하니, 어찌 무변(武弁)이 능히 조사해서 익힐 바가 되겠는가? 이에 관한 책으로 다행히 《백장전(百將傳)》이 있다. 그들의 인품(人品)과 심술(心術)과 사업(事業)은 모두 이미 대략을 보아, 내가 그 확실하게 연마하여 익혔다.

매 한 장수의 전기마다 그 용병(用兵)한 사실만을 익히지 않고, 무릇 사람됨과 마음 가짐과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익혀서 전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순직하고 충성스런 행실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덕을 스승으로 삼았다. 용병(用兵)의 기모(機謀)에는 능하지 세가 험한 요새를 지키는 데에는 능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방도를 스승으로 삼았다.

아무 장수가 패전하였는데 그것이 스스로가 취한 것이라면 그것을 거울로 하여 경계로 삼았다. 아무 장수가 충직하고 청렴하며

지혜롭고 용감하여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화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 행실을 스승으로 삼았다. 진실로 그 화가 없었으면 이는 바로 내가 만난 바의 행운이니, 바로 뜻하지 않은 화가 있었음은 옛사람도 그랬었던 듯하다. 그러니 내 어찌 이를 <스승으로 삼기를> 피하겠는가?

고금(古今) 제자(諸子)의 글과 역사류의 책에 실린 고금 병법의 장수 선발과 군사 교련 따위를 가려서 취하여 열람하여 식견을 넓히면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스승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심(眞心)을 다하여 본받아 나아가면 자연히 명예(名譽)와 절조(節操)를 완전히 하고 공업(功業)을 세워서 고인(古人)이 받았던 것과 같은 영화로운 대우는 있을 것이나, 고인이 받았던 것과 같은 재앙과 환난은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문권(文券)으로써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니 낭설(浪說)이 아니다.⁵⁰⁾

▣ 정병법[精兵法 : 병법에 정통함]

용병(用兵)에 법칙(法則)이 있는 것은 마치 의술(醫術)에 처방(處方)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반드시 외우고 익힌 뒤에 체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지(機智)가 영민(穎敏)한 사람은 인하여 이를 미루어 그 뜻을 본뜨되, 그 발자취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마침내 백번 싸워서 백번 이겨서 명장(名將)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의 법도 익히지 않고, 글자 한 자도 알지 못하면서, 한 가지 일도 거치지 않고서 어떠한 방법이 적합한가를 깨우치는 데에 능하여 변화(變化)와 운용(運用)을 무궁(無窮)하게 할

50) 이는 아니다 : 이 대목은 중국본(中國本) 《연병실기(練兵實紀實記)》〈변효법(辨效法)〉의 원문 “此可以券取影隨 非浪說也”를 참조하여 뜻을 보충한 것임

수 있는 자는 없다. 만약에 있다면, 이는 또한 실제로 전진(戰陣)에서 듣고 보기를 두루 하고나서 시일이 오래되고 나서야 마침내 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고서는 단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고인(古人)의 병법(兵法), 예컨대 《칠서(七書)》의 등속은 병사(兵事)에 관해서는 바로 약가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약가계에 약제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오금(五金)과 팔석(八石), 또는 초목(草木)과 인충(鱗蟲)처럼 없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사(兵事)에 관해서는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병환이 어떤 증상이며 어떤 약이 적합한가를 알 수는 없다. 반드시 의사가 그 병세를 살펴보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써야 될 약을 가게에서 가져다가 쓰면 효과가 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오진을 하고서 함부로 약을 먹여서 병이 낫지 않으면, 장차 그 죄를 약에게 돌리면서 약에 효험이 없다고 한다.

장수가 된 자는 반드시 먼저 병사(兵士)와 대오(隊伍)의 실정, 산천(山川)의 형세를 알고, 적의 동정(動靜)을 정찰해야 한다. 이는 의사(醫師)의 문병(問病)이나 진맥(診脈)과 같은 것이다. 가령 병사와 대오의 실정, 산천의 형세를 두루 알지 못하고 적의 동정을 조기에 정찰하지 않고서 그 죄를 병법에게 돌린다면 이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대저 사람이 어렸을 적에 이를 배워서, 다시 마땅히 나이먹고 건장해졌을 적에는 명장(名將)의 문하(門下)에 이르러서 실제의 경우에 처하여 바야흐로 병법(兵法)을 알아서 유용히 쓰게 된다. 바야흐로 능히 병법을 변화하여 일을 행하여 조처를 취할 수 있을 즈음에 장령(將領)으로 임명되어, 전장의 일을 맡아 해마다 북채와 북을 들면, 실제의 경우에 처하여 병법을 배웠다고 이를 수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그 용맹(勇猛)하고 영웅(英雄)스러움을 자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배울 기회를 잃어 문자(文字)를 해독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법(兵法)은 모르나 실용

(實用)에는 도움이 있어서 마침내 버려두고 병법 강설(講說)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저 자질이 있어서 연습할 수 있는 자는 실제로 시행해 볼 장소가 없고, 실제로 시행해 볼 장소가 있는 자는 또 배울 수 있는 자질이 없으니, 어찌해야 완전한 인재를 얻어 간성(干城)의 그릇으로 만든단 말인가?

이후로 장병 가운데 문자를 아는 자는 겨울철 밤이 길 적에 마땅히 병법(兵法)을 가지고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 몇 장씩 보게 하고, 잠잘 적에는 침상에서 연습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음날 다시 먼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도록 하여 스스로 감당하여 얻음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글을 모르는 자는 단정히 앉아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글을 아는 무리 또는 글에 통하는 선비로 하여금 낭송하게 하여 몇 장을 읽어주어 그 대강을 살피게 하고, 다시 강설을 하도록 한다. 침상에 가서도 또한 연습을 하게 하면 자연히 얻음이 있을 것이니, 누가 배우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옛사람이 이른바 “책을 펴서 읽으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 하였고, “학문은 사람을 그릇되게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참으로 그렇도다.

하물며 변방 전장을 맡긴 임무가 매우 중대하니,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어떻게 이러한 임무를 걸머지고 감당한단 말인가? 이러한 임무를 맡은 자들은 이것을 생각하라.

■ 습무예[習武藝 : 무예를 익힘]

대저 장수는 진실로 깃발과 북을 관장하는 것을 직무로 삼는다. 적과 서로 대치함에 이르러서는 영루(營壘)를 배열하고 진퇴(進退)를 결정한다. 그러나 몸소 앞장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분발하지 않으면 앞에 나간 군사가 거짓으로 꾸며대 속여서, 상벌(賞罰)이 이로 말미암아 분명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여러 병사들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만약 몸소 앞장서 나아가려 한다면, 자신에게 정통한 무예(武藝)가 없고 담기(膽氣)가 굳세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 병사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병사들이 무예로 적을 이기는 것은 독찰(督察)하고 책벌(責罰)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지키고 공을 세우는 기본을 모르고서 태만과 안일을 좋아한다. 그리하여 교련(敎鍊)을 하려 하면 반드시 좌우에 있는 교사(敎師)의 고하(高下)를 정한다. 이 때문에 교사가 그 사이에서 쉽사리 낮추었다 높였다는 반복하여 얼르고 당기며 두드려서 기만하는 수단으로 삼으니, 병사들은 마음으로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기예(技藝)를 배움이 참되지를 못한 것이다.

삼군(三軍)의 무예에는 정통의 기술인 정법(正法)과 걸치레로 꾸며대는 허울좋은 동작인 화법(花法)이 있다. 산림(山林)지대나 지세가 가파르거나 험하여 막히거나 끊어져 있는 곳에서 아군 수 명이 적군 수 명과 싸우는 것도 하나의 기예(技藝)이다. 평원(平原)이나 광야(曠野)에서 아군 만 명이 적군 만 명과 싸우는 것도 하나의 기예이다. 이 때문에 기예는 하나이나 그 용법(用法)은 같지가 않다.

산림지대나 지세가 가파르거나 험하여 막히거나 끊어져 있는 곳에서 적군의 수효가 적고 아군의 수효가 많으면 사람마다 각각 자신의 기예를 발휘하여 나아가고 물러남과 방향의 전환에 각자 그 편의에 따른다. 오직 미리 명백히 지시를 받고 뒤따라 나아가는 자들은 앞에 나아가는 대열의 기예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된다. 그러나 진퇴에 있어서 잘못 패퇴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분변해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적이 수만 명의 군사로 몰려들어 그 형세가 마치 별때처럼 부대를 밀집시켜서 일보 전진을 할 경우, 이동하거나 물러나서는 안된다. 한사람이 진퇴의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후미 부대와 측면의 부대가 패퇴하면 뒤따라 대군의 예기가 손상되어 덩달아 달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 운용이 똑같지 않으며, 그 익힘도 각자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주장(主將)이 이 여러 가지 기예(技藝)의 익힘을 모르고서 어떻게 여러 기예의 정법(正法)을 알겠는가?

눈앞에 화법(花法)이 뒤섞여서 그 가운데에 화법이 들어가 반드시 정법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니, 갑작스러운 변화와 혼란에 있어서 그 관계되는 바가 어찌 소소하겠는가?

장수된 자의 도리는 이른바 ‘몸소 사졸들보다 앞서서 간다.’는 것은 전진(戰陣)에 임해서만이 아니라 일체의 고난에 처해서도 또한 당연히 몸소 사졸들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고락을 함께한다는 것은 환난을 당했을 때만 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또한 함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기예를 어찌 사졸로 하여금 홀로 익히게 하고 주장은 이를 소홀하게 본단 말인가?

나라에 평화가 계속된 이래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어찌다 한 번 군장(軍裝)을 갖추면, 얼굴은 붉기가 주사(硃砂)를 바른 것 같고, 충을 잡으면 부끄러워서 웃기를 마지 않는다.

주장이 진실로 능히 무예(武藝)를 익히고 연습하면 모든 아랫사람이 어찌 감히 부끄러워하고 의혹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동요하겠는가?

그 누가 이르기를 ‘지위와 권세가 저와 같이 높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우리가 또 무엇을 의심하여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단 말인가?’라고 하지 않겠는가?

순식간에 사졸의 훈련이 흥기(興起)하여 마치 수풀처럼 되리라. 그러면 그 누가 이르기를 ‘한 가지의 기능, 한 가지의 무예는 주장

(主將)이 탐탁하게 여길 바가 아니다.’라고 하겠는가? 부문을 나누어 기능을 익히는 자는 병사(兵士)로서 그 장점과 단점이 서로 뒤섞이니, 그 형편에 따라 섞어서 운용하는 것은 주장(主將)이다. 주장이 이를 익히지 않고 정예해지려고만 하니, 어찌 능히 아무 병기(兵器)를 아무 용도에 써야 하고, 아무 형체(形體)를 아무 병기에 써서 앞뒤에 충당해야 함을 변별(辨別)할 수가 있겠는가?

쌍방이 무력(武力)을 비교하여 적이 이기면 이는 병사의 책임이 아니다. 때를 당하여 사용할 줄을 몰랐으니, 평일에 그 정밀함과 거칠음과 미려함과 질이 나쁨을 변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유사(有司)에서 기기(器機)를 만듦에 그 용법(用法)을 알지 못하고, 주장도 또 기예(技藝)의 법식(法式)에 숙달되지 못하고서 곧장 병사에게 맡긴다. 이는 글자는 하나도 모르면서 눈을 감고 글을 외우기만 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으면 병기의 기예가 반드시 정예롭지 못할 것이다.

조조(晁錯)⁵¹⁾가 이르기를 ‘병졸들을 적에게 내어준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또한 믿을 만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주장은 또 한사람을 대적하는 기예라 하여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서야 되겠는가?

평시에 기기(器機)는 반드시 주장이 건건마다 일체를 몸소 익혀서 여러 병사의 장기(長技)를 겸해서 익혀야 한다. 이미 익히면 능히 분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두루 살펴야 바야흐로 사졸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첩경(捷徑)의 법식(法式)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말고, 백 가지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를 뽑아서 시험하라.

이는 바로 삼군(三軍)의 생명이 관계되는 바요, 국가 변방의 안위와 관련되는 바이니, 설사 단 한 가지의 흠결이라도, 단 한사람의

51) 조조(晁錯, ?~BC 154) : 중국 전한(前漢)의 정치가. 대흉노(匈奴) 정책으로 둔전책(屯田策)을 주장하고, 그 재정적 확보를 위해 곡물납입자에게 벼슬을 주는 매작령(賣爵令)을 주장하여 채용되었다. 대제후(諸侯) 정책으로는 영지의 삭감을 주장하여, 오초7국(吳楚七國)의 난을 유발하였다. 정적인 원앙(袁盎) 등이 반란을 일으킨 제후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를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장안에서 사형을 당하였다.

실수라도 여러 사람이 받는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위엄과 노고의 무거움을 아깝게 여겨 이를 생략한단 말인가?

다른 화기(火器) 등의 기구는 군중(軍中)에서 이용하여 그 품종(品種)과 제도(制度)의 분야가 많고, 하나의 병기를 운용함에도 그에 딸리는 물품들이 여러 종류이니 정밀하게 갖추어지기가 가장 어렵다. 장수된 자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믿고 있는 실재(實在)와 스스로 알고 있는 숙련됨만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사(舟師)의 군기(軍機)에 이르러서는 마필(馬匹)을 사양(飼養)하여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장수가 관장하는 일로서 한 가지 일을 모르면 한 가지 일이 폐해진다.

오늘날의 장수된 자는 젊은 나이에 무예(武藝)를 익히지 않고서 대장(大將)이 되어 등단(登壇)하기에 이르러서는 핑계를 대기를 “무예를 공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대저 기예(技藝)를 강구하는 데에는 노소가 없다. 교사(教師)를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각 기예마다 교장(敎場)에 가서 배우지 않고서도 불과 열흘의 공력(功力)만으로도 그 대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졸들이 이를 듣고 스스로 분발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몸소 솔선수범하는 방도이다.

이렇게 하면 반년 안에 어떤 병기이든 그 법식을 체득하지 못할 것이 있겠으며, 법식을 체득하고서 병사들을 거느리는데 병사들이 정예롭고 강해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 정명분[正名分 : 명분을 바르게 함]

대저 군중(軍中)에서 반드시 다투어야 하는 것은 군례(軍禮)이다. 군례는 무엇인가? 명분(名分)이다.

병법(兵法)에 ‘많은 것과 싸우기를 적은 것과 싸우듯이 한다.’는 것은 기(旗)와 북을 울려서 여러 가지 군대의 행동을 호령하는 신호법인 형명(形名)이 그것이다.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적과 마주하여 명령을 씌운 평일(平日)에 예(禮)가 있음과 관계되는 것이다. 예는 법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아랫사람은 이 예를 통해서윗사람을 위해 죽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일이 급박하면 은혜를 펴쳐 전진에 맞닥뜨려 적을 죽이게 되는 것이니, 이 모두가 마음먹고 구하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치 양떼를 몰아서 혹은 가게 하고 혹은 오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익혀서 평소부터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근일에는 무예(武藝)의 교습(敎習)이 분명치 못하여 행오(行伍)를 느슨하게 풀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관(上官)이 급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 억지로 하게 해서 원망을 받는 일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례(軍禮)가 흥기(興起)되지 않음이 오래되었다.

예(禮)가 일어나지 않으면 명분(名分)이 바르게 되지 않을 것이고,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신발이 갓을 덮게 될 것이니, 팔이 어떻게 손가락을 부릴 수 있겠는가?

오늘의 법(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먼저 군사들로 행오를 편성하고 두 번 세 번 명령을 거듭 발포하여 기한을 정해서 교장(敎場)에 모이게 한다.

주장(主將)은 이를 감독하여 병졸로 하여금 꿰어앉아서 대장(隊長)의 명령을 듣게 한다.

명령은 오직 말로써 행하되, 조금이라도 저촉했을 경우에는 즉시 매로 치는 벌을 시행하고, 죄가 중할 경우에는 그 귀를 뚫거나 벤다.

무릇 병사(兵士)가 대장(大將)을 고발한 경우에도, 반드시 먼저 군법(軍法)으로 매를 친 다음에 추궁한다. 그러나 상관이 부하를 침해하여 위해를 가한 침극(侵克)의 경우는 금지하는 예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침극을 당했다고 건강부회하여 자기 소속부대의

상관을 위해하려고 기도한 자는 군법(軍法)으로 다스린다.

대(隊)의 병졸이 범법을 하면, 대장(隊長)도 여기에 연좌되어 모두 죄를 받는다. 대장이 사졸을 통솔할 적에는 또한 반드시 고락을 함께하는 정을 다하여야 한다.

대장이 기총(旗總)을 받드는 것도 또한 이와 같고, 기총이 초관(哨官)을 받드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초관이 파총(把總)을 받드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며, 파총이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을 받드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위의(威儀)와 명분(名分)이 이미 조석(朝夕)으로 분명해지면, 하루 아침 사이에 영루(營壘)에 임하여 편장은 파총에게, 파총은 초관에게, 초관은 기총에게, 기총은 대장에게, 대장은 사졸에게 손을 들어 한번 흔들에 그 누가 명령을 따르지 않겠는가? 한 번 노(怒)하면 삼군(三軍)이 두려워할 것이다.

무릇 각각 서로 한 등급 위에 있는 상관이 부르면, 파총은 감히 편장이나 비장을 버리지 못하고, 초관은 감히 파총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기총은 감히 초관을 버리지 못하고, 대장은 감히 기총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사졸은 감히 대장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감히 버리지 못할 뿐이 아니요, 또한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손가락이 팔로부터 명령을 받고, 팔이 몸으로부터 명령을 받듯이, 이를 행함이 자연히 익혀서 이루어진 바가 있으니, 군례(軍禮)가 다툼과 관계됨이 어찌 절실하지 않다 하겠는가?

그러나 삼감으로써 명분(名分)을 지켜야 하니, 정의(情義)가 자못 현격(懸隔)하여, 모름지기 명분 사이에서 연속(聯屬)의 도(道)를 짚하고, 존엄(尊嚴)한 지위에서 환난을 함께하는 정이 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랫사람이 위사람을 섬겨서 높이고 가까이 하며, 위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려서 기뻐하게 하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도 헤아리지 않고 뛰어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애사졸[愛士卒 : 사졸을 사랑함]

장수(將帥)는 배와 심장이고 사졸(士卒)은 손과 발이다. 장수가 진실로 용감하여 힘으로 적과 상대한다 하여도 불과 몇 사람이 그 한계이다. 수십만의 무리는 한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으니, 반드시 사졸에게 의뢰하여, 생사를 함께할 것을 맹세하고, 용기를 뽐내어 적의 예봉(銳鋒)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병법(兵法)에 ‘병사를 사랑하기를 마치 갓난아기에게 하듯이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옛사람이 병사(兵士)의 종기를 빨아주었는가 하면, 애첩(愛妾)을 죽이고 주식(酒食)을 베풀어 사졸들을 먹이고, 강물에 술을 쏟아 함께 그것을 맛보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어떠한 행동인가?

지금의 장령(將領)들은 이와 같이 미루어 생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병사들로 하여금 가마를 메게 하거나, 병사들로 하여금 밥을 지어서 바치게 하거나, 병사들로 하여금 하인의 일을 하게 한다. 병사가 죽어도 애석히 여기지 않고 병사가 헐벗고 굶주려도 위문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재물을 부과하여 거두어 들이고, 월량(月糧)을 깎아서 줄이고, 가는 곳마다 먼저 좋은 쉼 곳을 골라 자기만 편안히 잠을 잔다. 장령(將領)은 이미 깊이 잠들었는데 병사들은 오히려 사통팔달의 대로상에서 헐벗고 굶주림에 호곡하며, 장수는 밤에 좋은 침상에 누워서 심지어 비녀(婢女)를 품에 끼고 자기도 한다.

이 가지가지는 하나하나 들어서 다 말할 수 조차 없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병사들과 생사를 같이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사졸들은 비록 어리석으나 가장 쉽게 감동하고, 죽음과 삶은 비록 중대한 일이나, 한마디의 말과 한 가닥의 은혜에 죽기를 달게 여겨 사양치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장령이 갖가지로

사려를 베풀었는데도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째서인가? 어리석은 사졸들은 마음에 여러 가지 갈래가 없어서, 또한 군법(軍法)으로 몰아부치면 쉽사리 선(善)한 길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사졸의 무리를 거느림에 있어서 내가 어찌 능히 한사람 한사람에게마다 일일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는가? 오직 내가 진정으로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서로 눈으로 보고 느껴서, 진실로 한사람 한사람에게마다 반드시 일일이 은혜가 미치지 않았는데도, 그런 다음에는 이를 일러 사랑이라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이 행해지고 은혜가 뭉쳐지면 힘이 가지런해지고 사기가 분발되어 만인이 한마음이 되니, 어떤 적인들 이기지 못하겠는가? 공을 이루고 이름을 세우니, 그 빠르기가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 교사졸[敎士卒 : 사졸을 가르침]

병사(兵士)를 사랑하면 그들은 나와 더불어 죽음과 삶을 함께 하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을 가르쳐서 <무예를> 익히게 하지 않으면, 이는 또한 병사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랑하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새나 송아지의 사랑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예의(禮儀)와 명분(名分)과 행오(行伍)와 진퇴(進退)와 영진(營陣)과 무예(武藝)는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한갓 어른을 가까이 하고 윗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뿐이요, 어른을 가까이 하고 윗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젓먹이 강아지가 호랑이를 공격하고, 앞드린 닭이 살쥔이를 친다.’는

것으로, 비록 싸울 마음은 있으나 곧바로 죽을 것이니, 이는 한갓 우리의 병사들을 어육(魚肉)으로 만드는 일일 뿐이다.

만드시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을 주는 규정을 내걸고, 엄중한 형벌(刑罰)의 위엄(威嚴)으로 돕게 하며, 먼저 명분(名分)을 바르게 하고 위엄 있는 거동과 예법에 맞는 몸가짐을 익히게 하면 상하가 질서정연하게 바로 잡힐 것이다. 그런 다음에 호령(號令)을 내려 교장(敎場)에서 조련(操練)하고 무예(武藝)를 훈련하여 아침 저녁으로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 외 지혜를 갖추게 하면, 바야흐로 사람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 적이 없게 되는 것이다.

■ 적은위[飭恩威 : 은혜와 위엄으로 단속함]

까마귀떼와 같이 훈련도 없이 모인 오합지중(烏合之衆)은 상하가 서로 가깝지 않아서 상벌(賞罰)이 없으면 손자(孫子)나 오자(吳子) 같은 명장이라도 이를 거느릴 수가 없다.

상(賞)은 오로지 황금과 비단을 주는 은혜(恩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벌(罰)은 오로지 도끼와 칼날의 위엄(威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금(千金)의 상을 주고도 권면(勸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약간의 금전도 들이지 않았는데도 윗사람의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줌에 마음이 감동되어 따뜻한 솜옷을 입혀준 것과 같이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한사람을 상주었는데도 천 사람 만 사람이 기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 목을 베는데도 뒤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어(言語)의 위엄(威嚴)을 두려워하기를 칼과 톱을 보는 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벌(罰)이 몇 사람을 처벌하는 데에 그쳤는데도 천 사람 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기(機)’가 있으니, ‘기(機)’란 무엇인가? ‘정(情)’이다.

이(理)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정(情)은 이(理)에 통하니, 상(賞)을 주면 여러 사람의 정(情)에 기뻐하는 바가 있고, 벌(罰)을 주면 여러 사람의 정(情)에 싫어하는 바가 있다.

혹은 거듭거듭 밝혀서 알려주고 귀를 잡아당겨 얼굴을 마주하고 가르쳐 주어서 사람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과 벌의 까닭을 알게 하므로, 감격하는 마음이 발동하면 상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망을 멈추게 된다.

은미(隱微)하도다! 은미하도다! 상벌을 씀이 바르면 성인(聖人)이 이른바 ‘왕도(王道)와 인자(仁者)의 일’이 되는 것이요, 상벌을 씀이 바르지 못하면 성인이 이른바 ‘오패(五霸)와 지자(智者)의 일’이 되는 것이다.

■ 엄절제[嚴節制 : 절제를 엄격히 함]

대저 병(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십 수백 명의 병력을 운용하여 마음대로 야전(野戰)을 함에 있어서 폭풍우와 같은 형세 떨치는 경우이다. 벌을 가하지도 않고 법으로 다스리지도 않으면서 말 한마디로 전하여 부르고 멈추게 하기를 절제(節制)가 없이도 할 수가 있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바로 이것이 절제인 것이다.

또 하나는 수만 명의 군사를 평원(平原)과 광야(曠野) 사이에 대규모로 배치해 놓았을 경우이다. 법(法)이 분명하고 군령(軍令)이 자세하며, 움직임과 멈춤에 법칙이 있어, 강한 자로 하여금 홀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약한 자로 하여금 홀로 후퇴하지 못하게 한다. 우뚝하기가 산악(山嶽)과 같아서 흔들어떨 수가 없고, 흐름이 강하(江河)와 같아서 막을 수가 없다. 비록 어지러운 듯하나 오히려 질서 정연하여 수많은 싸움에서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승산(勝算)이 정해져 있어 완전히 적을 제압하니, 절제(節制)를 버려두고서는 반드시 군사를 거느릴 수가 없는 것이다.

절제란 무엇인가? 비유컨대 대나무에 마디가 있음과 같다. 절도(節度)하고 제재(制裁)하므로, 대나무가 비록 몇 길의 줄기를 뽑아 올려도 곧게 서서 굽히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군사가 비록 많으나 백만의 사나이를 마치 한사람처럼 통솔하니 행동거지가 혼란하지를 않는다.

절제의 과정은 십(什)과 오(伍)에서 시작하여 대(隊)와 초(哨)에 이른다. 대와 초에서는 부곡(部曲)에 이르고 부곡에서는 영(營)에 이르며, 영(營)에서는 대장(大將)에게 이른다. 하나의 마디[節]는 다른 하나의 마디를 서로 절제(節制)하니, 마디와 마디의 구분이 분명하여 추호도 저촉할 수가 없다.

징과 북은 각각 용도가 있어 소리가 서로 뒤섞이지 않으며, 깃발은 각각 용도가 있어 색깔이 서로 뒤섞이지 않아서 사람마다 익힘이 분명하고 사람마다 삼가서 지키니, 차라리 이 몸을 버릴지언정 이 군령(軍令)을 감히 지키지 않고 이 명령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 절도(節度)를 감히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으니, 죽음을 보기를 쉽게 하고 군령을 보기를 높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만인을 한마음으로 만드는 효과를 거두어 반드시堂堂(堂堂)한 무적(無敵)의 군대가 되어 변방의 요새에서 이를 운용하면 밖에서 강한 오랑캐를 저지할 것이고, 국중(國中)에서 이를 운용하면 안에서 도적의 난리를 깨끗이 소탕할 것이니, 온 나라에 위태로움이 없고 모든 싸움에 실패함이 없을 것이다.

■ 변직수[辨職守 : 직무 수행을 분변함]

천지(天地)의 도리(道理)는 오직 음(陰)과 양(陽)이며, 치세(治世)의 도구는 오직 문(文)과 무(武)이다. 문과 무는 음양(陰陽)의 뜻이다. 그러므로 다스려짐과 혼란함이 서로 연속되고 음과 양이 운명을 교차하여, 문과 무를 병용하면 마침내 서로 구제하여 성취함이 있는 것이다.

옛날 하(夏)나라와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의 삼대(三代) 이상을 상고하면, 정전제도(丁田制度)가 일어나고 병(兵)과 농(農)이 하나가 되어 있었으며,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5등급에 달하는 제후(諸侯)의 봉작(封爵)이 있었으나 문과 무는 구분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밖에 나가면 장수(將帥)가 되고 안에 들어오면 사보(師保)가 되어 음성과 기상이 이미 같고 공적의 효과가 많았었다. 그런데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 백성은 편안히 살 곳이 없었고 병졸은 늘 징발되어 정전제도가 폐지되고, 병과 농이 나누어 졌다.

마침내 손자(孫子)와 오자(吳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일가(一家)의 학설을 세우고 특별히 군용(軍容)을 갖추어 인민(人民)과 사직(社稷)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문과 무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문호(門戶)가 점차로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진(秦)나라는 군현제도(郡縣制度)를 실시하고 한(漢)나라가 동성(同姓)의 제후(諸侯)를 분봉(分封)하였으며, 당(唐)나라는 번진(藩鎮)을 설치하였다. 역대의 연혁(沿革)이 비록 각각 한때의 폐단을 거울로 삼았으나 그릇되게 변경하기도 했으며, 백성을 통치하고 외침을 막아냄에 있어서 제도가 진실로 같지를 않았다.

그러나 또한 문무(文武)의 계급이나 직함(職銜)은 오히려 서로 더해져서 명목과 뜻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길의 갈라짐이 분명하지를 않았다. 그리하여 군용(軍用)의 기계(器械)와 군량을 조사하는 자들이 오히려 힐책(詰責)을 하고, 일이 다스려진 뒤에 주장(主將)이 된 자를 들추어내어 일에 연좌(連坐)하여 낭패시키고, 의논에 있어서는 권세에 따라 항상 서로 율타리가 되어 부동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唐)나라 때 오원제(吳元濟)가 일으킨 채주(蔡州)의 난을 평정한 공은 오직 이소(李愬)가 결단을 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송(宋)나라가 서자 국본(國本)인 국방력이 약해지고 유학(儒學)이 또한 뒤따라서 여러 갈래로 분파되었는데, 나뉜 것은 결코 합칠 수가 없었고, 합친 것도 또다시 나뉘었다.

우리 명(明)나라에 이르러서 무공(武功)으로 몽고(蒙古) 오랑캐를 쫓아내고 천하를 회복하였다. 그리하여 한때 군대를 지휘하던 자들이 곧잘 전공(戰功)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뒤섞여서 어지럽고 혼란하여 일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방비하고 큰 것을 우려하여 군정(軍政)을 견제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2백 년 이래로 평화가 계속되어 문(文)과 무(武)의 구별이 날로 달라지고, 당파(黨派)가 나누어져 다스려졌다. 뿐 아니라, 또한 자기와 다르다 하여 공격하고, 다만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영루(營壘)에 나가는 일만 장령(將領)과 병사의 책임으로 하였다. 군량(軍糧)과 상벌(賞罰)을 조종(操縱)하고 주고 빼앗는 등의 섬세(纖細)한 일은 모두 유사(有司)에게 맡기었다. 기구(器具)와 행오(行伍)와 법령의 교수(教授)에 관해서도 문신(文臣)이 또한 그 제정에 참여하니, 이해(利害)에 관계가 없었으므로 문과 무의 형세가 나누어져, 음(陰)과 양(陽)의 뜻이 서로 대립 구분되어 상호 보완의 실재가 상실되었다.

생각해 보건대, 조정(朝廷)이 관직을 설치하고 구분한 것은 밖으로는 백리지경을 다스리는 현령(縣令)과 오백리지경을 다스리는 군수(郡守)와, 위로는 지방을 두루 순시하면서 국가의 교화를 펼쳐서 보여주는 관사(官司)와 사기(士氣)를 격려하고 선양(宣揚)시키는 직임을 두었는 바, 이는 모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모든 장사들은 말을 달리고 고기를 먹으며, 병부(兵符)를 쥐고 관문(關門)을 지키며, 그 통솔하는 군졸은 발갈지 않고 밥을 먹고, 베짜지 않고서도 옷을 입는다. 농상(農商)의 세과(稅課)를 징수하여 공양(供養)을 삼으니, 풍우(風雨)를 불문하고 편안히 앉아서 양식을 소비한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그 힘을 이용하여 유사시의 하루 아침에 혼란함을 제거하고 포악함을 평정하면 민생

(民生)이 온전해지고, 민생이 온전해지면 국본이 안정되기 때문이니, 이 또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과 무의 직무는 다르고, 맡은 바 정무의 방식은 비록 다르나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금 그 방도를 돌이켜보는 자는 다만 내가 군사(軍士)를 통어(統御)한다는 것만을 아는 데에 그친다. 그 백성을 보호한다는 뜻을 막연하게 살피지 않고서, 대부분 사사로운 정리를 따라 편애(偏愛)를 한다. 그래서 항상 지방에 당도하면 병사들이 지방의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 급기야는 일을 저질러 관부(官府)에 이르면 병사의 편을 들고 백성을 외면하여 군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만드니 기율(紀律)이 바로잡히지 않아 백성들이 실망한다.

전진(戰陣)에 맞닥뜨렸을 적에는 적을 쳐서 이겨 환란(患亂)을 평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평민(平民)을 죽여 적의 수급(首級)이라고 속여서 바친다. 적을 피해서 온 집을 겁박해서 식량을 충당하고, 난을 당한 부녀(婦女)를 간음(姦淫)하며, 패전한 것은 은폐하여 거짓으로 꾸며대어서 속이고 거짓말을 늘어놓아 허위로 공적을 조작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혹시 사람의 주벌(誅罰)을 모면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에 문관(文官)의 직책에 있는 관리가 무부(武夫)들의 대책 없음을 모욕하고 군사들 보기를 원수와 같이 여길 것이니, 모든 군(軍)과 민(民)이 관계되는 일은 일체(一切)가 매우 심각하다.

장수가 부민(部民)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릇되게 옹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애(仁愛)라고 여기게 하면, 부민들은 다만 눈앞의 편리함만 보고 숨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른다. 그리고 위에 있으면서 오직 장사를 제재하고 억누르면서 위세(威勢)가 있다고 여기고 서로 모방을 하나, 지각이 트인 자가 몇 사람만 있어도 여러 사람이 다함께 비웃으며 배척하고 비난할 것이다. 같은 무리가 되어 가지고 이처럼 함께 더럽혀지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때를

당하여 비록 전량(錢糧)과 군기(軍器)와 궤향(饋餉)을 공급하기는 하겠지마는, 끝내 마음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군사를 독려하여 적을 죽임에 장령(將領)으로 하여금 먹이지 않은 말과 먹이지 않은 군사를 몰고, 인가(人家)에 거처하지 말기를 바라고, 적세(賊勢)가 많고 적음과 시기나 형편에 알맞아 승세를 타기에 편리한가를 따지지 않고, 다 죽게 만들어서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하니, 어찌 그리도 막힘이 심하단 말인가!

평일의 군오(軍伍)의 기세는 좌절과 압제를 다하여 이미 소진되고, 장령(將領)은 권도(權道)를 일삼아 간섭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유사시에 닥쳐서 또한 서로 돕지 못하고, 게다가 용병(用兵)의 기모(機謀)를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조정하려 하니, 어찌 능히 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적이 창궐하게 되어 국경지역을 짓밟고 자녀를 살육 하니, 어찌 위로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평일에 사사로운 은혜로 편애하였으니 그 누가 성과를 걸겠는가? 장사들이 어찌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 인민과 사직을 위해 도울 것인가?

장수된 자는 반드시 병마(兵馬)를 보기를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도구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근본으로 보아, 문(文)과 무(武)의 길이 다름을 막론하고 어려움과 쉬움을 탁 털어 놓고 일심으로 인민과 사직을 보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마음을 일으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 징성색[懲聲色 : 성색을 경계함]

음탕(淫蕩)한 소리와 아름다운 색(色)은 사람을 쉽사리 움직이게 한다. 사람은 혈기 있는 몸으로 말미암아 본래 정(情)이 승(勝)하니, 정을 던지는 중음을 어찌 쉽사리 움직일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이로 인하여 패망한 경우가 서로 이어져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음탕한 소리가 지나감에 마치 큰 바람이 불고 가면 먼지가 날려서 바람을 따라 불고 바람을 따라 소멸하는 것과 같이 되니, 어떻게 옛책을 열람하고 무예(武藝)를 조습(操習)하고 사졸을 교습시켜 모두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옛사람이 또한 몹시 짧은 시간을 애석히 여겼으나 노래와 악기에 빠져서 몹시 짧은 시간을 그르친 것이 그 얼마였던가? 아름다운 색이란 비단 부녀(婦女)가 거처하는 방에서만 일이다. 우리의 눈을 미혹시키는 것은 모두가 색이다. 일단 여기에 빠져서 뒤돌아보지 않으면 유한한 정신에 힘을 다하여 일념으로 여기에 매달린다. 책임과 이해,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할 일들을 다시는 묻지 않으니, 변경의 국방을 맡은 신하가 일단 임무를 소홀히 하여 죄를 입고 죽어서 병사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또한 죽는다면, 알지 못하건대, 죽은 뒤에도 오히려 미색을 탐하겠는가?

어찌하여 이를 거울 삼아 징계하지 않고 퇴관하여 돌아가 쉴 때에 이르러 누가 다시 나의 금함을 돌이킬 것인가? 내 항상 이를 마음에 두고 보아서 잊지 않음은, 모든 일에 무심한 가운데에서도 한 조각 쇠미한 기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저 삼군(三軍)이 나에게 의지하여 강약(強弱)을 삼고 있거늘, 어찌 쇠미한 기상을 가지고 이에 임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인륜을 파괴하고 교화를 손상시켜 병영 군사의 아내를 차지하고 가정(家丁)의 딸을 빼앗으며, 마침내 종이 주인을 죽이고, 적이 함문(闔門)에 올라와 화를 입어 몸이 죽고 집이 망하는 자도 있으니, 이를 경계하라! 이를 경계하라!

■ 경화리[輕貨利 : 재물의 이익을 가볍게 여김]

화리(貨利)란 재물과 비단이나 진기한 완상물이다. 이 물건들은

비록 하늘과 땅이 생산해서 사람에게 공급하여 쓰게 하고, 능히 사람의 궁핍함을 돕고 사람의 몸을 기를 수 있다고는 하나, 천지(天地)와 귀신(鬼神)은 또한 이것이 많음을 꺼린다.

모음이 있으면 반드시 흠음이 있으며, 또 재물은 원한과 서로 연관이 있어서, 이익이 들어오면 원한이 따르게 되고, 자손이 이를 믿고 심지가 타락하여 더욱 잘못된다.

하물며 천지간(天地間)에는 운기(運氣)가 유행(流行)하여 부유하나 가난해지지 않는 경우가 없고, 융성하나 쇠퇴해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속담에 이르기를 “붉은 대문 고루거각 부잣집에서 굶어죽는 사람 나오고, 초가 삼칸 오두막집에서 정승 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령(將領)의 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군사들의 고혈(膏血)이 아니면, 반드시 국고금일 것이다. 국조(國朝) 이래로 군사를 기름에는, 한 달에 겨우 곡식 1석으로, 공사간에 손실 감소되는 분량을 감안하면 10에 겨우 5를 얻는다. 교묘하게 명목을 세워서 천 또는 만에 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거두어들여 한사람을 봉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에 입과 몸을 쾌락하게 하고 정신이 좀먹어 들어가 유한한 생계 대책을 빼앗아 하루 아침의 욕심을 채우려 하니, 이와 같이 해서야 옳겠는가? 또 이로써 사졸의 마음을 잃어 변방 국경을 지키는 일에 낭패를 보아 몸이 죽고 명예를 상실하니, 그때에 가서는 필부(匹夫)가 되려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침내는 노복(老僕)이 그 주인을 해치고, 속오(屬伍)가 그 윗사람을 배반한다. 쾌락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겨 형벌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되고, 멀리로는 화가 자손에게 미치며 백세에 걸쳐 침멜고 욕을 하니, 어찌 이처럼 쉽사리 처지가 바뀔단 말인가?

오직 멈출 줄 알고 족한 줄 얹어 있을 뿐이니, 담박(淡泊)과 절검(節儉)을 힘쓰면 심신(心神)이 깨끗해지고 지혜(智慧)와 사려(思慮)가 생기고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어서 장수의 도리가 진작된다.

옛사람이 이른바 “무신(武臣)이 죽음을 애석히 여기지 아니하고 문관(文官)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하(天下)는 태평(太平)해진다.” 하였다. 이 때문에 죽음을 애석히 여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에 태어난 뒤로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욕심이 없음을 가지고서 이를 채움이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 삶을 연장하여 수복(壽福)을 누릴 수 있고, 장수된 자로서 일을 성취시킬 수 있으니, 하늘이 반드시 살피고 도와서 자손이 창성하여 만세의 장구한 방도가 된다. 장수가 된 자는 화리(貨利)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온갖 계책으로 재물을 쌓아 두려고 하지 말며, 자손을 위하여 우마(牛馬)를 마련하지 말라.

속담에 이르기를 “자손에게는 저들 스스로 저들의 복분(福分)이 있다.” 하였다. 이를 미루어 염두에 새겨 사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들로 하여금 나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위난을 보위하고 나의 공명(功名)을 세우게 하니, 천하(天下)의 대장부(大丈夫)가 되어가지고서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 기강팍[忌剛愎 : 강팍함을 꺼림]

뜻을 굳게 하여 용감히 행동하는 것, 이를 일러 ‘굳셈[剛]’이라 하니, ‘굳셈’은 사람을 살리는 덕(德)이다. 강(強)함에 의지하여 제멋대로 행동하여 돌이키지 않음을 ‘괴팍함[愎]’이라 하니, ‘괴팍함’은 ‘굳셈’의 덕을 해치는 것이다.

내가 그 굳세지 못함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굳세면서 괴팍하면, 또한 굳세지 못함이 굳세면서 괴팍한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된 자가 일단 제멋대로 행동하여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병사들의 사정을 묻지 않아 사람들이 흠여져 적정(敵情)을 알지 못한다. 결국 귀가 먹고 눈이 멀어 패가망신

(敗家亡身)하는 날을 서서 기다리게 될 것이다.

훌륭한 장수는 모든 고금(古今)의 명장(名將)이 성공하고 실패한 다스림과 일시의 산천(山川)과 형세(形勢)의 특수함과 적정(敵情)과 아군의 은미(隱微)한 변화를 만드시 널리 묻고 두루 탐방한다. 중지를 모으고, 여러 계책을 채용하여 비록 비례(非禮)에는 굽히지 않으나 들어서 받아들일 만한 경우에는 생각을 돌이킨다.

남에게 장기(長技)가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람은 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이 취할만 하면 그 말을 취하여 스승을 삼는다. 반드시 그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니, 내 언행이 진실로 다 훌륭하고 이치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어찌 한두 가지 잘못이 없겠는가? 마땅히 그 좋은 점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나의 한두 가지 잘못을 찾아 그것을 고쳐 행하여 강건하게 쉬지 않고 실천하는 뜻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이하면 거의 나의 덕을 군세에 함에 이르러 아랫사람의 실정에 통달하고 적정의 변화를 알아서, 많은 선인(善人)을 오게 하여 공업(功業)을 이룩할 것이니, 흉(凶)함을 돌려 복(福)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오승인[惡勝人 : 남을 이기기를 싫어함]

고인(古人)이 병사를 훈련하고 뜻을 세움에 있어서 오직 남과 같지 않음을 부끄러이 여겼다. 남과 같지 않음을 부끄러이 여김은 바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를 경계해야 한단 말인가?

저 남과 같지 않음을 부끄러이 여기는 자는 남의 장점을 보고 민첩하게 구하여 힘을 다해 행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공력을 쌓기를 오래해서 나보다 나은 그 사람의 위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에게 양보할 것이다. <이는 내가 저절로 저를 이기는

것인데> 설사 스스로 수양하여 이론 공을 망각한다 하더라도, 다만 남이 나를 이김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한 점의 마음이 가슴속에 남아 있으니, 남에게 재능이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를 꺼리는 생각을 한다. 남에게 공이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를 빼앗으려는 생각을 하며, 걸핏하면 그 사람이 나만 못하다고 한다. 남에게 조그마한 재능이라도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을 한다.

이와 같이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이롭게 하기를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원한을 심을 것이며, 그 원한이 쌓이면 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天地)와 귀신(鬼神)이 본래 복(福)과 선(善)을 만물에 있어서 착한 자가 남을 이기는 무리의 굽히고 능멸하는 바가 됨을 어찌 옳게 여기어서 이를 용납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로 인한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계봉영[戒逢迎 : 아침과 영합을 경계함]

장수(將帥)는 죽음을 맡아 다스리는 관리(官吏)이며, 병사(兵事)는 위태로운 일이다. 일단 처치에 실수가 있으면 모든 안위(安危)와 존망(存亡)이 여기에 관계된다. 그런데 어찌 장수된 자가 안위와 존망과 시비(是非)와 이해(利害)를 돌아보지 않고, 이치(理致)의 통하기 어려움과 병무(兵務)의 복잡다단함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상사(上司)의 권세에 아부하여 일에 당면해서는 ‘네’ ‘네’ 하고 맹종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살피서 그 좋아하는 바를 받들어 거행하고 감언으로 낚아서 하늘을 어기고 도리를 해치며 바름을 굽히고 그릇됨을 관찰하여 상사로 하여금 미혹함을

이르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이 거조가 천년 백년의 대계가 되어 이익을 늘리고 손해를 더는 것이라 이르면서, 참으로 뒤에서 의논이 분분함을 알지 못한다.

하물며 군기를 실패하게 하여 화가 반드시 자기 몸에 이를 것인데도 이를 생각하지 않고, 봉영(逢迎)으로 기쁨을 취할 뿐,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움을 돌아보지 않고서 봉영을 하니, 이는 스스로 자기 몸을 화란(禍亂) 가운데에 던지는 것으로, 헤아림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무릇 변방의 국방 책임을 맡은 자는 상사(上司)가 명령을 내려 의견(意見)을 물을 경우에는 반드시 옳으면 ‘옳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아무 일은 옳지 않으니 행하면 안됩니다.’ ‘아무 일은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사실에 의거해서 대답하여야 한다. 병무가 번잡하고 충실하지 못하면 힘써 조련하여, 비록 일시적으로 상관의 뜻을 어기더라도 끝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다른 날 공을 구하여 이룩함이 옳으니, 상관이 또한 감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검속하기를 단정히 하는 자는 반드시 충직하고 바르게 말하는 풍모를 힘써서 단연코 봉영(逢迎)을 하지 않음을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

■ 기위미[忌萎靡：직무의 유기를 꺼림]

사람은 태어나기를 곧게 태어났다. 그런데 위미(萎靡)는 곧음과는 반대이다. 장수가 되어가지고서 위미(萎靡)를 하는 자는 반드시 평소에 탐욕스럽고 외람되다. 전진(戰陣)에 다달아서는 살기에 연연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무리는 진실로 족히 말할 것도 못되려니와, 혹은 청렴하고 삼가며 스스로 지조를 지키는데도 또한 위미를 하는 것은 어찌서 인가? 진실로 병기(兵器)의 흉악(凶惡)함으로써 위태롭게 싸워서

그 죄를 빚어 만들어내고 세인(世人)이 공공연하게 보복(報復)을 행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겸양하고 공경하는 체 하면서 사람에게 아첨하니, 사람들은 이를 공손함이 넉넉하여 어질다고 지목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군무를 가지고 인정에 붙좃는 도구를 삼아서, 이목(耳目)을 운명에 맡기고, 몸을 낮추었다 높였다 하면서 명분과 염치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 본떠서 익히면서 항상 이와 같이하여 심기(心機)를 여기에 다 쓰고 허투(虛套)에 마음을 오로지한다.

사람이 이러한 짓을 함에 있어서는 화(禍)를 면하고 명예를 얻기를 기구하며, 특히 관부(官府)를 생각하지 않으니, 이 땅에 어찌 모두 너희들처럼 받들고 붙좃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있겠는가? 그러나 일단 호걸이 자리에 있을 경우를 만나게 되면 평소의 천박하고 추악함이 분토(糞土)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만일에 국경에서 패망하여 일에 실패하면 그 장수는 오랫동안 힘썼음이 기록되어 용서가 될까? 전자에 현자(賢者)로 지목되었음이 사람들의 논의에 오를까 두렵다. 또 우물에 떨어져서 돌팔매질을 당할까 두렵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삶이다. 장령(將領)은 삶을 버리는 것을 근본으로 하니, 삶을 이미 버릴 수 있으면 다시 어인 일로 이를 소중히 여겨서 또다시 위미(萎靡)를 하는 작태를 보인단 말인가? 위미를 하면 호령(號令)이 행해지지 않으니, 비록 삼군(三軍)을 상주고 벌준다 할지라도 저들은 감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타일에 일을 실패함을 마치 좌권(左券)을 잡은 것⁵²⁾과 같이하니, 어찌 그리도 어리석은가? 어찌 그리도 어리석은가?

헤아려서 말하건대, 위미를 하는 무리는 군주(君主)를 저버릴 수도 있고,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으며, 부모(父母)를 버릴 수도

52) 좌권(左券)을 잡은 것 : 좌권은 둘로 나눈 부신(符信) 가운데 왼쪽의 것으로 좌계(左契)와 같은 뜻인데, 여기에서는 명확한 증거, 또는 보증을 뜻한다.

있고, 처첩(妻妾)을 남에게 줄 수도 있다. 아! 세상에 이러한 무리가 있음은 금수(禽獸)도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훌륭한 장수된 자는 강해도 뺄지 아니하고, 부드러워도 삼키지 아니하여⁵³⁾, 예(禮)와 체통(體統)이 옛 제도와 법령을 따른다. 그러나 지나치게 분명하여 반드시 따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니, 이를 참작하여 처리하고, 그 사람이 혹 나를 박절히 대우하더라도 나는 삼가서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혹 뒤에 교제하는 정이 깊고 두터워져 나도 또한 섬김에 오직 군중의 명분을 삼가서 차차 손익을 따라 행할 수 있으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화평한 가운데에 안주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가차(假借)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지조를 굳게 지키는 곳에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어썩이 있는 것이니 군자 가운데에 이같이 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하물며 행오(行伍)의 사이에 있어서이겠는가?

■ 박공명[薄功名 : 공명을 하찮게 여김]

가장 훌륭한 것은 덕(德)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은 공(功)을 세우는 것이며, 그 다음은 말[言]을 세우는 것으로, 공명(功名)은 바로 성인(聖人)이 준 것이다. 어찌 이를 박절히 취급할 수 있겠는가? 오직 공명에는 분수(分數)가 있으니, 천도(天道)가 가장 꺼리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취하는 것이다. 가령, 내가 실제의 역량이 십분일 경우, 공명(功名)이 칠팔 분에 이르면 이를 받아들이고 지나

53) 강해도 아니하여 : 《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烝民)에, “사람들이 말하되 부드러우면 삼키고 강하면 뺄는다 하나니, 중산보는 부드러워도 삼키지 아니하며 강해도 뺄지 아니하여,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도다.[人亦有言 柔則茹之 剛則吐之 維仲山甫 柔亦不茹 剛亦不吐 不侮矜寡 不畏疆禦]” 하였는데, 훌륭한 장수된 자는 도를 굽혀 남을 따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치게 누리지 말며, 분수에 넘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천지(天地)와 귀신(鬼神)도 또한 편안히 여겨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을 교묘(巧妙)하게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꾸미고, 공명을 더하기를 구하면서 실제로 절실하고 유익한 일은 이어짐이 없이 실제로 겪어서 견뎌야 할 괴로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하루 아침에 어그러져서 드러나게 되면 하늘이 원망하고 사람이 미워하며 귀신이 몰래 벗기어 빼앗고 심지어는 그 수명마저도 단축될 것이다.

우리는 다만 나라의 은혜를 보답하는 데에 힘을 다하면 공명(功名)은 그 스스로 이르기를 기다려도 될 것이다. 만약 공(功)이 있어도 녹(祿)이 없으면 마땅히 이르기를 “나의 명(命)은 겨우 여기에 그칠 뿐이다.”라 하며 운명에 맡겨버리고, 공(功)이 있으나 녹(祿)이 지나치면 마땅히 근신하고 송구스러이 여기는 자세로 힘쓰고 수고로이 함을 배가하여 은혜에 부응하여야 조화(造化)의 신(神)이 꺼리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항상 벼슬을 해서 좋고 집에는 늘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였다.

항상 노고(勞苦)가 공명(功名)보다 지나칠 경우에는 차라리 발달이 지체될지언정 자신이 받지 않아도 또한 반드시 자손(子孫)이 받을 것이다. 공(功)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어 나의 공을 취하려 하면 이를 양보한다. 포개어 쌓임이 이미 심하고 남에게 곱힘이 이미 오래면 자연히 참 자취가 드러나 공론(公論)이 돌아옴이 있을 것이다. 이에 또한 거짓으로 꾸며진 잘못과 많이 취한 해로움을 참으로 알게 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는 공을 빼앗지 못하여 그 공이 나에게 속할 것이니, 남이 알기를 구하지 않아도 들어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 연장혹문[鍊將或問 : 장수의 자질 연마에 대한 어떤 이의 물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가 논(論)하여 지은 책(冊) 10여 권은 모두 병사(兵士)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장수(將帥)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내가 말하였다.

먼저 마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법(法)과 예능(藝能)과 기술(技術)을 가르친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병사들의 장수가 된 자는 용감한 재관(材官)이면서 기량(技倆)이 뛰어난 예사(藝士)이다. 예능(藝能)과 재지(才智)를 장수의 직무라 일컫는다. 하여금 탐욕스럽게 하는 것과, 하여금 속이게 하는 것과, 하여금 어리석게 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과 말을 전일(專一)하게 하니, 말이 경학(經學)을 공부하는 서생(書生)의 우환(迂闊)한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내가 말하였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문(文)과 무(武)는 둘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두 몸이 없는 것은 문과 무의 두 도(道)와 마찬가지로이다. 재예(材藝)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두 가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거의 그 덕(德)과 기량(技倆)을 이룩하고서 진실로 사람이 있어 이 전 일한 마음을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발휘하고 주야로 공사에 염두를 둔다면 한 자[尺]의 장기(長技)를 반드시 한 자의 용도에 다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를 씬에 있어서 “차라리 성실한 자를 놓치고 지나칠지언정 기지(機智)가 영민(靈敏)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혹은 교묘하게 자신을 위한 계책을 꾸미고,

혹은 화복(禍福)을 밝게 익혀서 자신에게 이롭게 쓰고, 또 그 족함에 의지하여 완급(緩急)에 도움이 되게 한다. 복채를 잡고 부대를 지휘할 적에 이르러서는 먼저 이해(利害)를 판단하고 능히 시비를 뒤집어엮어 반드시 명령을 쓸 필요가 없게 하니, 나의 감화(感化)를 들어가게 할 수 없고, 나의 호령(號令)을 믿게 할 수가 없다. 나의 위엄이 족히 두렵지 않고 나의 부릴 수 있는 방도가 비로소 궁벽해진다. 여기에 비록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의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장수의 재주가 있으나 장수의 마음이 없으니 한갓 장수를 갖추어 둔 것일 뿐이다.” 하였다. 장수의 마음이 없으면 이는 장수의 덕(德)이 없는 것이다. 장수의 덕이 없어지고서 그 재능을 쓰는 것, 이는 세상에 교만(驕慢)한 장수와, 역적(逆賊)의 장수와, 자만하고 게으른 장수와 교만하게 자만하는 장수와, 불평 불만하는 장수와, 제 몸과 처자만을 보전하는 장수가 있는 까닭에서이다.

그들이 어찌 능히 공을 세우고 이름을 심어 나라를 보위하고 집안을 보전하여 시종토록 완전한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육척(六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백기(百里 : 제후국)의 명을 부탁할 만하면 군자(君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⁵⁴⁾라고 하였다. 고아를 맡겨 명을 부탁함에 반드시 이르기 ‘군자(君子)’라 하였으니, 누가 이르기를 “국경을 지키는 책임을 맡기고 국가 안위의 군기(軍機)를 맡김에, 그로 하여금 속이는 것과, 어리석음과, 탐욕스러움을 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 재능을 쓰는 것이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필부(匹夫)의 용맹을 쓰고, 그로 하여금 탐욕스럽게 하는 것이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속이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54) 육척의 사람이다 : 《논어(論語)》 태백(泰伯) 제8에 나오는 이 말은 공자(孔子)의 말이 아니고 증자(曾子)의 말이다.

것이다. 이를 기르는 자가 미리 예비하지 못하여 마땅함을 잃음과
익힘의 무너짐이 오래되고 또 고질이 되어, 마침내 그에 따라서
그보다 더 하등의 인재를 구하니, 어찌 양장(良將)을 얻을 수 있
겠는가?

탐욕스러움과, 속이는 것과, 어리석음으로는 다만 한때의 한 가지
일에 미혹한 바를 가지고 이를 써서 나의 하루의 힘을 다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1려(旅)의 무리를 동원하여 황급하고
불안하게 치달리게 하여 사생과 이해가 서로 교차되는 경지에 처
하였을 경우는 이와 다르다.

게다가 전곡(錢穀)을 풀어놓아 서로 가까이에서 환난(患難)과
간고(艱苦)를 함께 맛보고 행오(行伍)의 이목(耳目)을 가지런히 하
여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인심을 감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도 헤아리지 않고 뛰어들게 하여 내가 바라는
바에 따르게 해야 하는데, 어찌 탐욕스러움과, 속이는 것과, 어리
석게 함으로 죽히 감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오직 성실(誠實)한 사람이 은혜(恩惠)로 감화시켜 차마 저버리지
못하게 하고, 위엄(威嚴)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차마 저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비록 재주는 부족함 있으나, 흠집을 차마 감추지 아니
하니 우리의 이목이 시비에 현혹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앞으로
진격하여 적진을 함락시키는 용사들이 있어, 그들의 예봉을 거느리는
자가 없어도 여기에서 그 방도를 다한다. 병사들로 하여금 용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자는 가히 병사를 거느려 운용과 조정을
잘하는 자이니, 적진을 향하여 돌격을 가하는 임무가 합당하다.
이는 양공(良工)이 고심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재능과 성의와 기예, 이 세 가지는 모두 겸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담기(膽氣)가 있고 기예(技藝)가 없는
자가 주장(主將)의 명령을 받들어 아랫사람들의 원망을 받으면서
도 오직 삼가서 받들어 행하게 하는 것이 낫다. 혈맥(血脈)이 막
히지 않고, 구차히 병사의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하고, 대략 문자(文字)를 알아, 향상(向上)하려는 뜻이 있으면 거의 천 명의 인원을 거느릴 수 있다.

이를 일러 ‘실제의 일에 재간(才幹)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니, 실제의 일에 재간(才幹)이 있는 사람이 전진(戰陣)에 임하여 전력을 다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기지(機智)가 영민(靈敏)한 사람으로 용감하게 적진으로 달려나가 죽기로 싸우는 자는 있지 않다.

우리 태조 고헥제(太祖高皇帝 : 명태조 주원장)께서 오랑캐인 원(元)나라를 몰아내고 중국(中國)을 광복하여 북으로는 사막(沙漠)에서부터 남으로는 영해(嶺海)에 이르기까지 신민으로 복종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안으로는 금군(禁軍)과 단영(團營)⁵⁵⁾, 밖으로는 아홉 개의 변진(邊鎭)⁵⁶⁾이 줄을 이루어 무변(武弁)이 제반 정사를 맡고 뒤를 이어받아, 모두 병부상서(兵部尙書)에게 예속되었다. 그리고 문관(文官)직이 처리하는 업무는 이부상서(吏部尙書)가 관장하여, 일의 체계가 서로 대등해지게 되었다.

이는 모두 무변(武弁)을 길러서 국방을 튼튼히 하기를 마치 수백 갈래의 넷물에 그물을 쳐서 버려지는 물고기가 없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하기 위한 까닭에서였다. 조종조(祖宗朝)에 무과(武科)를 설립하여 법제(法制)가 날로 구비되어 문과(文科)의 과장(科場)과 다름없이 비록 초야의 잡다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응시를 허락하였다. 이는 재능과 기예를 찾아내기를 마치 깊이 우거진 숲에 큰 그물을 펼쳐놓아 한 마리의 새도 빠뜨리지 않기를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장수를 구하려는 계책 아닌 것이 없었다.

55) 단영(團營) : 1449년, 명(明)나라는 북방 몽고의 오이라트[瓦剌]와의 토목(土木) 전투를 통하여 경군(京軍)의 삼대영(三大營 : 五軍 · 三千 · 神機)이 큰 손실을 입고, 황제인 영종(英宗)이 적의 포로가 되었다. 이에 경태(景泰)연간(1450~1456)에 삼대영(三大營)에서 선발한 10만 병력을 10영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이를 단영(團營)이라 하였는데, 가정(嘉靖)연간(1522~1566)에 단영을 폐지하고 구제를 회복하였다.

56) 아홉 개의 변진(邊鎭) : 아홉 개의 변진(邊鎭), 즉 구변(九邊)은 명대(明代)에 북방에 설치된 변방의 중진(重鎭)으로서, 후세에는 변경을 총칭하는 말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변을 기르기에 200여 년이나 힘을 기울였음에도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부족하였으며, 70여 년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도 또한 족히 장수를 얻지 못하였다. 간혹 변방을 지키는 데에 힘을 바쳐 위명(偉名)이 일컬어진 자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과 수 명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별도로 재능(才能)의 유무를 시험하여 등용한 경우였으며, 모두가 국가에서 길러주거나 과목(科目)을 거쳐서 등용되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적을 친 공이 상등인 사람을 충원하여 그 순수한 충성과 굳센 절개를 구하려 하였으나, 시종토록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리의 분별을 분명히 하는 자는 드물었다. 생각해 보니, 그 까닭이 이러하였다. 기르지 않은 바를 쓰고 쓰지 않을 바를 기르며, 이를 가르침에 그 시행함을 다르게 하고 시행함에는 그 가르친 바를 쓰지 않으니, 어찌 옛사람과 더불어 비견하여 그와 같기를 바랄 수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지금의 장수 훈련은 어떠한가?

내가 말하였다.

무변(武弁)이거나 경서(經書)를 공부하는 유생(儒生)이거나 초야의 백성이거나를 구별하지 않아야 한다. 무예(武藝)에 뜻이 있는 자를 택하여 군독(郡督)이 이를 다스리되, 먼저 몸을 세우고 행함을 가르친다. 그 밖으로부터의 유혹을 막아내고 그 충의(忠義)를 밝히니, 족히 천지의 사이를 막을 수 있다. 성색(聲色)과 화리(貨利)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모두 제거하고, 먼저 《효경(孝經)》·《충경(忠經)》·《논어(論語)》·《맹자(孟子)》·《무경칠서(武經七書)》의 구두점과 주석이 없는 백문(白文)을 차례로 암송하게 한다.

《효경》·《충경》·《논어》·《맹자》·《무경칠서》의 뜻을 억지로 알게 하려 하지 말고, 구두에 오로지하지 말고, 한장 한장마다 몸으로 체

힘하고 심신이 부합되기에 힘을 쓴다. 이를 본떠서 연마를 거듭하고, 미묘하여 헤아려 알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를 체득하면서 다시 미묘하여 헤아려 알기 어려운 경지를 거치니, 거기에는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백장전(百將傳)》을 읽어서, 장수의 인품(人品)과 심술(心術)과 공업(功業)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무개는 어떻게 해서 이겼으며, 아무개는 어떻게 해서 패했으며, 누가 거짓과 폭력을 썼는가? 누가 인(仁)과 의(義)를 썼으며, 누가 순직한 신하였는가? 누가 유익한 군인이었으며, 누가 역신(逆臣)이었으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름과 절개를 완전히 하였는가? 누가 어떻게 해서 패전하고 집안을 망쳤으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름과 절개를 완전히 하였는가? 누구의 아무아무 행적은 어째서 그의 죄가 아니었고, 누구는 어찌하여 구차히 살아서 요행이 죄를 면하였는가? 아무개는 능히 뒤흔든 법을 지켰으며, 아무개는 능히 응변(應辯)을 잘 하였는가?

내가 그를 헤아리고 지금을 그때로 거슬러 올려서 몸소 그 처지에서서 어떻게 처치해야 했었는가를 헤아려 본다.

그리고 나서 뜻이 이미 정해지면 마음에 있는 주장을 해치거나 굽혀서 재앙의 근심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며, 공을 탐내지 않아서 죄에 드러나지 않게 되어 문득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더하여 《춘추좌전(春秋左傳)》과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읽어 그 재주를 넓히고, 다시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의 대의를 수업하여, 심성(心性)의 근원을 알아 원류를 깨끗하고 맑게 하여 마치 하늘에 솔개가 날고 물 속에 고기가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경지⁵⁷⁾에 들어가야 한다.

57) 하늘에 경지 : ‘연비어약(鰲飛魚躍)’, 즉 하늘에 솔개가 날고 물 속에 고기가 뛰어노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조화로움을 뜻한다. 이는 ‘솔개와 물고기가 저마다 나름대로의 타고난 길을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만물이 저마다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전체적으로 천지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자연의 오묘한 도임을 말한 것이다.

이는 또한 의사(醫師)가 의술(醫術)에서 먼저 약(藥)의 성질과 《맥경방서(脈經方書)》를 익힌 다음에 나아가서 《소문난경(素問難經)》을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이하기 때문에 능히 처방을 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법(法)을 깨닫고서도 그 법에 집착하지 않으니, 이는 순직한 신하의 성품이요, 마음이 어진 선비의 자질이다. 또 따라서 나아가 기량과 기능으로써 행오(行伍)의 업무를 복채와 복에 맡기니, 실용(實用)하는 사이에서 바야흐로 마음에 자신이 생기고, 바야흐로 직무를 결단하여 장수의 재목이 성취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이해(利害)를 판단해야 할 때를 당하여 담기(膽氣)가 있음을 귀하게 여기니, 어떻게 해야 담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가?

내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가르치고 기르면 이치(理致)에 밝아지고, 이치에 밝아진 이후에는 식견이 정해지고, 식견이 정해진 이후에는 이해(利害)의 판단이 굽혀지지 않고, 이해의 판단이 굽혀지지 않은 이후에 담기(膽氣)가 굳세어지지 않는 경우는 있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무(武)를 익힘에는 무엇을 종주(宗主)로 삼아야 하는가?

내가 말하였다.

훌륭하도다. 그 물음이여. 무(武)를 익히는 자는 반드시 손자(孫子)와 오자(吳子)를 종주로 삼아야 할 것이니, 이 손자와 오자를 익히는 자는 모두 손자와 오자의 문도(門徒)이다.

대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은 서로가 같지를 않아서, 글을 시험할 적마다 반드시 그 스승을 헐뜯고 꾸짖기를 미치지 않는 바가 없이 하고, 시험하여 그 스승을 헐뜯게 한다.

자고로 국가를 평정할 임무를 받고서 밖으로 적을 물리치고 안으로 편안함을 이루기를 손자와 오자처럼 한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 사람의 업(業)을 나의 업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헐뜯는 것, 이것은 스승이 없음이다. 스승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서 충성과 사랑의 도를 안다고 하니, 이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물며 무변(武弁)의 아들은 진숙(震夙)의 초기⁵⁸⁾에, 이미 적장자로서의 서열을 타고나서 그 관직을 이어받으니, 실로 군부(君父)가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무인(武人)이 될 것을 명한 것이다. 여염집에서 성장하여 제사를 받들면서 왕자(王者)나 패자(覇者)의 이야기를 익히는 자와 비교하면 그 처지가 다르다.

행오(行伍)의 사이에서 그 일을 분별(分辨)하고 공업(功業)을 세움에 미쳐서는 국은(國恩)을 보답하기를 기약하여, 흉기(凶器)를 잡고 흉악한 적을 주벌(誅罰)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적을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이 오고, 국은(國恩)을 저버리는 자는 법에 따라 당연히 죽음이 오고, 그 부조(父祖)의 공적도 아울러 폐지된다.

너희는 말하기를 ‘병사(兵事)는 오패(五霸)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라고 일컬은 바이니, 내가 배울 것이 아니다.’라 하고는, 국가에서 길러주는 재물에 의지해서 시속(時俗)을 쫓아 문예(文藝)를 담론하고 경사(經史)와 불교(佛敎), 도교(道敎)의 여러 서적을 모두 취하여 읽으면서 고상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도적질하고 사대부(士大夫)들 사이에 노닐면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여겨 마지 않는다.

조정(朝廷)이 무부(武夫)를 길러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풍족한 공양이 바로 오늘의 이러한 쓰임에 소요되니, 너희가 지금 배우는 바는 직무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익히는 바는 직무에 소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완급(緩急)의 위기에 이르러서 무변

58) 진숙(震夙)의 초기 : ‘진(震)’은 임신(妊娠)을 의미하고, ‘숙(夙)’은 엄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숙의 초기는 자식을 낳는 어머니가 임신을 하여 측실(側室)에 거처할 때를 말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생민(生民)〉에 “강원(姜嫄)이 주(周)나라 시조 후직(后稷)을 낳을 때 재진재숙(載震載夙)하였다.”고 노래하였다.

(武弁) 중에서 장수를 구해도 적격자를 얻지 못하고 초야에서 장수를 구해도 적격자를 얻지 못하니, 변경의 국방을 맡길 방도가 없다.

너희가 저버리는 것은 나라에서 길러준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러한 무리들은 이 경우에 이르러서는 적신(賊臣)이라 해도 옳을 것이니, 이처럼 불충(不忠)한 자에게 죽임을 가해도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권력을 잡고 일을 주관하여 좌지우지하는 자들은 이들을 천거하여 문예(文藝)를 겸비(兼備)한 완전한 장수(將帥)의 재목(材木)이라고 하지를 않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만약 그대가 논한 바의 도(道)가 이처럼 극진하다면 다시 무엇을 더하겠는가?

내가 말하였다.

진정한 장수를 훈련시키는 방도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가? 대저 이와 같이 가르치고 길렀으나 실제의 상황에 서보지 않으면 이는 장님이 다섯 가지 색깔의 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이다. 비록 눈 밝기로 이름난 이루(離婁)⁵⁹⁾라 할지라도 족히 이에서 더 지나지는 못할 것이다.

손으로 실을 잡고서 그 색깔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면 이는 장님이나 매한가지이다. 하물며 병(兵)은 흉(凶)한 일이고 전쟁은 위태로운 것이니, 교장(敎場)을 배열하고 영진(營陣)을 익히는 일을 진실로 폐할 수 있겠는가? 또한 통발과 올라미는 사냥의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나, 고기와 토끼를 잡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59) 이루(離婁)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인물로서, 백 보 떨어진 곳에서도 털끝이 보일 만큼 시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맹자(孟子)》〈이루 장구(離婁章句) 상〉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만드시 남북(南北)을 막론하고 용병할 장소에서 장수가 예비한 용사들을 행오(行伍) 사이에 분포 배치하여 실제 상황을 겪어 보게 하여야 한다. 부대가 앞으로 나아가면 이들을 전진(戰陣)의 후방에 두어, 실제 상황에서 오래 시험하여 조금씩 경험이 쌓여서 이를 체험하고 또 거듭 체험하게 하여 의심이 없게 한 연후에라야 가히 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훈련한 바가 타일에 성취한 바와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익히는 것이 같고 효과도 또한 같은 것인가?

내가 말하였다.

대개 이와 같이 가르치고 기르면서, 능히 이와 같이 몇 가지를 더하여 순전(純全)하게 만들고, 거기에 문장(文章)의 의리(義理)와 도덕적 기량(器量)을 겸비하게 하면 이는 대장(大將)의 재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능히 이와 같이 몇 가지를 하여 기예(技藝)에 뛰어나고 용기(勇氣)를 북돋움에 힘을 쓰되, 일을 해 나갈 방법(方法)과 계략(計略)이 부족하면 이는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의 재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주가 넉넉하나 뜻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용기가 넉넉하나 떠맡기에 부족하면 이들은 모두 소장(小將)의 재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이와 같이 가르치고 길러서, 혹은 어리석고, 혹은 속이며, 혹은 탐욕스러우나, 모두 한 가지 장기(長技)가 있으면 막부(幕府)에 기록하여 그 일에 말미암아 부리고 금과 비단을 넉넉히 주되 작위(爵位)를 함부로 주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막부에 복귀시키고, 일이 생기면 다시 쓴다. 쓰게 되면 이를 중용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일이 없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너그러운

용서하되, 방지를 위한 경계를 엄히 한다. 이는 사냥하는 매를 기르는 방법으로서 이 무리들을 어거하는 방법의 요체가 되는 깨우침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대장(大將)을 대우하는 방도는 어떠한 것인가?

내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가르치고 기쁨에, 공(功)은 규정된 등급과 차례에 따라 승진과 이동이 이루어지고, 덕(德)은 공의 믿음성과 상응하여야 한다. 인하여 그 사람을 청렴하고 더욱 근신하게 하여 탐하여 즐기고자 하는 바가 없게 하고, 욕심이 없음을 미덕으로 삼게 하면 공이 날로 높아지나 마음은 날로 겸허해지고, 지위는 더욱 높아지나 뜻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진실로 충순(忠純)하고 독실(篤實)한 신하가 되어서 성심(誠心)으로 미루어 이루면, 시기(猜忌)와 이간(離間)이 단절되고 소중히 여겨지는 바가 되어서 일의 주관함이 돌아올 것이니, 그 말이 반드시 행해지고 계책이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다. 금전과 양곡의 들고 남을 문제로 삼지 않고 나라를 도울 장재(將材)를 구하여 쓸 따름인 것이다.

시기(時期)나 형편(形便)에 알맞게 전투의 기미(機微)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를 간섭(干涉)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함이 없으니, 하여금 성공이 있게 할 뿐이다. 녹봉(祿俸)으로 먹여서 그 재능을 다하게 하고 이름을 떨쳐서 그 뜻을 통하게 하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준마(駿馬)의 빠른 발길을 펼쳐서 드넓은 전장(戰場)의 대로에서 전차(戰車)를 치달리게 하여야 한다. 나라에 훌륭한 장수가 있으면서 군대가 나아 공(功)이 없는 경우는 있지를 았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인정(人情)은 똑같은 것이 아닌데, 가르침이 똑같으면 되겠는가?

내가 말하였다.

사람의 재능(才能)과 기량(器量)은 같지 않으나, 가르쳐서 깨우침을 적용하게 함은 똑같으며, 사람의 작용(作用)은 같지 않으나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같다. 이는 내가 그들의 자질을 가지고 배양(培養)해서 성취(成就)를 이룩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추호라도 간여해서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聖人)인 공자(孔子)의 문도(門徒) 70명이 정사(政事)와 효도(孝道)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말로 대답을 하였다. 말이 일일이 미치지 못해도 제자들은 이를 깨달았고, 말이 일일이 미치지 못한 것도 이미 제자들은 깨달음에 이르렀으니, 그 이르름에 있어서는 모두 같았던 것이다.

감히 우리 진영에서의 한두 가지 실제의 일을 가지고 비유해 보자.

예컨대, 어느 파총(把總)은 평일에 지휘자(指揮者)들을 우대하고 병사(兵士)들을 엄중하게 단속하는데, 이 진영(陣營)의 병사들이 가벼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은혜(恩惠)가 반드시 두루 미치되, 마땅히 법(法)으로 다스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문책한다.

예컨대, 어느 파총(把總)은 평일에 병사(兵士)들을 너그럽이 사랑하고 지휘자(指揮者)들을 엄중하게 단속하는데, 이 진영(陣營)의 병사들이 무거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위엄(威嚴)이 반드시 모두에게 가해지되, 마땅히 법(法)으로 연좌(連坐)되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헤아려서 관대히 처리한다.

부대의 형편이 고르지 못하거나 부족한 상태를 잘 조절하고 관리함에는 능하나 적진(敵陣)을 향해 돌격하여 적진을 쳐부수는 데에는 능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司)가 이 부대와 서로 협조하여 반드시 강하고 용감한 병사들로 하여금 이를 돕게 한다. 담기(膽氣)가 있고 용감하여 적진을 향해 돌격하여 적진을 쳐부수는 데에는 능하나 부대의 형편이 고르지 못하거나 부족한 상태를

잘 조절하고 관리함에는 능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司)의 앞 행렬이 반드시 영리하고 민첩한 참모(參謀)를 붙여서 변하지 않는 명령으로 통용하게 한다.

이는 모두 능한 바의 재능을 바탕으로 삼아 배양하여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지혜와 용기를 나눔이 없이 고르게 공을 거둘 수 있다.

파총(把總)으로 말미암아 초관(哨官)을 거느리고, 초관으로 말미암아 기총(旗總)과 대장(隊長)을 거느리니, 대장은 열 사람 가운데서 또한 평소에 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각각 이를 단속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대응한다.

예컨대 용감한 자에게는 이를 권면(勸勉)하여 모두 열 명을 합해서 용사(勇士)의 집단을 만들되, 이들만이 오로지 그 용기를 믿고 모두 재해를 감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 의(義)로운 본분을 깨우치게 하여 그 용감한 집단의 유형을 만들어 각각 그 장점을 분발시키고 단점을 고치며, 그 의혹하는 바를 깨뜨리기에 힘쓰도록 한다. 이를 반드시 주장(主將)이 재삼 반복해서 깨우치고 새겨서 고시하고 상벌(賞罰)을 내걸어 불시에 해당자를 뽑는다.

이것이 이른바 ‘삼 년에 이르면 백성들을 용맹하게 할 줄을 알게 할 수 있다.’⁶⁰⁾는 것이니, 이는 바로 그 ‘할 줄을 알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가 말하는 장수의 도리는 금침(金針)의 비법을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과 같다고 이를 만한테, 여기에 다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가?

60) 삼 년에 ... 할 수 있다 : 이 글은 《논어(論語)》〈선진편(先進篇)〉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쓰여지겠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자로(子路)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천승의 제후국이 대국의 속박을 받아 전란이 가해지고 기근이 들어도 제가 다스릴 경우, 삼 년에 이르면 백성들을 용맹하게 할 수 있고 또 의리로 향할 줄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也 爲之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

내가 말하였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묘리(妙理)는 마치 매끄러운 구슬을 가지고 등글게 돌리는 것과 같으니, 차라리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언정 어찌 말하여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대개 말로써 깨우쳐서 알게 할 수는 없으나 뜻으로써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는 감응(感應)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충직(忠直)함과 성심(誠心)으로 근심 걱정하고, 충만한 내심(內心)으로 실행한다. 간난(艱難)과 고초(苦楚)는 병사들보다 먼저 하고, 이로움과 편안함은 병사들보다 뒤에 한다. 병사들의 실정을 알고, 병사들로 하여금 이를 말미암게 하면 불각중에 적의 허실(虛實)을 알고, 병사들로 하여금 이를 밝게 하면 위태로움을 잊어 만인(萬人)을 뜻대로 치달리게 할 수 있으니, 이는 위엄(威嚴)과 형벌(刑罰)의 너그럽고 가혹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인을 마음으로 기쁘게 하니, 이는 재화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재(人材)에는 그릇이 크고 작음이 있으니, 각각 그 적재적소를 찾아 이를 도움에 오직 결단하고 오직 미답게 하면서 일정한 목표를 견지하는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니, 이를 일러 비결이라 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오합지졸(烏合之卒)을 모아 그들에게 날카로운 병기(兵器)를 주고서 나의 부월(斧鉞)을 휘두르면서 적의 창끝과 화살 앞으로 몰고가니, 이는 이른바 썩은 고삐줄로 수레를 끄는 여섯 마리의 말을 부리어 그 본보기를 삼으려 함과 같다. 그러니, 나의 말달림과 수레 모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그러므로 은혜가 깊지 않으면 감응되지 않고, 쌓이지 않으면 깊지 않으며, 위엄이 무겁지 않으면 두렵지 않으며, 엄하지 않으면 무겁지 않다. 위엄이 무거우나 인정을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혹은 갑자기 사졸의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속한 밤에 곧바로 부대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혹은 염탐꾼을 많이 늘어놓아 매사에 반드시 동정을 살펴서 헤아려서 이를 모두 알고 미리 조정

하여 권력(權力)으로써 병사들을 마음대로 좌우(左右)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도록 힘쓴다. 그러면 위엄이 오래도록 시행되고 은혜가 자임(自任)할 바를 알아서 내가 당겨서 팽팽하게 하고 풀어서 느슨하게 하여 뜻밖의 근심거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하루 단 한 가지 일에도 감히 태만히 할 수 없으니, 공경과 태만 사이에 길(吉)과 흉(凶)이 나누어진다. 시시각각으로 오직 ‘경(敬)’한 글자를 의지할 만하니, ‘사람을 공경함이 능히 그를 이끌 수 있다.’ 함은 경서(經書)에 써어져 있으나, 깊이 이를 탐구하여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장수된 자가 또 내 말을 가지고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할 것이 분명한 듯하나 실로 신비하여 알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다. 장수를 훈련함에 공경함을 비결로 하여 기절(氣節)이 고상(高尚)해지지 않음이 없으리니, 오직 몸소 힘써 행하기를 오래 하면 스스로 이것이 장수가 되는 근본임을 알 것이다. 만약 은미(隱微)한 효과를 보아 그 요체(要諦)를 얻고 공을 더하여 점차로 자신이 생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익히고 또 익히니, 더욱 즐거워 그만두려 하나 그러지를 못하니, 이에 대장(大將)의 덕(德)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지금 과연 장수가 부족한가? 아니면 가르침이 부족한가? 아니면 등용함에 그 방도가 없는 것인가? 장수에게 요구하는 책무(責務)의 요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가르치고 길러야 한다. 그러나 술선하여 인도하고 일을 분별하는 권한은 윗사람에게 있는데도 이를 옮겨서 거느리게 함이 없으니, 지금의 시속에 얽매어 훌륭한 장재(將材)가 있을지라도 또한 얻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선비가 집에서 수양하면서 장한 뜻을 품고

먼 길을 떠날 때를 생각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 나라는 남북(南北)이 장수를 취하는 관습이 다르고 사정이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북(西北)이 그 장수를 취하는 관습이 다르다는 것이다.

턱짓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려서 몸을 굽히고 심덕(心德)을 억제하면 중선(中選)에 든다. 아부(阿附)하여 환심(歡心)을 사려고 힘쓰고 눈치를 살피가면서 행동거지를 하면 겨우 중선에 든다.

사람을 대함에 아래로 굽어보고 위로 우러러보면서 명분을 세우지 않으면 중선에 든다.

일찍이 학문을 하여 훌륭한 바탕을 마련하지도 않고 큰소리를 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겉으로는 용기를 떨쳐 적을 죽일 것처럼 떠벌이면서 속으로는 권세(權勢) 있는 연줄을 타서 지위(地位)에 오르려는 계책을 꾀하여 단기(單騎)로 적진(敵陣)에 달려 들어가 적을 목베고 칼을 어루만지며 적을 노려보는 것처럼 하면 번번이 상선(上選)에 든다.

그러나 이를 조사해 보면 단기로 적진에 달려들어가 적을 목베지도 못했고,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칼을 어루만졌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칼을 어루만지고 적을 노려보아 맞닥뜨린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3천 병력의 군영(軍營)을 버려두고 백여 명의 가정(家丁)을 이바지하면서 부스러기 공로나 흠치고 장황하게 그 말을 늘어놓아 공로를 삼아서 자랑하니, 비록 대장(大將)이라도 또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입신(立身)을 하여 올라간다.

장사의 성적(成績)을 고사(考査)할 때에 이르러서는 장수를 취제하는 자의 귀와 눈이 미치는 자들은 모두 일을 경험하지 못한 소년(少年)으로서, 식견이 서로 같지 않고 좋아하고 숭상하는 정서가 서로 다르니, 이른바 ‘삼군(三軍)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삼군의 정사를 함께한다.’⁶¹⁾는 것이다.

61) 삼군(三軍)의 함께한다 : 이 말은 《孫子》〈모공편(謀攻篇) 3〉의 ‘삼군의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삼군의 정사를 함께하면 군사들을 혼란하게 만든다.[不知三軍之事 而同三軍之政者 則軍士惑矣]’에서 인용된 것이다.

하물며 장수가 기(氣)를 쓰고 기를 발휘함에 있어서 적절한 한계를 지나침을 면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라도 적합함이 없으면 재주가 손자(孫子)나 오자(吳子)와 같더라도 모두 좋지 못한 이름을 붙이고 곧 뜻하지 아니한 화(禍)를 불러들인다.

장수도 또한 사람이다. 중등의 재주를 가진 자는 대부분 속세를 피하여 숨어서 근심 걱정 없이 살며,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코 없으니, 어찌 오래된 습성을 고칠 수 있겠는가?

동남(東南)지방에서 무변(武弁)을 취재(取材)함에는 풍속이 시문(詩文)을 짓고 읊는 풍류(風流)의 도(道)를 따름을 숭상하고, 질박하거나 정직(正直)함을 보면 혀를 차며 얹잡아본다. 반드시 높은 관(冠)과 넓은 띠의 사대부(士大夫) 복장으로 고담준론(高談峻論)이나 일삼는 무리들이 눈으로 보고 느낌을 얻어서, 이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기며 세속(世俗)에 영합하여 명예와 지위를 도적질한다.

그리고 행오(行伍)와 분수(分數)와 형명(形名)과 법령(法令)을 보기를 마치 혹이나 사마귀처럼 여길 뿐이다. 모든 용병(用兵)을 할 경우에도 일이 많은 가을과 인재(人材)가 달려 모자랄 때에 하면서, 혹은 한 가지 좋은 점만을 채용하고, 혹은 원망을 받아야 할 자를 용서하여 차츰 그의 말을 받아들인다. 한 가지 일이 마약 끝나면 앞서의 노고는 다 잊어버리니, 묵은 원한이 다 일어나 과실(過失)을 책망(責望)하는 자가 잇달아 들고 일어난다. 전일의 원한이 되살아나면, 혹은 ‘시대의 격식에 맞지 않는다.’ 하고, 혹은 ‘이제 도리어 얻었다.’고 하니, 오직 이를 빨리 버리지 않아서 숭봉(崇奉)하는 바를 치욕스럽게 함을 두려워할 뿐이다.

아! 인재를 얻어 국경 변방에 심는 일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장수가 없으면서 장수가 있는 것이니, 장수를 거느리는 자의 책임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가 논하는 바는 수륙(水陸)에서 검용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남북 어느 지방에서이건 고금을 통하여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 그 형식과 모양새만을 그럴듯하게 묘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마치 조(趙)나라의 장군 조괄(趙括)이 다만 그 아버지 조사(趙奢)가 남겨놓은 병법책을 읽은 것만으로 임기응변(臨機應變)을 할 줄 몰랐던 근심을 면치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유감이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하였다.

예컨대 속오(束伍)의 법과 호령(號令)의 적절성과 고무(鼓舞)의 기지(機智)와 상벌(賞罰)의 믿음성은 남북(南北)이나 수륙(水陸)에 걸쳐서 고금을 통털어서 구분이 없다. 그 절제(節制)와 분수(分數)와 형명(形名)은 그 방법이 만세(萬世)동안 한결같았다.

예컨대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진제(陣制) 부문에서는 특히 남방의 지형과 왜적(倭賊)이 출몰하는 정상을 형상으로 그려두어 행오(行伍)의 사이에서 분산(分散)하고 집합(集合)하는 형세를 익히게 하여 처음 등용된 무관(武官)을 가르치고 적의 상황에 따라 전화(轉化)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처지에서 이 방법을 그대로 운용하면 이는 마치 조(趙)나라의 장군 조괄(趙括)이 다만 그 아버지 조사(趙奢)가 남겨놓은 병법책을 읽은 것만으로 임기응변(臨機應變)을 할 줄 몰랐던 근심을 면치 못하게 함이 있어서, 감히 허망(虛妄)하고 부실(不實)함으로 동지들을 그르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적(倭賊)은 성질에 의심이 많아서, 의심하면 전진이 더디다. 양군이 맞닥뜨릴 적에 아군이 절제(節制)가 있으면 그들은 모이지 않으니, 아군은 용이하게 부대를 분배하여 배치할 수가 있다. 내가 지난 수 년 동안 여러 전투에서 보면 적들은 지세가 높고 험한 곳에 의지하여 앉아서 아군과 대치하다가 날이 저물어지면 아군의 기세가 느슨해진 틈을 타고 돌진해 나와 혹은 군대가 철수

하느라고 혼잡한 틈을 타서 추격을 하고, 예기(銳氣)가 왕성한 첫 접전의 승세를 타기를 잘한다.

또 투구 위에 오색(五色)의 매듭실을 써서 금은(金銀)을 얹어매고 쇠뿔모양의 장식을 가하여 마치 귀신처럼 꾸며서 아군의 사기(士氣)를 빼앗고, 번쩍이는 거울을 많이 가지고 창검을 잘 갈아서 햇볕에 번쩍거리게 하여 우리 군사들이 눈을 바로 뜨지를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아군은 이들과 오래 대치하면 곧 겁을 먹는다. 내가 적병을 물리치는 방법으로서 원앙진세(鴛鴦陣勢)의 속전조(速戰條)를 두 번 세 번 거듭하여 간절하고 간절하게 알려주는 것은 참으로 이때문이다.

북방(北方)의 평평하고 넓은 곳에서는 남방(南方)과 달리 오랑캐의 기병(騎兵) 수만 기(騎)가 움직이고, 병력의 많고 적음이 또한 달라서 달리기를 폭풍우와 같이하여 나아가도 멈추게 할 수가 없으니, 어찌 이 방법을 운용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미처 대답하지 못하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10만의 병력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말하였다.

10만의 병력을 운용하는 재능은 내가 미칠 바가 아니나, 다만 그 경우가 되면 따로이 10만의 병력을 운용할 방도가 있다. 근래에 계주(薊州)지방에서 이를 시험해 보았으나, 15년 동안은 오랑캐가 침범하지 않았으니, 적으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위경(衛尉卿)이 이를 일러 ‘일의 상황에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관군(官軍)을 설치한 이래로 지금까지 군사를 훈련한 것이 2백여 년이 되었다. 그대가 지금 1~2년을 한 훈련과 비교하여 누가 더 병사(兵士)들을 숙달시켰을까? 저들 관군도 또한 진법(陣法)이 있어서 교장(敎場) 안에서 연습을 하나, 모두 때에 맞게 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내가 말하였다.

예컨대, 경학(經學)을 하는 유생이 평일에 강습하는 것은 바로 경서(經書)와 책론(策論)이니, 일단 시제(詩題)에 들어가면 눈이 경서와 책론을 넘어서지 않고서도 급제할 수 있으나, 만약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모두 사부(詞賦)와 예술(藝術)의 서적을 공부하여 평생의 공력을 다한다면 어찌 시험(試驗)에 도움이 되겠는가?

가령 지금의 군사(軍士)가 평일에 익히고 배운 호령(號令)과 영예(營藝)를 모두 임진(臨陣)에 대비시켜서 전진(戰陣)에 임할 경우, 곧 평일에 익히고 배운 것을 사용하여 하루를 조련하면 반드시 하루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기예를 익히면 곧 한 가지 기예의 이로움을 얻을 것이니, 하물며 2백 년에 있어서이겠는가? 하물며 어릴 적부터 무적(武籍)에 올라 있는 무사(武士)에 있어서 이겠는가?

돌이켜보건대, 세월이 오래되어 익히고 배움이 그릇되게 전수되어 통용되고 있으니, 이는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는 허울좋은 겉치레일 뿐이다. 전진(戰陣)에 임하는 진정한 法令과 영예(營藝)는 단 한 가지도 서로 부합됨이 없으니, 전진에 임해서는 또 한 번 새로운 법령이 나온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그 조련이 백 년에 이른다 한들 실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각종의 기기(器技)와 영진(營陣)은 모두가 사람을 죽여 난리를 평정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어떻게 곧바로 귀와 눈에 쏘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

상관(上官)이 사열(查閱)할 적에 이르러서는 상관 자신이 무에

(武藝)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예에 대해서 비교하고 시험하거나 묻지를 않는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자도 다만 일이 잘 되도록 이리저리 힘을 써서 좌우로 변통하여 걸치레로 꾸며대는 허울 좋은 동작인 화법(花法)에만 치중한다.

그리하여 무예의 동작은 마치 울긋불긋한 화초(花草)가 만발한 듯하며, 영진(營陣)을 함에 있어서도 다만 화려하게 꾸미는 데에만 힘쓰고 변통하고자 하여 우스꽝스러운 판을 만드니, 누가 일찍이 도형(圖形)에 따라 군사들에 대하여 한 곡절(曲折) 한 글자를 따지면서 끝까지 고사(考査)하고 캐물겠는가?

이른바 화법(花法)이 지나쳐서 쌍방이 교봉(交鋒)을 함에 있어서 배워 익히는 길이 점점 혼미해지니 이는 무예(武藝)의 병통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형식이 성행하고 참된 영진법이 폐지되니, 이는 제진(制陣)의 병통이다.

그 기기(器技)와 영진(營陣)을 이룩하는 가운데에 단 한 가지의 화법도 써서는 안되거늘, 하물며 가르치는 방법까지 다르게 해서 되겠는가? 다르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똑같으니, 하물며 가르치지 않음에 있어서이겠는가?

교련과 열병(閱兵)을 맡은 자는 마땅히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임용하여 비교하고 헤아리는 저울대와 거울로 삼아야 한다. 만약 임시로 선임한 위관(委官)이 일을 주관하게 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교련(敎鍊)하는 등급과 순서는 진실로 이미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전서(全書) 가운데에 보이는데, 조련(操練)과 영진(營陣)을 일러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형식이라 이름은 어찌서인가?

내가 말하였다.

이는 무예(武藝)를 가르침이 어려운 까닭이다. 무예는 한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거늘, 하물며 하루에 이루어질 공(功)이 아님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러므로 마땅히 침착하고 조용하게 가르치고 익혀야 한다.

만약 1만 명의 병사들이 행오(行伍)와 영진(營陣)이 없으면 그 어느 곳에 단 한사람이라도 세울 수 있겠으며, 1만 사람 가운데에 들어가 그 어느 곳에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열 사람이 아무개는 앞에 있고, 아무개는 뒤에 있고, 아무개는 왼쪽에 있고, 아무개는 오른쪽에 있어서, 만약 평소에 정하여 미리 익히지 않고 교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자.

큰소리로 ‘우리 대(隊)는 어디 있는가?’ ‘우리 대는 어디 있는가?’ 하며 두목의 이름을 불러대며 그곳을 찾고 그를 따르느라고 1만 사람의 입이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을 피우니, 과연 군기(軍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영(下營)할 때에는 혹 나뉘었다가 합치기도 하고 혹 합쳤다가 나뉘기도 하며, 함께 교봉(交鋒)하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도 멈칫거리고 서성이면서 ‘나는 나누어서 어느 대로 향해야 하는가?’ ‘나는 합해서 어느 대로 향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진실로 승부를 결정짓는 일로서, 다만 이 한 차례의 일은 적과 보루(堡壘)를 마주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장사(場肆) 안에서도 익힐 수 없는 것이니, 이를 어디에서 익힐 것인가?

진실로 영진(營陣)과 기고(旗鼓)와 호령(號令)을 소홀히 여기면 적과 맞닥뜨려서는 물론이요, 교장(敎場) 안에서도 가장 먼저 혼란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진과 기고와 호령을 일러 ‘실속 없이 모양만 갖추어 놓은 허구(虛具)’라고 하니, 이는 병사(兵事)를 모르는 자의 말이다. 이것이 무예(武藝)를 가르침이 어려운 까닭이다.

옛사람 손무(孫武)가 오왕(吳王) 합려(闔閭)의 궁빈(宮嬪)을 목베어 영진과 호령을 가르치고 무예를 비교 시험한 일을 살펴보라.

역대에 군사를 거느렸던 지난 일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여 아무영(營) 아무진(陣) 아무공작(工作)을 어떻게 익혔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모두 규칙이 있었다. 그러나 다만 병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모든 규칙이 통용되지 않는다.

고금(古今)의 무변(武弁)들이 자격도 없이 장령(將領)이 되어가지고 영진(營陣)과 기고(旗鼓)와 호령(號令)의 참된 원칙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를 잘못 전하고 잘못 익힌 지가 오래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를 이르기 위해 ‘실속 없이 모양만 갖추어 놓은 허구(虛具)’라고 하니, 이는 유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허구임을 분명히 안다면 장차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이른바 목이 메인다 하여 밥을 먹지 않음과 같음이 이것이다. 필경은 영진(營陣)과 기고(旗鼓)와 호령(號令)을 제1의 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바로 절제(節制)이다. 기율(紀律)이다. 1만 사람을 한사람과 같이 몰고 가야 하는 것이다. 양(羊)의 무리를 몰고 달려가고 달려오는 것과 같다. 떠들썩하고 뒤숭숭하게 싸워서 혼잡한 듯하나 혼잡하지 않고,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뚜렷하지 않은 듯하나 형체가 등글어서 패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강한 자가 앞서지도 못하고 약한 자가 뒤처지지도 않는 것이다.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이다. 나아가면 진영(陣營)을 이루고 멈추면 누벽(壘壁)을 만드는 것이다.

한 머리에 두 꼬리가 있으니, 비유하면 술연(率然)과 같다. 술연은 상산(常山)에 있는 뱀이다. 정병(正兵)을 기병(奇兵)으로 하고 기병을 정병으로 하니, 기병과 정병이 서로를 살린다.

그러므로 병가(兵家)의 이론은 무려 수천 수백 가지이면서도 모두 영진(營陣)과 기고(旗鼓)와 기율(紀律)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원칙을 찾아서 이를 익히면 옳거니와, 만약 ‘실속 없이 모양만 갖추어 놓은 허구(虛具)’라 하여, 그르다 함은 옳지 못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이르기를 ‘옛 법(法)은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올가미와 같아서 실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대가 교련(敎鍊)하는 병사들에게도 또한 옛 법을 쓰지 않는가?

내가 말하였다.

대개 지방은 풍토(風土)와 기후(氣候)가 다르고 인정(人情)과 성품(性品)도 또한 다르므로, 그 밝은 바를 가지고 그 막힌 바를 통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침내 이르기를 ‘병법(兵法)을 실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 것이니, 이 어찌 병사(兵事)에 능한 자라 하겠는가?

이는 특히 군중(軍中)을 다스리는 일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하물며 걱정이 변화하고 지형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한단 말인가?

절강(浙江)의 향병(鄉兵) 가운데 가용하다고 할 수 있는 병력이 처음에는 오직 처주(處州)에만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의오병(義烏兵)⁶²⁾을 창설하여 모집하고, 이어서 금화(金華)와 제기(諸暨)와 태주(台州)에서도 향병을 모집하였는데, 다른 곳의 병력은 쓸 수가 없었다.

이는 모두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처주(處州)는 향병(鄉兵)의 시초가 된 곳으로, 그들은 광산의 인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평소 싸움에 익숙하기로 이름이 났었다. 그런데 왜적(倭賊)을 죽임에 미쳐서는 겨우 한두 번 이긴 뒤에는 거둬 패배하니 이는 어째서인가?

대개 처주의 병사들은 성질이 사납고 산중에서 출생하여 신의(信義)를 지키는 것을 숭상한다. 만약 출전(出戰)하고자 할 때에는

62) 의오병(義烏兵) : 척계광(戚繼光)이 의오현(義烏縣) 백성들에게 무예를 가르쳐 사람마다 돌을 던지고 장애물을 뛰어 넘는 재주를 익히게 해서 왜구를 격파하는데 큰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이를 의오병(義烏兵)이라 불렀다.

먼저 그 뜻을 보이고 진실로 힘이 적을 당할 수 없으면 곧 말하기를 ‘할 수 없다! 네가 나와 반드시 싸우겠다면 반드시 기한을 어기지 않겠다.’ 하고는, 혹은 이기고 혹은 지기를 적병과 더불어 단 한번 칼날을 접함으로써 결정해 버린다.

그러나 성정(性情)을 제어하지 못하여 승부(勝負)를 오직 단 한번의 싸움으로 결정해서 다시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 그 기백(氣魄)은 용감하나 견고하지를 못하다.

이 부대가 성세(盛勢)를 떨칠 적에 다른 부대는 명성이 없었는데, 가정(嘉靖) 갑인년(1554) 이후에는 바야흐로 소흥병(紹興兵)의 명성이 드러났다. 대개 소흥병은 모두 승현(嵊縣)·제기(諸暨)·신창(新昌) 등지의 산간과 연해지역 출신이다. 이 부대는 매우 민첩하고 의용(儀容)과 형상(形狀)이 볼 만하다. 마음은 실로 겁이 많으나 어려움과 쉬움을 불문하고 받아들여서 행하지 않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오직 완급(緩急)의 때를 당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물고 가면 앞으로 나아가고, 적이 가까이 오면 문득 달아난다. 적이 돌아 가면 추격하고, 적이 되돌아오면 또다시 달아나기를 거듭한다.

협준한 지형에 의지하여 종일토록 적과 대치하다가 적이 20~30보 안에 이르러 단병(短兵)으로 접전을 벌여 오면 전군이 달아난다. 한 왜적(倭賊)이 2~3천의 병력을 추격하여 십수 리를 휩쓸고 오는데도 감히 그 발길을 멈추게 하는 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적정(敵情)을 탐지하고 성(城)을 지키거나 차영(箭營)을 하는 등의 힘드는 일은 피하지 않는다. 관대함으로 어거하여도 잘 길들여지고, 사나움으로 어거하여도 또한 잘 길들여진다. 그러나 마침내는 맨 먼저 죽음과 삶의 중함을 따지기 때문에 그 기(氣)가 자연히 겁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후로는 바야흐로 태주병(台州兵)의 명성이 드러났다. 대개 태주병은 태수(太守) 담공(譚公)의 위엄으로 능히 그 마음을 끌었으므로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 타인보다 그 업적이 드러났다.

이 부대는 그 성질이 온주병(溫州兵)과는 서로 다르니, 대개 허

(虛)와 실(實)의 사이에서 착실히 이를 고무(鼓舞)하면 또한 쓸만하였다.

기미년(1559)에 의오윤(義烏尹)인 조공(趙公)⁶³⁾이 병력을 모집함에, 내가 이에 따라서 모으고 뽑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부오(部伍)를 만드니, 이에 비로소 의오병(義烏兵)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전에도 의오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개 여러 번 나오고 여러 번 패하였으므로 뛰어난이 없었다. 또한 의오지방 사람들은 그 성질이 교활한 속임수를 잘 쓰는 것 같으면서도 용감하고 예리하여, 혈기(血氣)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독려하여 적과 칼날을 맞닥뜨리게 하면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감하기로는 처주병(處州兵)보다 아래의 등급에 속한다. 그러나 한번 싸운 뒤에 오히려 갑자기 창끝을 돌려서 곧장 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 호령(號令)을 듣지 않고 행동하다가 끝내 함몰되고마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 병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리하면서도 민첩하거나, 간사하면서도 속임수가 많거나, 나약하면서도 겁이 많거나, 간사하면서도 교활하여, 내가 미처 고무(鼓舞)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무리들이 미리 기계(奇計)를 생각하여 일을 복잡하게 하는 근원을 만들기도 한다.

이들을 가지고 차등을 두어 구별하여 적재(適材)를 얻어 교련(敎鍊)을 한다면, 결국 처주병(處州兵)을 제일로 치고, 의오병(義烏兵)을 그 다음으로 하며, 태주병(台州兵)을 그 다음으로 하고, 소흥병(紹興兵)을 다시 그 다음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63) 의오윤(義烏尹) 조공(趙公): 척계광(戚繼光)이 의오병(義烏兵)을 초모(招募)할 당시에 의오현(義烏縣) 지현(知縣)으로 재임했던 조대하(趙大河)를 가리킴. 조대하는 강음(江陰) 사람으로 명(明)나라 세종(世宗) 가정(嘉靖) 35년(1556)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의오현 지현을 지낸 인물이다. 가정 38년(1559) 9월에 척계광이 의오현에 이르러 향병(鄉兵)을 초모할 적에 이에 적극 협력하여 진대성(陳大成)·왕여룡(王如龍) 등이 이끄는 장정 4천여 명을 모아서 왜구토벌의 주력부대인 척가군(戚家軍)을 편성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처주병(處州兵)을 조련(操練)하는 방법은, 조련을 통하여 여러 전투에서 굳게 건디는 힘을 기르게 하여 그 사기(士氣)가 저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의오병(義烏兵)을 조련하는 방법은, 과격적인 은혜(恩惠)와 위엄(威嚴)을 함께 베풀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절제(節制)를 따르게 하고 진퇴(進退)가 한결같이 법령(法令)과 일치하게 함으로써, 그 강하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그 길들여지지 않음을 근심하며, 그 이기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그 교만함을 근심하게 하는 데에 있다.

태주병(台州兵)과 온주병(溫州兵)을 조련하는 방법은, 반드시 위엄을 한 등급 더 가하는 데에 있다.

소흥병(紹興兵)을 조련하는 방법은, 반드시 군령(軍令)을 중하게 하여 그 마음에 겁을 내게 하고, 군령을 결단하여 그 믿음을 세워서 능히 단병(短兵)으로 접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뒤에 혹시 만일의 경우에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병력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들의 장(腸)과 위(胃)를 세척하여 그 구태를 완전히 제거하고 예측하지 못할 이상한 명령을 베풀어서 시행한 연후에라야 겨우 소흥병의 수준에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병사들을 적의 예봉(銳鋒)과 맞닥뜨려 싸우게 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병사들을 시살(廝殺)하여 무찌르는 싸움에 내보내지 못할 것이 없으며, 강한 병사들을 이루 다 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였다.

지금의 처주(處州) 백성은 쇠퇴하고 부진하여 겁이 많고 나약하기가 극도에 이르렀는데, 그대는 오히려 처주병(處州兵)을 제일이라 칭하니, 어째서인가?

내가 말하였다.

군대(軍隊)가 이기고 지는 것은 기(氣)에 달려 있다. 병사(兵士)는 능히 승부(勝負)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기(氣)를 주관하지는 못한다. 기에는 소멸(消滅)함과 성장(生長)함이 있어서 항상 가득찰 수가 없다.

기를 주관하는 자가 이를 다스리고 통제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모든 병사된 자는 비록 기가 썩썩하다 할지라도 한 번 큰 싸움을 겪어서 전승(全勝)을 하면 기는 반드시 새어 나갔다가 또다시 다스려져, 기가 항상 가득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다시 다스려지지 않은채 이를 다시 쓰면 기가 흐려지고, 세 번을 쓰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이기는 군대가 없는 것이다. 비유컨대, 맑은 샘의 가느다란 물줄기에서 번번이 큰 물둥이로 연달아 물을 길는다면 반드시 흐려지고 흐려지는데도 사이를 두지 않고 거듭하면 마르는 것이요, 반드시 그 흐려진 것을 맑게 하고 또 물 길는 것을 중지하면, 이 때문에 항상 물이 맑고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처주병(處州兵)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던 시기가 바로 처음에 도달한 샘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장령(將領)들은 절제(節制)라는 것을 모르고 그 기를 쓰고서도 축적하지 않아서 기가 이미 흐려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아직 마르지는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처주병의 명성이 천하에 드러나서 처주병을 모집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맨 먼저 절강(浙江), 다음으로는 직례(直隸), 그 다음으로는 민중(閩中)이 모두 처주병으로 병력을 보충하였다.

이와 같이 처주병이 널리 모집되면서 장령의 숫자도 많아지니, 교련(敎鍊)에 공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비유컨대 황무지의 잡초가 우거진 땅을 경작하여 수확을 하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마침내는 다시 떨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병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의오병(義烏兵)은 나의 부하로 예속된 뒤로부터 밤낮으로 조련을 거듭하여 겨우 2년만에 마침내 태주에 주둔하여 신유년(1561)에 여러 차례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자, 혹 가까이 있는 친한 이들도 또한 이르기를 ‘의오병은 천부적으로 성질이 용맹하여 교습(敎習)을 하지 않더라도 쓸 수가 있다.’고 한다. 지금 의오병을 모집하는 경우는 멀리 동남지방의 몇개 성(省)으로부터 북쪽 변방에 이르기까지에 달하여 모두 이미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아지 못하겠거니와, 의오병은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매우 좁은 땅 안에 모두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중에서 다시 그 용감하고 건장한 자를 택하면 또 얼마가 되겠는가? 지금 분분히 사방의 모집에 응하는 자가 이만여 명이니, 민가(民家)에 이를 편입함에 노유(老幼), 관리(官吏), 생원(生員), 잡역(雜役)을 제외하고, 장정 열 사람이나 다섯 사람 가운데서 한 장사(壯士)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각처의 서로 다른 장령(將領)들은 사람마다 병사(兵事)를 알지 못할 것이고, 사람마다 의오병의 성질을 알지 못할 것이며, 사람마다 자기 몸과 집을 덜어가며 부하를 거느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이들을 쑈에 있어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적으로부터 대대적인 습격을 받아 동촌(東村)에서 자식을 잃음을 애통하고, 서촌(西村)에서 지아비를 잃음을 호곡하리니, 이렇게 된 뒤에는 한 고을이 예기(銳氣)를 빼앗겨서 의오병도 마침내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가 거느리는 의오병(義烏兵)은 어째서 능한가?

내가 말하였다.

옛날 기미년(1559) 겨울, 이들을 처음 모집했을 적에, 평시에는 파격적인 호령(號令)을 쓰기도 하고 매우 중한 상(賞)과 벌(罰)을 시행하여 엄하기를 상설(霜雪)과 같이하여, 위신(威信)을 세웠다. 혹은 교장(敎場) 안에서 전진(戰陣)에 임하는 훈련을 할 적에, 혹은

담소하는 사이에도 도검(刀劍)과 부월(斧鉞)을 진열하여 위엄을 보였는데, 이는 위신을 도와서 반드시 실행하여 다른 근심거리가 없게 하려는 까닭에서였다.

혹은 친히 탕약(湯藥)을 가지고 병든 부하 병졸에게 먹이기도 하였다. 혹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노고를 함께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한밤중에 병사의 대오 안에 섞여 지내기도 하고, 혹은 나의 사사로운 재물을 내어놓아 그들의 감동을 얻기도 하였다.

비록 사졸(士卒)의 한 자 남짓되는 병기(兵器)라 할지라도 또한 친히 비교 시험함을 거쳐서 몸소 먼저 이를 익혀 여러 병사를 위해 술선하였다. 밤에는 군무(軍務)로 말미암아 잠자던 중에 깨지 않고 끝까지 잔 적이 없으며, 낮에는 밥 먹던 중에 뱉지 않고 끝까지 먹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마음을 잠시라도 혹 태만히 한 적이 없었으며, 비록 여러번 이긴 병사라 할지라도 이를 다스리기를 이기기 전보다 배나 더하게 하여 마음 속에 추호나마 옛 기백(氣魄)을 믿고 이를 소진하여 지탱하지 못함에 이르지 않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의오병을 백전백승(百戰百勝)의 병사(兵士)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이지, 병사를 지휘하는 장령(將領)들에게 백전백승의 마음이 있어서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용병(用兵)을 하여 적과 맞닥뜨릴 적에는 전투기일보다 2~3일 앞서서, 먼저 당보군(塘報軍)에게 중한 형벌(刑罰)과 후한 상(賞)을 다짐하고, 적의 기밀사항을 살피서 보고하도록 한다. 당보군은 적의 지형과 일거일동을 보고하되, 한 시진(時辰)이 넘을 때마다 반드시 보고한다. 또 전투 하루 전날 휘하의 친병(親兵)과 싸움에 능한 사졸 100~200명을 내보내어 적의 좌우에 분포 배치하여 적진(敵陣)의 핵심(核心)으로 들어가게 한다.

무릇 적의 분산(分散)과 통합(統合), 들어가고 나오는 것, 병력의 많고 적음, 지향하여 가는 방향, 병력 진행의 경로를 모두 다 꿰뚫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바야흐로 그 얻은 바의 정황과 형

세를 점토(粘土)에다가 표시해서 산골짜기와 적의 근거지를 형상으로 만들거나, 먹을 갈아 붓으로 그려서 따로이 배포하여 각 지휘관으로 하여금 마치 직접 현장을 발로 밟는 듯이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알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기일을 약속하여 길을 나누어 논의한 바와 같이 신표(信標)와 구두명령(口頭命令)을 하달하고 적이 있는 곳으로 진군한다.

아직 진영(陣營)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더듬을 걱정하고, 이미 진영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흠결이 있을까를 걱정한다. 전진(戰陣)을 마주하여 교전함에 그 유인함이 있을까를 걱정하고, 이미 이겼으나 그 교만해짐을 걱정한다. 정신과 마음을 항상 사졸(士卒)과 적(敵)과의 사이에서 유통하고자 한다.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또한 반드시 옷을 벗어서 전망자(戰亡者)의 유해(遺骸)를 거두고, 금전(金錢)과 포백(布帛)을 지출하여 고아(孤兒)와 미망인(未亡人)을 구휼(救恤)한다. 적의 예봉(銳鋒)에 맞서 싸운 자에게 중한 상(賞)을 주고, 연좌(連坐)의 주벌(誅罰)을 명확히 한다.

비록 대패(大敗)를 하였다 할지라도 또한 반드시 상(賞)을 주어야 할 병사가 있으며, 대승(大勝)을 하였다 할지라도 또한 반드시 벌(罰)을 받아야 할 무리가 있다. 그 마음과 정신, 뜻과 기운을 따라 살펴서 합당함에 따라 평가하여 그 기미(機微)를 결단하여야 한다.

기계(器械)와 행오(行伍)는 한 번 싸웠는데도 전과 같으면 바꾸지 않고, 두 번 싸운 뒤에는 비록 사졸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경상(輕傷)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기계도 또한 많이 손상되었을 것이니, 그 중군(中軍)의 1초(哨)를 택하여 지휘자가 혹시 유고(有故)할 경우에는 그 대오(隊伍) 휘하의 인원을 보충하고 즉시 중군에 비축된 기계를 대여한다.

전투(戰鬪)하는 진영(陣營)과 행오(行伍)에는 단 한사람의 병사(兵士)도 결원이 없도록 하고 한 벌의 병기(兵器)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힘을 쓴 연후에라야 또한 다시 나아가 거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팔진(八陣)에서 이른바 ‘유병(遊兵) 24대(隊)’란 방비(防備)·설의(設疑)·보결(補缺)에 쓰이는 것이니, 바로 이것을 이른 것이다.

이로써 행오에는 항상 넉넉한 정원이 있고, 사졸들에게는 항상 충만한 사기(士氣)가 있으니, 지금의 이른바 중군(中軍)은 바로 팔진(八陣)의 유병(遊兵)이다.

그리고, 주장(主將)은 마땅히 수백 명의 병력을 상비하여 친히 중군(中軍)에서 기르고 조련(操練)하여 유사시에 베풀어 써야 할 것이니, 만약 미리부터 오랫동안 준비가 되지 않고서야 일시에 어떻게 능히 불러 모을 수가 있겠는가? 이를 운용하여 나아가 적을 치게 하는 것을 더욱 제1의 순서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진실로 여러 가지 방도가 있으니, 또한 기정(奇正)의 법으로 삼아서 적으로 말미암아 전화(轉化)하게 하고, 이 전화에 따라 권도(權道)를 쓰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시행하고, 실정에 따라 법을 두어, 이를 가감하도록 함에 이르러서는 신묘(神妙)하고 헤아리기 어려움을 필설(筆舌)로써는 능히 알게 해 줄 수가 없다.

내가 근자에 민월(閩粵：福建省)로 임지를 옮겨서 병사(兵事)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

절강(浙江)땅 병력(兵力)의 두 종류에 대해서 그 실재를 살펴보면, 항주(杭州)와 가흥(嘉興) 등의 부(府)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 이를 ‘절병(浙兵)’이라 일컫고, 직례와 복건 등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 ‘절(浙)’이라 일컫는데, 그것이 옳은가?

바로 절강(浙江) 한 성(省)은 오직 처주(處州)·금화(金華)를 상등(上等)으로 하고 온주(溫州)·태주(台州)·영화(寧化)·소흥(紹興)을 하등(下等)으로 삼았는데, 지금 모두 이르기를 ‘절강성이 다른 성보다 지극하다.’ 하니, 또한 그러하다. 명색은 이러하나 사람이 능히 옛적의 일을 수립할 것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토병(土兵)’은 월(粵)땅 사람이다. 광서(廣西)·호광(湖廣)·강서

(江西)에서는 모두 이르기를 이를 ‘토병(土兵)’이라고 하는데, 바로 월(粵)땅의 동쪽으로는 광주의 양산(陽山)과 혜주(惠州)의 장(長)·락(樂)·흥(興)·영(寧)·조주(潮州)의 정향(程鄉) 등지와 복건(福建)·정주(汀州) 등지와 상항(上杭)·강서(江西)·용남(龍南)의 동향(東鄉)과 숭락(崇樂) 등지를 그 다음으로 하니, 하물며 다른 군에 있어서이겠는가? 혼란함이 이와 같으니, 조련(操練)을 하고자 하나 억지로 하기가 어렵다.

장수가 사졸을 훈련함은 바로 서당방 훈장이 어린이를 가르침과 같으니, 가르친다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스승은 두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자질과 성품이 서로 가까운 자가 있고 서로 먼 자가 있으니, 가까우면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고 멀면 날마다 매질을 하며 그 성취함을 구하려 하나 얻지를 못한다.

소흥병(紹興兵)을 온갖 방법을 다하여 가르치면 볼만한 것이 없지 않으나, 그들이 단도(短刀)를 가지고 적과 근접하여 싸우는 것을 보려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얻을 수 없는 일이니, 곧 이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재물을 기울여 상(賞)을 준다 할지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의오병(義烏兵)의 대열 가운데에 섞어 넣으면 용맹하고 민첩함이 또한 저들만 한 자가 없을 것이니, 만약 날래고 용맹스러운 자 여러 명을 뽑아서 소흥병에 다수를 배치하면 그 용맹을 겸비한 자들이 약진할 것이다.

고금(古今)의 명장(名將) 가운데에서는 오직 한(漢)나라의 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이 병사들의 오합지졸(烏合之卒)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병사들의 강약(強弱)을 따지지 않아서, 다만 병력을 붙여주면 곧 거느려서 이를 휘몰아 문득 이기게 하였으니, 이러한 경우는 손을 꼽아 보아서 둘도 없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군대에서는 반드시 절제(節制)를 써야 하니, 나의 이 말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법령(法令)을 쓰지 않고서도 이기는 자는 하늘이 낸 훌륭한 인사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히 망녕되이 이르기를 ‘자세함이 없다.’ 하니,

이에 이르러서는 구태어 입을 놀려 이목(耳目)을 혼란하게 하지 않으려 한다. 대개 뜻을 같이하는 자들과 함께 행오(行伍) 사이에 힘을 의뢰하여 직분을 펼침으로써 군부(君父)의 은혜와 알아주심에 보답할 뿐이다.

행여 부득이한 마음을 근원으로 하여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거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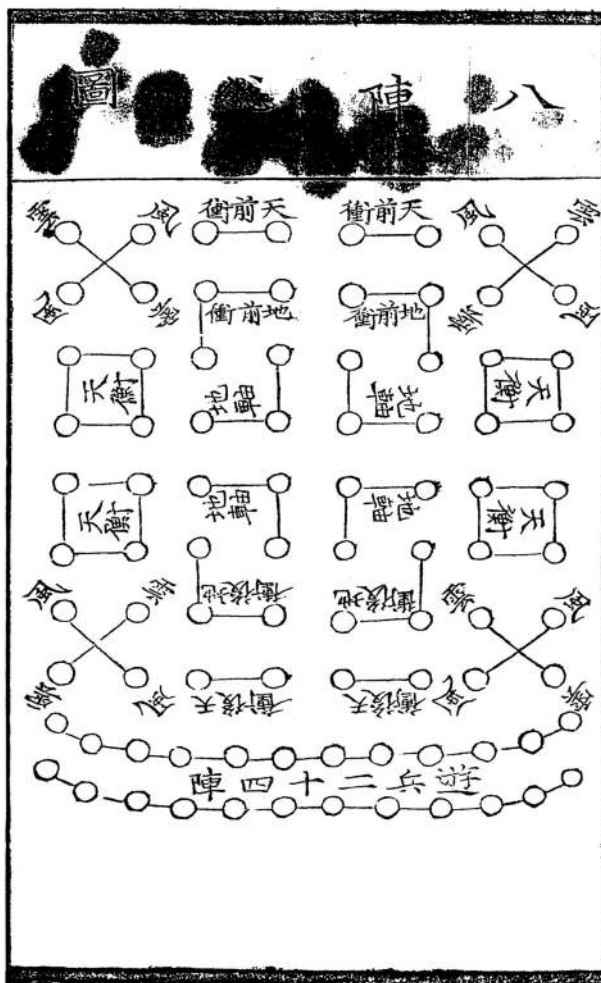
[紀效新書(下)]

권15 별집 진도편[別集 陣圖篇]

■ 권15 별집 진도편[別集 陣圖篇]

▣ 팔진총도[八陣總圖]

【그림 59】



팔진도(八陣圖)의 천충(天衝)·천형(天衡)·지충(地衝)·지축(地軸)·풍운(風雲)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뜻을 취한 것인가?

신(臣：戚繼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충(衝：찌름)은 돌(突：부딪침)이니, 충분히 서로 이어서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머리와 꼬리에 두었습니다.

형(衡：저울질함)은 평(平：평평함)이니, 충분히 서로 균형을 유지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왼쪽과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축(軸：굴대)은 추(樞：지도리)이니, 충분히 서로 빙빙 돌면서 감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중앙에 두었습니다.

이들을 천(天), 또는 지(地)라고 이름한 것은, 이 충(衝)·형(衡)·축(軸)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며, 지극히 두텁고 지극히 무거움을 말한 것입니다. 천(天)과 지(地)가 아니면 족히 이름하여 형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름으로 하여 형용한 것입니다.

풍(風)과 운(雲)은 형체가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천(天)과 지(地)가 풍(風)과 운(雲)을 얻어서 변화를 이룩하니, 진법(陣法)에서 풍(風)과 운(雲)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대개 이에서 취한 것입니다.

시(詩)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神)이 천(天)과 지(地)를 충(衝)과 형(衡)과 축(軸)에

간직하고

神藏天地衝衡軸

풍(風)과 운(雲)을 더하여 하나의 둥근 테를 만들도다

添箇風雲一圓幅

건원(乾元)⁶⁴이 용구(用九)⁶⁵하여 비궁(飛宮)⁶⁶을 일으키니
 乾元用九起飛宮
 사람은 이를 보고 시름하고 귀신은 이를 보고 통곡하네
 人見愁兮鬼見哭

시의 뜻은 이러합니다.

기구(起句)에서는 진도(陣圖)의 교차하고 변화하는 신묘한 기미(機微)가 충(衝)·형(衡)·축(軸)의 가운데에 간직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에서는 이 충(衝)·형(衡)·축(軸)이 다만 사방의 형국을 이룩하여 반드시 풍(風)과 운(雲)을 더한 뒤에 네 정면과 네 모서리를 뒤섞어 하나의 둥근 테두리를 이룩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에서는 병가(兵家)의 수(數)는 음양(陰陽)으로 길흉(吉凶) 화복(禍福)을 미리 아는 술법(術法)인 역수(易數)와 용구(用九)를 근본으로 하여 팔수(八數)를 밖에서 팔진(八陣)으로 변화시키되, 일수(一數)는 그대로 남겨두어 중앙을 지키도록 하며, 태연(太衍)이 구궁(九宮)으로 날아서 숨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에서는 이 진법(陣法)이 팔면(八面)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뒤섞여서 만들어진 한덩어리가 되니, 어디에 손을 쓰거나, 맞이하는 자는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는 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보고 시름하고 귀신은 이를 보고 통곡한다.’고 한 것입니다.

64) 건원(乾元) : 하늘을 가리킴

65) 용구(用九) : 《주역(周易)》〈건괘(乾卦)〉에 나오는 점괘 여섯 가지의 획수가 모두 9인 경우를 말함

66) 비궁(飛宮) : 수명(壽命)에 관한 운수(運數)를 알아보는 별자리인 명궁(命宮)의 사화(四化 : 화록(化祿)·화권(化權)·화과(化科)·화기(化忌)]가 떨어지는 궁(宮)을 말한다. 궁(宮)은 고대(古代)의 역법(曆法)에서 하늘의 둘레 360도(度)를 12로 나누어 그 12분의 1인 30도에 해당하는 분야를 1궁(宮)으로 한 것이다.

단지 28개의 문자만을 써서 한 개 총도(總圖)의 형체와 성정(性情)을 이처럼 맑고 깨끗하며 소탈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찍이 선철(先哲)들, 예컨대 마룡(馬隆)⁶⁷⁾ · 두목(杜牧)⁶⁸⁾ · 한금호(韓擒虎)⁶⁹⁾ · 이정(李靖)⁷⁰⁾ · 왕진(王震)⁷¹⁾ · 채원정(蔡元定)⁷²⁾

- 67) 마룡(馬隆) : 마룡(馬隆, ?~?)은 자가 효흥(孝興)이며 동평(東平) 평륙(平陸) 사람이다. 서진(西晉) 무제(武帝) 때의 명장으로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고 명예와 절개를 세우기를 좋아하였다. 태시(泰始) 5년(270), 양주(涼州) 지역의 강족(羌族) 독발수기능(禿髮樹機能)이 반란을 일으켜 하서(河西) 지역과의 교통이 단절되자, 자청해서 용사(勇士) 3천 5백 명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상금(賞金)과 벼슬을 내리고 출전(出戰)하여 마침내 서쪽 지역을 평정하고 무제(武帝)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晉書 卷57 馬隆列傳》
- 68) 두목(杜牧) : 두목(杜牧, 803~852)은 자가 목지(牧之)이며 호가 번천(樊川)으로, 경조(京兆) 만년(萬年)의 사족(士族)이다. 만당(晚唐)시대의 저명한 시인이자 고문운동가(古文運動家)로서 오언고시(五言古詩)와 칠언율시(七言律詩)에 능하였다. 일찍이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임명되었는데, 중서성(中書省)의 별명이 자미경(紫微省)이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두자미(杜紫微)라 일컬었다. 그 시는 재기가 넘치고 청신(清新)하였으며, 문장은 정심(精深)하고 폭이 넓었다. 용병(用兵)과 군사(軍事)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찍이《손자병법(孫子兵法)》에 주석을 달기도 하였다. 이상은(李商隱)과 더불어 ‘이두(李杜)’로 불렸으며, 작품이 두보(杜甫)와 비슷하다 해서 그를 소두(小杜)라고도 일컫는다. 만당(晚唐) 시대의 시인답게 수사(修辭)에 능했지만,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욱 중시하였다. 대표작인 〈아방궁부(阿房宮賦)〉, 〈강남춘(江南春)〉과 《번천문집(樊川文集)》 등이 전해진다.
- 69) 한금호(韓擒虎) : 한금호(韓擒虎, 538~592)는 본명이 금표(擒豹)이며 자는 자통(子通)이다. 하남(河南) 동원(東垣) 사람으로 수(隋)나라 초기의 개국공신이다. 아버지 한웅(韓雄)은 북주(北周)의 대장군(大將軍)이다. 한금호(韓擒虎)는 독서를 좋아하여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백가서(百家書)의 대략적인 요지를 파악하여 북주(北周)의 태조(太祖) 우문태(宇文泰)가 그 재주를 기특히 여겼다. 처음에 북주(北周)에 벼슬하여 신앙대수(新安太守)에 임명되고 부친의 작위를 승계하여 신의군공(新義郡公)이 되었으며, 수(隋)나라 문제(文帝)때에는 여주총관(廬州總管)이 되었다. 개황(開皇) 8년(588)에 수(隋)나라가 대군으로 진(陳)나라를 정벌하자 정병 5백명을 거느리고 이 전투에 참가하여 강을 가로질러 채석강(彩石崗)을 건너 고숙(姑孰)을 함락하고 가장 먼저 금릉(金陵)으로 진군하여 진(陳)의 궁성을 점령하는 전공을 세웠다. 뒤에 상주국(上柱國)으로 승진하고 외직으로 나가 양주총관(涼州總管)이 되었다가 개황(開皇) 12년(592)에 병사하였다.
- 70) 이정(李靖) : 이정(李靖, 571~649)은 자가 약사(藥師)이며 웅주(雍州) 삼원(三原) 사람이다. 수말(隋末) 당초(唐初)의 명장이다. 그는 당(唐)왕조의 문무(文武)를 겸비(兼備)한 군사전략가로서 뒤에 위국공(衛國公)에 봉해졌으므로 세칭 이위공(李衛公)이라 하였다. 정관(貞觀) 21년(647)에 이정(李靖)이 당태종(唐太宗)의 부름에 응하여 고구려(高句麗)를 토벌하는 문제를 상의할 적에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치게 해 달라고 자청하였으나, 태종은 그가 연로(年老)하다 하여

등이 이 진도(陣圖)의 법칙을 본받아 발명한 비슷한 진법(陣法)들을 두루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진영을 전개하고 상호 교전하는 공식에 있어서는, 아지 못하겠으며 제갈량(諸葛亮)의 이 진도가 천상(天象)과 인사(人事)를 아주 교묘하게 배합한 것입니다. 비유컨대, 이 진영 일좌(一座)가 살밭이터 1만 개를 갖추어 겹겹으로 둘러친 성곽과 같고, 팔문(八門)이 흰하게 뚫려 있어서 적의 침입을 막는 요점은 원래 평이하고 간략했습니다. 이 때문에 적이 이를 격파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이를 설치하는 방법이 어렵고 복잡해져서 자질구래한 쪽으로 치우쳤으니, 도리어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쉽

허락하지 않았다. 정관 23년(649)에 사망하니, 79세였다. 시호(諡號)는 경무(景武)이며, 태종의 소릉(昭陵)에 배장(陪葬)되었다. 그가 태종의 부름에 응하여 고구려를 토벌하는 문제를 상의하는 대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행된 태종과의 일련의 병법(兵法) 문답(問答)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당태종이위공문대(唐太宗李衛公問對)》라는 병서(兵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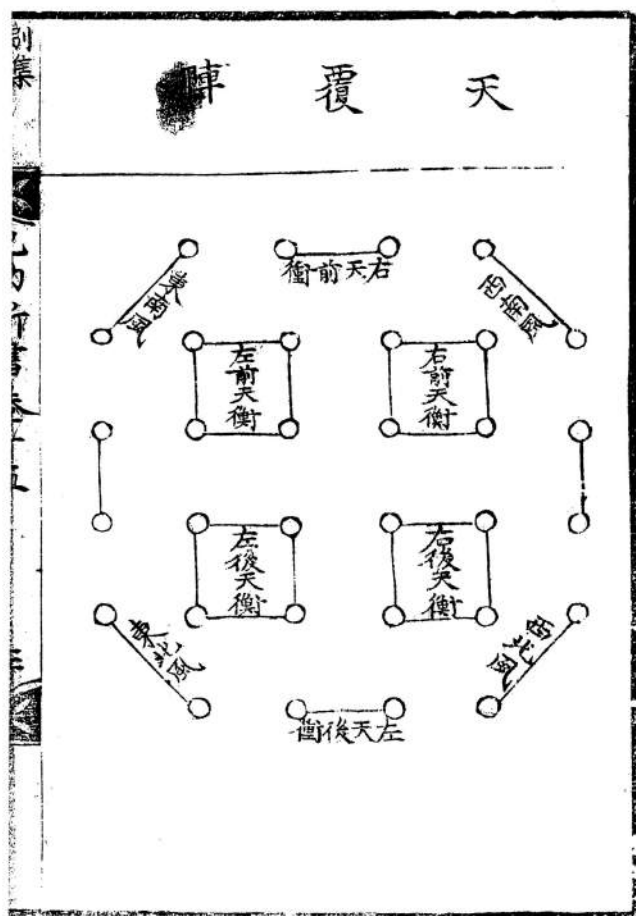
71) 왕진(王震) : 왕진(王震, 1460~154)은 명(明)나라 순덕부(順德府) 형대(邢臺) 사람으로 자는 위원(威遠)이다. 말 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으며 서사(書史)에 두루 공부하였다. 홍치(弘治) 6년(1493)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호부주사(戶部主事)가 되어 변경에 군은(軍銀)을 전송하다가 달단병(韃靼兵)을 만나자 무리를 이끌고 적과 대치하며 방어하여 군사적 재능을 보였다. 뒤에 하남참정(河南參政)이 되어 영주(潁州)의 도적 괴수 소장호(小張虎)를 체포하여 지역의 치안을 바로잡았다. 가정(嘉靖) 초년에 포정사(布政使)로 승진하여 관직이 응천부윤(應天府尹)에까지 이르렀다.

72) 채원정(蔡元定) :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은 자가 계통(季通)이고 호는 서산(西山)이다. 건양(建陽) 마사(麻沙) 사람이다. 주희(朱熹)의 문인으로 세칭 서산선생(西山先生)이라 하였다. 풍수설(風水說)에 정통하였는데, 일찍이 서산(西山)에 집을 짓고 독서에 정진하였다. 건도(乾道) 6년(1170), 주희(朱熹)와 채원정은 서산(西山) 운곡(雲谷)의 절정에서 서로 바라보며 함께 학문을 연마하여 “주자(朱子) 문파(門派)의 영수(領袖)이며 민월학과(閩越學派)의 간성(干城)”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주희는 그 딸을 채원정의 아들에게 시집보내어 인척이 되었다. 경원(慶元) 2년(1196), 한탁주(韓侂胄)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이학(理學)을 하는 학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주자학(朱子學)은 위학(僞學)이라 일컬어지고, 채원정은 도주(道州)로 귀양을 갔다가 2년 뒤에 용릉(春陵)에서 객사하였다. 병학(兵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팔진도설(八陣圖說)》을 남겼으며, 그 밖에 《율려신서(律呂新書)》, 《황극경세지요(皇極經世指要)》, 《맥경(脈經)》 등의 저술이 전해진다.

사리 격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 모양의 아름다움만을 보는 데에 힘을 쓰기 때문이니, 참으로 실제의 근본이 되는 일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실용(實用)에 힘을 기울인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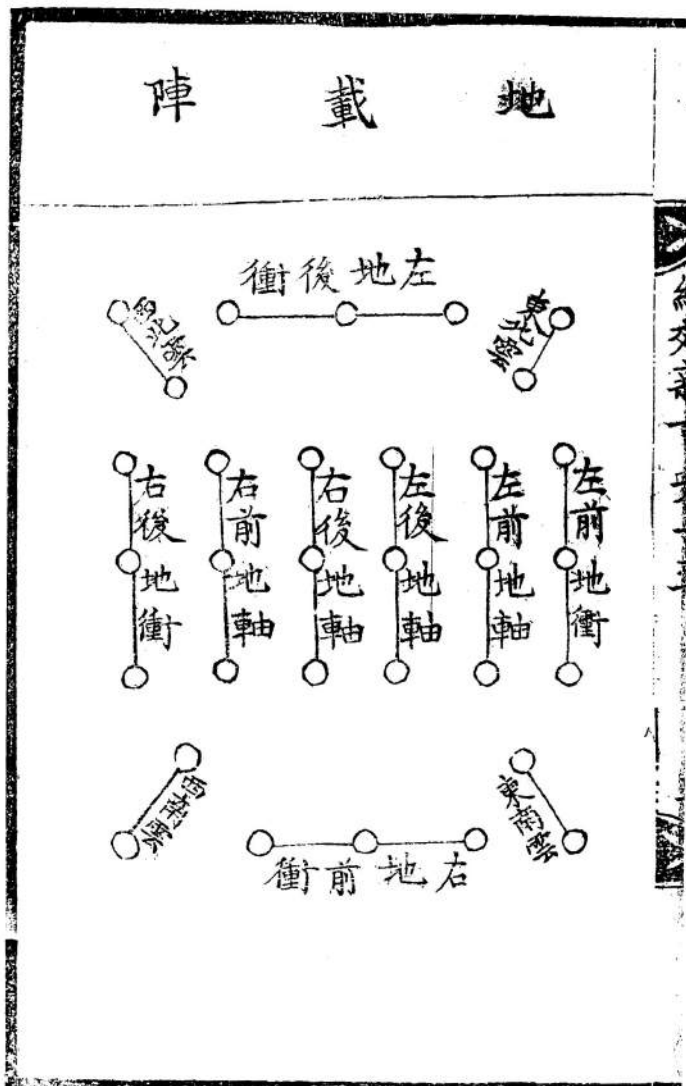
■ 천복진[天覆陣]



【그림 60】

■ 지재진[地載陣]

【그림 61】



제1. 안과 밖의 대를 나누어 천복진(天覆陣)과 지재진(地載陣)으로 변화시킴

안과 밖의 대를 나누어 천복진(天覆陣)과 지재진(地載陣)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뜻을 취한 것인가?

신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도(陣圖)에서 천충(天衝)의 8대(隊)를 앞뒤에 위치시키고, 천형(天衡)의 16대를 좌·우에 위치시켰는데, 모두 진도의 바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를 외(外)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충의 8대를 사정(四正)에 위치시키고, 천형의 16대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풍(風)의 8대를 더하여 사유(四維)에 위치시키니, 그 형태가 둥글어서 하늘과 같으며, 하늘은 능히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천복진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바로 밖의 대를 변화시켜 천복으로 한 것입니다.

진도에서 지충(地衝) 12대를 전후 제12층에 위치시키고, 지축(地軸) 12대를 중앙에 위치시켜 모두 진도의 안에 속하게 하였으므로 내(內)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지금 지충 12진을 사정(四正)에 위치시키고, 지축 12진을 중앙에 위치시키고, 운(雲)의 8대를 더하여 사각(四角)에 위치시키니, 그 형태가 네모져서 땅과 같으며, 땅은 능히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재진(地載陣)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바로 안의 대를 변화시켜 지재(地載)로 한 것입니다.

모든 진이 남쪽을 향하고, 그 향하는 곳에 우리와 맞선 적이 다수일 경우에, 우리는 천복진(天覆陣)을 내놓아 이에 응하니, 형체가 둥글고 흩어지지 아니하여 마치 그물망을 펼쳐 놓은 것과 같으니, 어느 누가 여기에서 빠져나가겠습니까?

북쪽을 등에 지고 우리를 타고 오르는 적의 기세가 날카로울

경우에, 우리는 지재진을 내놓아 이에 응하니, 형체가 네모지고 흔들리지 아니하여 마치 산을 둘러쳐 놓은 것과 같으니, 어느 누가 이것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은 일정한 위치가 없어 진영의 향배를 가지고 위치를 정하고, 적으로 말미암아 시행하고, 때에 따라 움직이고, 앞을 바라보고 뒤를 살피어서, 앞에 이르는 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뒤에 이르는 자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여 앞과 뒤가 한결같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詩)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본래 아득하고 둥글며 땅은 본래 네모진 것이니

天本玄圓地本方

하늘은 땅을 감싸 안고 땅은 그 한가운데에 있도다,

天包乎地地中央

건곤이 한 기운으로 안과 밖으로 나누어 있으니

乾坤一氣分中外

형세가 이궁과 감향을 누르네

勢壓離宮并坎鄉

시의 뜻은 이러합니다.

기구(起句)인 두 구절에서는 안과 밖으로 하늘과 땅이 속해 있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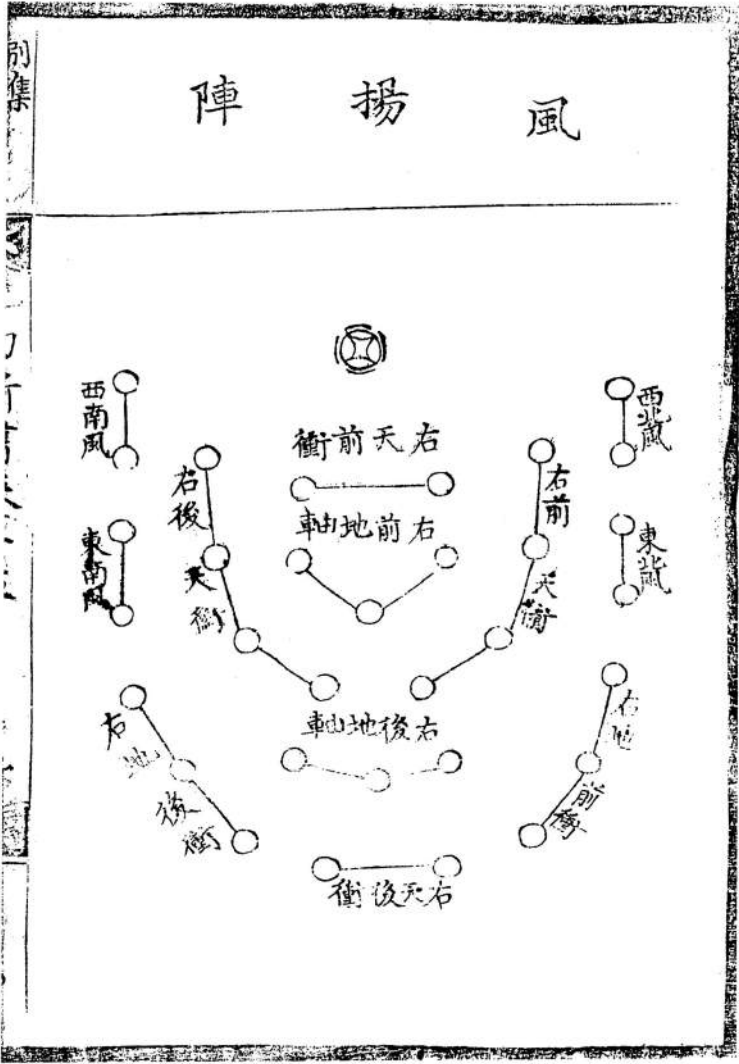
세 번째 구절에서는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하늘과 땅의 두 진으로 변화시킨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구(結句)에서는 하늘과 땅의 두 진이 남쪽으로 몰아치고 북쪽으로 쫓아내는 것을 총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법(兵法)을 아는 자는 이 두 진의 변화하는 뜻을 알아서, 나머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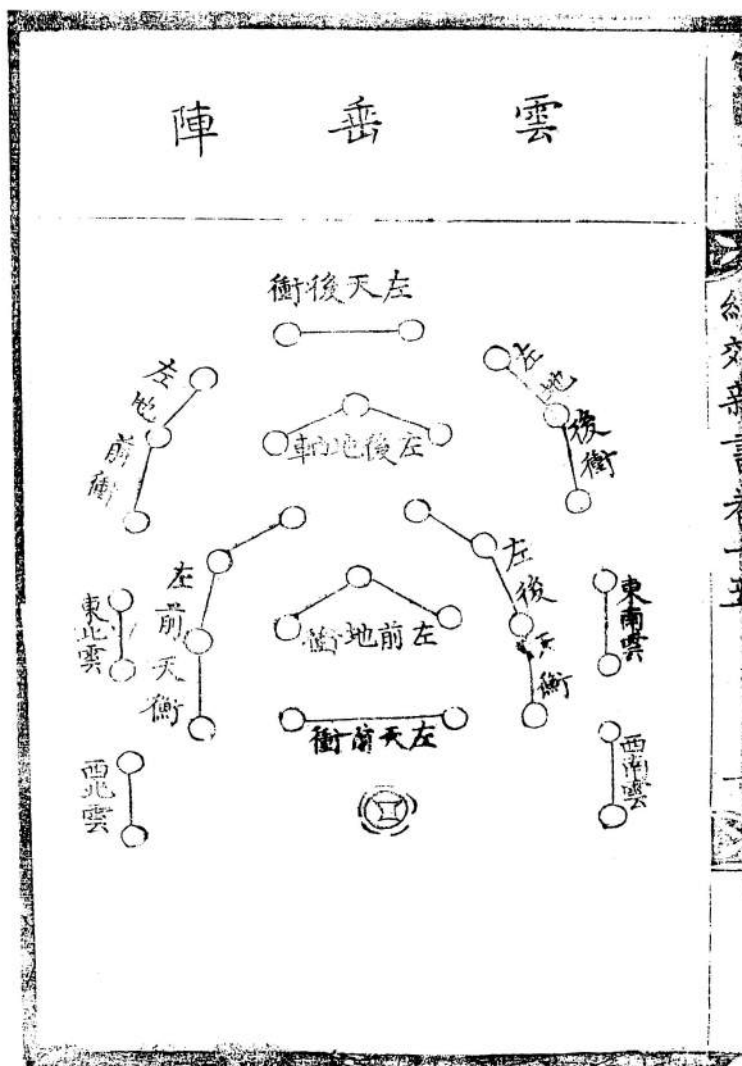
■ 풍양진[風陽陣]

【그림 62】



■ 운수진[雲垂陣]

【그림 63】



제2. 좌우의 대를 나누어 풍양진(風陽陣)과 운수진(雲垂陣)으로 변화시킴

좌와 우를 나누어 풍양진(風陽陣)과 운수진(雲垂陣)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뜻을 취한 것인가?

신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진도(陣圖)에서 천충(天衝)·천형(天衡)·지충(地衝)·지축(地軸)을 가운데를 따라 곧바로 나누어 좌와 우로 하는 것입니다.

좌에 위치하는 자는 변화하여 풍양(風陽)이 되고, 천충의 4대를 전후에 위치시키고, 지축의 6대를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천형의 8대와 지형의 6대를 사보(四輔)로 나누고, 풍(風)의 8대를 앞에 부치니, 그 형태가 날카로워 마치 바람과 같으며, 바람은 파탕(播蕩)을 주관하기 때문에 풍양진(風陽陣)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자는 변화하여 운수(雲垂)가 되고, 천충 4대를 전후에 위치시키고, 지축 6대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지충 6대와 천충 4대를 사보로 나누어 운(雲)의 8대를 뒤에 붙입니다.

그 형태가 둔하여 구름과 같으며, 구름은 병몽(幘幘)을 주장하기 때문에 운수진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바람을 따라 서쪽으로 말리어 가면 빠르게 휩쓸어버리니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구름이 동쪽을 향하여 날아가서 숨으면 거의 다 몸을 뒤집어서 형세를 만드니, 위치를 바꾸어도 모두가 그러합니다.

다시 역서(易書)를 추론(推論)하고 연역(演繹)해도 생기와 활력이 땅에 가득하니 그 뜻에 정통하고 입신의 경지에 들지 않은 자는 그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시(詩)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운은 어이하여 동서에 속하여	風雲何事屬東西
좌우로 나누어 다가와 살기를 퍼뜨리는가	左右分來按殺氣
난데없는 큰 바람에 쟁그렁 하는 쇠소리가 온갖 사물을 바꾸어 놓으니	颯忽金聲群物改
다만 음침한 어두움이 온통 흙비 속에 혼미해지는 것만 보이누나	但看陰暗盡霾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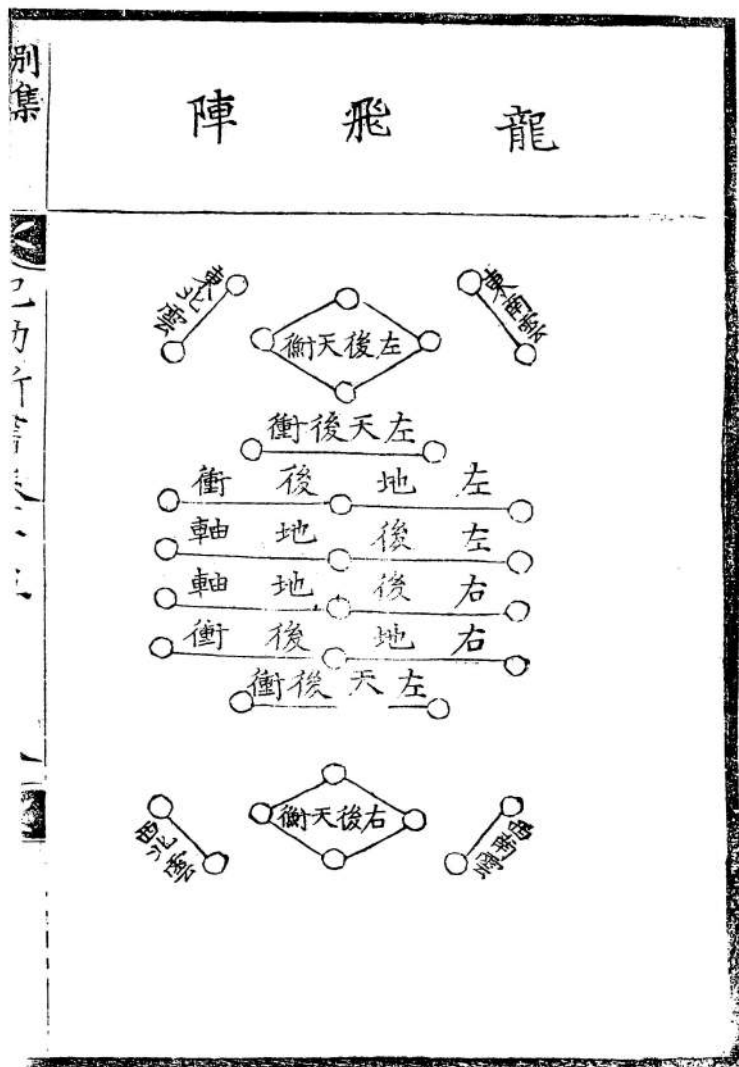
시의 뜻은 이러합니다.

기구(起句)인 두 구절에서는 풍운은 본래 동서로 나누는 것이 부당한데 동서로 나눈 것 가운데에 살기(殺氣)가 머금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구(結句)인 두 구절에서는 서풍은 바로 가을의 쇠소리가 살기가 되어 사물이 이를 만나면 바뀌어지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동쪽의 음(陰)은 바로 봄의 음이며 흙비가 찬 기운이 되어 사물을 얼리어 뒤덮으면 혼미하여 자라지를 못함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쪽을 가로막고 서쪽을 제거한다는 뜻에서 취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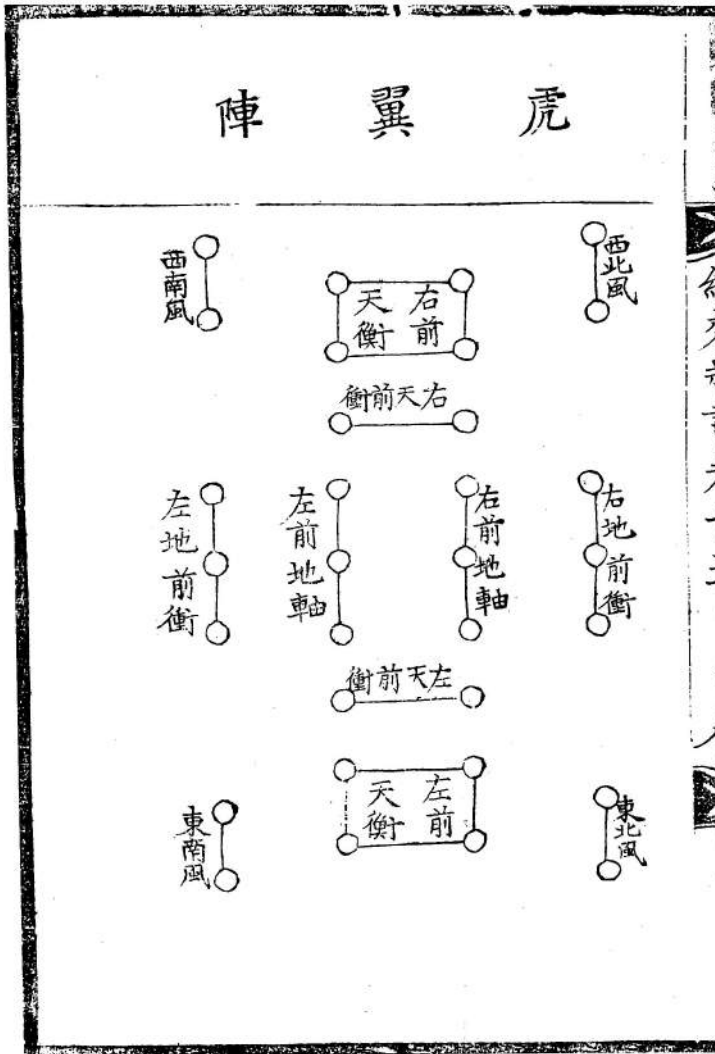
▣ 용비진[龍飛陣]

【그림 64】



■ 호익진[虎翼陣]

【그림 65】



제3. 전후의 대를 나누어 용비진(龍飛陣)과 호익진(虎翼陣)으로 변화시킴

전후의 대를 나누어 용비진(龍飛陣)과 호익진(虎翼陣)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뜻을 취한 것인가?

신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진도(陣圖)에서 천충(天衝)·천형(天衡)·지충(地衝)·지축(地軸)을 가운데를 따라 가로로 끊어서 앞뒤로 하는 것입니다.

뒤에 위치하는 자는 변화하여 용비가 되고, 천충의 8대를 머리와 꼬리로 하고, 천형의 4대를 목(項)과 문(閫)으로 하고, 지축의 6대와 지형의 배와 겨드랑이로 하고, 풍(風)의 8대를 여기에 붙여서 손톱과 어금니를 갖추니, 형세가 용맹하여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위세가 날개와 같으므로 호익진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용이 하늘에 오르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고, 호랑이가 산언덕을 등지면 감히 다가설 자가 없습니다.

용은 손괘(巽卦)⁷³에서 일어나고, 호랑이는 건괘(乾卦)⁷⁴에서 일어나, 이 두 형체가 합하여 자웅이 되니, 소리높이 울부짖어 성세를 삼고 비늘과 털이 달린 족속 중에 가장 으뜸으로, 어찌 변화를 타서 우주를 오르내리지 못하겠습니까?

73) 손괘(巽卦) : ① 팔괘(八卦)의 하나. 상형(象形)은 ≡으로, 바람을 상징(象徵)함 ②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 ≡ 둘을 포갠 것으로, 산 아래에 못이 있음을 상징(象徵)함

74) 건괘(乾卦) : ① 팔괘의 하나. 하늘을 상징(象徵)함. ②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 하늘이 거듭됨을 상징(象徵)함

시(詩)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과 호랑이는 태어난 이래로 성질이 본래 미친 것같이 사나워
龍虎生來性本猖
바람과 구름이 모이는 곳에서는 실로 당해내기 어려워라
風雲會處實難當
대오를 앞과 뒤로 나누니 모름지기 그에 응하여 자리하고
隊分前後居須應
용과 호랑이 그리고 음과 양을 함부로 거느리려 하지 말라
龍虎陰陽莫妄將

시의 뜻은 이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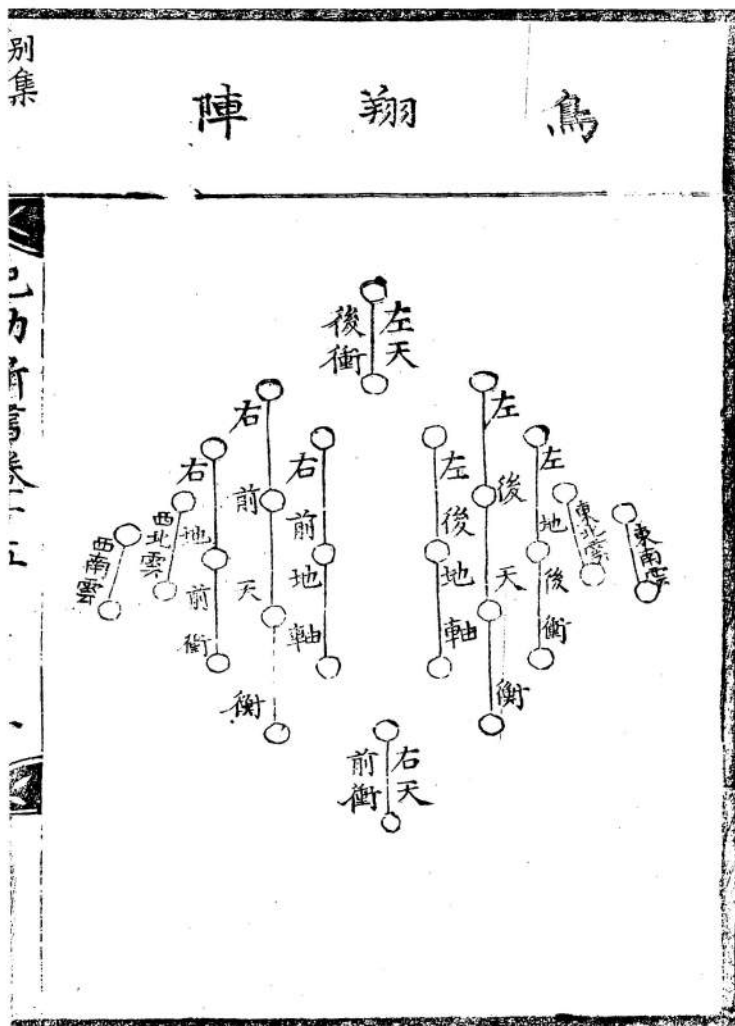
기구(起句)인 두 구절에서는 용과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것으로서
바람과 구름을 얻으면 그 변화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구(結句)인 두 구절에서는 음양(陰陽)의 자리에는 각각 부류에
맞춰 자리하고 각각 부류에 맞춰 상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바람과 비가 동과 서로 나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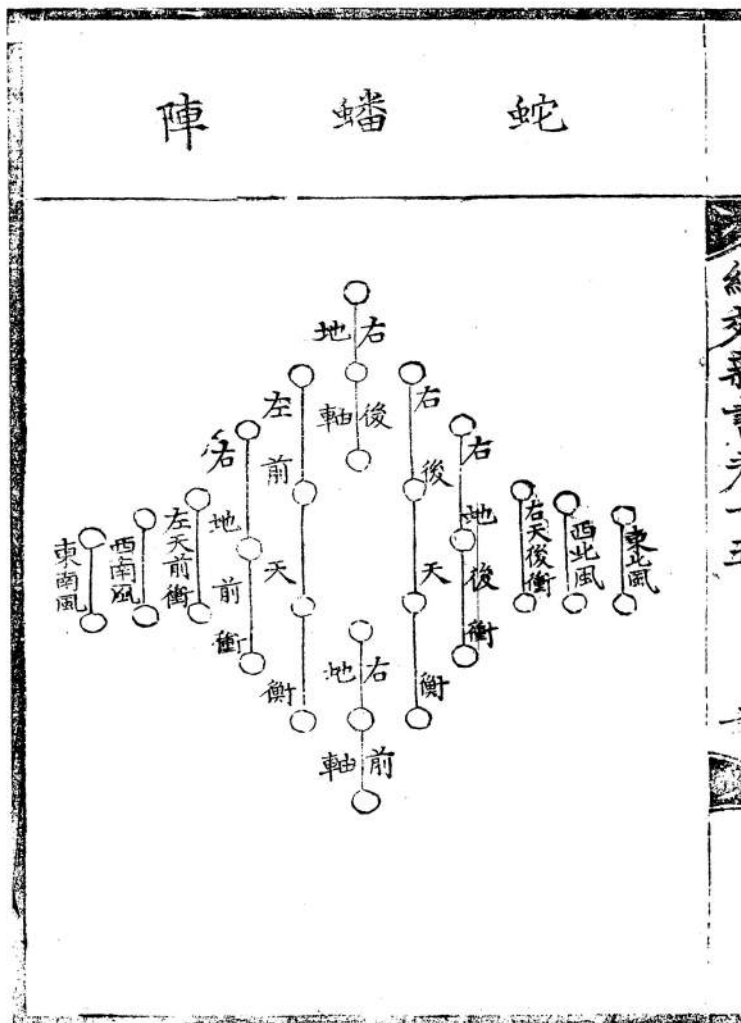
■ 조상진[鳥翔陣]

【그림 66】



■ 사반진[蛇蟠陣]

【그림 67】



제4. 사우(四隅)의 대를 나누어 조상진(鳥翔陣)과 사반진(蛇蟠陣)으로 변화시킴

사우(四隅)의 대를 나누어 조상진(鳥翔陣)과 사반진(蛇蟠陣)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뜻을 취한 것인가?

신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진도(陣圖)에서 천충(天衝)·천형(天衡)·지충(地衝)·지축(地軸)을 각각 그 반을 나누어 좌우로 한 것을 조상진(鳥翔陣)이라 합니다.

좌우의 천충을 머리와 꼬리로 하는데, 그 바탕은 곧고 높으며, 좌우의 형과 축을 양측 겨드랑이로 하는데, 그 승세를 떨치고, 굳셈으로써 지충 8운을 양 날개로 합니다.

그 날음이 길고 활짝 펼쳐져서, 새가 그 성질이 구름에 올라 치솟아 오름이 높으므로 상(翔)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반이란 좌우의 지충을 머리와 꼬리로 하여 그 바탕은 부드러우면서 민첩하고, 좌우의 두 형을 빼와 관절로 하니 그 몸이 구불구불하고 유연하게 꿈틀거리며 천충 8풍을 분만(奔芒)으로 하니, 그 성질이 송곳같고 독하여 뱀이 바람에 놀라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것과 같으므로 반(蟠)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날아오르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우러러 볼 수는 있으나 주살질을 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뱀이 꼬아리를 트는 것보다 더 잘 숨는 것이 없으니 멀리 할 수는 있으나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숨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같지 않으면서도 같아서, 하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시(詩)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틀어 숨고 또 숨으니 성질이 괴팍하고 사나우며
 蛇蟠隱隱性偏惡
 새가 나래를 활짝 펼치어 높이 높이 오르니 기세가 보는 이를 후
 鳥翔高高勢必搏
 려칠 것만 같네
 연금(演禽)⁷⁵에 익숙히 통하여 사방을 치달리니
 慣演禽星走四隅

그 수가 몇이나 되는지 아지 못하니 이 바로 제갈량으로세
 不知若箇是諸葛

시의 뜻은 이러합니다.

기구(起句)인 두 구절에서는 나래를 펴는 것과 또아리를 트는
 기세가 적과 싸우려는 의기가 넘치는 것을 형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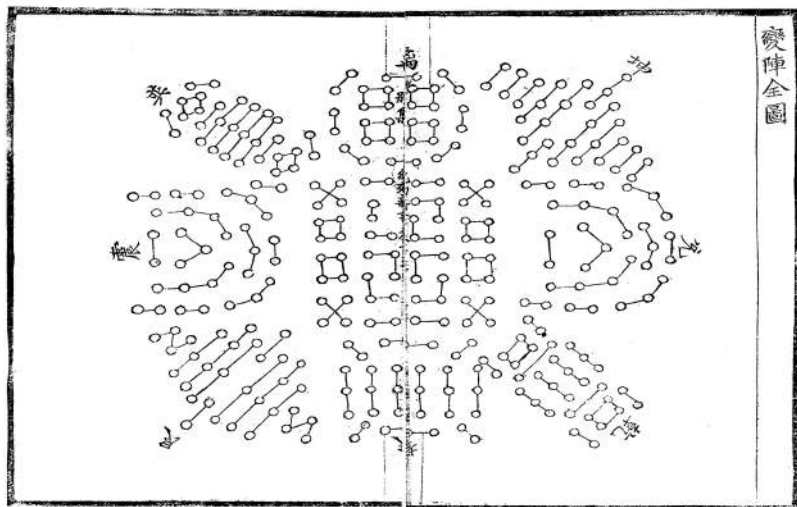
세 번째 구에서는 두 진영이 본래 동북 서남에 위치하므로 두
 모서리는 또한 새의 족속에 해당하는 방위이므로 금성(禽星)을 가
 지고 이를 말한 것이지, 정말로 연금(演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사람이 능히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5) 연금(演禽) : 점복(占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별이나 새를 가지고 인간의 녹명(祿命)과 길흉(吉凶)을 추측하였다고 함. 관계 서적으로는 《연금통찬(演禽通纂)》, 《연금도결(演禽圖訣)》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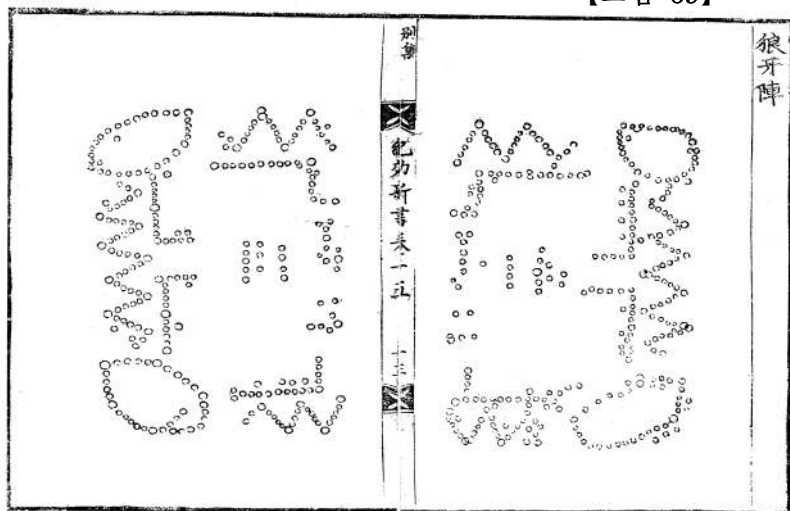
■ 변진전도[變陣全圖]

【그림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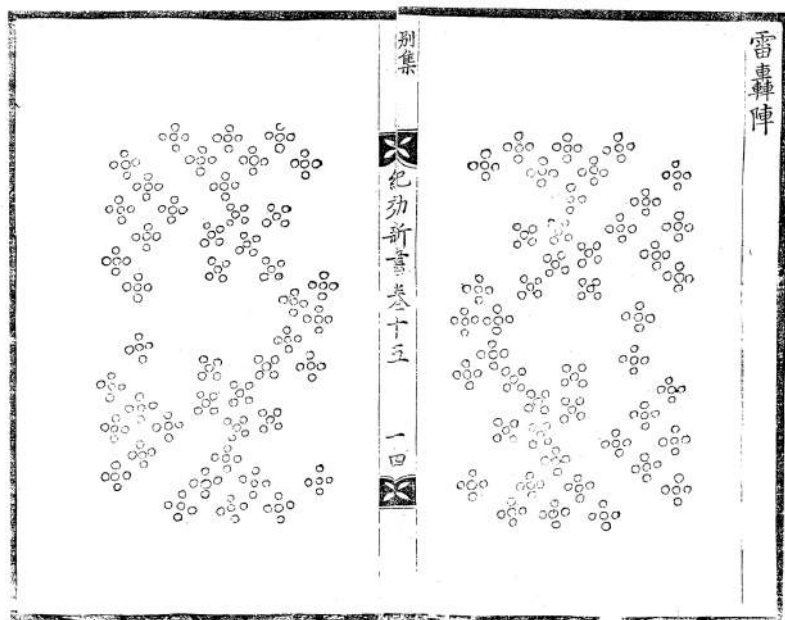
■ 낭아진[狼牙陣]

【그림 69】



■ 뇌굉진[雷轟陣]

【그림 70】



■ 변진도해[變陣圖解 : 변진도에 대한 해설]

신은 팔진(八陣)을 본받아 그 형태를 변화시켜 변진전도(變陣全圖)를 만들었습니다. 이 진도(陣圖)가 한 번 나옴에 군사가 없으니, 제갈량(諸葛亮)의 귀신같이 뛰어난 계략이 다 드러나 있으나 배우는 자들은 그 변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총도(總圖)를 보고 이미 변화를 안 다음에 이 변진전도를 참고해 보면 비록 백만 대군을 늘어놓더라도 순식간에 팔면(八面)에서 적을 맞아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매우 용이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기가 회오리바람이 바람을 타고 구름을 거느리는 듯하며, 홀연하기가 마치 번개를 채찍질하여 비를 오게 하는 듯합니다. 이른바 하늘에 숨고 땅에 숨어 귀신처럼 자유자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니, 그 누가 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쉽고 간략함에 천하의 이치가 얻어진다.”⁷⁶⁾고 한 것입니다.

■ 낭아진해[狼牙陣解 : 낭아진에 대한 해설]

신은 팔진(八陣)을 본받아 그 형태를 변화시켜 낭아진(狼牙陣)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뽕죽하고 굽어서 송곳처럼 날카로워서 마치 이리의 이빨처럼 생겼기 때문에 낭아진이라고 하였으며, 기본이 되는 수를 9로 하여 5로 이를 이어서 2를 여기에 위치시키니, 총 64대입니다. 1층의 9대를 5로 나누어 4를 2반으로 하고, 교대하여 번갈아가며 싸우니 그 나뉘임이 끝이 없고 형체가 변함이 없고 힘이 지치지 않습니다.

2층의 5대를 반(班)으로 나누어 목과 등 부분을 따라 나아가며 서로 그 형세를 관망하니, 외롭지 아니하여 힘이 두 배나 더합니다.

3층의 2대를 네모진 형체로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 겉으로는 움직이는 체 하며 속으로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나아가서 싸우고 물러나서 지킬 수 있는 태세를 이루어 시기를 살펴 형세를 틈타고 인하여 승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네 모서리[四隅]에 위치한 유병(遊兵)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이 또한 팔면(八面)의 기미(機微 : 낚새)입니다.

더욱이 쉽고 간편함이 절실하여 전차(戰車)를 몰아 오랑캐의 기마

76) 쉽고 얻어진다 : “쉽고 간략함에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니 천하의 이치가 얻어짐에 그 자리를 이루는 것이다.[易簡而天下之理得矣 天下之理得成位乎其中矣] 이 말은 《주역(周易)》〈계사(繫辭)상1장〉에 나온다.

(騎馬)를 살상하고, 방패를 잡아 왜구(倭寇)의 칼날을 격파하는 데에는 실패할 리가 만무한 것이니, 이를 슬기로운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 뇌굉진해[雷轟陣解 : 뇌굉진해에 대한 해설]

뇌굉진(雷轟陣), 이 하나는 팔진(八陣)의 법을 본받아 만든 것입니다. 그 형세가 민첩하여, 꺾박에 대응함이 마치 우레와 천둥소리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수를 9로 양두(兩頭)를 삼고 5를 일미(一尾)로 삼으니, 1진(陣)을 합하여 14대(隊)로 하고, 4진을 합하여 56대로 하며, 8대는 중앙에 위치시키니, 총 64대입니다.

나아가서 싸우고 물러나서 지킬 수 있는 태세를 이루어, 4진이 네 모서리[四隅]에 위치하고 팔두(八頭)와 사미(四尾) 가운데 하나를 치면 양쪽에서 호응하고 양측을 치면 네 곳에서 호응하며, 네 곳을 치면 여덟 곳에서 호응합니다.

유병(遊兵)이 사정(四正)에 위치하여 시기를 살피 형세를 틈타고 인하여 승리를 차지하는 것은 기와정이 변하고 합하여 앞뒤에서 공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주거(舟車)와 기보(騎步)보다 더 유리하며, 해전(海戰)에서 왜구(倭寇)를 격파하는 데에는 더욱 유리하니, 지각있는 자는 이를 따를 것입니다.

▣ 유병론[遊兵論 : 유병에 대해서 논함]

유병(遊兵)이란 무엇인가?

유병(遊兵)은 기병(奇兵)입니다. 병(兵)은 기(奇)와 정(正)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兵)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되, 기(奇)는 있고 정(正)이 없으면 적을 제압할 수 없고, 정은 있고 기가 없으면 승리를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기(奇)를 운용하고 정(正)을 운용하지 않으면 비록 날카로우나 의지함이 없고, 정을 운용하고 기를 운용하지 않으면 비록 정연하나 공이 없다.’ 하였으니, 병가(兵家)의 법은 병력(兵力)을 기병(奇兵)과 복병(伏兵)과 정병(正兵)의 셋으로 나누는데, 정병은 몸과 같고 기병은 손과 같으며, 복병은 발과 같으니, 복병은 기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병과 기병과 복병, 삼자가 갖추어지면 완전하여 조금도 빠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64대를 정병으로 하고 반드시 24대를 기병으로 하여 호응하게 하고, 정병도 또한 기병의 기병이 되며, 정병은 기병을 근본으로 하니, 기병도 또한 정병의 정병이 되어, 마치 한 물건이 공중에 매달려 서로 의부(依附)하여 움직임과 멈춤은 같지 않으나 기미는 서로 함께하며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음과 나타나는 것은 같지 않으나 소리는 서로 호응하며, 멀고 가까움은 같지 않으나 형세는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끝이 없기로는 하늘과 땅 같고, 마르지 않기로는 강하와 같아서 끝이 나고서도 다시 시작하고, 죽고 나서도 다시 살아난다.’ 하였으니, 이 기(奇)와 정(正)의 변화는 이루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사정(四正)으로 정(正)을 삼고, 사우(四隅)로 기(奇)를 삼기도 하고, 안의 둥글과 밖의 네모짐으로 정(正)을 삼기도 하며, 이우(二虞)와 이상(二廂)으로 기(奇)를 삼기도 하고, 또 팔합(合)과 팔리(八離)를 4정과 4기로 나누기도 하니, 모두가 혼잡하면서도 막힘이 없고 변함이 없어서, 제갈량(諸葛亮)의 교묘한 비법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병론(遊兵論)을 지었습니다.

▣ 연금기도[演禽旗圖]

【그림 71】



각목교(角木蛟)⁷⁷⁾ 주장황공정(主張黃公政) 이진(李眞)

이 뒤의 28수(二十八宿) 모양의 깃발은 모든 군이 나아감에 방향을 세우고,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도 병사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서 하도록 한다. 무릇 출병하는 날을 당하여 이 깃발로 군사를 지휘한다.

깃대 길이는 1장 6척(4.8m)이며, 꼭대기에는 구슬을 꿰 장식끈과 꿩꼬리를 묶는다.

깃폭 모서리의 색깔은 모두 방향에 따라 같으며, 모서리 길이는 6척(1.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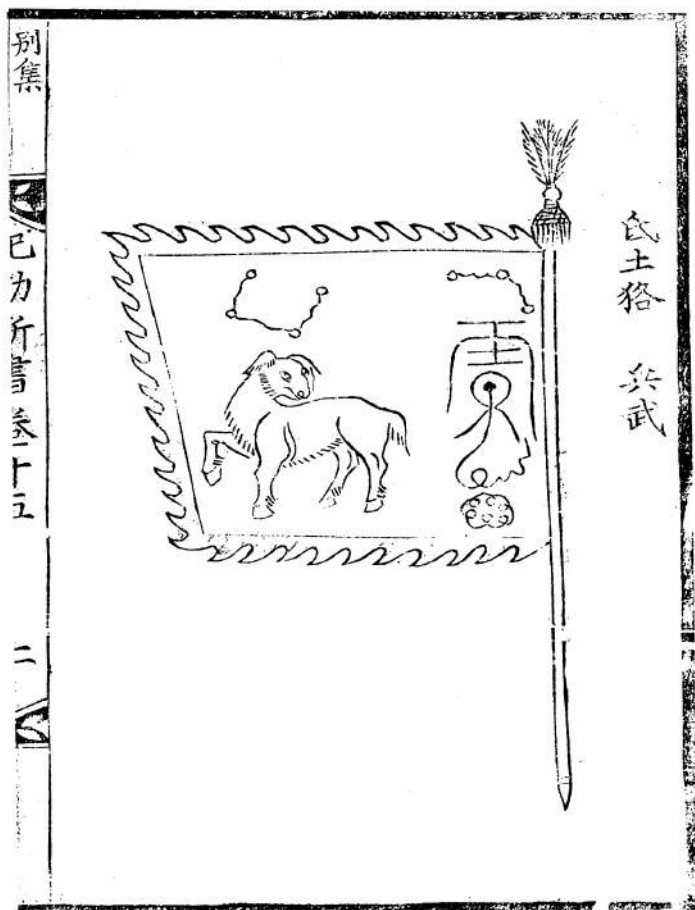
【그림 72】



77) 각목교(角木蛟: 角宿): 각목교는 28수(宿: 별자리)의 하나로서, 동방(東方) 청룡(靑龍)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첫 번째 별자리이다. 28수는 달의 공전주기가 27.32일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적도대(赤道帶)를 28개의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이를 다시 동, 서, 남, 북의 사방으로 나누면 사방의 각 구역에 7수(宿)씩의 별자리가 배당된다.

항금룡(亢金龍)⁷⁸⁾ 왕상(王常)⁷⁹⁾

【그림 73】



78) 항금룡(亢金龍: 亢宿): 항금룡은 28수의 하나로서, 동방 청룡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두 번째 별자리이다.

79) 왕상(王常): 왕상(?~36)은 자가 안경(顔卿)으로 영천(潁川) 무양(武陽) 사람이다. 후한(後漢)의 건국공신이다. 처음에 녹림군(綠林軍)의 부장(部將)으로 활약하였으나, 뒤에 갱시제(更始帝) 유현(劉玄) 휘하의 무장(武將)이 되었다.

저토맥(氐土貉)⁸⁰ 병무(兵武)

【그림 74】



80) 저토맥(氐土貉：氐星)：저토맥은 28수의 하나로서, 동방 청룡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세 번째 별자리이다.

방일토(房日兔)⁸¹⁾ 봉군(封軍)

【그림 75】



81) 방일토(房日兔 : 房宿) : 방일토는 28수의 하나로서, 동방 청룡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네 번째 별자리이다.

심월호(心月狐)⁸²⁾ 조룡(趙隆)

【그림 76】



82) 심월호(心月狐 : 心宿) : 심월호는 28수의 하나로서, 동방 청룡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다섯 번째 별자리이다.

미화호(尾火虎)⁸³⁾ 주운(周雲)

【그림 77】



83) 미화호(尾火虎 : 尾宿) : 미화호는 28수의 하나로서, 동방 청룡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여섯 번째 별자리이다.

기수표(箕水豹)⁸⁴ 문상(文相)

【그림 78】



84) 기수표(箕水豹 : 箕宿) : 기수표는 28수의 하나로서, 동방 청룡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별자리이다.

두목해(斗木獬)⁸⁵⁾ 주장구양희절(主將歐陽希節) 곽해(郭海)

【그림 79】



85) 두목해(斗木獬 : 斗宿) : 두목해는 28수의 하나로서, 북방(北方) 현무(玄武)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첫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여덟 번째이다.

우금우(牛金牛)⁸⁶⁾ 호영(胡英)

【그림 80】



86) 우금우(牛金牛 : 牛宿) : 우금우는 28수의 하나로서, 북방 현무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두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아홉 번째이다.

여토복(女土蝠)⁸⁷⁾ 하우(何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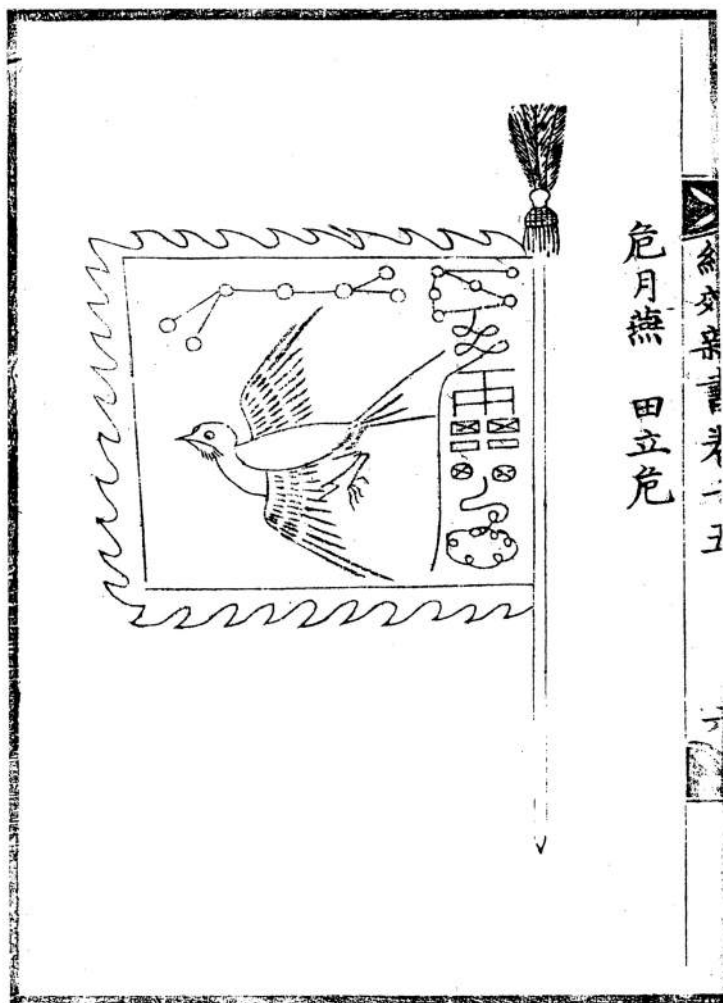
【그림 81】



87) 여토복(女土蝠 : 女宿) : 여토복은 28수의 하나로서, 북방 현무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세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 번째이다.

허일서(虛日鼠)⁸⁸⁾ 위거(危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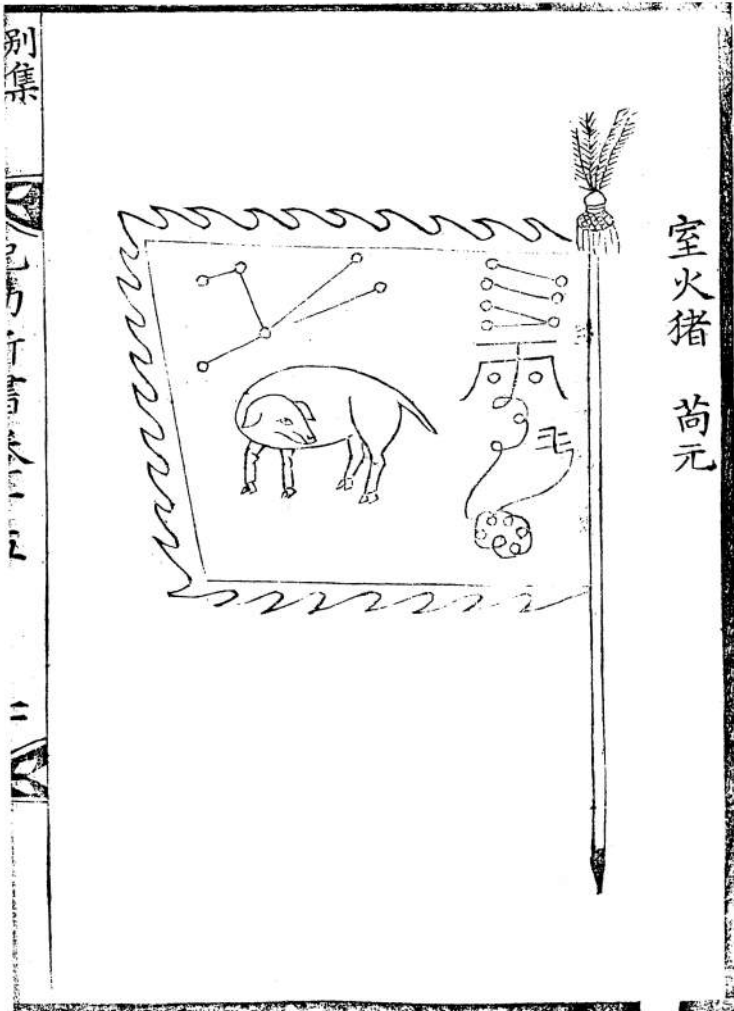
【그림 82】



88) 허일서(虛日鼠 : 虛宿) : 허일서는 28수의 하나로서, 북방 현무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네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한 번째이다

위월연(危月燕)⁸⁹⁾ 전립위(田立危)

【그림 83】



89) 위월연(危月燕 : 危宿) : 위월연은 28수의 하나로서, 북방 현무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다섯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두 번째이다.

실화저(室火猪)⁹⁰ 향원(向元)

【그림 84】



90) 실화저(室火猪 : 室宿) 실화저는 28수의 하나로서, 북방 현무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여섯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세 번째이다.

벽수유(壁水鯀)⁹¹⁾ 용왕(龍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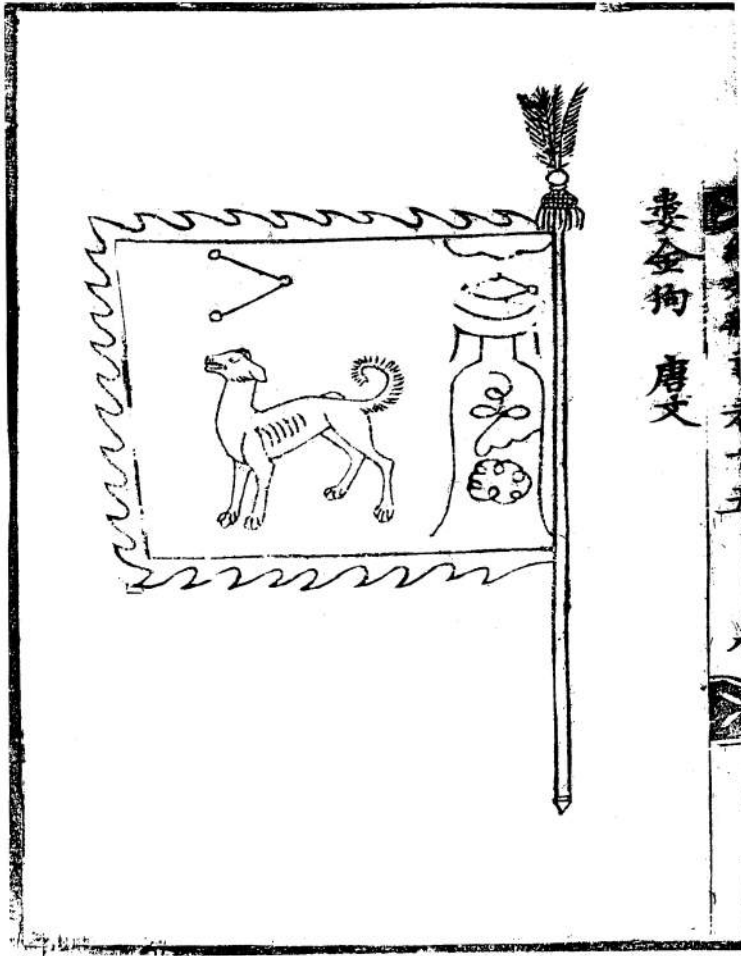
【그림 85】



91) 벽수유(壁水鯀 : 壁宿) : 벽수유는 28수의 하나로서, 북방 현무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네 번째이다.

규목랑(奎木狼)⁹²⁾ 주장왕순충(主將王珣忠) 사월(謝月)

【그림 86】



92) 규목랑(奎木狼 : 奎宿) : 규목랑은 28수의 하나로서, 서방(西方) 백호(白虎)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첫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다섯 번째이다.

누금구(婁金狗)⁹³⁾ 당문(唐文)

【그림 87】



93) 누금구(婁金狗 : 婁宿) : 누금구는 28수의 하나로서, 서방 백호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두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여섯 번째이다.

위토치(胃土雉)⁹⁴ 오교(伍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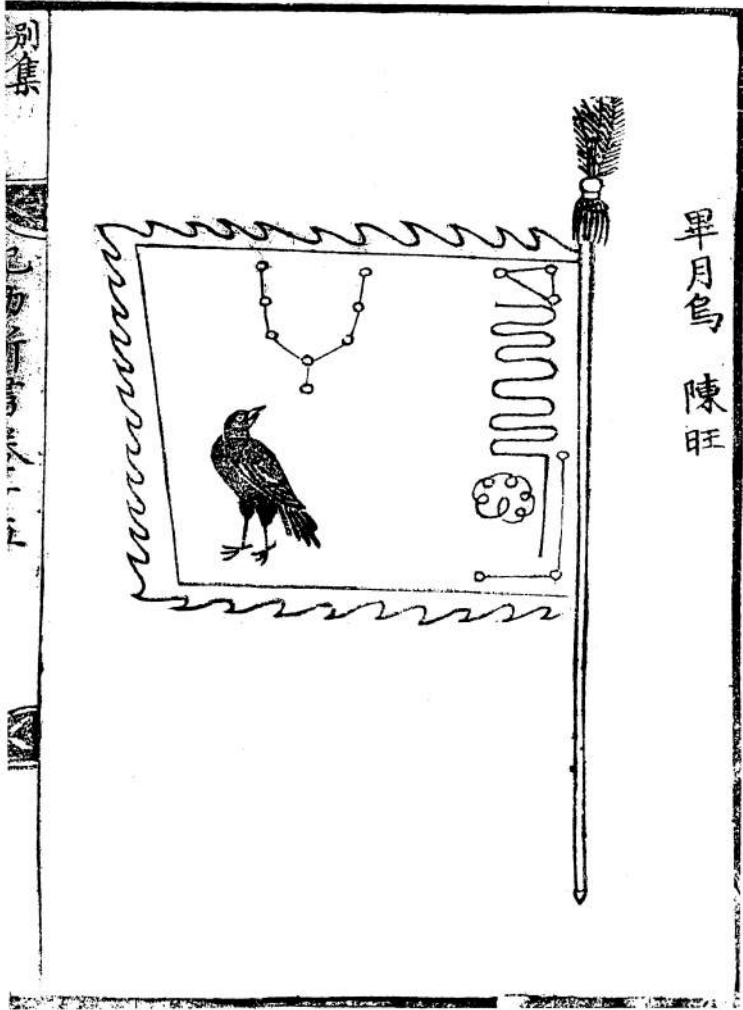
【그림 88】



94) 위토치(胃土雉 : 胃宿) : 위토치는 28수의 하나로서, 서방 백호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세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일곱 번째이다.

묘일계(昴日鷄)⁹⁵⁾ 정창(鄭昌)

【그림 89】



95) 묘일계(昴日鷄 : 昴宿) : 묘일계는 28수의 하나로서, 서방 백호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네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여덟 번째이다.

필월오(畢月烏)⁹⁶⁾ 진왕(陳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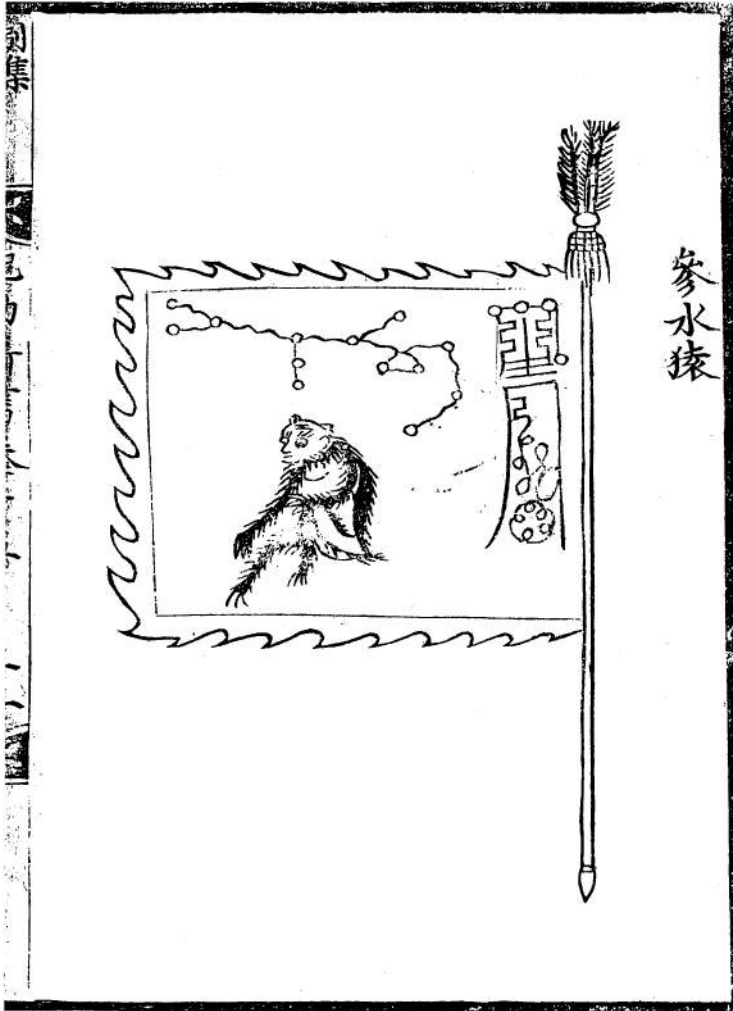
【그림 90】



96) 필월오(畢月烏 : 畢宿) : 필월오는 28수의 하나로서, 서방 백호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다섯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열아홉 번째이다.

자화후(觜火猴)⁹⁷⁾ 벽태(霹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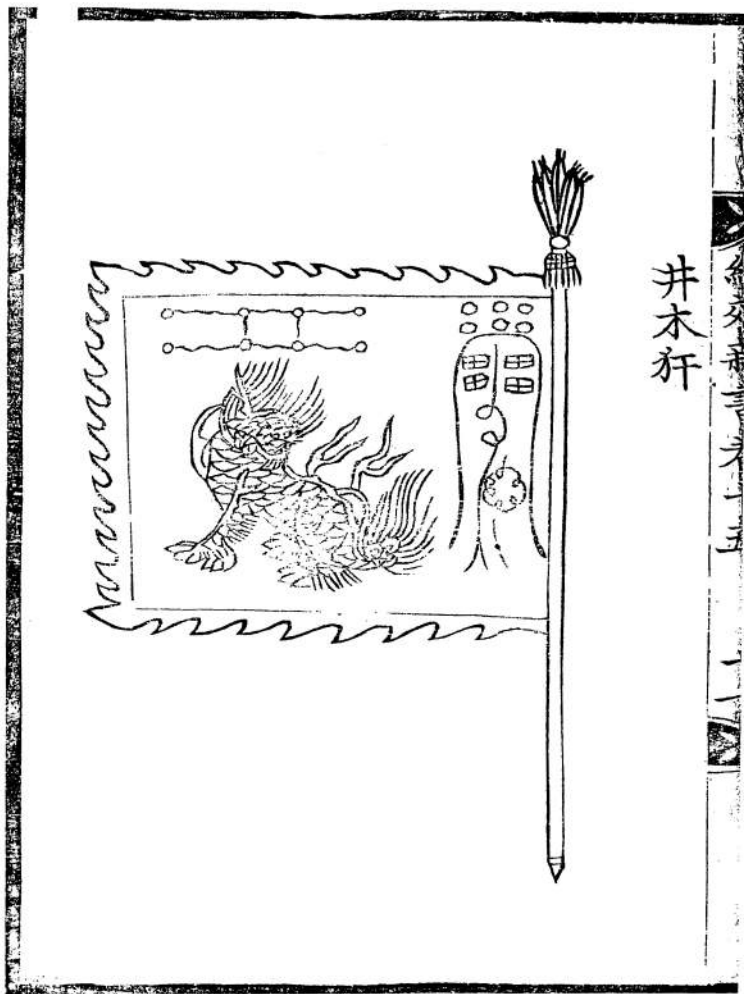
【그림 91】



97) 자화후(觜火猴 : 觜宿) : 자화후는 28수의 하나로서, 서방 백호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여섯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스무 번째이다.

참수원(參水猿)⁹⁸⁾

【그림 92】



98) 참수원(參水猿 : 參宿) : 참수원은 28수의 하나로서, 서방 백호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스물한 번째이다.

정목한(井木紆)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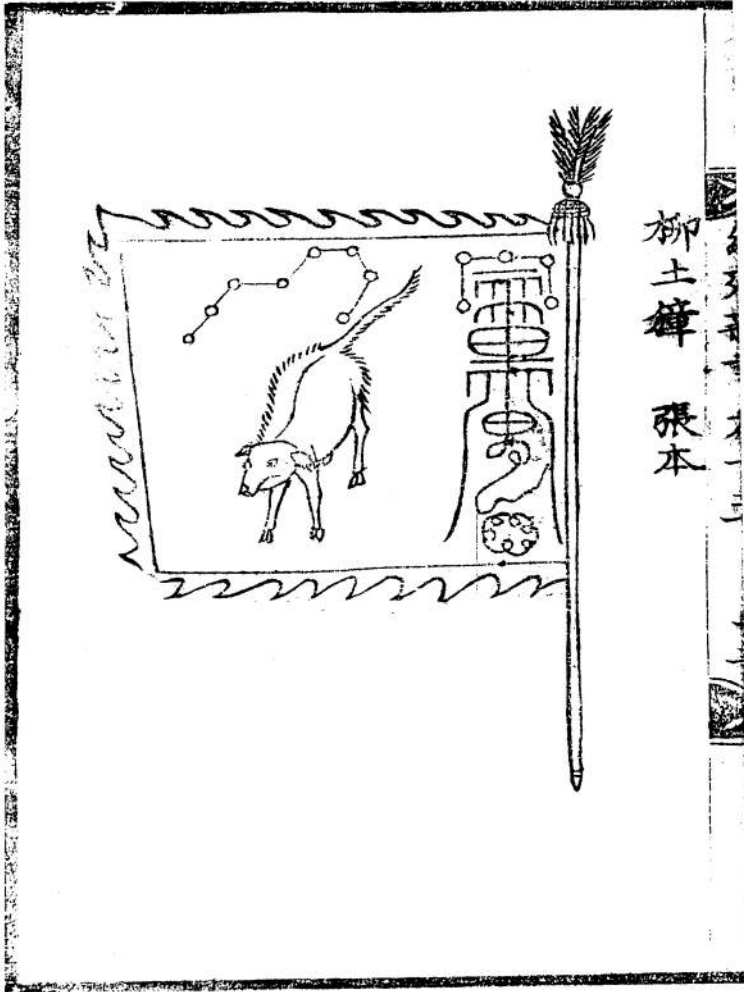
【그림 93】



99) 정목한(井木紆 : 井宿) : 정목한은 28수의 하나로서, 남방(南方) 주작(朱雀)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첫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스물두 번째이다.

귀금양(鬼金羊)¹⁰⁰ 괴동(槐童)

【그림 94】



100) 귀금양(鬼金羊 : 鬼宿) : 귀금양은 28수의 하나로서, 남방 주작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두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스물세 번째이다.

유토장(柳土獐)¹⁰¹⁾ 장본(張本)

【그림 95】



101) 유토장(柳土獐: 柳宿): 유토장은 28수의 하나로서, 남방 주작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세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스물네 번째이다.

성일마(星日馬)¹⁰² 주귀(周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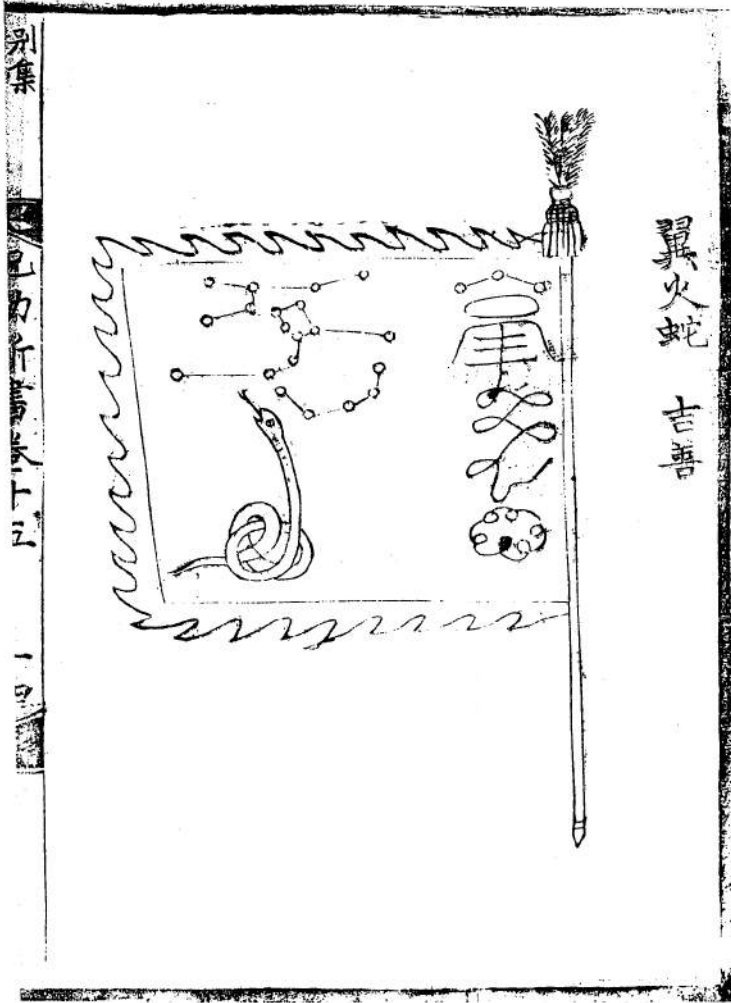
【그림 96】



102) 성일마(星日馬 : 星宿) : 성일마는 28수의 하나로서, 남방 주작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네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스물다섯 번째이다.

장월록(張月鹿)¹⁰³⁾ 동오(董午)

【그림 97】



103) 장월록(張月鹿 : 張宿) : 장월록은 28수의 하나로서, 남방 주작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다섯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스물여섯 번째이다.

익화사(翼火蛇)¹⁰⁴ 길선(吉善)

【그림 98】



104) 익화사(翼火蛇: 翼宿): 익화사는 28수의 하나로서, 남방 주작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여섯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는 스물일곱 번째이다.

진수인(軫水蚓)¹⁰⁵⁾ 여봉(呂鳳)

▣ 육정기도[六丁旗圖]¹⁰⁶⁾



【그림 99】

- 105) 진수인(軫水蚓: 軫宿): 진수인은 28수의 하나로서, 남방 주작의 일곱 별자리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별자리이다. 28수 전체의 별자리 순서로도 맨 마지막 스물여덟 번째
- 106) 육정기도(六丁旗圖): 육정(六丁)·육갑(六甲)은 육정신(六丁神)과 육갑신(六甲神)의 합칭(合稱)이며, 이들 12신장은 원래 도교(道敎)의 전설 속에 있는 일종의 호법신장(護法神將)이다. 《삼재도회(三才圖繪)》에서는 육정신을 정묘신(丁卯神) 사마경(司馬卿), 정축신(丁丑神) 조자옥(趙子玉), 정해신(丁亥神) 장문통(張文通), 정유신(丁酉神) 장문공(臧文公), 정미신(丁未神) 석숙통(石叔通), 정사신(丁巳神) 최석거경(崔石巨卿) 등 여섯 신이라 하였고, 육갑신(六甲神)을 갑자신(甲子神) 왕문경(王文卿), 갑술신(甲戌神) 전자강(展子江), 갑신신(甲申神) 호문장(扈文長), 갑오신(甲午神) 위옥경(衛玉卿), 갑진신(甲辰神) 맹비경(孟非卿), 갑인신(甲寅神) 명문장(明文章) 등 여섯 신이라 하였다.

정묘신장명사마(丁卯神將名司馬) 육정신기육면(六丁神旗六面)

이 뒤의 육정 육갑기 12면의 사용법은 28수기와 같다.

이 깃발의 색깔은 어느 곳을 살피든 대기의 색깔과 같다.

깃대 길이는 1장 3척(3.9m)이고, 깃발의 모서리는 5척(1.5m)이며, 꼭대기에는 매듭실로 꿰꼬리와 구슬을 꿰어서 매단다.

【그림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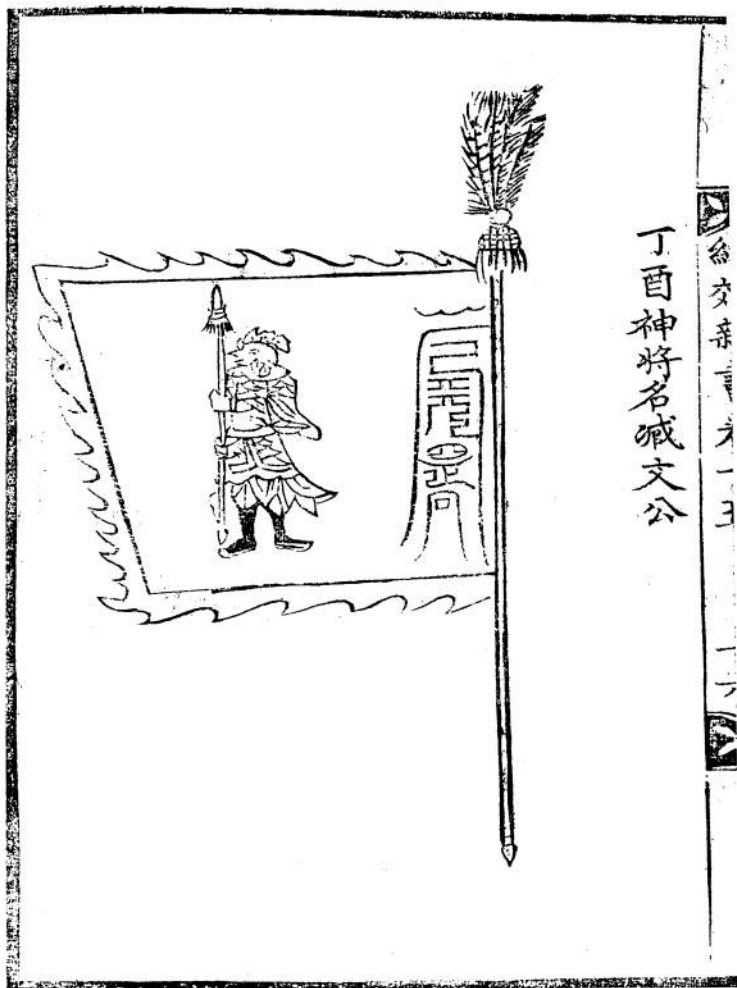
정사신장명 최거경(丁巳神將名崔巨卿)

【그림 101】



정미신장명 숙통(丁未神將名叔通)

【그림 102】



정유신장명 장문공(丁酉神將名臧文公)

【그림 103】



정해신장명 장문통(丁亥神將名張文通)

【그림 104】



정축신장명 조자옥(丁丑神將名趙子玉)

▣ 육갑기도[六甲旗圖]

【그림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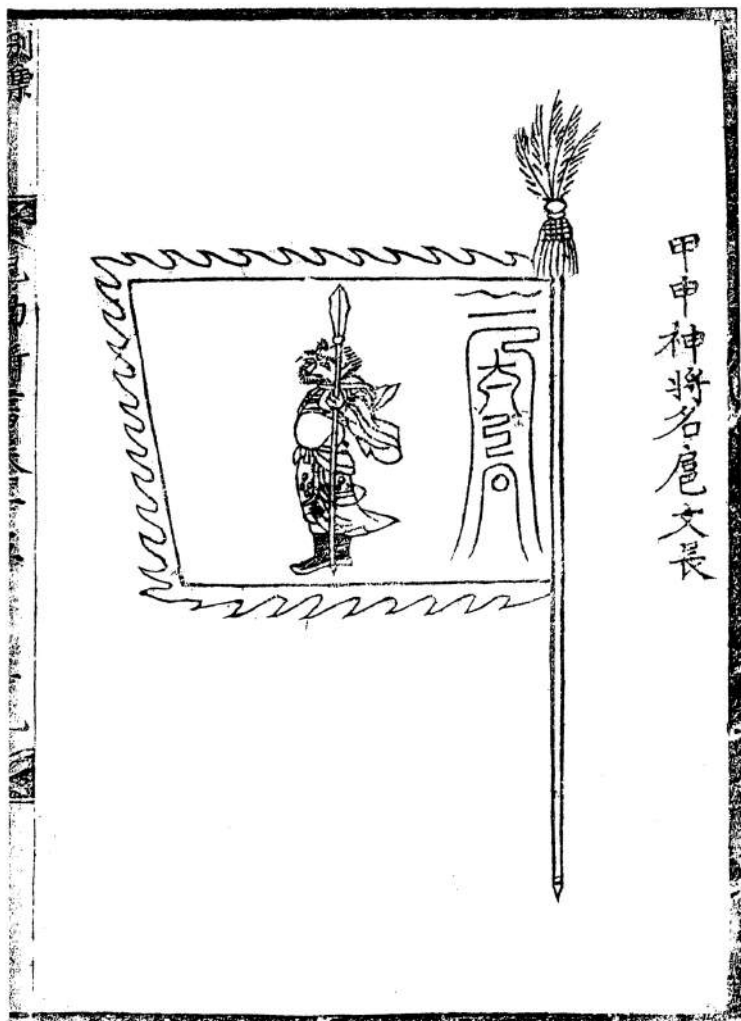
갑자신장명 왕문경(甲子神將名王文卿) 육갑신기육면(六甲神旗六面)

【그림 106】



갑술신장명 전자강(甲戌神將名展子江)

【그림 107】



갑신신장명 호문장(甲申神將名扈文長)

【그림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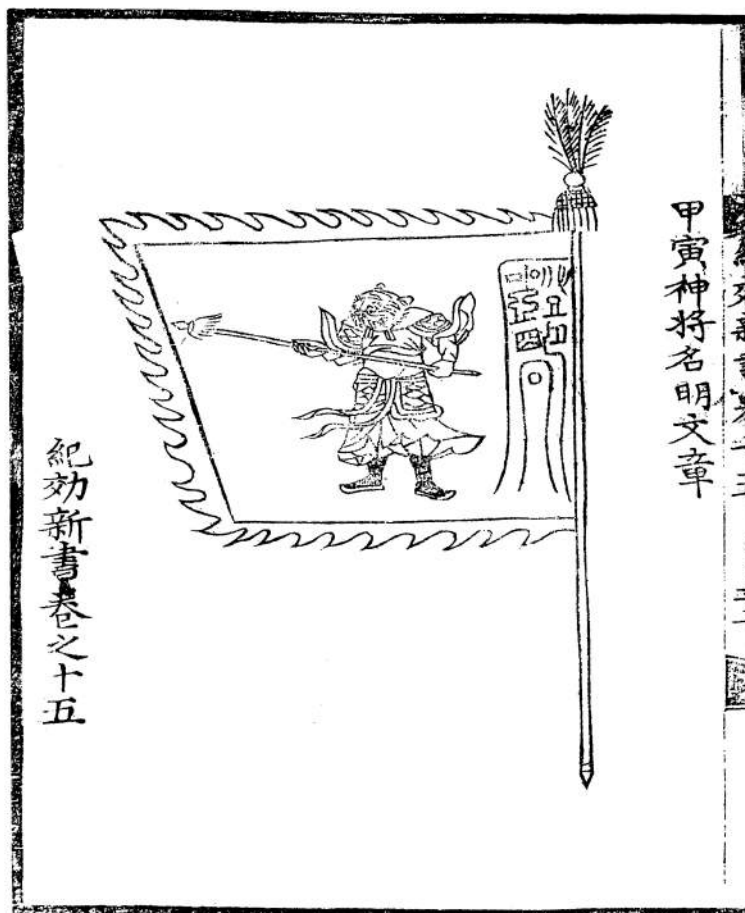
갑오신장명 위옥경(甲午神將名衛玉卿)

【그림 109】



갑진신장명 맹비경(甲辰神將名孟非卿)

【그림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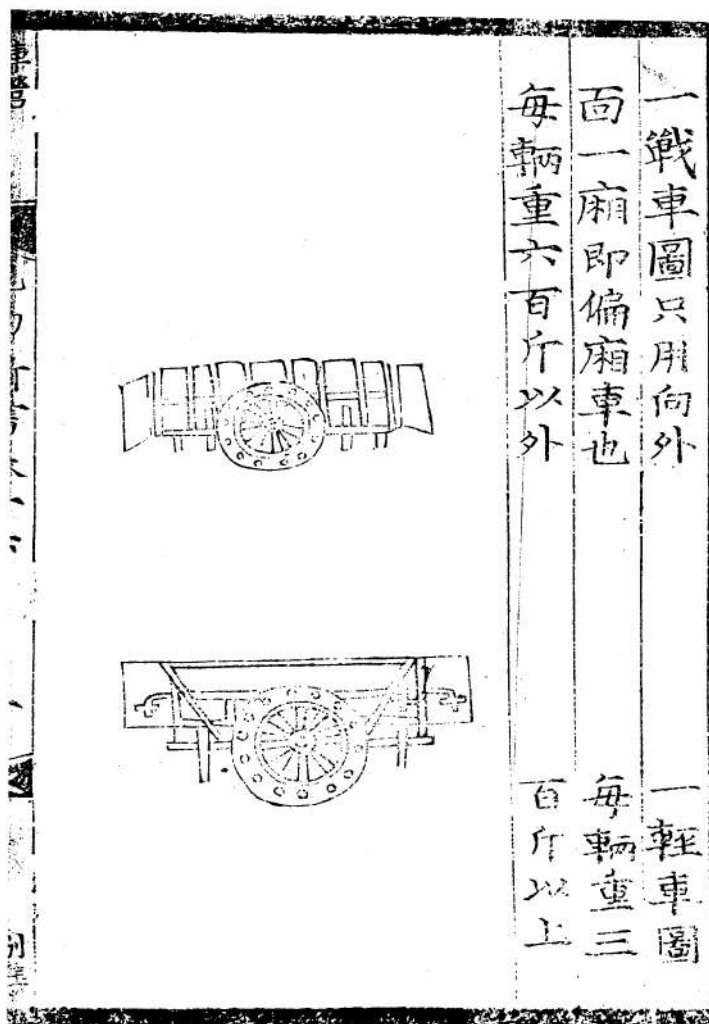
갑인신장명 명문장(甲寅神將名明文章)

[紀效新書(下)]

권16 별집 거영편[別集 車營篇]

■ 권16 별집 거영편[別集 車營篇]

【그림 111】



1. 전거도(戰車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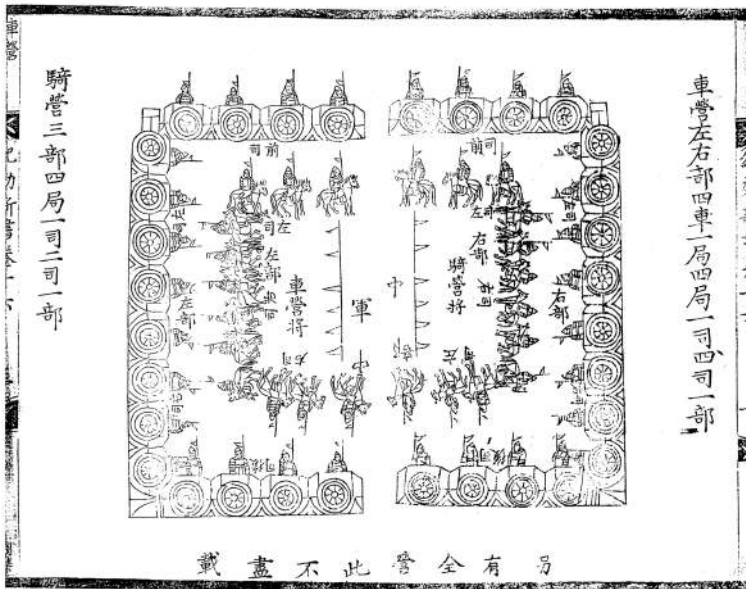
다만 바깥 쪽을 향해서 사용하는 1상(廂)은 바로 편상거(偏廂車)이다.

매 1량(輛)의 무게 600근(360kg) 이상

1. 경거도(輕車圖)

매 량(輛)의 무게 300근(180kg) 이상

【그림 112】



거영(車營)은 좌부(左部)·우부(右部)로 되어 있는데, 4거(車)를 1국(局)으로 하며, 4국을 1사(司)로 하고, 4사를 1부로 한다.

기영(騎營)은 3부로 되어 있는데, 4국을 1사로 하고, 2사를 1부로 한다.

따로 전영도(全營圖)가 있으나, 여기에는 다 신지 않는다.

■ 거영해[車營解 : 거영에 대한 해설]

지난날, 오랑캐의 철기(鐵騎) 수만이 충돌해 오면 그 형세가 날카로워서 당해내기가 어려웠다. 아군의 진영(陣營)과 대오(隊伍)는 아직 채 정해지지도 못한 채 충격을 받고 격파되었으며, 오랑캐는 형세를 타고 아군을 유린하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또, 오랑캐가 싸우려 하면 아군은 마지못해서 싸우고, 오랑캐가 싸우지 않으려 하면 아군은 오직 눈으로 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형세의 주도권은 늘 저들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항상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어 아군은 두려워하며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사기가 저하되어 이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총독(總督) 담공(譚公)과 지금의 총독이며 전 순무(巡撫)였던 유공(劉公)·양공(楊公)과 순무 왕공(王公)이 직책을 맡으면서부터 거영(車營)을 창립하였다. 근래에 모두 갖추어서 하나하나 밝히어 보고, 시랑(侍郎) 왕공(汪公)이 이를 종합하여 10좌(座)를 한도로 하는 제도가 정해졌다.

매 좌마다 전차(戰車) 128량(輛)을 두고, 매 량마다 두 바퀴에 긴 끌채를 달아 노새 2두(頭)가 끌게 하고, 노새 두 마리의 머리에는 멍에를 채워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에 편리하게 하였다. 그 위에는 편상(偏廂)을 써서 각기 좌우를 따라 안치하였는데, 길이는 1장(丈) 5척(尺)[4.5m], 두 머리에는 각각 문이 있어 열고 닫아 출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수레 위에는 대불랑기(大佛狼機) 2가(架)를 안치하였다. 매 전차마다 군사 20명을 배치하는데, 이를 기(奇)·정(正) 두 대(隊)로 나누었다.

정병(正兵) 1대는 군사가 10명인데, 2명이 노새의 선두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6명은 불랑기 2가를 관리하는데, 매 가마다 3명이다.

거정(車正) 1명은 오로지 전차 위에서 갑옷을 입고 깃발을 잡고 나아가며 멈추는 것을 지휘한다.

타공(舵工) 1명은 전차의 운행을 전담해서 관리하는데, 좌·우·전·후의 전차가 나뉘고 합치면서 간격을 넓게 하기도 하고 좁게 하기도 한다.

기병(奇兵) 1대는 군사가 10명인데, 그 중에 용감하고 사람을 잘 지휘하는 자가 대장(隊長)이 된다.

조총수(鳥銃手) 4명이 장도(長刀)를 겸해서 소지하고 전차 안에 있다가 조총 발사시에는 전차에서 나가 먼저 조총을 발사하고, 적이 가까이 오면 장도를 사용한다.

나이 젊고 신체가 유연한 자 2명을 등패수(籐牌手)로 삼아 전차 안에서 화전(火箭)을 쏘게 하고, 전차에서 나와서는 돌덩어리를 던지는데, 적이 가까이 오면 등패를 쓴다.

또 살기(殺器)를 소지한 자 2명을 당파수(鎗把手)로 충당하여 전차 안에서는 화전을 쏘고, 전차에서 나가서도 화전을 쏘다가, 적이 가까이 오면 당파를 쓴다.

화병(火兵) 1명은 각 대의 취사를 전담하여 관리한다.

모두 그 책임을 분담하여 운용하는데, 군마(軍馬)를 둘러싸고 호위하니, 그 장점은 아래와 같다.

1. 부오(部伍)를 결속시킬 수 있다.

1. 영벽(營壁)으로 삼을 수 있다.

1. 갑주(甲冑)를 대신할 수 있다.

오랑캐의 기마가 무리를 지어 달려오면 그것을 몰아낼 계책이 없었는데, 이 거영(車營)은 참으로 발 달린 성곽이며 꿀 먹지 않는 말이다.

다만, 의지하는 바가 모두 화기(火器)에 있으니, 만약 화기가 없으면 전차가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매 2거(車)를 1연(聯)으로 하고 4거를 1국(局)으로 하여 한 사람의 백총(百總)을 둔다.

16거를 1사(司)로 하여 한사람의 파총(把總)을 둔다.

64거를 1부(部)로 하여 한사람의 천총(千總)을 둔다.

1영(營)의 좌·우부에는 두 사람의 천총과 중군(中軍) 2원(員)을 둔다.

그리고, 고거(鼓車) 2량에는 고수(鼓手) 2명을 채우되, 거정(車正)은 따로 두지 않는다.

화전거(火箭車) 4량과 대장군거(大將軍車) 8량에는 각각 거정 1명을 두되, 화약장(火藥匠)을 거정으로 충당한다.

좌거(座車) 3량에는 각각 거정 1명을 둔다.

전차수의 합계가 17량이며, 타공(舵工)이 17명이다.

전차를 운용하는 군병(軍兵)은, 대장군거와 매 전차마다 20명으로 합계 159명이며, 백총이 1원이다.

원용고거(元戎鼓車)와 화전거(火箭車)와 전거(箭車)는 매 량마다 10명으로 모두 90명이며, 백총이 1원이다. 모두 파총이 1원이며, 천총은 두지 않고 중군이 겸하여 관장한다.

○ 이상 매 1영(營)의 인원 통계는 다음과 같다.

장관(將官) 1원(員)

중군(中軍) 1원

천총(千總) 2원

파총(把總) 9원

백총(百總) 34명(名)

거정(車正) 128명

타공(舵工) 128명

낭기수(狼機手) 768명

대봉수(大棒手) 256명

운대장군화전등거거정군병(運大將軍火箭等車車正軍兵) 234명

기병대장(奇兵隊長) 128명

화병(火兵) 128명

조총수(鳥銃手) 512명

등패수(藤牌手) 266명

당과수(鎗鈹手) 256명

기고조탐가량개로대소장관응용군사(旗鼓爪探架梁開路大小將官應用軍士) 268명

총계 관군 3,109원명(員名)

○ 이상 매 1영(營)의 기고(旗鼓)와 해당 설비(設備)와 정군(征軍)의 화기(火器)와 병기(兵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관인기(將官認旗) 1면(面)

좌독(左纛) 1면

문기(門旗) 2면

오방기(五方旗) 5면

각기(角旗) 4면

고초기(高招旗) 5면

금고기(金鼓旗) 2면

순시기(巡視旗) 10면

천총인기(千總認旗) 3면

과총인기(把總認旗) 9면

백총인기(百總認旗) 34면

거정기(車正旗) 128면

금고(金鼓) 1부(副)

② 불랑기(佛狼機) 265가(架)

자총(子銃) 3,304문(門)

철산(鐵門) 512근(根)

철추(鐵錘) · 철전(鐵剪) 각 256과(把)

철시(鐵匙) · 철추(鐵錐) 각 256과

요심송자(凹心送子) 256건(件)

연자(鉛子) 25,600개(個)

화약(火藥) 7,680근(斤)

화승(火繩) 1,280근(根)

③ 조총(鳥銃) 512문

총대(銃袋) 512개

약통(藥筒) 15,360개

약별(藥鑿) 512개

세화약(細火藥) 3,072근(斤)

화승(火繩) 2,560근(根)

연자(鉛子) 15,360개

삭장(擲杖) 512근(根)

연자모(鉛子模) 34부

화진(火箭) 15,360지(枝)

화전루(火箭簍)와 우조(雨罩) 모두 256개

대곤(大棍) 768근(根)

동과(銅鍋) 144구(口)

통(桶) 144척(隻)

[紀效新書(下)]

권17 별집 기영편[別集 騎營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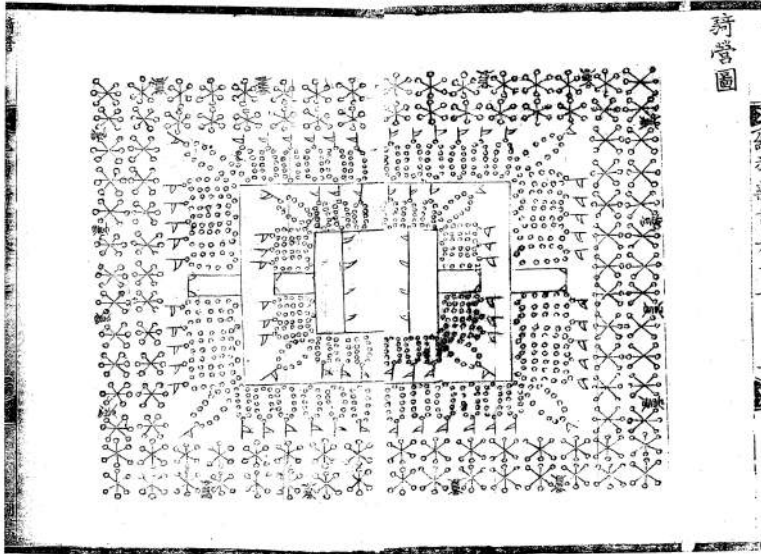
■ 권17 별집 기영편[別集 騎營篇]

【그림 113】



마병입대도(馬兵立隊圖)

【그림 114】



기영도(騎營圖)

▣ 기영해[騎營解 : 기영에 대한 해설]

○ 매 마군(馬軍) 12명(名)을 1대(隊)로 하고 대총(隊總) 1명을 두며, 다음에 조총수(鳥銃手) 2명, 다음에 쾌창수(快鎗手) 2명, 다음에 파수(鈹手) 2명, 창곤수(鎗棍手) 2명, 대봉수(大棒手) 2명, 화병(火兵) 1명으로 한다.

3대(隊)의 합계는 대총(隊總) 3명, 병부(兵夫) 30명, 화병(火兵) 3명이다.

여기에 기총(旗總) 1명을 더하여, 합계 37명으로 1기(旗)를 삼는다.
3기(旗)를 1국(局)으로 삼아, 백총(百總) 1원(員)을 더하면 합계 112원명(員名)이 된다.

4국(局)을 1사(司)로 삼아, 파총(把總) 1원을 더하면 합계 449원명이 된다.

2사(司)를 1부(部)로 삼아, 천총(千總) 1원을 더하면 합계 899원명이 된다.

3부(部)를 1영(營)으로 삼아 장관(將官) 1원과 중군(中軍) 1원을 더하면 합계 2,699원명이 된다.

이상을 중영(中營)으로 하되, 매 영(營)은 장관(將官) 1원, 중군(中軍) 1원, 천총(千總) 3원, 파총(把總) 6원, 신기파총(神器把總) 1원, 백총(百總) 24원, 기총(旗總) 72명, 대총(隊總) 216명, 신기마라(神器馬騾) 90필두(匹頭)로 편성한다.

만약 군(軍)이 출동할 경우에는 3,000 이외에 따로이 대영(大營)을 만들어 1파총사(把總司) 병력(2,699원명)에 1국(局)을 더하여 기고조탐가랑개로대소장관공용군사(旗鼓爪探架梁開路大小將官共用軍士) 288명을 보충하면 총계 2,988원명이 된다.

○ 이상의 마군(馬軍) 1중영(中營)의 기고(旗鼓)와 해당 설비(設備)와 정군(征軍)의 화기(火器)와 병기(兵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관인기(將官認旗) 1면(面)

좌독(左纛) 1면

문기(門旗) 2면

오방기(五方旗) 5면

각기(角旗) 4면

고초기(高招旗) 5면

금고기(金鼓旗) 2면

순시기(巡視旗) 10면

천총인기(千總認旗) 3면

424 『紀效新書』(下)

파총인기(把總認旗) 7면
백총인기(百總認旗) 24면
기총인기(旗總認旗) 72면
대총인기(隊總認旗) 216면
기총배기간(旗總背旗桿) 72근(根)
대총배기간(隊總背旗桿) 216근(根)
금고(金鼓) 1부(副)

② 호준포(虎蹲砲) 60위(位)

철추(鐵錘) 60파(把)
철전(鐵剪) 60파(把)
화선(火線) 900근(根)
약선합(藥線盒) 60개(箇)
화승(火繩) 180근(根)
철추(鐵錐) 60파(把)
화약(火藥) 900근(斤)
대연자(大鉛子) 54,000개(箇)
목마자(木馬子) 1,800개
석자(石子) 1,800개
피루(皮簍) 120개
약승(藥升) 60개
목송(木送) 60근
목랑두(木榔頭) 60개
태가(駄架) 90부(副)

③ 조총(鳥銃) 432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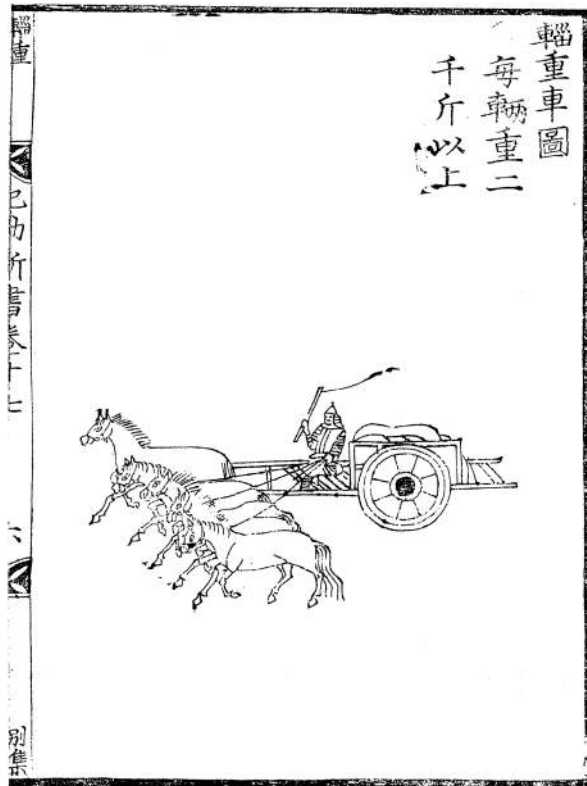
삭장(擲杖) 432근
약별(藥鑿) 432통
약관(藥管) 12,960개

연자대(鉛子袋) 432개
 충투(銃套) 432개
 화약(火藥) 2,592근(斤)
 연자(鉛子) 129,600개
 화승(火繩) 2,160근
 연자모(鉛子模) 24부

④ 쾌창(快鎗) 432간(桿)

삭장(擲杖) 432근
 철추(鐵錐) 432과
 철전(鐵剪) 432과
 약대(藥袋) 432개
 약선통(藥線筒) 432개
 약관(藥管) 12,960개
 연자대(鉛子袋) 432개
 화약(火藥) 4,050근(斤)
 연자(鉛子) 129,600개
 약선(藥線) 216,000근(根)
 화승(火繩) 1,296근(根)
 연자모(鉛子模) 24부(副)
 화전(火箭) 12,920지(枝)
 화전루(火箭簍) 432개
 유조(油罩) 432개
 회(盔) 2,790정(頂)
 갑(甲) 2,790부(副)
 정대(鎧帶) 2,790조(條)
 살대(撒帶) 2,304건(件)
 궁(弓) 1,152장(張)
 현(弦) 2,304조(條)

- 화전(火箭) 1,152지(枝)
우조(雨罩) 1,152개
요도(腰刀) 1,152과(把)
쌍수장도(雙手長刀) 432과
당과(鏡鉞) 432과
창곤(鎗棍) 432근(根)
대봉(大棒) 648근
동과(銅鍋) 216구(口)
거마(拒馬) 648부(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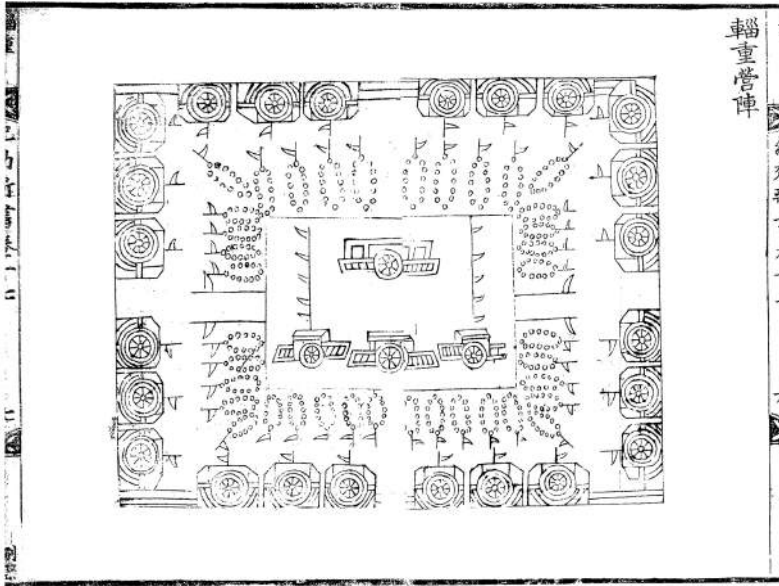


【그림 115】

치중거도

매 차량의 무게 2,000근(斤 : 1,200kg) 이상

【그림 116】



치중영진

▣ 치중영에 대한 해설[輜重營解]

○ 군대가 나아감에 군량(軍糧)이 뒤따라가는 것은 군사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근래 오랑캐가 침범해 들어올 때마다 관군(官軍)은 치중(輜重)이 없다.

오랑캐는 살진 말을 타고 당일로 150여 리를 달리는데, 아군의 마필(馬匹)은 이보다 약하다. 성지(城池)가 있는 소재지로 가면 성문은

모두 잠겨 있고, 월량(月糧)은 창고에 있으며 마초(馬草)는 마당에 두어져 있다.

이렇게 군량과 사료의 대부분이 성내(城內)에 있으니, 매번 지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양료(糧料)의 지급을 기다리다가 보면 반드시 적을 추격하는 것을 그르치게 되고 만다.

대군이 나아가면서 2~3만 가량의 병력을 동원할 경우, 곧바로 성문을 열고 창고에서 군량과 마초를 지급함에, 소량이라 할지라도 금전과 양곡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일일이 호명하여 지급하는데에는 오히려 1~2일을 기다려야 한다.

군량과 마초의 지급이 완료되기를 기다려 오랑캐를 추격하면 오랑캐는 이미 2~3백리를 달아난 뒤가 되고 만다. 관군은 다만 굶어서 주린 배를 안고 오랑캐의 뒤를 쫓아갈 뿐이다. 이와 같이 하여 사흘 뒤에 이르면 굶주림과 피로가 더욱 심해져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쁜 상태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니, 어찌 능히 적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도리어 오랑캐에게 돌격할 수 있는 기회만 주게 될 뿐이니,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

근래 황제(皇帝)의 조명(詔命)을 받들어 새로이 치중영(輜重營)을 창설하였는데, 그 편성은 다음과 같다.

매 1좌(座)마다 대거(大車) 80량(輛)을 배치하고, 매 1량(輛)마다 노새 8두(頭)를 붙인다.

치중거(輜重車) 위에는 편상패(偏廂牌)를 사용하여 성(城)처럼 멀리까지 바라보게 한다.

도달하는 곳마다 사면(四面)에 진영(陣營)을 설치하는데, 매 전거 1량에는 군사 20명을 배치하되,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의 2대(隊)로 나눈다.

정병(正兵) 1대는 군사가 10명이다. 마필을 기를 줄 아는 자 8인으로 하여금 수레에 맨 노새를 다스리고 부리게 하되, 그 안의 6인으로는 랑기(狼機) 2가(架)를 관리하게 하는데, 1가(架)에 3명을 배치한다.

대봉수(大棒手) 2인은 유사시에 노새의 앞길을 수습하는 것을 전담한다.

거정(車正) 1명은 수레의 나아가고 멈춤을 전담 지휘한다.

타공(舵工) 1명은 후방에 머물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다.

기병(奇兵) 1대는 대장(隊長)이 1명이며, 조총수(鳥銃手)가 8명인데, 조총수 가운데 1·2·3·4번째 인원은 장도(長刀)를 겸하여 익히고, 5·6번째 인원은 등패(藤牌)를 겸하여 익히고, 7·8번째 인원은 당과(鎗鈹)를 겸하여 익힌다.

화병(火兵) 1명은 각 대의 취사를 전담 관리한다.

이 기병(奇兵) 1대는 우군을 엄호하는 것을 전담하여 항시 대비한다.

매 치중거(輜重車)마다에 싣는 쌀과 볶은콩이 12석 5두이니, 매 영(營) 1만 인마(人馬)의 3일치 식량이다. 여기에다가 각각 영문(營門)을 나서는 날에 다시 스스로 건량(乾糧) 2~3일분을 휴대하게 하니, 이것으로서 오랑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산해도 쓰임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군사가 나아감에는 항상 배불리 먹어 적과 싸우려는 의기가 약화되지 않게 해야 하니, 이는 모두가 군량 보급과 치중에 의뢰하는 것이다.

○ 매 치중영(輜重營)은 장관(將官) 1원(員)과 중군(中軍) 1원이 전체를 관장하고 천총(千總) 2원이 나누어 관장하되, 파총(把總) 4원은 각각 20량을 관장하며, 백총(百總) 16명은 각각 5량을 관장한다.

중군(中軍)의 원용고거(元戎鼓車) 3량은 각각 노새 2두가 딸리는데, 중군이 거느리고 관리한다.

이를 합계하면 나부(驢夫)가 646명, 거정(車正)이 80명, 타공(舵工)이 80명이다.

원용고거(元戎鼓車) 3량에는 군병 10명씩이 있으니 모두 30명이다.

또, 기병대장(奇兵隊長)이 80명, 총수(銃手)가 640명, 화병(火兵)이 80명이다.

이 모두를 총계하면 1,660명이다.

이밖에 기고조탐가량개로대소장관공용군사(旗鼓爪探架梁開路大小將官共用軍士) 254원명(員名)이 있다.

○ 매 치중거(輜重車)에 싣는 양곡은 다음과 같다.

쌀 2석(石) 5두(斗)

볶은 식량 3석 7두 5승(升)

검은콩 6석 2두 5승

매 치중거(輜重車)에 싣는 양곡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콩과 쌀 300석

볶은 식량 300석

검은콩 500석

○ 매 1치중영(輜重營)의 기고(旗鼓)와 해당 설비(設備)와 정군(征軍)의 화기(火器)와 병기(兵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관인기(將官認旗) 1면(面)

좌독(左纛) 1면

문기(門旗) 2면

오방기(五方旗) 5면

각기(角旗) 4면

고초기(高招旗) 5면

금고기(金鼓旗) 2면

순시기(巡視旗) 8면

2천총인기(二千總認旗) 2면

파총인기(把總認旗) 4면

백총인기(百總認旗) 16면

거정기(車正旗) 80면

대총기(隊總旗) 160면

금고(金鼓) 1부(副)

② 불랑기(佛狼機) 160가(架)

자총(子銃) 1,440문(門)

철산(鐵門) 320근(根)

철추(鐵錘) 160파(把)

철전(鐵剪) 160파(把)

철시(鐵匙) 160파(把)

철추(鐵錐) 160파(把)

요심송자(凹心送子) 160근(根)

화약(火藥) 3,200근(斤)

연자(鉛子) 16,000개(個)

화승(火繩) 800근(根)

③ 조총(鳥銃) 640문

삭장(擲杖) 800근(根)

석별(錫鑿) 640통(筒)

약관(藥管) 19,200개(箇)

연자대(鉛子袋) 640개

총투(銃套) 640개

화약(火藥) 3,840근(斤)

연자(鉛子) 192,000개

화승(火繩) 3,200근

연자모(鉛子模) 16부

대곤(大棍) 160척(隻)

위라유광(喂驃柳筐) 80개(箇)

초조(草筍) 80구(口)

[紀效新書(下)]

권18 별집 등단구수[別集 登壇口授]

■ 권18 별집 등단구수[別集 登壇口授]

등단구수(登壇口授)¹⁰⁷⁾

서로부총병관(西路副總兵官) 이초(李超)와 동로부총병관(東路副總兵官) 호수인(胡守仁)이 함께 편집하다.

이초(李超)와 호수인(胡守仁) 등은 외람되고 용렬하게 계진(薊鎭)¹⁰⁸⁾에 대적하면서 역량에 비해 임무가 중대함이 적합치 못함을 항상 부끄러이 여기고, 임무를 감당치 못하여 일을 그르침을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병이 되어 버렸다.

이곳에 들어와 임무를 맡은 이래로 총독(總督)과 순무(巡撫)를 우러러 받들어 큰 계책을 살피고 관여하면서 총병진(總兵鎭)의 사도(司道)와 군기(軍機)를 총괄하여 먼저 돈대(墩臺) 공사를 일으켜 천험의 요새를 굳히고 아울러 교련(敎鍊)을 실시하여 미풍(靡風)¹⁰⁹⁾을 일으켰다.

변경의 습속과 변경의 기틀에 대해서는 비록 자못 듣고 본 바가 있었지마는 그럴 적마다 팔을 불끈 쥐곤 하였다. 또한 일찍이 생각하건대 우리 총병진은 병주(兵主)¹¹⁰⁾가 우려하는 바이니, 나 이초(李超) 등의 홍모(鴻毛)와 같이 보잘것없는 신명(身命), 이것은 족히 헤아릴 바가 되지 못한다.

107) 등단구수(登壇口授): 이 등단구수(登壇口授)는 척계광(戚繼光)이 직접 집필한 것이 아니고, 그가 계주총병(薊州總兵)으로 있을 때 주변의 장수들을 모아 교육한 내용을 부하인 서로부총병관(西路副總兵官) 이초(李超)와 동로부총병관(東路副總兵官) 호수인(胡守仁)이 함께 기록하여 편집한 것이다. 이 18권에서는 제1차 화자(話者)인 척계광과 그 부하 장수들과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인용 부호를 표기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인용한 말에 대해서만 인용부호 ‘ ’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문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화자가 바뀔 때마다 행간을 한줄씩 떼어서 배열하였다.

108) 계진(薊鎭): 요동지방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진

109) 미풍(靡風): 《논어(論語)·안연(顏淵)》편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반드시 눕게 마련이다[草上之風 必偃]”이라고 하였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110) 병주(兵主):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 또는 군신(軍神)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척계광을 가리킴

경오년(1570) 여름 6월에 여러 변경의 새로 구축하는 돈대(墩臺)의 절반 이상이 건설되었는데, 제부(制府)¹¹¹⁾의 지시에 따라 회동하고 무원(撫院)¹¹²⁾에서 상주한 주본(奏本)을 받들어 조련(操練)을 시행해야 할 일 때문에 공사를 잠시 중지하였다. 이어서 6월 하순에 병주(兵主)의 격문(檄文)을 받들어 시행하는 사이에 삼가 이 일을 생각한다.

과거에는 총병진이 삼둔(三屯)을 누워서 다스리면서도, 제로(諸路)의 손해와 이익, 그리고 흉하고 쇠함에 대해서는 마치 그 형세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진(秦)나라와 월(越)나라의 관계처럼 상관이 없었지가 오래되었다. 관할하는 부서인 삼둔은 표하(標下)¹¹³⁾의 용감하고 건장한 가정(家丁)¹¹⁴⁾ 약 5천여 명으로 능히 군대의 모습을 똑바르게 정돈하여 다스릴 수 있었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니, 이를 일러 상등(上等)의 품색(品色)이라 할 수 있었다.

나 이초(李超) 등은 문득 격서(檄書)를 받들고서는 한편으로 기뻐지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스럽기도 하였다.

기뻐할 바는, 우리 병주(兵主)가 11로(路)의 모든 군진의 역량을 연횡(連橫)함에 있어서, 오랑캐(北虜 : 만주의 여진족)의 대부대를 막는 방도를 깊이 체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염려스러울 바는, 여러 장수들의 누적된 폐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하여 대장이 등단을 해서 하루 이틀 동안 입으로 말하는 등단 구어(登壇口語)만으로는 폐습이 고쳐질 것을 기약한지 수십년 이래로 이미 고질병이 되어버려서 쉽사리 바꿀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6월 21일에 동로협수(東路協守) 호수인(胡守仁)과 서로협수

111) 제부(制府) : 경리(經理)가 지휘하는 사령부

112) 무원(撫院) : 순무사(巡撫使)의 아문(衙門)

113) 표하(標下) : 대장이나 장관(將官)에게 딸린 수하(手下)의 친병(親兵)

114) 가정(家丁) : 將領들이 정식군대 이외에 사사로이 조직하여 구성한 정예부대로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며, 대우는 일반군사에 비해서 높았음

(西路協守) 이초(李超), 준화표하(遵化標下)의 유격(遊擊) 손조량(孫朝梁)·장사의(張士義), 삼둔표하(三屯標下)의 유격 사신(史宸)·왕통(王通)·왕무민(王撫民), 중군도사(中軍都司) 사유능(史惟能), 분수산해(分守山海)의 참장(參將) 관영(管英), 석문채(石門寨)의 참장이진(李珍), 대두영(臺頭營)의 유격 곡승공(谷承功), 연하영(燕河營)의 참장 사강(史綱), 태평채(太平寨)의 참장 나단(羅端), 송봉곡(松棚谷)의 유격 장공립(張拱立), 마란곡(馬蘭谷)의 참장 양(楊鯉)가 아문에 들어왔다.

고원(固原)의 유격 유규(劉葵), 연수(延綏)의 유격 후복원(候服遠), 밀운표하(密雲標下)의 참장 이여가(李如價)·채훈(蔡勛), 유격 왕록(王祿), 장자령(牆子嶺)의 부총병(副總兵) 장신(張臣), 조가채(曹家寨)의 유격 왕정(王旌), 고북(古北)의 부총병 동일원(董一元), 석당령(石塘嶺)의 참장 진훈(陳勛)은 각각 길이 멀고 서방의 방어가 긴요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

제조(提調) 등의 관원인 장응시(張應時)·영조(甯潮)·유상인(劉尙仁)·장연릉(章延廩)·방상(方相)·이천작(李天爵)·주유번(朱維藩) 등은 각 장관(將官) 부하의 중군관(中軍官)·관조서기(管操書記)·장호고취수(掌號鼓吹手)로 쓰고, 삼둔(三屯)의 진성(鎭城)을 모두 집결시켰다.

이날 새벽, 북을 울려 계엄(戒嚴)을 선포하자, 우리 병주(兵主)는 의관을 엄숙히 정제하고 무게 있게 위의(威儀)를 갖추어 대열을 이룬 다음, 지휘소에 올라가 진문(陣門)을 열었다.

나 이초(李超) 등은 군복을 입고 위계의 순서에 따라 달려가 꿇어 엎드려 삼가 공경스럽게 뵈기를 마쳤다.

물러나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니, 병주(兵主)가 장대(將臺) 안에 이르고, 이초(李超)와 호수인(胡守仁)은 뜰 안으로 들어가 북면(北面)하여 읍(揖)하는 예(禮)를 행하고 차례로 늘어섰다.

여러 장수들은 처마 밑에서 두 번 꿇어 엎드리는 예를 행하고, 병주(兵主)는 남면하여 이 예를 받았다. 다음에 각 도사와 체조 중군 등의 관원이 참례를 끝내고 문을 닫았다.

병주(兵主)가 얼굴에 기쁜빛을 띠고 내려와 읍하고 이초(李超) 등을 지지당(止止堂)¹¹⁵⁾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남면(南面)해서 앉았다.

이초(李超)와 호수인(胡守仁)이 손을 드리우고 있는데, 병주(兵主)와의 거리는 겨우 한 자쯤 되었다. 동과 서로 앉았는데, 이초(李超) 등의 뒤에 도사 제조(都司提調)가 모두 차례로 서고 다음으로 중군(中軍) 등 관원이 동면하여 벽 아래에 섰다. 다음으로는 기패관(旗牌官), 영조서수(營操書手), 장호취고수(掌號吹鼓手)가 함께 둘러서서 대청 문 밖에서 모셨다. 그리고 나서 예(禮)를 마쳤다.

이초(李超) 등은 병주(兵主)의 가르쳐 주심이 매우 지성스러워 일만 마디의 말로써 그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어서, 그들은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더구나 이번 행사는 전에 없던 등단구수(登壇口授)의 성대한 행사였다.

이에 호수인(胡守仁) 및 각 장령(將領)들은 미리 총명하고 눈치 빠른 서수(書手) 각 1인씩을 뽑아서 따라오게 하였다. 가만히 필기도구를 갖추고 청사 서벽(西壁)에 배치하여 서기 1명마다 한 구절씩을 기록하게 하고는 각기 호수(號數)를 나누어 이를 차례로 엮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였다.

이 때문에 병주(兵主)가 사흘 동안 가르쳐준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생각할 겨를은 없었으나, 그 내용은 모두가 여러 입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절도(節度)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또한 이 일을 한 사람들도 그들이 기록하고 모은 것을 감히 앞뒤를 뒤바꾸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모두 합쳐서 엮어 놓으니, 마치 평소애 이룩해 놓은 것과 똑같았다.

한참을 낮아 있으니, 천기(天氣)가 바야흐로 무더워 여러 장교(將校)와 사졸(士卒)들은 땀을 비처럼 흘렸으나 감히 손을 젖는 자가 없었다. 병주(兵主)는 남방에서 생산된 오선(吳扇) 부채 1백여

115) 지지당(止止堂) : 지지당(止止堂)은 척계광(戚繼光)의 당호(堂號)로서, 여기서는 그의 집무실을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추정됨

자루를 내놓아 나 이초(李超)로부터 취고수(吹鼓手)에 이르기까지 각각 한 자루씩 나누어주고, 인하여 부채질하여 땀을 식히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채마밭에서 따온 오이를 바치는 자가 있어, 나 이초(李超) 등에게 각각 3개씩을 주고 병사의 직급 이하에게는 각각 1개씩을 주었다.

이에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계급에는 귀천(貴賤)이 있으나, 신체에는 귀천이 없다. 병주(兵主) 이하 병사의 직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두 개씩 주어라.

이에 장교와 병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위를 잊고 시원함을 느끼며 이를 특별한 대우로 여겼다.

먹기를 마치자, 병주(兵主)가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생각을 고르고 있는데, 여러 장수들은 모두 서 있었다.

이에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말이 길어질 것이니 다시 앉으라.

병주(兵主)가 다시 말하였다.

제군이 오늘 함께 앉은 곳, 이곳은 어디인가?

여러 사람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곳은 세 칸의 방이 아니다. 바로 한 척의 배이다. 배가 새거나, 또는 풍파(風波)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는데, 만약 잠자고 싶은 자는

잠자고, 앉아 있고 싶은 자는 앉아 있고, 원수처럼 반목하여 각기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장차 배는 풍랑(風浪)에 휩쓸려 표류(漂流)하다가 파선(破船)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어질고 어리석음이나 은인과 원수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이러한 때를 만나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원수끼리라도 이미 한 배를 탔으면, 평일에 서로 알지 못하는 자이건 평일에 원수로 지내던 자이건을 막론하고 환난을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타수(舵手)는 키를 잡고, 요수(繚手)는 닻줄과 돛줄을 잡음에 마음과 힘을 함께하면 이 배는 강과 바다를 헤치고 나가서 물의 언덕에 다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제멋대로 하도록 맡겨둔다면 여러 사람은 갖가지 마음과 갖가지 길로 갈라져서 제멋대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배는 새고 풍랑은 심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같지를 않아서 다함께 손을 쓰지 않고 한결같이 사력(死力)을 다 하지 않을 것이니, 그 어떤 사람이 이 환난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제군들은 대대로 국가로부터 기쁨을 받음에서 일어난 자의 경우에는 나라의 은혜를 입은 것이 여러 해이며, 초야에서 일어난 자의 경우에는 영예의 빛남이 분수를 넘었다. 직무에 관계되는 일로써 말한다 할지라도 분수로 보아 마땅히 몸을 버려야 할 것이다. 나라의 법으로써 말한다 할지라도 형세로 보아 마땅히 몸을 버려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을 고사하고서라도, 본진(本鎭)이 일찍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무직(武職)에 있는 자는 양손에 편리하고 유익함을 거머쥔 수 있다.’ 하였다. 공을 이룩하면 어버이를 드려내고 이름을 드날리며 벼슬이 더해지고 녹봉(祿俸)이 늘어나니, 이는 바로 한 손에 편리하고 유익함을 거머쥔 것이다.

전진(戰陣)에서 죽으면,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주고 사당(祠堂)을 세워 백대에 걸쳐서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祭祀)가 오래도록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바로 또 한 손에 편리하고 유익함을 거머쥔

것이다. 이는 바로 죽어서도 또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진(本鎭)이 무직을 본 바로는 필경에 사당에서 제사를 받아먹는 자는 적었고 옥에 갇힌 자가 많았었다.

그럼에도 편리하고 유익함을 버리고 요행을 도모하니, 알지 못하겠구나! 50년 전에 장관(將官)이 전진(戰陣)에서 죽었을 적에 같은 전진에 있으면서 달아난 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여러 장수가 말하였다.

오늘은 달아났다 하나 내일은 집에서 죽습니다.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요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이 삶이 몇 날이나 되겠는가? 죄를 지은 귀신이 당시에 삶을 도둑질하여 세상에 남아 있어, 그 편리하고 유익함을 자만하였으나, 곧 오늘에 이르러 사당을 세워 제사하고 하늘이 충신에게 보답하여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편리하고 유익한 것인가?

여러 장수들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병주(兵主)는 다시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아홉 방면의 변경이 비록 오랑캐를 막는다는 것은 다같은 일이나, 오직 계진(薊鎭)의 경우는 다른 여덟 변경의 경우와 다르다. 내 먼저 계진(薊鎭)의 상황을 말하고, 다음에 장관(將官)들의 습성을 말하겠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산협(山峽)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조각조각 끊어져서 격리된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지형이 평평하고 험하지 않아서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따라서, 호마(胡馬)가 수시로 침범하여, 수천 명이 들어오는가 하면, 수백 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십 명도 들어온다. 그때마다 장관이 수시로 경보를 발하여 곧바로 쫓아내고 추격하여 토벌하는 완급의 때에, 그들의 속도는 번개처럼 빨라서 추격할 겨를조차 없으니, 어떻게 병력을 정제하고, 어떻게 무리를 모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특별히 가정(家丁)을 설치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니, 이른바 ‘군사는 정예함에 있는 것이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장관과 가정이 함께 한 곳을 지키면 사람은 진영에서 떠나지 않고 말은 안장을 떨어지지 않은 채로 한 발의 신호포 소리에 재빨리 진문 밖으로 나아가 바야흐로 적을 추급할 수가 있다. 또 말을 도둑질하고 장막과 숙소를 파괴하는 따위의 일을 가지고 평일에 변경에서 있었던 공로로 삼고, 정작 대규모의 오랑캐와 맞닥뜨리면 도리어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고 말하니, 이는 바로 ‘후안무치(厚顏無恥)’한 일이어늘, 오히려 이것으로서 그 신분을 보전한다.

계진(薊鎮)은 경사(京師)에 가까워서 논의가 이미 많았었고, 산천이 가로세로 얹히고 솟히어 험함이 있어 지킬만 하며, 밖으로는 서로 이어지고 한계를 두어 격리됨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계책을 펼칠 수가 없게 한다.

그래서 평시에 보잘것없는 소수의 적이 감히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근본으로 삼을 기반을 세울 수 없게 하고, 조석으로 우리에게 뛰어난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시험할 곳이 없게 만든다.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침범하여, 한 번 침범할 때마다 반드시 동서의 오랑캐가 합세하여 쳐들어오는데, 걸핏하면 수십만이라 일컬으니, 변방의 외부 접경지역이 백여 리로 연장된다. 혹은 머리를 꼬리로

하고 꼬리를 머리로 하여 분산하여 공격하고 집중하여 돌격하면서 반드시 어느 한 곳으로 몰려 들어온다.

들어오면 다시 정예병으로 진영을 설치하여 스스로 고착시키는데, 오랑캐들은 근왕(勤王)의 부대가 며칠이 안되어 집중적으로 몰려와 들어오고 나가기까지의 시일이 길어야 10여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계진(薊鎭)의 상황이다. 우리 계진(薊鎭)의 장수와 병사들은 평일에는 거의 마디만한 공로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적이 대거 침입해 올 적에 임해서는 곧잘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가정(家丁) 수백 명이 보잘것없는 소수의 오랑캐를 엿보고 있다가 곧 이들 몇 급(級)을 죽이니, 이것을 가지고 어찌 능히 그 죄를 덮을 수가 있겠는가?

심지어는 처서 죽일 만한 보잘것없는 소수의 오랑캐가 없으면, 도리어 평민이나 포로로 잡힌 도망병의 목을 베어가지고 와서 공을 세웠다고 보고를 하고 죄를 면할 것을 바라거나, 심지어는 황탄한 말을 하여 상과 명예를 탐내기도 한다.

오늘의 일을 가지고 이것을 언급해 보자.

황탄하여 행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과 가짜 수급(首級)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공이 보잘것없어서 많지 않거나 작은 공도 없으면서, 오랑캐가 침범해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전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단 한번도 교봉하지 않았는데도 되겠는가?

여러 장수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될 일입니다.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이미 안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찌하여 전술(戰術)을 강론하지 않는단 말인가? 계군이 전술을 강론하지 않는 것은 병통이 이치와 욕망이 나란히 서지 못하고, 실사(實事)와 허투(虛套)가 함께 행해

지지 않음에 있다. 이로 말미암아 허투가 습관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전술을 강론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장수들은 평일에는 그래도 총독(總督)과 순무(巡撫)를 두려워하여 총병진(總兵陣)의 경우에는 조련(操練)과 수비(守備)가 청정(淸正)하고 엄숙하며, 대략 총병(總兵)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일단 적정(賊情)이 보고되었을 때에는 총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병마(兵馬)가 총병의 조도(調度)를 거치지 않고, 군령(軍令)이 여러 계통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랑캐가 들어올 때에 이르러서는 총독과 순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은 과실이 있어도 총독과 순무는 옛 관습에 얽매어서 적과의 전투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것이 이해에 영향을 줄 것을 걱정하여 필연코 이를 우선 용서한다.

또 총병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장수들이 잡고 흔들며 갑(甲)은 ‘왼쪽으로 가자.’ 하고 을(乙)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며, 여러 사람이 와글와글 떠들어대어 주장(主張)이 따라갈 방향을 잃게 하니, 그 까닭은 어찌서인가? 그리고 적이 변경에 출현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금의위(錦衣衛)¹¹⁶⁾의 장교가 이르러면 총독과 순무와 총병은 혹은 진중에 없거나, 혹은 경사(京師)로 가고 없으니, 그때에 누구와 더불어 군막(軍幕)에서의 작전을 기획할 것이며, 여러 장수의 실책을 추궁해서 논하자면 누가 다시 이를 들을 것인가?

또한 금의위의 장교는 이미 상사의 직무를 대임(代任)하고서도 이를 조사하고 규명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리 자기 관할지역이라 하여 더욱 우대를 가하여 좋은 말로 칭찬만 해서 그가 자기에게 감동해서

116) 금의위(錦衣衛): 금의친군도지휘사사(錦衣親軍都指揮使司)라고도 한다. 명(明)나라 태조 홍무(洪武) 15년(1382)에 처음 설치하였다. 원래는 황궁을 호위하는 금위군(禁衛軍)과 황제가 출입할 때의 의장(儀狀)을 관리하는 관서였으나, 나중에는 황제의 심복기관으로 변질되어 특령에 따라 형옥(刑獄)을 겸해서 관장하고 순찰과 수사, 체포의 권력까지 주어졌다. 그리하여 중엽 이후로는 동창(東廠)과 서창(西廠)이 병렬하여 특무조직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였다.

필연코 직무에 진력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특히 간활한 무리들이 속임수를 써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많고 적은 상사와 제장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의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서이다.

또 장관(將官)이 교체되어 부임하거나 출정에 수행해야 할 기일에 본관은 아직 출발하지도 않고서 차인(差人)을 경사(京師)에 들어가는 도로와 병부(兵部)의 문앞이나 내부(內府)의 여러 곳에 분포시켜 놓는다. 그리고서는 ‘아무 날 쫓이면 적을 추급할 수 있다.’ 하고 보고가 이르기를 기다리지도 않고서 ‘아무 장관이 적을 추격하고 있다.’고 분분하게 떠들어댄다.

모르겠거니와 3천 명의 군사 가운데 겨우 2~3백 명의 군사도 도착하지 못하고 거리도 1~2백 리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조사하고 규명한단 말인가?

아직 적이 미치는 것이 보이기 전에 약속한 기한이 장차 가까워지면 또 바로 앞에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떠들어대기를, ‘아무 관(官)이 어찌고 저찌고 해서 포위를 당했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교전해서 적을 죽였다.’는 등으로 말을 한다. 그리고, 남의 공로를 시기하여 자기의 원한을 갚으려는 자는 말하기를, ‘아무 관이 아무 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주둔하고 있었는데 왜 구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들추어내기를 ‘본관이 어떻게 교전해서 적을 죽이고 포위망을 돌파해 나왔는가?’라 말한다.

심지어는 임금의 밝으심을 소란스럽게 흔들어대어 송(宋)나라 초기의 명장 왕전빈(王全斌)¹¹⁷의 후촉(後蜀)을 평정한 공로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이 이 지역 사정에 이미 익숙하였기 때문이며 요행이었을 뿐, 다시 사력(死力)을 다한 결과에서였겠느냐?’라고 한다.

117) 왕전빈(王全斌): 송(宋)나라 초기의 명장으로 송(宋)나라 태조 건덕(乾德) 2년(964)에 충무부절도사(忠武府節度使)로서 군사 6만 명을 거느리고 후촉(後蜀)의 14만 대군과 싸워 후촉을 평정하였다.

평일의 사람을 사куп과 왕래함이 이러한 방식이니 크고 작은 마음을 움직이는 실마리를 쓸 줄을 모르고서 크고 작은 재물을 허비하니, 또한 어찌 유사시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하겠는가?

제군은 대부분이 서쪽 지방과 관계가 있는 장수들이므로 가정(家丁)을 거느려서 이를 이기(利器)로 삼고 있는데, 결코 이것만 가지고서 계진(薊鎮)을 보아서는 아니된다.

가정을 모집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본래의 군사들이 사기(士氣)가 허약하고 해이한 상태에서 지방을 지킴에 갑자기 소수의 적이 침범해 들어와 갑자기 경계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일시에 군사를 불러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 장관은 적과 맞닥뜨려 접전함에 반드시 친히 길러서 은혜를 깊이 베푸는 사람들을 얻어서 서로 구원하고 서로 호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제장이 1인마다 통솔하는 한 부대는 병력이 대략 2~3천 명으로, 모두가 똑같지는 않다. 각 장관은 이 2~3천 명의 병력을 정예롭게 강력하게 교련하면서, 여기에 다시 가정 2~3백 명을 소집하여 후하게 길러서 선봉에 충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쪽만을 돌아보다가 저쪽을 잃는, 작은 것을 아끼다가 큰 것을 잃는 경우가 있다.

병사의 말을 가져다가 가정(家丁)이 타도록 제공하거나, 병사의 신역(身役)을 가정의 사역(使役)으로 제공하거나, 병사의 양식을 가정을 먹여살리는 데에 쓰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정 2~3백 명의 마음을 얻고 부하 병사 2~3천 명의 마음을 모두 잃는 것이며, 유용한 군사를 쓸모 없는 곳에다가 놓아 두는 것이다.

이는 조정에서 주는 2~3천 군사의 양향(糧餉)을 낭비하고 겨우 2~3백 명 가정의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정예한 것을 구하려다가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는 데에 이른 것이며, 본래 많은 것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적은 것을 이룬 것이다. 이미 2~3천 명의 병력을

보기를 쓸모없는 숫자로 취급해 버리고, 또 이를 가까이 하여 이를 훈련해서 쓰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군사들을 천한 일에 부리는 사례는 더욱 많아져서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만족시킨다. 그러면서도 여러 장수들은 이것을 이롭게 여기고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겨우 말이나 흠치고 장막을 파괴하는 정도의 일을 공로로 삼고 이것을 오랑캐를 제압할 수 있는 장구한 계책이라고 여긴다.

그러다가, 오랑캐가 대거하여 침입해 옴에 이르러서는 곧 이르기를, ‘오랑캐와는 교봉(交鋒)할 수가 없다.’ ‘당당(堂堂)하게 상대할 수가 없다.’ ‘모두가 신출귀몰(神出鬼沒)하다.’ 하고는, 보잘것없는 소수의 기마(騎馬)를 흠치거나, 참호를 파고 스스로를 굳히니, 이 울타리가 바로 장사들이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폐습인 것이다.

계진(薊鎮)의 장교와 사졸들의 경우, 대규모의 오랑캐가 매번 침범하여 그 형세를 당적할 자가 없음에, 그 위세에 겁을 내어 또한 ‘결코 싸움을 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본진(本鎮)은 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만약 오랑캐와 싸우는 것이 용이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오랑캐가 온다 할지라도 또한 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진(前秦) 부견(苻堅)의 60만 대군을 진(晉)나라의 사현(謝玄)은 8만 군사로 패퇴시켰다.

금(金)나라 울출(兀朮)의 괴지마(拐子馬)¹¹⁸⁾를 송(宋)나라의 악비(岳飛)는 5백 명 군사로 패퇴시켰다. 한(漢)나라 무제(武帝)는 위청(衛青)과 곡거병(霍去病)을 등용하여 흉노(匈奴) 선우(單于)의 왕막(王幕)을 휩쓸

118) 괴자마(拐子馬): 정예기병을 뽑아 대진(大陣)의 좌우익으로 삼아서 상호간에 지원하면서 진격하거나 수비하는 진형(陣形). 일설에는 적과 충돌하여 진영을 함몰시킬 때 가죽끈으로 서로 연결시켜서 묶은 인마(人馬)라고도 함

어버렸다. 우리 태조(朱元璋)는 중산무령왕(中山武寧王) 등을 등용하여 되놈 오랑캐인 몽고(蒙古)를 사막으로 몰아내고 중원을 회복하였다.

그런데도 이 또한 ‘오랑캐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인가? 위청과 곽거병과 사현과 악비와 중산무령왕은 또한 신선이었던가? 이 또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던가?

계진(薊鎮)은 반드시 대거(大舉)하여 적과 대전(大戰)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 대전의 방도는 우리에게 있다. 11로의 모든 군진(軍鎮)의 병력을 합하고, 여러 사람의 힘을 마음을 합하여 한마음으로 하고,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하여 한몸으로 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과 힘을 합하여 따로이 대전을 치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군에게 한번 물어보자.

대전의 방도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가 산정전(筭定戰)이요, 둘째가 사명전(捨命戰)이요, 셋째가 호도전(糊塗戰)이다.

산정전(筭定戰)이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계책한 것을 많이 얻은 것과 계책한 것을 적게 얻은 것, 바로 이것이 산정전(筭定戰)이다.

사명전(捨命戰)이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다만 이르기를, 내가 몸 안의 피를 쏟아 조정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써, 적이 오면 다만 앞을 향하여 나아갈 뿐, 행오(行伍) 등에 대해서는 평일에 정돈하고 단속함을 알지 못하니, 바로 이것이 사명전(捨命戰)이다.

호도전(糊塗戰)이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니, 바로 이것이 호도전(糊塗戰)이다.

병법(兵法)에는 산정전으로 승리를 얻은 산승(筭勝)이 많다.

제군과 더불어 오늘 여기에서 이를 산정(筭定)해 보겠다.

오랑캐 적군들은 오직 궁시(弓矢)를 가지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장점으로 삼고 있다.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이 이 궁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과 같지 못함은 어째서인가? 우리가 궁시를 쏘아서 그들 적군(敵軍) 1백 명이 죽더라도 그들은 아군의 7~8십 명 관군(官軍)을 죽인다.

적은 가까이 접근해서 싸울 경우에 무기는 오직馬上(馬上)의 단도(短刀)와 구자(鉤子)가 있을 뿐이며, 우리도 단도가 있는데도 그들과 같지 못함은 어째서인가? 양측의 칼날이 서로를 베고 자름에 우리가 저들 1백 명을 베고 자르면 저들도 우리들 7~8십 명을 베어 죽인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저들 1백 명을 베고 죽여도 물러서거나 달아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10명만 베어도 곧바로 달아난다.

적은 1인이 3~4마리의 말을 타고 끈다. 또 말은 해를 지내면서도 타지 아니하여 숨소리가 썩썩하며 살이 토실토실하고 건장하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말은 매 군사마다 1필씩 배정된다. 이 말은 평일에는 노역에 차출되어 파리하고 수척하다. 유사시에는 다만 투구와 갑옷, 그리고 군사 자신을 실어나르는 일밖에 하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저들의 말과 맞부닥쳐서 대적하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니, 만약 말에서 내려 지상에서 싸운다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군은 머리에 반드시 투구를 쓰니, 지금 우리의 투구는 외면의 새로운 표지는 비록 볼 만하나, 안쪽에는 철판 한쪽에 두어 개의 구멍이 녹슬어 삭아서 오직 쇠의 형태만 남아 있어 그 허망하게 떨어짐은 마치 삿갓이나 마찬가지이다. 오랑캐가 쏘면 뚫을 수 있고 칼로 베면 벨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투구와 갑옷이 그들과 같지 못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것으로 오직 화기(火器)가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화기에도 또한 병통은 있다.

3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1영(營)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영의 병력이 모두 화기를 소지한다 하더라도 화기는 3천 자루에 불과하니, 유사시에 이를 4면의 영에 배치하면 매 면(面)에 겨우 6백 자루 밖에 되지 않으니, 1영에 이 숫자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또 이 6백 자루를 가지고 일제히 동시에 다 쏘아버릴 수도 없는 것이니, 이는 어떻게 뒤를 이을 것인가를 생각해서이다. 다만, 이를 다시 5개 반(班)으로 나누면 매 반이 1백 자루에 못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진(戰陣)에 임할 적에 죽고 삶이 다만 눈앞에 있거늘, 사람마다 얼굴이 노래지고 입이 마르며 마음이 황란하고 손이 떨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가지의 실수가 저질러지는 것이다. 혹은 납탄알을 먼저 넣거나 혹은 납탄알을 넣는 것을 잊어먹기도 한다. 총구가 원래 비뚤어지고 기울어져서 크고 작음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납탄알도 원래의 총구에 맞지 않거나 뽀족하고 비스듬한 것도 있어서 크고 작음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유사시에 장전을 함에 총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다만 총구 위에 걸쳐 있기만 하는 것도 있고, 총구가 크고 탄알이 작은 것도 있다. 발사할 때에 이르러서 그냥 흘러 나가버리는 것도 있고 약선(藥線)이 꼬여서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 손가락을 써서 침을 발라 꼬아 넣는 경우도 있고, 화선이 없는 것도 있으니, 이러한 따위는 모두 쏘아도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 수효가 무려 2십여 자루에 달한다.

쏘아서 나가도 총의 높고 낮음이 맞지 않거나 습기가 눅눅하여 불이 붙지 않는 것도 4십여 자루에 달하니, 그나마 적을 맞출 수 있는 것은 2십여 자루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적의 넓적다리나 말의 넓적다리를 맞춰서 치명상을 입힐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 가운데 치명적인 부분을 맞아서 죽는 자는 수십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적이 수천 명의 병력으로 충격을 가해 오는 상황에서 십여 명을 맞춰 죽여가지고서야 어떻게 그들을 달아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는 지금 내가 제군과 더불어 아직 진문(陣門)을 나서기 전에 아직 적을 죽이기 전에 이미 먼저 산정해 본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이미 먼저

산정해 본 것처럼 모든 사항이 그와는 같지 않을 것이고, 이미 먼저 산정해 본 것처럼 모든 사항이 그를 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내일이라도 적이 다가온다면 곧 감정에 얽매여 적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호도전(糊塗戰)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전진(戰陣)에 나가서 승리를 취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천하(天下)의 사리(事理)에는 다만 평일에 가지가지로 저들을 이길 승산이 있고 가지가지로 그들보다 강한데도 유사시에는 오히려 지리(地利)와 적정(敵情)이 어떠한가를 몰라서 싸움에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곧 한 가지를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다만 독력으로 하늘에 의지할 것을 도모하려 하니, 세상 사이에 이러한 용병(用兵)의 이치는 없으며, 다과(多寡)를 비교하지 않고 하늘에 의지하는 승리는 있지 않다.

제군은 오늘 여기에서 나가면 심사(心思)를 기울여 생각하고 나서, 내일 건건이 상세하게 나에게 대답하라.

지금, 또 이해(利害)로써 제군에게 다음과 같이 고한다.

적이 만약 내지(內地)로 진입하면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한바탕의 혈전을 하게 될 것이니, 반드시 수천의 진정한 공급(功級 : 전공으로 얻은 수급)이 있어야 바야흐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결단코 모두가 신명(身命)을 버려 전장(戰場)에서 죽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제군은 결코 삶을 도둑질해서 전진(戰陣)에서 결코 살아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니, 제군이 구차하게 살아남으려 해도 본진(本鎭)은 결코 살아서 돌아오게 할 리가 없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렇거니와, 오늘의 군문(軍門)¹¹⁹⁾과 무원(撫院)¹²⁰⁾은 살아

119) 군문(軍門) : 명대(明代)의 총독(總督)과 순무(巡撫)가 지휘하던 군영, 또는 그에 대한 존칭으로 쓰여졌다.

120) 무원(撫院) : 명청(明清)시대에는 순무(巡撫)가 의례히 도찰원(都察院)의 우부도

남는 것을 잊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여 마음이 싸움에서 죽는 데에 있다. 내가 군문과 더불어 15년간을 교제하여, 군문의 평생 포부와 심지(心地)를 깊이 아는 바이다. 군문이 평소에 전진(戰陣)에 임해서는 다만 단기(單騎)로 제군보다 앞장서서 달려나가, 만약 공으로써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정의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여 단연히 관부에서 문서나 관리하는 하급관리에게 욕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군문이 일찍이 본진에게 말하기를, ‘이 체면으로 나아가서 성을 얻지도 못했구나.’라고 하였다. 무원(撫院)은 군문(軍門)과 한몸이니 그때 사도(司道) 등의 아문이 누가 감히 독무(督撫)를 따라서 가지 않겠는가? 독무와 사도는 군문에서 공을 기록하는 사람이니, 나는 공(功)과 상(賞)의 분명하지 않음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제군이 평소의 버릇 때문에 처할 곳이 없게 됨을 염려한다. 평소의 겁 많고 나약함 때문에 처할 곳이 없게 되면 군법(軍法)이 앞에 있으니 잘못을 은폐하고 꾸며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또 지난날, 조병(調兵)¹²¹⁾이나 화패(火牌)¹²²⁾ 등 군문(軍門)의 일은 다만 시작일 뿐이다.

밤을 도와 적을 쫓아 나아갈 경우, 장관은 기한을 어길까 염려하고 군법은 엄중하다. 처음 나갈 때 그 건장한 말과 군센 군사 3천 가운데 불과 2천여 명을 뽑아가지고 감에 식사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로 번개처럼 달리고 별처럼 치달려서 일주야에 곧바로 2~3백 리를 행군한다. 다시는 행오(行伍)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의 있고 없음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루만에 연도에서

어사(右副都御史)나 우첨도어사(右僉都御史)의 직함을 겸하였으므로 이를 무원(撫院)이라고 일컬었다.

121) 조병(調兵) : 병사(兵士)들을 훈련(訓練)시키거나 군대(軍隊)를 징발(徵發)하여 파견하는 등의 군사행동을 가리킨다.

122) 화패(火牌) : 옛날 군중(軍中)에서 사용하던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병사가 각 지에 명령(命令)을 전달할 적에는 화패(火牌) 1면을 지급하여 연도에서 이 패를 증빙하여 각 역참(驛站)에서 양식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로한 사람과 지친 말이 이미 절반이 감소되고, 이틀만에 또 절반이 감소되어, 적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남은 병력이 많아야 2~3백 명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서는 곧 말하기를 ‘아무개가 이미 적을 쫓아 따라잡아 그 적을 죽였다.’는 등등으로 둘러대어 어물어물 넘기려 든다. 군문의 각 상사도 또한 본관의 병력이 얼마가 있고 얼마가 도착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 전체의 진(鎭) 11로에는 주관(主官)인 장관 20여 원에 병력이 5천여 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병법(兵法)》에 말하는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킴은 강한 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¹²³⁾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만 참호를 파고 스스로 지키니, 지금 삼가 명을 받들어 살펴보건대, 정해진 기한이 있어 그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면 죄가 본관에게 미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한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갖가지의 험뜯는 시시비비와 무함이 일어난다.

정해진 바의 원병은 3분지 2가 선발되고, 그 중에 1분은 유사시에 장관이 연도에서 피폐하고 결핍된 수효를 보충하는 데에 스스로 대비할 병력으로 삼는다.

적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반드시 주장을 찾아 개개의 군이 바야흐로 행군하는 사이에 규정된 대로 그 수를 파악할 것이니 그때에 도착하는 바가 가지런히 정제되지 못하면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또 지난날에는 행오(行伍)를 정제하는 질서가 없었다. 아무아무 영(營)인지 분변함이 없었다. 좌우(左右)와 전후(前後)의 영진(營陣)의 구분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도착한 지역에서 여러 장수에게 맡겨서 각각 편리한 지역을 가려 각기 근거로 삼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 위태로움과 패망의 위기에 직면해서는 서로 구하지 않고

123) 《병법(兵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 이 말은 《손자(孫子)》〈모공편(謀攻篇)〉에 나오는 바, 여기에 말한 《병법(兵法)》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을 가리킨다.

심지어는 주장이 구덩이에 빠져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지금 10로(路)를 동서 각 5로(路)로 나누어 주병(主兵)과 객병(客兵)과 원병(援兵)이 각각 1영(營)으로 합하여, 매 영에 방색(方色)과 기호(旗號)를 정하면, 비유컨대 멀리서 일편(一片)의 백기(白旗)가 동쪽으로부터 올 경우, 곧 아무 영(營)이 주장(主將)의 처소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 방향이 백색에 속하니 곧 아무 방향을 향하여 진영을 설치하되 조금도 혼란해서는 안되며, 한 자의 땅이라도 좋은 지형을 가려서 차지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 만약 아무 영이 제멋대로 전진하여 용기를 뽐내거나 본영에 소속된 부대로서 기호의 색깔이 같으면서도 본영의 지시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면 곧 이는 아무 장군의 군마(軍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만약 일제히 물러나 달아날 경우에도 다만 일편의 아무 색깔의 기(旗)만 바라보고서도 곧 알기를 아무 장수가 먼저 달아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교전이 시작될 때에 본진(本鎭)은 마땅히 중앙에 있고, 여러 장교는 각각 자기 부대의 선두가 되며, 장관(將官)의 가정(家丁)은 앞에 위치하여 군사가 좌우에서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행렬처럼 조금씩 비껴 뒤쳐져 가면서 다함께 본진(本陣)의 고초기(高招旗)를 바라본다.

다만, 물러나거나 움츠리는 자가 있으면, 장관은 미리 기패관(旗牌官)에게 명령하여 대기하게 하다가 곧바로 묶어오도록 한다. 이때 어찌 묶어놓고 매를 칠 겨를이 있겠는가? 다만 한 필의 말에 실어 거영(車營)의 독무(督撫)가 소재한 곳에 실어 보내어 그 처치에 맡긴다. 그리고 같은 진영(陣營)의 한 장수가 대신하여 이 무리들을 관장하도록 한다.

매 원병(援兵) 1개 부대는 반드시 주병(主兵)과 객병(客兵)의 장관(將官) 2~3원(員)을 두어 바야흐로 유사시에 대처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적과 맞닥뜨려서는 장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언비어(流言蜚語)와 황탄한 말을 경사(京師)의 요로에 널리 퍼뜨려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관한 한 조항은 이러하다.

적이 침입해 왔을 때를 당해서는 일체를 장관(將官)이 총병(總兵)에게 보고하고, 각 도(道)는 이를 군문(軍門)의 순무(巡撫)나 안찰(按察)에게 전보(轉報)하며, 아울러 사람을 파견하여 경사에 들어가 어지럽게 보고하는 것을 불허한다.

일면으로 미리 각 아문에 청하여 서울에 연하는 대소 연도와 구문(九門)이나 병부(兵部)의 문앞에 대기시켜 앞에 말한 부류의 무리가 있으면 즉시 본관(本管)에게 잡아오되, 후일에 공(功)이 있으면 또한 따라서 감할 것을 논한다.

또 왕왕이 조정의 법도는 다만 총독(總督)과 순무(巡撫)나 총병(總兵)에게만 행해지는데, 대개 조정에서는 그 대장만을 총괄할 뿐이므로, 장수를 거느리는 법은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다.

편장(偏將)과 비장(裨將) 이하 각급 장교들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하기 좋아하면 변경 수비가 견고할 수 없다. 뒤로 물러나 움츠러서 먼저 달아나고 두려워서 피하는 무리들은 모두가 법망을 빠져 달아나 잡히지 않는다.

총병진(總兵鎭)이 전투에 거덜이 나는 판에서도 여러 장수가 여기에 관련하여 단 한사람도 연좌되는 이가 없다가, 부하 군사에 이르러서는 적이 물러나 보이지 않게 된 연후에 조사하고 추궁하니, 이 때문에 무리가윗사람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

본진(本鎭)은 이제 칙유를 받들어 부총병(副總兵) 이하 연병(練兵)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긴 자는 곧바로 군법(軍法)으로 처치할 것이니, 하물며 진진(戰陣)에 임해서는 더 말할 것이 있으랴? 나는 반드시 연병할 때에 앞서서 한번 이를 시험해 보리라.

전진에 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겁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겁을 내지 않는다. 어찌할 겨를이 없이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허다히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평소 조련할 때에

군사를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이고 참장(參將)이나 유격(遊擊)이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포박하여 곤장치는 형벌을 가하면 사람들은 곧 겁을 내고 깨달을 것이다.

지난해에 군문(軍門)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나도 한 권을 만들어 여기에 두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제장들은 대부분 함부로 사람을 차출하여 서울에 들여보내 연좌되지 않고 구차하게 살기를 도모하려 하는데, 앞의 말을 반복해서 거듭 생각하면 옛 버릇을 그대로 행할 수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군법이 결단코 신상에 이르러 간사한 자를 추궁하여 죽음을 피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산 사람은 죽을 길을 달리고, 죽은 사람은 살 길을 달린다.’ 하였다. 어째서인가? 모든 장교와 사졸이 만약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군을 아낀다면, 이 군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련을 할 것이다. 이 조련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에 나아갈 것이다. 이 전진에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적을 이길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군(軍)의 화기(火器)를 다룸에 있어서는 건건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밀하게 만들고, 이 목숨을 버려 마음과 힘을 다한다. 세월이 빠르고 빠름을 애석히 여겨서 행오(行伍)를 정돈 단속한다. 하루가 무사하고 또 하루를 살더라도 일단 유사시에는 부모와 처자와 가정과의 이별을 미리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문을 나섬에 그들과 영별한다. 다만 죽음을 무릅쓰고 방도를 찾아야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으니, 도리어 여기에서 공(功)이 있기도 하며 또한 살아서 돌아오기도 하여, 바야흐로 모든 사람이 수레를 받들며 찬양하니, 이는 ‘바닥이 새는 조각배가 바다를 헤쳐나오는 것이요, 죽은 사람이 살 길을 달린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패배하여 적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만드시 군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는 모두가 다 살 길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 사람이 죽을 길을 달린다.’는 것이다.

대개 오늘은 다만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요긴한 일이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공손히 대답하였다.

병주(兵主)가 다시 말하였다.

나는 제군이 나를 믿고 그동안의 생각을 고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제군의 부곡(部曲)이 제군을 믿고 그동안의 생각을 고치기를 바란다. 제군의 부곡이 제군을 믿고 그동안의 생각을 고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사졸(士卒)들이 부곡을 믿고 그동안의 생각을 고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러한 효과가 이루어지면 나는 제군에게 지성스럽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제군은 부곡에게 새로운 길을 지성스럽게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곡은 사졸에게 새로운 길을 지성스럽게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상하로 하여금 한마음이 되도록 하고 사람사람이 이를 알고 낱낱이 계획을 고치기를 거듭하면, 반드시 수만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이어서 똑같은 것이 되게 하고, 적은 것을 모아서 많은 것을 만들고, 소수의 병력을 합쳐서 다수의 병력으로 만드니, 이는 바야흐로 승산(勝算)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하면 얼마 아니되어 자못 수고로움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다시 청하자,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계진(薊鎭)은 산천이 험준하므로 방어하여 지키기를 굳게 하기가 가장 용이하다. 만약 성 위에서 능히 지켜서 적을 막아 물리친다면 명백한 준례가 있어서, 각각 승진시켜 삼급(三級)을 세습하니, 이는 이른바 중상(重賞)의 하등이다.”

제장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십 년 이래에 방어하여 지키기를 굳게 한 것을 겨우 한두 차례 밖에 볼 수 없었을까? 그때를 생각하건대, 오랑캐들이 때마침 대병(大兵)이 모여있는 곳에 맞닥뜨린 것이라면 이를 수비(守備)의 한 계책이라고 증빙하기가 어렵고, 또 반드시 절대로 수비가 견고한 것이었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한 장수가 말하였다.

비유컨대 만약 성이 평지에 있고 또 사면으로 적을 맞아도 오히려 지킬 수 있거늘, 하물며 변두리의 성곽이 산 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성이 작으면 법령이 쉽게 미친다. 평지에서는 귀와 눈이 서로 듣고보니 누가 감히 먼저 달아나겠는가? 한 성중이 가족과 관계되니 누가 차마 먼저 달아나겠는가?

성 밖으로 나가면 다시 자신과 가정을 보전할 곳이 없으니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는가? 또 한 살받이터(堞)에 소속된 몇 사람이 관부의 여러 두목들과 결속되어 있으니, 이로써 지키면 반드시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변경에 있는 성곽의 원근(遠近)과 고하(高下)는 11로(路)가 거의 2천 리에 달한다. 비록 산악의 험준함이 있고 성곽이 높은 곳에 있다고는 하나 많은 두목들이 한마디 한마디로 절제할 수가 없다. 높은 산 위에서는 경과하는 변경 성곽과의 거리가 직선으로는 겨우 10리에 불과

하나, 산 속을 구불구불 에워싸고 돌아서 걸핏하면 20~30리가 되기도 하여 응원병이 쉽게 미칠 수가 없다.

장관이 독찰할 때에도 보행으로는 힘이 미치지 못하고 말을 타고 서는 험한 곳을 오를 수가 없으며, 수레를 타도 또한 그 속도가 더디므로 수십 리의 산을 군사들에게만 맡겨서 스스로 지키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들은 가족이 성 아래에 있고 성 위에서는 독려하거나 문책하는 일이 없으니, 군사들로 하여금 명령을 따라 오랑캐 적을 쏘고 쳐서 죽이라고 하면 그 누가 이를 알며 혹은 먼저 달아나도 누가 이를 보겠는가?

하물며 변경 성곽의 높이는 불과 한 길 남짓에 두께가 5척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오랑캐의 무리 수만 명이 산등성이의 지세를 타고 곧바로 성 아래로 부닥쳐 내려와서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성위로 집중해 퍼부으면 수십 명에 불과한 한 살받이터의 군사가 서로 밀치고 북적대며 혼란에 빠져 거꾸러지고 떨어져 손을 펴보지도 못한다.

더욱이 소수의 군사가 고립되어 다수의 적과 맞서 형세가 이미 위급한데, 게다가 군사에게 상을 주지 못하고 처벌을 하지 못하는 땅에서 명령을 지키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미 총독과 순무의 명을 받들어 공심돈(空心墩)과 적대(敵臺)와 각 기장(騎牆)을 조성하고 군사들을 가리워주고 서로 돕게 하여 대(臺)에 의지하여 지키게 하였던 바 정면은 지킬 수 있으나, 산등성이에 무리를 이룬 오랑캐가 좌우 양면을 칠 수 있었다.

성벽을 부순 적은 바로 오랑캐의 기마(騎馬)로서 적대(敵臺)와 공심돈을 지향하여 성벽을 파괴하고 들어오니, 적대와 공심돈 두 대 위에서 적의 우두머리임을 알고 여러 대의 총포를 일제히 발사하여 안탄파도아(安灘把都兒), 토만신애(土蠻辛愛) 등이 모두 우리의 공심돈(空心墩)에서 쏜 총포(銃砲)와 시석(矢石)을 맞고 죽었다.

아직 못하겠거니와 이러한 효과는 반드시 훈련(訓練)에 달려 있고

절제(節制)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귀천과 준비와 상하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게 하여 10인을 한 단위로 묶어서 1인의 대장(隊長)을 둔다. 그리고 10인의 대원(隊員)이 대장(隊長)을 보면 두려워하기를 대장(大將) 보듯이 하게 한다. 이와 같이하여 곳곳에 절제된 오(伍)가 있으면 높은 산 궁벽한 고개에도 엄연히 주장(主將)이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명령을 지킬 것이니, 이른바 전투에 훈련이 필요하고, 수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는 군대는 수비가 견고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성곽(城郭)의 대좌(臺座)가 기마의 충격을 당할 경우, 대상(臺上)에 두목이 친히 나와 살받이터 위의 군사 모두를 손가락을 꼽아가며 헤아릴 수가 있다. 아무 군사가 공이 있고, 아무 군사가 먼저 달아난 것을 곧 장부에 기록하고, 산 아래 각 로(路)에는 다시 유병(遊兵)을 설치하여 도망하거나 먼저 달아나는 무리를 체포하면 즉시 죽이고 그 수급(首級)을 가져다가 효시(梟示)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면, 능히 굳게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전군(全軍)을 상등(上等)으로 만들어 싸우지 않고 상대방의 군대를 굴복시킨다.’¹²⁴⁾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최상책(最上策)인 것이다.

병주(兵主)가 이어서 절(節)을 내놓았는데, 독무(督撫)의 방략(方略)과 사도(司道)의 의의(擬議)를 받들어 두 책으로 특별히 편집한 것이었다.

첫째는 명초(明哨)로, 적이 습격하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둘째는 암초(暗哨)로, 적이 길을 끊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셋째는 가포(架砲)로, 적장이 변경에 도착하면 의뢰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는 봉화(烽火)로, 원병(援兵)을 편리하게 조정하고 절도(節度)하기 위한 것이었다.

124) 전군을 굴복시킨다 : 이 말은 《손자(孫子)》〈모공편(謀攻篇)〉에 나오는 바, 원전에는 ‘全軍爲上’과 ‘不戰而屈人之兵’ 서로 다른 대목으로 따로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는 대장(臺牆)으로, 적이 성 아래에 당도하면 대에 의지하여 성곽 담장에 올라가 공격하여 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섯째는 관채(關寨)로, 방어할 때마다 군사를 뽑아내어 소속한 오랑캐가 엄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구절을 따라 나누어 읽게 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강독(講讀)하면서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이를 듣도록 하였다.

그 여섯째 항목인 초수(哨守)의 교습은 따로이 수초서책(守哨書冊)에 실려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강습을 다시 하지 않고 여러 장수들에게 다 보도록 하였다.

강독(講讀)이 끝나자, 병주(兵主)는 깊은 뜻이 담긴 눈빛으로 여러 장수들을 응시하였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공손히 고개를 숙여 ‘네’ ‘네’ 하고 대답하였다.

병주(兵主)가 얼굴빛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네’ ‘네’라고 하는 것은 계진(薊鎮)의 형식적인 허투(虛套)이며 여러 장수들의 고질적인 폐습이다. 그 나머지 자신을 질책하는 실체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내 여러 장수들에게 시험삼아 말해 보고자 한다.

오늘의 일은 이른바 ‘발가는 일은 사내종에게 묻고 베짜는 일은 마땅히 계집종에게 묻는다.¹²⁵⁾’ 한 것과 같으니, 오늘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함께한 당(堂)에 모여서 마음을 열고 성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의논하기를 무려 수만 마디 말로 하였는데, 이는 다만 고질적인 폐습을 고쳐서 실질적인 일을 주체로 하고 실제의 전투와 실제의 공로를 도모하여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맹세할 뿐인 것이다.

125) 발가는 묻는다 : 이 말은 《수서(隋書)》〈유옥전(柳瑊傳)〉에 나온다.

근년에 계진(薊鎮)에서는 고질적인 버릇이 폐습이 되어 무릇 상사에서 명하는 말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다만 ‘네’ ‘네’ 하고 명을 받들며, 심지어는 그 말을 더 미화시키기까지 하니, 이는 속된 말로 ‘마상방자(馬上房子)¹²⁶⁾’라 하겠다. 그러면 ‘마상방자’는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다만 눈앞에서만 알랑거리고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일단 문을 나서면 곧바로 헐뜯는 논의를 일으키고 비난하여 비웃는 것이다. 무릇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시사에 유익하거나 무익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혹은 뜯소문을 말하고 혹은 이의를 말하면서 경사(京師)에 펴뜨리거나 친척이나 동향의 현달한 관리에게 청탁하고, 혹은 병사들에게 투서하고 하소연할 것을 부추긴다.

정사(正使)나 상사(上司)에게 의식을 제공하고 의논이 이루어지면 그 앞에 굽혀서 따라 저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한 뒤에야 말며, 굳게 지키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투훈련을 하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계를 정예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만 내 몸을 편안히 하고 이익을 얻기만을 구차하게 도모한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두 손을 묶어두고 태평스럽게 세월만 보낸다.

후일에 11로(路) 방면으로 적이 내습해 오면, 멈추고 전진함이 1로(路)에 불과할 것이니, 어느 길을 거쳐서 분진(分進)하여 오는지를 알 수 있어서 단 한 개 정강(頂綱)¹²⁷⁾을 격파하여도 총독(總督)과 순무(巡撫)와 총병진(總兵陣)은 이를 가지고 조정의 법률과 기강을 취사선택함이 편리할 것이다.

오늘을 위한 이해와 책성(責成)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다 말하였다. 제장은 반드시 불편한 사체(事體)를 가지고 의논하고 직언(直言)하여 숨기지 말라. 하나하나 당면하여 말을 하되, 일에는 반드시 될

126) 마상방자(馬上房子) :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말에 찬성하는 척하다가, 등 뒤에서는 그 말을 반대하는 경박하고 소신 없는 자를 이르는 말임

127) 정강(頂綱) : 두정강화(頭頂鋼盔), 즉 머리에 쓰는 금속으로 만든 하급 군졸의 투구를 가리킴

것을 구하고 공(功)에는 반드시 이룩할 것을 구하여야 여러 사람이 보전할 것이니, 이 또한 좋지 않은가? 본진(本鎭)은 자신의 허물을 들으면 마치 달콤한 엿을 먹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2년이래에 여러 장수들이 아는 바 총독(總督)과 순무(巡撫)가 사랑하는 재능있고 용감한 장수들의 성실한 말은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자제(子弟)나 수족(手足)과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낡은 허투(虛套)를 제거하지 않으면, 변방(邊方)의 기미(機微)를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겠는가? 결코 견고히 지키고 싸워서 이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제장들 가운데에서 비로소 수비(守備)의 방략(方略)을 청하는 자가 있었고, 전차(戰車)의 방략(方略)을 청하는 자가 있었고, 기구(器具)의 방략(方略)을 청하는 자가 있었고, 수초(守哨)의 방략을 청하는 자가 있었는데, 비록 말은 사람마다 달랐으나 모두 수비전(守備戰)을 위한 실제의 일을 도모하는 것들이었다.

병주(兵主)가 물음에 따라 대답에 따라 혹은 총독이나 순무가 제시한 바의 공문을 점검하고 대조하여 각자 지키기를 굳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더불어 재삼 강론하여 제장이 분명히 안 뒤에야 그만두니, 그 말이 또한 무려 수백만 마디에 달하였다.

때로는 병주를 향해 사졸들의 고통을 말하는 자도 있었다.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주병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량(月糧)과 객병이 출정(出征)할 때, 그 진영(陣營)에 지급(支給)되는 행량(行糧)은 국조의 병사를 먹이는 규정된 제도이니 감히 논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이 일에 따라 무휼(撫恤)하고 절약(節約)하며 아껴서 써야 하는 경우로서, 본진(本鎭)에서는 옛날에 취사에 쓰던 땀감을 모두 가까운 로(路)의 여러 군(軍)에 파송하여 지금 이미 그

렇게 하고 있으며, 스스로 가정(家丁)을 보내서 땀감을 채취하여 쓰고 있다. 12월 그믐에 땀감이 결핍되면 온 집안이 솔뚜껑을 닫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땀감을 얻으며, 그밖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다. 군사가 비록 혜택을 입지 못하나 또한 나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말하였다.

만약 공장(工匠)들을 폐지하여 전투병의 대열에 편입시키고 수행원들을 전투원으로 충당한 다음, 땀나무와 솥을 공급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군사들을 휴식하게 하고 제장이 한 자의 배도 감히 문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병주(兵主)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군사를 애홀하는 것입니다.

제장이 비록 불민하나 근일에 낡은 관례를 고쳐 효과를 얻은 것이 많습니다. 위로는 독무가 지성스럽게 가르치고 경계하는 것은 군사를 애홀하려는 뜻에서 벗어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달이 지급하는 월량을 관급(關給 : 나라에서 군인에게 물품을 내어 줌)하기를 2백 리 밖에서 하니, 공금으로 무휼하고 상을 주는 것이 10분지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병사는 매월 땀감을 채취하여 이를 돈으로 바꾸어 군비(軍費)의 용도로 삼는데, 오직 두세 곳만이 돈이 되고, 깊은 산과 궁벽한 골짜기의 고립된 성채나 한촌(寒村)은 땀감이 있어도 팔지를 못합니다. 비록 땀감을 채취한다는 명목은 있으나 실제로 월량을 빼고 이를 충당하면 매 군사가 한 달에 겨우 은(銀) 1전이 들어올 뿐이니, 기타 차사(差使)를 응대하고 뒤치다꺼리함에 번잡하고 어려움, ‘담당 관리를 예모(禮貌)로써 공경하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는 등의 시비와 압박은 일일이 다 들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변경을 지키는 장령(將領)과 병사(兵士)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장들의 할말이 아직도 미진할 것이다. 나도 또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또 수비전을 교련하고 도모하여 만약 효과를 얻는다면 정정
당당하게 한바탕 적을 죽이고 직분을 다하여 위 조항의 괴로운 일을
본진(本鎭)이 여러 장령과 병사들에게 보증하여 바꾸도록 하겠다. 만
약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착실하게 병사를 훈련하지 못한 채로 진진
(戰陣)에 임해서 적을 죽일 적에 달아나 버린다면 죽어서도 몸을 묻
을 땅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아주 적은 액수의 돈과 양식이라 할
지라도 모두 조정과 백성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니, 도리어 감히 고통
을 말하여 분별없이 다른 말을 끌어대어 자신의 허물을 은폐할 수
있겠는가?

불각중에 해가 이미 신시(申時: 오후 3~5시) 저녁 나절이 된 뒤,
병주(兵主)는 주방 사람들에게 명하여 밥을 식사를 갖추어서 제장에게
주도록 하였다. 식사를 마치자 어둑어둑한 황혼이 되어 제장은 끝내
마음이 쏠리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이날은 등단
(登壇)하여 군령(軍令)을 깨우치는 예를 마쳤다.

다음날 마약 해가 뜨자 병주(兵主)가 다시 장막에 올라 제장이 뵈는
예를 마치고 등단하기를 어제와 같이하니, 삼가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병주(兵主)가 물었다.

어제 말한 것은 다산(多筭)을 위한 계책이었다. 제군에게는 반드시
기발한 견해가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써 나에게 가르쳐주겠는가?

이에 제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무릇 내가 지성을 다하여 천만 마디 말로 제군에게 마음을 고쳐서
일신(一身)을 버리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실로 일전(一戰)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진실로 장령과 병사 수만 명을 일각에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바로 제군을 위한 것이고 장령과 병사들의 살 길을 찾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 장령과 병사들이 공명(功名)과 생명(生命)을 보전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천하의 변란에 처하여 버리고 얻음에 있어서, 버리고서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죽기를 기필하면 살고, 요행히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¹²⁸⁾ 하였으니, ‘죽을 곳에 둔 뒤에 산다.’는 것이 모두 이러한 뜻이다.

오랑캐의 기마는 멀리서 와서 50보 내외에서 궁전(弓箭)으로 우리를 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조총(鳥銃)·쾌창(快鎗)·화전(火箭)·호준포(虎蹲炮)·불랑기(佛狼機)가 있어 모두 나무활의 사정거리를 훨씬 넘는다. 불랑기는 나무활의 사정거리를 지나 사람을 맞추니, 이 다섯 가지 화기로 그들의 화살에 당적하니 제군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는가?

오랑캐의 기마(騎馬)가 몸 가까이 올 경우에는 오직 단도(短刀)가 있을 뿐이니, 길이는 불과 석 자이다. 우리는 지금 파(鈹)·곤(棍)·장창(長鎗)·구창(鉤鎗)·대봉(大棒)이 있어 모두 길이가 7~8척이다. 병법(兵法)에 ‘단병(短兵)은 1치가 길어도 1치가 강하다.’ 했는데, 해도 이 또한 다섯 건이 그들의 칼을 당적하니 제군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는가?

오랑캐는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산이 무너지고 강이 터지듯이 아군을 향하여 돌진해 들어온다. 우리에게서는 거영(車營)이 있고 전차(戰車)에는 화기(火器)가 있어 종일토록 치고 쏘아도 다하지 않는다. 참호를 파서 의지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참호의 험함이 있고, 성곽에 의지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이미 성곽이 있고 진영이 있다. 거영은 가고자 하면 가고 멈추고자 하면 멈춘다. 제군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

128) 《병법(兵法)》에 바라면 죽는다.’ : 이 말은 《오자(吳子)》〈치병편(治兵篇)〉에 나오는 바, 여기에 말한 《병법(兵法)》은 《오자병법(吳子兵法)》을 가리킨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는가?

오랑캐 무리들은 스스로 전투를 하면서 만인이 일제히 힘을 함께 한다. 우리는 절제(節制)와 형명(形名)으로 만인이 일제히 힘을 함께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또 그 틈을 엿보아 적의 허술함을 공격하니, 그 유익함이 허다하다. 제군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는가?

또 ‘오랑캐의 기마(騎馬)는 마약 100여 리를 달려와서 가지가지가 혐오하다.’고 하나, 이 한 가지 계책은 비밀스런 군기(軍機)에 관계되므로 이초(李超) 등은 감히 기록하지 못한다.

병주(兵主)가 또 말하였다.

무릇 우리 표병(標兵)이 먼저 신지(信地)에 가서 응원할 적에는 그 표하(標下)의 거영(車營)은 다만 조총수(鳥銃手)만을 변방의 성장(城牆)에 동원하여 배치하고, 주장(主將)의 거영은 거기에 가까운 곳의 주요 도로나 성지(城池)나 연변의 성(城)을 호위로 삼는다. 중기(重器)는 마땅히 거영에 두고 거영은 서로 의지하여 먼저 위험한 요소가 없도록 보장을 삼는다. 만약 능히 방어하여 오랑캐를 막아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이는 만전의 승리가 될 것이다.

만일 적이 쏟아져 들어와 거영병(車營兵)이 달아나고 거영에 딸린 병마가 달아날 경우, 거영에 딸린 각 로(路)의 원병(援兵)은 봉화(烽火)의 전달이 이르는 것을 보면, 동원이나 파견의 명령을 기다릴 것 없이 달려가서 주장과 진영을 합하여 대부대를 들어 적을 맞이해서 싸운다.

중간에 유사시를 당하였을 적의 방략에 대해서는 지금 비록 구두로 제군에게 전달 전수하기는 하나, 다만 그 변화는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

제장은 귀로 들을 수는 있으나 입으로 전할 수는 없다. 이에 앞서 ‘제로에서 조련한 첨야보하군(尖夜步下軍)은 원병으로 징발 파견될

것을 대기하다가, 다시 적이 모처에 들어오면 각기 연변을 거쳐서 들어온다.’ 하니, 이는 비밀스런 군기(軍機)에 관계되므로 이초(李超) 등은 감히 기록하지 못한다.

병법(兵法)에 바로 ‘그 허술함을 치라.¹²⁹⁾’ 함이 그것이다.

‘거영이 뒤에 있어 독무가 거기에 위치하여 점차로 전진하고 본진(本鎮)은 제장과 함께 있다.’ 하니, 이는 또한 비밀스런 군기(軍機)에 관계되므로 이초(李超) 등은 감히 기록하지 못한다.

‘만약 공을 보상하지 않아서 한을 품고 있는 아무 사람이 있다.’ 하니, 또한 비밀스런 군기(軍機)에 관계되므로 이초(李超) 등은 감히 기록하지 못한다.

모두 다섯 가지의 방략은 이른바 ‘여러 가지 방도로써 적으로 하여금 잘못되게 한다.’¹³⁰⁾는 것이나, 반드시 하나는 적중됨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적은 것을 쓰는 것과 많은 것을 쓰는 것은 같지 않으니, 지금 변경의 군사는 적고 약하다. 본진(本鎮)이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병(兵)은 정예하고 강함에 있는 것이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도(道)에 장수를 두어 또한 다만 개개인이 모두 손자(孫子)나 오자(吳子)가 되어 개개인이 적은 군사를 잘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것과 적은 것은 같지를 앎다.

그리고, 형세가 우리에게 있지를 앎고 적에게 있으니, 적이 계진(薊鎮)에 들어오면 십수만 명의 병력이 움직이는데, 계진(薊鎮)의 주병과 객병도 십만여 명의 병력이 있어서 타진의 사람이 적어서 어찌할

129) 《병법(兵法)》에 ... 허술함을 치라 : 이 말은 《손자(孫子)》〈군쟁편(軍爭篇)〉에 나오는 바, 여기에 말한 《병법(兵法)》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을 가리킨다.

130) 여러 가지 ... 잘못되게 한다: 이 말은 이(李)위(衛)공(公)문(問)대(對) 상권(上卷)과 하권(下卷)에서 이정(李靖)이 당(唐)태종(太宗)에게 말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방략(方略)을 많이 만들어서 적을 잘못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남을 속이기 위한 꾀도(詭道)이며, 기(奇)·정(正)의 운용이다. 고금의 여러 나라가 타국과의 전쟁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함으로써 전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시키려는 술책들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

수 없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즉시 임기 응변으로 적을 상대하여 군을 다스려도 또한 5~6만 이상이 필요할 것이니, 1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도착하면 구름을 홀고 까마귀떼를 모우는 방법을 쓰거나 장령의 가정을 앞에 내세우는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당당히 상대하여 전승(全勝)을 거두어야 할 것이며 추호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양측이 서로 비등한 기량을 쓰면 이로써는 결코 편의를 얻을 수가 없다. 비유컨대 적이 궁시(弓矢)를 쓸 경우에 우리도 궁시를 쓰고, 적이 단도(短刀)를 쓸 경우에 우리도 단도를 쓰고, 적이 기마(騎馬)가 많을 경우에 우리도 기마를 많이 쓰려 한다면, 적이 먼저 이기고 우리는 필경 패할 것이니, 어찌서인가?

양측의 기계(器械)와 군마(軍馬)는 서로 같으니, 반드시 맞닥뜨려서 베고 맞닥뜨려서 죽이고 서로 겨루어 바야흐로 승부를 가르는 수십 만의 무리가 당당히 싸우는 싸움에서 어찌 서로 교전이 시작된 뒤를 기다려서 승부를 가를 것이겠는가?

반드시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건건이 전승(戰勝)을 산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 치의 칼날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단 교전이 시작되면 곧 그들을 쳐서 약간은 유리함을 얻어야 할 것이니, 이는 바로 많은 인원을 운용하는 방도이다.

본진(本鎭)이 비록 불민하나 20년 전에 계진(薊鎭)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 뒤로 10여 년간 동남지방에서 혈전(血戰)을 한 것이 무려 1백여 차례의 전진(戰陣)이었다. 산천과 적정과 기량이 비록 서로 달랐지만 병가(兵家)의 법리(法理)는 실로 부류를 달리함이 없었다.

지금의 산정(筭定)은 비유컨대 다음과 같다. 적이 궁시(弓矢)로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궁시가 우리 몸에 이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손상당하게 해야 한다. 적이 칼로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궁시가 우리 몸에 이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손상당하게 해야 한다. 적이 기마(騎馬)로 충돌해 오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기마가 우리 몸에 이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죽여야 한다.

건건사사를 모두 이와 같이하여야 하니, 이로써 한번 겨루어서 이기면 다수의 병력이 힘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다수 병력이 이겨서 겁을 내지 않을 것이니, 바야흐로 이는 바로 다수 병력을 운용하는 방도인 것이다.

이로써 생각해 보건대 바로 내가 말한 바대로 화기 다섯 가지가 궁시(弓矢) 한 가지를 상대하고, 파(鈹)·곤(棍) 다섯 가지가 단도(短刀) 한 가지를 상대하며, 거영(車營)은 적이 기마로 충격을 가해 오는 것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유형이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강점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파(鈹)·곤(棍) 등의 것들은 너무 길어서 우리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파(鈹)·곤(棍)이 불편한게 아니라, 대개 사람들이 이를 연습하기를 미숙하게 해서이며, 이를 사용하기를 오래 하지 않아서 손에 맞지 않은 때문이다.

하물며 마상(馬上)에 매달려서 한쪽 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한쪽 손으로는 기계를 잡고서 이 무기를 써야 되니, 어찌 능히 수 척 길이의 장창(長鎗)이나 파(鈹)·곤(棍)을 쓸 수가 있겠는가? 중기(重器)로 싸우고 치는 것은 과연 불편하다. 만약 두 손으로 기계를 쓴다면 또 말을 부리지 못하게 되니 더욱 불편할 뿐이다.

이 무기들은 모두 도보전(徒步戰)에 소용되는 무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말은 갑주(甲冑)나 군인을 실어나를 뿐이고, 행로(行路)에 유사시에는 반드시 하마(下馬)해서 도보로 진상(陣上)에서 싸워야 할 것으로 안다.

그대들은 진중(陣中)에 이르러서 단기(短器)는 장기(長器)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만 염려하는데, 바야흐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만약 평시라면 기구의 짧고 작음을 가지고 마상(馬上)에서 일시에 빨리 달리기엔 편리하나, 유사시에 이르러서는 또한 마상에서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마하여 지상에 나열하면 마상의 군기는 또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마니, 그리되면 빈손이나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그대들 여러 군사들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다만 진심으로 신실(信實)하게 군마(軍馬)를 수습하고 지기(志氣)를 진작하면 유사시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본진(本鎭)이 결코 제군을 꺾박하여 몸을 버리게 하여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계책이니, 이러한 처지에 이르러서 바로 제군으로 하여금 죽도록 하겠느냐? 제군으로 하여금 살도록 하겠느냐? 이는 바로 제군에게 공을 세워 호걸이 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병주(兵主)가 가르침을 마치자 이에 이초(李超) 등 제장은 활연히 눈 앞에 가로막힌 것이 없이 환하게 터져서 시원스럽게 깨달음을 얻게 되어 떨 듯이 기뻐다.

병주(兵主)가 다시 동서로 왕복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말로 겸양하면서 특별히 제장에게 그 미치지 못한 바를 가르쳐줄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책상을 놓고 붓을 잡아 무릇 제장이 단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이를 모두 다 기록하였다.

무릇 여러 로(路)의 한 가지 일이라도 닦여지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 것은 다 기록하여 갖추어서 앞으로 진흥시키고 개혁할 차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시각이 이미 한낮이 되자 큰 비가 퍼부었다.

병주(兵主)가 또 말하였다.

연일 제군과 더불어 의논한 바는 비록 모두가 군중(軍中)의 급무이기는 하나 말이 모두 만인이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니, 이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때마침 큰 비가 내린 것은 다름이 아니다.

제군과 더불어 수비전(守備戰)을 훈련시키는 기본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수비전을 훈련시키는 기본은 어디에 있는가?

병주(兵主)는 손으로 가슴 아래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여기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의 응하는 바는 바로 뜻이니, 마치 나무의 씨를 흙에다가 넣는 것과 같다. 비록 종자의 껍질이 은미하게 터져서 하늘에 닿게 아름답리 되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마르고 시들어서 오그라지고 쪼그라들어 한줌도 되지 못하고 겨우 한길 한자 밖에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그 종자가 이미 정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뜻은 바로 지극한 성의이다. 성의가 지극하고 재주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는 이미 좋은 씨를 뿌리고 땅이 기름지지 않은데도 또한 항상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진실로 성심이 없으면 일만 마디의 깨우침을 들어도 또한 가을 바람이 귀를 스쳐지나가는 것일 따름이다. 이는 바로 열등하고 약한 종자를 가지고 하늘에 닿는 재목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반초(班超)¹³¹⁾같은 사람은 원대한 뜻이 만리(萬里)에 있어 끝내 36

131) 반초(班超, 33~102) : 중국 후한 초기의 무장. 흉노의 지배하에 있던 50여 나라를 한(漢)나라에 복종시켰고 중국과 서역(西域)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섬서성(陝西省) 함양(咸陽) 출신. 역사가 반표(班彪)의 아들이며 《한서(漢書)》의 저자 반고(班固)의 동생이다. 학문에 뜻을 두고 수도 낙양(洛陽)으로 가서 궁중도서관의 사서(寫書)가 되었다가, 무인(武人)으로 자원하여 흉노(匈奴) 원정군에 가담하였다. '73년 원정군 장수인 두고(竇固)를 따라 토벌대의 별장(別將)이 되어 큰 공을 세우고, 이후 31년 동안 서역(西域)에 머물면서, 선선(躡善)·우전(于蚊)·소록(疏勒)·구자(龜茲)·언기(焉耆) 등지의 오아시스 제국을 정복하고 부장 감영(甘英)을 페르시아만으로 파견하여 서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동서교류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가 선선국에 사자(使者)로 갔을 때 흉노족의 사신들과 맞닥뜨리자,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不入虎穴 不得虎子』는 말과 함께 흉노 사신단의 거처를 기습 공격하여 이를 섬멸하여 서역일대에 그 용명을 떨쳤다. 반세기 이상 서역에 주재하면서 이 지역의 제국을 토벌하고 흉노의 세력권 안에 있던 50여개국을 한(漢)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복종시켰다. 군사마(軍司馬)에서 장병장사(將兵長史)를 거쳐 서역도호(西域都護)가 되었으며, 정원후(定遠侯)에 봉해

인을 데리고 서역(西域)의 36국(國)을 취하였으니, 옛사람은 한자 한치의 기반도 없이 모두 능히 이렇게 큰 공을 이룩하였다.

지금 우리가 거느리는 병력은 군마 10여 만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륙하고 편달함에 감히 불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어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가지고 조정의 기강을 보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충의(忠義)를 가지고 삼군(三軍)을 호령하니 지금 모든 진(鎭)의 제장이 거느리는 병력은 반초(班超)가 거느렸던 36인의 수보다 적지 않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순(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¹³²⁾’ 하였으니, 유위한 자는 또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다만 뜻을 굳게 하여 종자를 좋게 함이 필요한 것이다.

본진(本鎭)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지위로서는 제장의 윗사람이니 책임으로 말한다면 내가 제장보다 먼저인 것이다.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말이 효과가 없지 않을 것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 만약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면 반드시 삶을 얻을 것이며, 삶을 얻음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병주(兵主)가 이어서 스스로 쓴 《기우우고(紀愚愚稿)》 1책을 꺼내어서 각 장을 짚어가며 제장에게 풀이해 주니, 모두가 병법을 논하는 비결로서 마음을 다스려 호인이 되는 데에 귀감(龜鑑)이 되는 것들이었다. 제장은 비로소 순종하여 감히 다른 논의가 없었다.

해질 무렵에 다시 제장을 머물게 하고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난 후에 각 로(路)의 군수(軍數)를 가지고 책상에 놓게 하니, 제장이 차례로 책상 곁에 이르자 앉을 것을 명하였다.

졌다. 102년에 71세의 나이로 낙양으로 귀환한 다음달에 병사하였다.

132) 순(舜)임금도 사람이다 : 이 대목은 ‘순임금도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므로, 우리도 노력하면 순임금과 같은 성인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바가 없다.’는 말로서 《孟子》〈이루장구(離婁章句) 하(下)〉에 나온다.

본로(本路)의 실제 군수를 일일이 항목을 따져가며 본장(本將)에게 물어서 친히 헤아리고 기록하며, 먼저 여러 로의 돈대(墩臺)와 봉화(烽火)의 적절성 여부와 폐기되거나 해이된 상태를 분별하고, 10여 리에 걸쳐 돈대가 없는 경우에는 봉화를 어떻게 접수하고 전달할 것인가를 판정하였다. 이에 돈군을 의정(擬定)하여 신호를 전달하고 수비하는 방법을 전수하였다.

다시 첨야부오련법(尖夜部伍練法)을 의정(擬定)하였다. 명초 암초가포(架砲) 등이 변천(變遷)되어 온 내력(來歷)을 구분해서 밝혔다. 그 다음, 기마(騎馬) 원병(援兵)은 성곽(城郭)의 적대(敵臺)와 돈대(墩臺) 및 성벽(城壁)의 살반이터에 파견하지 않고 규정된 순행구역인 신지(信地)를 근거로 하여 응원에 전념하면서 급박한 상황의 동원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첨야군(尖夜軍)과 첨야단련보하군(尖夜團練步下軍)을 돕는 원병 동원에 대응하는 방법을 의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성장(成長)과 성타(城躲)에 군사를 배치하는 법을 의정하였는데, 전군(前軍)은 모두 적대(敵臺)와 돈대(墩臺)와 성장(城牆)에 배열하여 적이 들어오면 바로 조발(調發)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음에 노장(路將)이 부하 군사를 스스로 조련하여 성대(城臺)와 성장(城牆)을 지키는 것에 전념하고 조발에 응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정하였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백 명은 노약자로서 사고에 대비하여 그대로 대(臺)와 타(躲)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무릇 잡다하게 차출하고 동원을 하는 폐단을 남김없이 깨끗이 바로 잡으니, 제장이 기빠하고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 11로 원병의 지향해 나아갈 방략을 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비밀스런 군기(軍機)에 해당하므로 미리 누설해서 오랑캐에게 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초(李超) 등은 감히 갖추어 쓰지 못하고 따로이 시행하기만을 오로지 한다.

다음날 교장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정오에 병주(兵主)가 비단옷을 입고 자리에 나오니 제장이 장대 아래에서 맞이하였다.

병주(兵主)가 잔을 들어 이초(李超)와 호수인(胡守仁)에게 주고, 다음에 제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제조에게 주었다.

모두 잔을 받고 네 번 절하니, 병주(兵主)는 이초(李超) 등에게 이렇게 고하였다.

오늘날, 강토를 지키는 국가의 대사는 배를 함께 탄 것과 같은 환난이다. 모든 것을 제장들에게 부탁하여 힘을 다하여 계획하고 실행해 줄 것을 바란다. 공들은 모두 기린각(麒麟閣)과 능연각(凌煙閣)¹³³에 공신으로 모셔져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계획이 어긋나고 막히면 우리는 모두 일시에 뒤집어진 배의 귀신이 될 것이니, 제장은 힘쓰기 바란다.

병주(兵主)는 남쪽을 향하여 한가운데에 앉고 이초(李超)와 호수인(胡守仁) 등은 동향과 서향으로 병주(兵主)와 서로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참장(參將)과 유격(遊擊)은 좌우로 청사 안에 앉고, 도사(都事) 제조(提調)는 처마 밖에 앉았다. 중군관(中軍官)은 장대(將臺) 아래에 앉고, 기패관(旗牌官)과 서기(書記)와 취고수(吹鼓手)는 모두 기고(旗鼓)의 아래에 앉았다.

병주(兵主)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축배로 축복의 뜻을 표하며 가르치는 말을 더하기를 끝마쳤다. 각기 차례에 따라 술을 돌리니 광대가 삼국지(三國志) 이야기를 연출하였다.

이것을 보면서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133) 기린각(麒麟閣)과 능연각(凌煙閣) : 기린각(麒麟閣)은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지은 누각(樓閣)으로 공신(功臣) 11명의 상(像)을 그리어 이 각상(閣上)에 걸었다. 능연각(凌煙閣)은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공신 24명의 얼굴을 그려 걸어 두었던 전각이다. 둘 다 나라에 공로가 있는 신하를 표창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세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나라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 30인이 마음을 함께하여 임금께 보답을 못해서야, 삼국지 이야기 속의 저 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어서 왜이(倭夷)로부터 노획한 투구, 갑옷, 창, 칼, 총 등 도구의 등속을 내놓으니, 제장이 이를 보고 한결같이 혀를 내두르며 말하였다.

그동안에는 다만 왜적을 죽이기가 쉽다고들 말해 왔는데, 이제보니 무기의 야무지고 날카로움이 오랑캐보다 더 낫습니다. 오랑캐는 다만 허세일 뿐이요, 만약 군기(軍器)로 논할진대 열에 하나도 왜적을 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새로 만든 오랑캐를 막을 비창(飛鎗)의 종류를 내놓으니, 제장이 이 모두가 다 이기(利器)로서 믿을 만하다고 여겼다. 또 여러 가지의 새로 만든 군기(軍器)는 쾌창(快鎗)·불랑기(佛狼機)·대도(大刀)·요도(腰刀)·장창(長鎗)·구창(鉤鎗)·화전(火箭) 등 지금까지 계진(薊鎭)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예하고 날카롭지 않아서 비록 수효는 많으나 실용에 도움이 없는 것들에 비하여 건건이 법칙이 있었다.

또, 옛날의 독호대포(毒虎大砲) 같은 경우는 무기가 조악하여 발사하기에 적합지 못한데도 반드시 군마(軍馬)와 영루(營壘)의 수십 보 밖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금 이를 개량하고 여기에 신법(新法)을 더하여 이름을 호준포(虎蹲砲)라 하였으니, 行伍 내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그 일체의 부속물들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정예롭지 않음이 없었으니, 모두를 병주(兵主)가 건건이 몸소 시험하여 제장에게 가르치고, 매 로(路)마다 1부(副)씩 배치하는 것을 격식으로 삼아 위관(委官)을 나누어 배치한 곳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우리 병주(兵主)는 매번에 한 장수를 불러 책상 곁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간절하고 애뜻한 마음 속을 펼치되, 집안의 안부와 살림살이, 자제에 관한 걱정 등에 또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에 제장은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병주(兵主)가 이에 두 번 절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

금번에 시행된 여러 가지 절약과 검약을 위한 간소화로 군사들의 기력이 혹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겠는가?

제장이 다시 군사들의 고통을 갖추어서 말하자, 병주(兵主)는 주르륵 몇 줄기의 눈물을 흘렸다.

아래로 제장에 이르기까지 감회를 억지로 참는 모습이어서 이에 스스로를 낮추어 굽힘이 진실로 죽히 놀라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구습을 본받아 이를 따르지 세월이 오래되어서, 비록 호걸이었다고 하나 또한 일변하여 흥기하지 못하였다.

병주(兵主)가 고개를 숙이고 탄식하니 여러 사람도 또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술 마시기를 끝내자 병주(兵主)는 제장을 거느려 서북쪽 황성(皇城)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해산하였다.

다음날, 병주(兵主)가 장막에 오르자 그대로 처음과 같이 제장이 들어가서 사례한 다음에 겸하여 신지(信地)로 돌아가겠다고 하직을 고하였다.

이때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오늘 본진(本鎭)과 제군은 세 가지를 이겼으니, 하나는 은혜로써 이긴 것이고, 하나는 법으로써 이긴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써 이긴 것이다.

이때 청하는 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였다.

가르침을 받은 바에 의하면 ‘단기(短器)는 장기(長器)를 당적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제장은 비루하고 어리석어 생각하고 해석함에 그 뜻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병주(兵主)는 즉시 공당(公堂)에서 한 군관(軍官)에게 명하여 말을 타고 칼을 잡고서 군영(軍營)의 두 번째 정문인 의문(儀門)으로

부터 자기 앞으로 달려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병주(兵主)가 몸소 군사의 창을 가지고 이를 맞았다. 말의 높이가 3척, 마상(馬上)에 있는 사람의 높이가 3척에 요도(腰刀)는 겨우 3척으로, 말의 목 길이가 또 3척이어서, 상대방의 칼날은 과연 병주(兵主)의 몸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병주의 창날은 이미 말의 배와 사람의 목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살기(殺器)를 이와 같이 시험하니,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날뛰면서 적을 반드시 죽일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초(李超) 등이 다시 청하여 말하였다.

처음 등단(登壇)하시던 날, 가르침을 입은 바 ‘만인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큰 책략이 일만 마디 말보다 나아서 저희 이초(李超) 등은 감동했습니다.

적들이 전진에 닥쳐왔을 적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진을 배열하면, 아군이 적을 향함에 있어서 곧잘 물러나고 움츠러서 정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진(戰陣)에 임해서도 또한 허다한 인원을 목베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먼저 물러나 움츠리는 자를 목베면 병사의 무리가 시끄럽고 소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와 티끌이 휘날려 반드시 적이 가까이 다가와 공격하여 상처를 입힐 것이니, 바야흐로 물러나 달아나는 자를 <도망자를 적발하는> 차인(差人)이 누가 먼저 달아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차인도 적이 가까이 다가와 공격을 하면, 자기 자신도 시석(矢石)과 칼과 창을 피해야 하는데, 사람을 체포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 한두 사람의 부정한 사람을 잡아서 법을 행해도 만인의 무리가 달아나는데 누구와 더불어 잡아서 처단하겠습니까?

본진(本鎭)이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기 《연병조약(練兵條約)》안에 모두 다 기재되어 있다. 시행하는

방법도 갖추어져 있다. 제군이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본진(本鎭)이 제군을 위하여 다시 이를 논해 보겠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장이 통활하는 바는 움직이면 수십 만이니, 만약 전진에 임해서 법이 없으면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 하겠는가? 만약 개개인이 자신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누가 명령을 따르겠는가? 그대들 몇십만 명을 맡아서 우리가 주벌하는 바는 몇 사람에 불과한데도, 너희 수십만 대군이 굳게 결속되지 못함을 걱정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절제(節制)인 것이다.

마치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 것처럼 마디마디가 조절하고 통제한다. 하나로써 열을 관장하고, 열로써 백을 관장하고, 백으로써 천을 관장하고, 천으로써 만을 관장하고, 간편함으로써 번잡함을 제어하는 방법인 것이다.

지금 정해진 원병 3천 명의 1영(營)은 모두 한 가지 색깔의 기호(旗號)이니, 똑같은 빛깔의 백기(白旗)가 아무 영(營)을 이루고, 거기에는 중부(中部)와 좌부(左部)와 우부(右部)가 있어, 유사시에 멀리 한 조각의 백색 깃발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니, 곧바로 아무 영이 교전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겨서 한조각의 백기가 좌부와 우부와 중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일제히 물러나 달아나면, 다만 본영내의 참장 유격 등의 장수 1~2인을 잡아다가 참수하여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그 나머지는 다시 더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만약 혹은 좌부가 먼저 움직이거나, 혹은 우부가 먼저 움직이거나, 혹은 중부가 먼저 움직이면, 다만 해당 부의 천총을 잡아다가 참수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더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이초(李超)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단지 한두 사람만을 처단하면 여러 사람과 더불어 달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만약 앞에서 진영(陣營)을 들어 후퇴하면 반드시 본영(本營)의 주장(主將)을 죽이고, 주장이 감히 물러나지 않고 감히 달아나지 않으면 필연코 전진(戰陣)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죽을 것이니, 본영 주장이 전진에서 죽으면, 그 중군(中軍)과 천총(千總)을 모두 잡아다가 죽인다.

중군과 천총이 전진에 임하여 물러나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본영의 주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니, 만약 주장이 달아나지 않고 싸우다가 무너지는 전진에서 죽으면 그들을 연루하여 참수한다.

중군(中軍)과 천총(千總)과 파총(把總)이 목숨을 걸고 주장(主將)을 보호하여 진두에 서서 싸우면 중군과 천총과 주장 등 4~5명이 어찌 능히 오랑캐를 감당하리오마는 결연히 무너지는 전진(戰陣)에서 함께 죽을 것이다.

그 중군(中軍)의 부하인 잡류(雜流)¹³⁴와 천총(千總)의 부하인 파총(把總)이 물러날 때에 반드시 본관(本管) 천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것이다.

본관 천총이 진두에서 달아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각각 생각하기를 우리가 달아나면 천총이 전진에서 죽을 것이고, 우리 파총은 응당 목숨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각각 생각하기를 진두에서 천총을 보호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길 것이다.

백총(百總)도 천총이 진두에서 달아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다만 자기 관할의 기(旗)와 대(隊)의 병사들이 달아나서 파총이 무너지는 전진에서 죽으면 목숨으로 보상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여 달아나지 않고 파총을 보호하여 진두에서 싸울 것이다.

134) 잡류(雜流): 고대에 사류(士類) 이외 계층의 사람들, 즉 공상(工商), 의복(醫卜), 성상(星相) 및 기타 분야의 기능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지칭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각 부대의 장령(將領)들이 사사로이 거느리는 비정규직 출신의 전문 무예나 전투기술을 보유한 무사집단을 가리킨다.

기총(旗總)도 백총(百總)이 진두에서 달아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전진이 무너질 경우에 백총이 그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달아나지 않고 백총을 보호하여 진두에서 싸울 것이다.

대충도 기총이 진두에서 달아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전진이 무너질 경우에 기총이 공이 없어서 죽음으로 속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달아나지 않고 기총을 보호하여 진두에서 싸울 것이다.

대충이 진두에서 달아나지 않고 무너지는 전진에서 죽으면, 다만 대하의 아홉 병사를 조사해서 죽여 목숨으로 보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아홉 병사가 만약 대충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다면 누가 감히 먼저 달아나겠는가?

이와 같이 미루어보면 바로 3천 명 개개인 모두의 머리 위에 칼이 있는 것과 같으며, 개개인 모두의 다리를 새끼줄로 묶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관절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뒤돌아보고 살펴보아 연좌하여 당기고 끌어서 하나의 잘 움직이는 훌륭한 한 몸뚱아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인이 한마음이 되어서 만인이 힘을 함께 하는 묘방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병법에 이르기를 ‘강한 자가 혼자서 나아가지 못하고, 약한 자가 혼자서 물러나지 못한다.’¹³⁵⁾고 한 것이다.

이초(李超)가 말하였다.

‘약한 자가 혼자서 물러나지 못한다.’는 것은 옳거니와, ‘강한 자가 혼자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병주(兵主)가 말하였다.

135) 강자가 ... 못한다 : 이 말은 《孫子 軍爭篇》에 나오는 ‘사람이 이미 통일되면 용감한 자가 홀로 전진할 수 없고 겁이 많은 자가 홀로 후퇴할 수 없으니, 이것은 많은 병력을 운용하는 방법이다.’[人既專一 則勇者不得獨進 怯者不得獨退 此用衆之法也]라는 대목을 전거로 한 것이다.

이는 바로 다수의 인원을 써서 대적(大敵)을 저당하는 방법이니, 수만 명이 다함께 하나의 힘과 기운을 써서 일제히 죽음을 무릅쓰고 적의 날카로운 기세에 맞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출(兀朮)¹³⁶⁾이 일꾼기를 ‘산을 요동시키고 뒤바꾸는 일은 쉬우나, 약가(岳家)¹³⁷⁾의 1개군을 흔들기는 어렵다.¹³⁸⁾’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효과를 분명히 밝히고 징험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연일 이래로 나의 말은 이미 다하였다. 나의 마음은 그대들이 이미 다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아직 어떠한지를 모르겠다. 만약 그대들이 마음을 써서 듣는다면 단 며칠만에 그 요체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136) 올출(兀朮): 금(金)나라의 명장 완안종필(完顔宗弼). 일명 알철올출(韓啖兀朮), 금태조 완안아골타(完顔阿骨打)의 넷째 아들로써, 기사(騎射)를 잘하여 여러 차례 송(宋)나라를 침범. 악비(岳飛)와 주선진(朱仙鎮)에서 서로 대치하다가 패전하고 회군하려 하는데 마침 악비가 소환되어 남으로 돌아가자 송나라와 화약을 맺었다.

137) 약가(岳家): 남송(南宋)의 명장 악비(岳飛, 1103~1141)를 가리킴. 악비는 남송 초기의 무장(武將)이자 학자이며 서예가로서, 북송이 멸망할 무렵 의용군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았으며, 남송 때 호북(湖北) 일대를 영유하는 대군벌(大軍閥)이 되었지만 무능한 고종(高宗)과 재상 진회(秦檜)에 의해 살해되었다.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서 금(金)나라 군사의 침입으로 북송(北宋)이 멸망할 무렵 의용군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았다. 북송이 망하고 남송 때가 되자 무한(武漢)과 양양(襄陽)을 거점으로 호북(湖北) 일대를 영유하고 남진하는 금(金)나라 군대의 위협세력이 되었다. 그의 군대는 약가군(岳家軍)이라는 정병(精兵)으로, 유광세(劉光世)·한세충(韓世忠)·장준(張俊) 등의 군대와 협력하여 금군의 침공을 회하(淮河)·진령(秦嶺) 선상에서 저지하는 전공을 올렸다. 당시 악비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고 금나라 군대는 점차 세력이 약화되어 갔다. 하지만 당시 남송 조정에서는 재상인 진회(秦檜)가 금나라와 화평론(和平論)을 주장하였으며 연일 승전보를 알려오는 악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주전파(主戰派)인 군벌과 이상파(理想派)의 관료들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었고 1141년 금나라와 강화를 주장하였던 재상 진회는 군벌끼리의 불화를 틈타서 그들의 군대 지휘권을 박탈하고 중앙군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조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악비는 무고한 누명을 쓰고 투옥된 뒤 39세의 나이에 살해되었다. 진회가 죽은 후 혐의가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구국(救國)의 영웅으로 악왕묘(岳王廟)에 배향되었다. 1914년 이후에는 관우(關羽)와 함께 무묘(武廟)에 합사(合祀)되었다. 학자로서도 뛰어났으며, 저서 《악충무왕집(岳忠武王集)》이 있다.

138) 《송사(宋史) 악비전(岳飛傳)》

그러나 그대들이 마음을 써서 듣지 않다면 그대들을 1년을 머물게 해 두고 그대들과 더불어 1년을 강론한들 어디에 쓸 데가 있을 것인가?

대저 지금의 사태로 보면 우리가 조정으로부터 국토를 지켜야 할 중대한 임무를 맡았으니, 다만 이로써 조정에 죽음으로 보답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한갓 헛된 죽음은 국사에는 무익한 것이니, 죽음 가운데에서 삶을 찾는 것만 못하다. 이 죽음 가운데에서 삶을 찾는 것은 모두가 만인이 한마음을 갖는 데에 있다.

만약 오늘 적이 오면 나는 성장(城牆)이 있어 의지할 수가 있고, 적대(敵臺)와 돈대(墩臺)가 있어 지킬 수가 있으며, 초탐(哨探)이 분명하고 호령(號令)이 분명하고 법도(法度)가 분명하여 성장(城牆) 위에 둘러서서 막으니 이는 큰 공(功)이다.

만일 일단 제대로 막지 못하여 적이 성장(城牆)으로 진입하여 싸우게 되면, 이제 그들의 수단과 기량을 비교하여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구와 법령 등 여러 건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으므로 지금 거듭 말하지 않겠다.

다만 만인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만인이 한마음이 되기 위한 노력이 비록 많다 하나 본진(本鎭)이 말한 바 연좌(連坐)도 또한 평일의 노력이 필요한 한 가지의 일이다. 여기에는 개개의 절도와 요점이 있으니, 이는 바로 군문과 순무의 지휘소와 본진과 제장의 호령을 믿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도경(道經)과 불법(佛法)에서 말하는 천당(天堂)과 지옥(地獄)의 윤회(輪廻)나 보응(報應)의 설(說)과 같은 것이니, 사람들은 곧 그것을 믿는다. 천하의 사람들은 사당(祠堂) 안으로 달려 들어가 곧잘 그것을 두려워하곤 한다.

그대들이 지금 만약 나의 호령을 가지고 마땅히 도경과 불법을 모두가 들어서 믿는 것과 같이하고, 윤회와 보응에 대해서 모두가 두려

워서 별별 떠는 것과 같이하여, 사람마다 따르며 지키고 개개인이 공경하여 복종한다면, 바로 만인이 한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적이 오면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데도, 그리고 이 싸움은 불과 해를 앞서서 죽는 것인데도 도망가기를 좋아한다. 지금 달아날 곳이 없음에도, 달아나는 자는 잡아와서 앞에 말한 연좌법에 비추어 처벌하니, 달아나도 죽고 싸워도 죽는다. 다만 이 죽음 속에는 편익함이 분간이 되니 곧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다.

이 만인이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는 바로 지옥이다. 이는 바로 악보(惡報)이다.

그대들은 지금 진실로 만인이 한마음이 되어 적이 왔을 때 다함께 지키고 힘을 다하면 지킬 수 있다.

일만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일제히 싸우되, 힘을 다하면 지금 우리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기계(器械)가 있으니 그들이 대거하여 쳐들어와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때에 공을 세워 관계(官階)가 올라가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천당이다. 이것이 바로 선보(善報)이니, 이 어찌 만인이 한마음으로 보응함이 아니겠는가?

이 가르치고 조련하는 문서의 기록은 그대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달픈 일들로 여겨지나, 나는 스스로 그대들에게 무겁고 큰 상(賞)을 내리는 것이다.

그대 고수는 보통 때의 고수에 비할 바가 아니니, 그대는 반드시 마음을 써야 한다. 그대의 한 북소리에 몇만 명이 모두 전진하고, 그대의 한 정소리에 몇만 명이 모두 후퇴한다. 그러므로 이 호령 하나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그대의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대는 이 한 번의 오고감에 있어서 다만 이 말을 군사들에게 전하여 사람마다 믿고 복종하게 하여야 하며 글자글자마다 준수하여 만인이 한마음으로 조정의 대사에 보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계진(薊鎮)의 일은 오직 당당히 한차례 대전(大戰)을 결행

함이 있을 뿐이요, 대전의 전술은 바로 만인이 한마음이 되어 수만 명이 다함께 한번 죽는 길뿐이다. 그리하여 되놈 오랑캐들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게 하여 저들이 한번 패한 후에는 곧 십수 년의 편안함이 있어 십수 년 동안 국가가 우리를 생양(生養)하고 수용(受用)함을 받아 일후에는 우리 군사가 모두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난날의 옛 버릇을 배우고자 하여 적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약한 적을 탐내어 이것을 공로로 삼고, 공이 없으면 평민을 죽여 그 머리를 숫자로 채우려고 하면 결코 안될 것이다.

포로가 된 평민이나 도망병 등을 죽이고 목을 베어 천리를 해치고 자손을 절멸시킨다면, 너희와 내가 모두 이 칼끝 위에서 공명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나는 군문에 종사하여 동남 지방에서 백전을 경험하였는데 모두 다 천리(天理)의 보응(報應)에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오늘이 있는 것이다.

지금, 나는 차라리 공이 없어서 도륙의 형벌을 당할지언정, 결코 그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와서 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례는 수천을 헤아릴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결코 이를 금지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이른바 뜻을 세우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다만 일시의 기운이 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대들은 마치 바야흐로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고, 마치 바야흐로 냇물이 이르는 것과 같으니 뜻과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삼군(三軍)을 고동(鼓動)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말을 다하노니, 힘쓸지어다! 힘쓸지어다!

이초(李超) 등이 말하였다.

병주(兵主)께서 이상에서 가르치고 깨우쳐주신 것들은 무려 수만 마디의 말씀들이었는데, 이에 그 큰 것만 기록했을 따름이다.

물음에 따른 것들과 대답에 따른 것들은 조목을 나누고 세세히 분석해서 의지가 담긴 말을 옮겼다. 이 밖에도 다시 무려 수십만 마디의 가르침이 있으나, 붓대를 잡은 자가 능히 다 쓸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수년 동안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가, 우러러 우리 병주(兵主)를 의지하니 하루 아침에 취하여 꿈꾸는 가운데 끝어서 깨우쳐 주셨다.

이초(李超)와 호수인(胡守仁) 등은 경사(慶事)스럽고 다행(多幸)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와 머리를 조아리고 기록하여 제장에게 나누어 주고 띠에 써서[書紳]¹³⁹⁾ 함께 격려하노라.

139) 띠에 써서[書紳] : 이 말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허리띠 위에다가 써놓는 것을 말한다. 《論語》에서 유래되었다. “자장(子張)이 행(行)해짐에 대해서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이 충신(忠信)하고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거니와, 말이 충신하지 못하고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스럽지 못하면 비록 주리(州里)라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겠는가?’하시니, 자장이 이 말씀을 띠에 써 두었다.” [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 子張書諸紳] 《論語 衛靈公》